

| 대학 강사의 국어 능력 증진을 위한 |

# 국어문화학교 특별 과정 교재



국립국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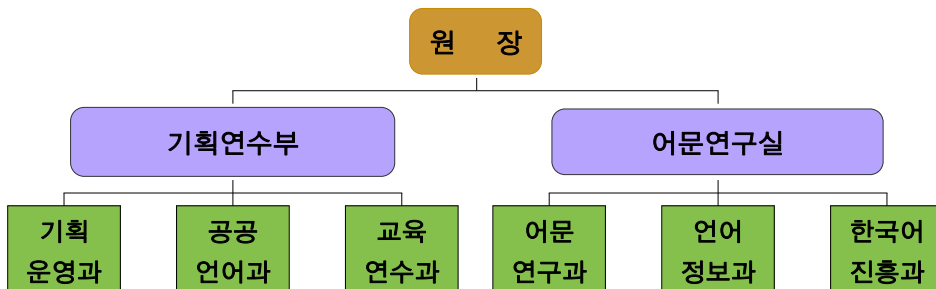


## 국립국어원 소개

### 설 립 목 적

- ▶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활동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함.
- 국어·언어 정책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언어와 문자의 정보 자원 구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공공 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국어 관련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 국어·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 조 직



<p><b>기획 연수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획운영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 서무, 인사, 예산·회계 및 결산, 청사와 시설 관리,</li> <li>■ 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조정·분석,</li> <li>■ 국회 관련 업무, 감사 및 사정 업무,</li> <li>■ 국어 관련 홍보물의 제작·보급,</li> <li>■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li> </ul> </li> <li>◆ <b>공공언어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언어의 소통성 및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li> <li>■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품격 향상에 관한 사항</li> <li>■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li> <li>■ 국민의 국어능력·국어 의식·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li> <li>■ 올바른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li> </ul> </li> <li>◆ <b>교육연수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li> <li>■ 국어문화학교와 국어 전문 교육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국어 관련 기관과 국어 관련직 종사자를 위한 국어 교육 연수·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li> <li>■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ul> </li> </ul>
<p><b>어문 연구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어문연구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언어 정책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li> <li>■ 국어·언어 관련 정책 통계 생성 및 수집</li> <li>■ 언어와 문자, 어문규범 및 언어 소외 계층을 위한 특수언어 등에 대한 조사·연구</li> <li>■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li> <li>■ 남북 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li> <li>■ 국어 관련 분야 국내외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li> <li>■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li> </ul> </li> <li>◆ <b>언어정보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표준화 관련 연구 및 실태 조사</li> <li>■ 언어와 문자의 정보 자원 구축·관리 및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li> <li>■ 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이나 자료 등의 수집·관리·연구·조사·발간</li> <li>■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li> </ul> </li> <li>◆ <b>한국어진흥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li> <li>■ 한국어 교재와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li> <li>■ 한국어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li> <li>■ 한국어 교육자 및 교육 기관 간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li> </ul> </li> </ul>



(1)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검색 서비스 및 국어 관련 정보 제공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에서 ‘표준국어대사전’, ‘국어연감’ 등의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국어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어문 규정, 정기 간행물, 연구 보고서, 소장 자료, 국어 논저, 기사, 공개 자료실 등).

(2) 국어생활종합상담실(가나다 전화: 1599-9979)

- 상담 시간: 월~금, 09:00~18:00, 전화 상담원이 국어 어문 규범을 비롯한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
- 묻고 답하기: 국립국어원 누리집 게시판에서 국어 관련 상담.

(3) 국어 정보지 발간·배포

- 계간지 ‘새국어생활’: 국어 생활 전반의 관심거리를 다루어, 국민의 국어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고자 발간·배포함.
-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국어 관련 소식 제공과 국어원 활동 홍보를 위해 달마다 발간하여 전자 우편으로 발송함. 정기 수신 요청은 [news@korean.go.kr](mailto:news@korean.go.kr)로.

(4)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http://malteo.korean.go.kr>)

- 국립국어원에서는 1991년 개원 이래 일본어 투 용어, 어려운 한자어, 서양식 외래어 등을 순화해 왔음. 2003년 ‘우리말 순화 자료집(합본)’ 발간 이후, 2004년 7월부터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

(5) 디지털 한글 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한글 자료 통합 관리 체계.
- 한글문화 유산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덧붙인 디지털 전시관(한글의 탄생과 역사/아름다운 한글/생활 속 한글/ 한글과 교육/ 한글의 진화와 미래/학술 정보관) 운영.

## 국어문화학교 소개

### 개 관

국어기본법 및 그 시행령의 시행(2005. 7. 28.)과 더불어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업체 등 공공 기관 종사자의 국어 재교육의 필요성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국어전문교육과정’을 수강생의 다양한 학습 목적과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이 신청하면 국어 전문 강사가 요청 기관에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국어 관련 강좌와 교재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은 영 목 적

국어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을 키워 줌으로써, 의사소통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은 영 현 황

국립국어원에서는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여 국민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1992년부터 국어문화학교를 개설하여 운영 하였다. 현재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국립국어원 원내 국어문화학교 수강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1년에는 약 1,300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약 3,100명에 이르러 13년간 약 2만 9천 명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는 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의 관심과 학습 욕구가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2.	국어반과 번역반을 3일간씩 출판인반, 일반인반, 청소년반, 공무원반으로 운영
1999. 8.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훈련성적평정대상 전문교육과정 5일 35시간 (5점 가산)을 승인
1999. 10.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사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 국어반 (5일간, 35시간), 번역반(3일간, 21시간) 운영
2000.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시작
2005. 10.	서울방송 신입사원 국어 교육(신입기자, 아나운서 등 20여 명)
2005. 12.	법제처 국어 전문 과정 교육(법제처 공무원 22명)
2006. 2.	전국 국어상담소 상담원 대상 찾아가는 국어 강좌 공동 연수 개최(전국 10개 국어상담소, 상담원 26명)
2007. 5.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제 개편으로 국어진흥교육팀 신설. 국어문화학교 강의전담 교수 채용
2009. 5.	직제 개편으로 국어능력발전과에서 국어문화학교 관련 업무 수행
2009. 10.	언론·출판인 대상 특별 과정 운영 시작
2009. 11.	공공 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 시작
2009. 12.	국어문화학교 강사 연수회 운영 시작
2010. 6.	정규 과정 외 국가보훈처, 국회사무처 등 원외 기획 과정(15회) 운영
2011.	새터민 대상 표준어 교육 실시 경기도 교육청, 강서 교육청과 업무 협정으로 지역 내 학생 대상 우리말 교실 운영
2012.	대한지적공사, 농촌진흥청과 업무 협정으로 특별 과정 운영 지역아동센터 우리말 교실 운영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 특별 과정 운영 시작
2013.	국어문화시민강좌, 대학강사 어문 규정 특별 과정 운영, 온라인국어문화학교, 온라인 기획과정 운영 확대, 지역아동센터 쓱쓱 국어 교실 운영

##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수강자의 연도별 증가 추이

연 도	과 정	국어전문교육과정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개설 횟수	수강 인원	강의 횟수	수강 인원
2001년		19	1,292	123	15,412
2002년		19	1,452	185	16,970
2003년		16	1,486	157	17,890
2004년		17	1,458	176	16,332
2005년		17	1,765	195	15,655
2006년		18	1,921	190	12,926
2007년		22	2,354	253	19,305
2008년		24	2,443	148	10,275
2009년		27	2,733	297	19,062
2010년		35	3,174	316	27,804
2011년		29	2,701	334	28,689
2012년		36	3,841	486	34,347
2013년		25	3,141	504	25,264
합 계		304	29,761	3,364	259,931

## 교육 과정 안내

### (1) 국어전문교육과정(원내 국어문화학교)

#### (가) 공무원 및 일반인반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참조.
- 신청 자격: 직업·연령 제한 없음.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662, 9729 / 전송 (02)2669-9787
  - \* 공무원의 경우, 교육 시간 35시간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한글 맞춤법(Ⅰ, Ⅱ), 띄어쓰기,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공문서 바로 쓰기(Ⅰ, Ⅱ), 글쓰기 지도, 협력적 의사소통, 우리말 다듬기, 훈민정음의 이해, 쉬운 언어 쓰기, 시청각 학습 등

#### (나) 교사반

- 교육 기간: 동계, 하계 방학 중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누리집(<http://edu.korean.go.kr>)
- 신청 자격: 초·중·고 교사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662, 9729 / 전송 (02)2669-9787
  - \*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이 교사 직무 연수 기관으로 지정받음.
  - \* 교육 시간 30시간, 교육 점수 2점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이론과 실제, 구별해야 할 말, 띄어쓰기, 문장 부호 사용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글을 바르게 읽고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학교 독서 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학교 화법 교육의 이론과 실제, 협력적 의사소통 등

## (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 신청 기간: 수강하고 싶은 달의 전월 15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누리집(<http://edu.korean.go.kr>)
  - 신청 요건: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 수강 인원 30명 이상
  -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어디나 가능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52 / 전송 (02)2669-9787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 **글을 바르게 쓰기**: 쉬운 공공언어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표준 발음법, 효과적인 말하기 등
    - **언어와 문화**: 언어 예절, 우리말과 국어 문화 등
- \*강의료는 국립국어원에서 부담하고 교재도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함.

## (3) 온라인 국어문화학교(<http://edu.korean.go.kr>)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누리집(<http://edu.korean.go.kr>)을 통하여 현재 ‘한글 맞춤법’,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훈민정음의 이해’ 등의 강의를 무료로 수강 신청하고 학습할 수 있음.

# ● ..... ❧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안녕! 우리말 '운동' ❧ ..... ●

## 추진 배경

우리 고유의 말글은 생각과 혼을 담는 그릇으로 겨레 정체성의 근간이며, 문화를 창조하고 전승·발전시키는 창조경제·문화융성의 토대이다.

\* 한글(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 70호이며 유네스코 지정(1997년) 세계기록문화유산

-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가 내린다.” <한글학자 주시경>
- “인간은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할 때 가장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2008년 제18차 세계언어학자대회>

한류 확산에 힘입어 국외에서의 한국어 학습 열기는 높아지는 반면, 국내에서는 어려운 공공언어 사용, 축약·변형 등 국어의 오·남용과 외계어 사용 증가로 국민의 국어 의식과 언어생활이 점차 빈곤화되고,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한 비속어, 저속어 및 폭력적 언어가 확산되고 있으며, 청소년 언어생활이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 (국외) 세종학당 개설 현황 : 2007년 3개국 13개소 → 2013년 52개국 120개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및 한국어 학습의 열기 고조)
- \* (국내) 한글날 공휴일 제외(1991~2012), 세계화의 물결로 한글·한국어 정체성 약화  
공공 부문의 어려운 언어 사용, 방송·인터넷의 저품격 언어 확산,  
청소년의 욕설 일상화 → 한글날이 공휴일 재지정을 계기로, 범국민적 언어문화 개선 운동 필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언어문화 개선 범국민연합(2013. 12. 18. 출범)\*을 중심으로 규범과 일본어투 용어 청산 중심의 정화(순화)운동을 넘어, 언어의 유희적 속성과 문화 창조력, 디지털 언중의 감성을 고려한 다양한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안녕! 우리말’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 \* 한글·국어, 방송·인터넷, 교육·청소년, 네이버·다음·구글 등 1,500여 개 단체 참여
- \* 방송사 아나운서, 배우, 디자이너, 가수, 개그맨 등 ‘우리말 수호천사’로 위촉 (총 19명)

### ❖ 어려운 외래어·외국어로 가득한 공공언어

- 공공부문에서 어려운 전문용어, 외국어·외래어 사용으로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수용도가 낮음.

#### [어려운 용어 사례]

- \* (정책 용어) 레인보우 스쿨(→무지개 학교), 농촌 어메니티 체험(→쾌적한 농촌체험), 클린교차로(→안전교차로), U턴 기업(→국내 복귀 기업), Fast Track 제도(→신속처리제도), Barrier Free(→무장애, 장애 없는)
- \* (공공기관명) 한국잡월드(Job World), 코레일(KORAIL), 코스콤, LH, NH, SH, 케이워터(K-Water)

### ❖ 저품격 언어가 난무하는 방송·인터넷 언어

- 자막 표기 오류 및 불필요한 외국어 남용 등 부적절한 방송언어 심각
- \* 개선 권고 : 2011년 159건 → 2012년 1,267건 → 2013년 6,81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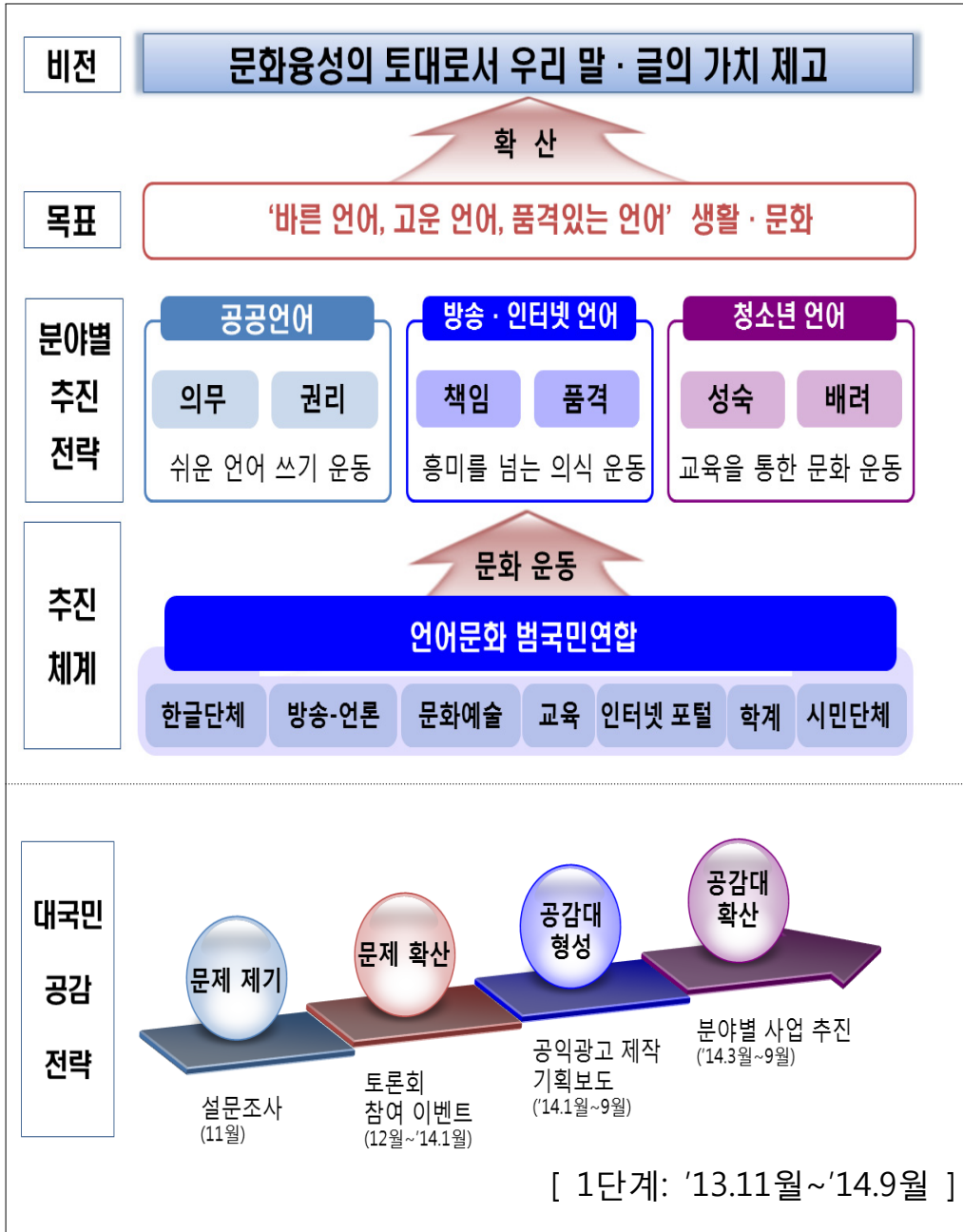
#### [부적절 사례]

- \* (비속어 및 폭력적 표현) 쪽팔려, 꿀통, 장땡, 죽일 거다
- \* (외국어 남용) 캄 다운, 애플힙, 에이스 퍼펙트 가이 등

### ❖ 욕설이 일상화된 청소년 언어

- 청소년이 욕설을 처음 사용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58.2%)이 가장 많으며, 청소년의 94.6%가 욕설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욕설 사용 이유) ①습관이 되어서, ②남들이 사용하니까, ③말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④친구끼리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 (욕설 사용 양상) 욕에 대한 거부감이 높지 않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비속어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더 거친 표현이 자주 등장
- \* (청소년 사용 욕의 빈도 순위) 씨발> 병신> 개새끼> 미친놈> 존나> 지랄 등

## 주요 목표 및 전략





## ‘안녕! 우리말’ 운동 추진 방향

안녕! 우리말  
우리말에게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아름다운 언어문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은 편한 사이에서,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정답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 그 안부를 물어본 적이 있으세요?

문화융성의 토대이자 우리의 얼굴인 말과 글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이 꽃필 수 있도록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에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범국민연합 언어문화개선운동은 우리말에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우리 말글을 스스로 가꾸는 실천입니다.



안녕! 우리말’은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의 운동명(캠페인명)입니다.  
‘안녕’은 편한 사이에서,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정답게 하는 인사말로  
‘안녕! 우리말’은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정답게 맞이하고, 욕설이나  
비속어를 떠나보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공공언어

- | 쉬운 언어는 인권이다.
- | 공공기관의 의무로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 주도의 쉬운 언어 쓰기 운동을 추진하고 지역·민간 부문으로 확산 지원

## 방송·인터넷 언어

- | 인터넷, 디지털 기반 시대 언어의 공공성과 책임성 증가
- | 책임 있고 품격 있는 언어 사용으로 흥미를 넘는 언어 의식 개선 운동 추진

## 청소년 언어

- | '문제' 중심의 해결에서 사회적 협업을 통한 '문화' 치유
- | 성숙한 언어 환경(가족, 학교, 사회) 조성과 배려의 언어 가치 교육을 기반으로 즐거운 언어문화 운동 추진

## ● .....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사업 소개 ..... ●

### 개 관

공무원, 매체 종사자, 일반 국민 등에 대한 국어 의식 환기로 국어의 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국어 바로 쓰기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관심을 바탕으로 한국어 보급, 공공언어 개선 등 국어 정책을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이 지원하고 국어 단체, 우리말 사랑 동아리 등 바람직한 국어문화 정립에 관심이 있는 각 활동 단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에서는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고 바른 말 사용으로 사회적 소통을 촉진하고, 언론 기관에서는 품격 있는 방송 언어 사용으로 건강한 언어 환경을 실현하고, 일반 국민 간에는 상호 존중과 배려의 언어문화 조성으로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추진 배경

공공기관에서 외국어 등 난해한 용어 사용으로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방송에서 막말과 품격 낮은 언어 표현 등 무분별한 사용으로 국민 언어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사물을 높이는 잘못된 존대 표현 사용 증가로 언어 사용의 혼란을 초래하여 우리말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청소년층에서는 욕설과 비속어 사용 일상화로 청소년 인성 및 교우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전용 누리집 운영, ‘우리말 사랑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13년 주요 활동 내용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전용 누리집을 다음과 같이 운영(<http://areumkorean.or.kr>)하고 있다.

[제안] 이렇게 바뀌요!

- 우리 주변에서 쓰는 말이나 글 중에 바꾸었으면 하는 내용을 지적하고 제안하는 자리

[칭찬] 이런 말 좋아요!

- 우리 주변에서 발견한 좋은 글이나 문구, 듣기 좋은 말을 찾아 소개하고 칭찬하는 자리
- 주변 간판이나 광고 글도 좋고, 바른 언어 사용을 실천한 사람을 칭찬할 수도 있음.

[토론] 생각을 나눠요!

- 우리말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밝히는 자리
- 남의 글에 답글이나 댓글 형식으로 자기 생각을 밝힐 수 있음.

[제안] 나처럼 해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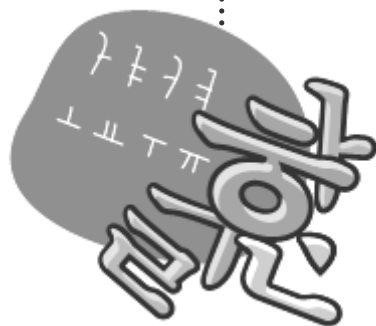
- 바른언어 습관을 들이기 위해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하는 자리

또한 2013년에는 청소년(중·고등학생) 동아리 9개, 대학생·일반인 동아리 11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2014년에도 ‘우리말 사랑 동아리’를 공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개선해야 할 잘못되거나 어려운 언어 표현을 조사하여, 개선 권고해 나가고, 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연말에 우수 동아리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 차 례

1. 국어 어문 교육의 과제 .....	1
2. 한글 맞춤법의 이해와 실제 .....	37
3. 띄어쓰기의 이해와 실제 .....	115
4. 표준어 규정에 대한 이해 .....	137
5. 국어사전과 국어 정보 활용법 .....	187
6. 외래어 표기법 .....	205
7.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229
8. 대학 교양 국어와 어문 규정 교육 구성 .....	239





# 국어 어문 교육의 과제

민 현 식 (국립국어원장)







# 국어 어문 교육의 과제



## 1. 국력과 국어능력

한 나라의 국력은 국가자원과 국민정신(국민의지)의 총화로 표현한다(국력 = 국가자원 × 국민정신). 이는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의 총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연자원이 풍부해도 인적자원 곧 국민정신이 나약해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나라들이 있고 자원은 빈약해도 세계를 호령하는 국민정신으로 강대국이나 강소국이 되기도 한다.

국어능력은 개인이 자기의 모어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으로 즉 자기 모어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며 문해력(文解力, 文識力, literacy)이라고도 한다. 또한 국어능력은 한 개인의 ‘전문지식’[내용]과 ‘국어지식(문법지식)’[형식]의 총화라 할 수 있다. 풍부한 경험, 지식과 이를 글로 표현하는 문법 능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무리 지식 경험이 뛰어나도 국어 문법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달 효과가 떨어진다.

국어능력 = 전문지식[내용] × 국어지식(문법지식)[형식]

전문지식[내용] = 선협(양심, 상식) + 경험 + 지식(독서) => 세계관, 교양

국어지식[형식] = 어휘(발음, 단어, 표기) 능력 + 어법 능력 + 담화 능력

### 1.1. 단순 문맹률은 낮다

한국의 문맹률은 일제하에서 90% 수준이고, 해방 후의 문맹률은 미군 군정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78%로 나타난다(정진석 1999, 이응호 1974). 그래서 1920년대 말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농촌계몽운동을 통해 문맹퇴치사업을 벌였다. 해방 후에는 한글학회가 전국적인 한글 맞춤법 강습을 벌여 문맹퇴치에 앞장서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의무교육 정책 실현으로 문맹률이 감소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배우기 쉬운 한글 덕분에 문맹률은 낮다.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한글의 기적’ 덕분에 ‘한강의 기적’도 가능하였다. 그런데 요즘 초중고 학생들의 국어능력을 보면 맞춤법 틀리는 학생이 흔하다. 통신언어 사용 탓도 있지만 국어교육에서조차 맞춤법 교육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정한 체계적 맞춤법 교육이 없어도 우

리가 한글을 익혀 낮은 문맹률의 언어생활을 영위함은 그나마 다행이니 배우고 익히기 쉬운 한글 덕분이다. 그러나 맞춤법 교육은 물론 어휘, 어법 교육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형성되는 능력이다.

(1) 맞춤법 원리: 한글 맞춤법(1988)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가	나-1	나-2	다	라	마	바
표음주의	책	업다*	듣다	잡기	무덤	빠꾸기	국따랗다*
	채기*	엄니*	들어	자빔*	너무	개구리	넌따랗다
	채글*	엄서*	들어서	자비*	마중	얼루기	넌찍하다
표의주의	책	없다	듣다	잡기	무덤*	빠꼭이*	꿇다랗다
	책이	없니	들어*	잡음	넘우*	개굴이*	넛다랗다*
	책을	없어	들어서*	잡이	맞웅*	얼룩이*	넛직하다*

[사례] 업히고설키다/얼키고설키다; 빠꾸기/빠꼭이; 얼루기/얼룩이; 덩다리/덩달이;  
흐트리다/흘트리다\*; 흐트리다(북한어)\*/흘트리다

(2) 국어 표기의 문법적 원리

① 음운론적 원칙: 표기는 발음을 충실히 반영한다. 표음주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예: ‘돌, 달, 나무, 먹다, 가다, 하다’ 등 대부분의 단어는 발음대로 적는다.

② 형태론적 원칙: 표기는 단순히 발음만을 반영하지 않고 기본 형태를 고려한다. 형태 고정 의 표의주의(형태주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예: ‘없다-업다; 먹다-먹어-먹는; 업히고설키다’처럼 기본형을 밝혀 적기도 한다.

③ 통사론적 원칙: 표기는 문법 구조를 반영한다. 조사와 어미변화, 띄어쓰기 문제에 통사적 고려를 한다.

예: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공책이요, 그것은 꽃이오.[발음은 같으나 문법 기능으로 ‘-오~ -요’를 구분한다]

④ 어휘의미론적 원칙: 동음이의어 변별 표기나 복수 표준어 표기의 노력

예: 한자어 동음이의어들을 한자 병행 표기하려는 주장은 이런 차원의 표기 노력이다. [이상]이란 소리만으로는 동음이의어를 구별할 수 없어 ‘以上-理想-異常’이란 한자로 구별하여 시각적 가치로 소리의 한계를 극복하여 문자의 독자성을 보여 준다. 표준어 규정 9항 [붙임2]에서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는 규정처럼 표기에 어휘의미론적 고려가 개입되기도 한다.

⑤ 담화론적 원칙: 문자는 담화 차원에서 소통을 위한 표기 전략이 고려된다.

예: 문단 의식에 의한 들여쓰기, 대문자, 문장부호 등이 관여하고 강조 표시로 고딕체를 하거나 밑줄을 치거나 하는 등 텍스트 글꼴 편집을 논하는 문자형태학(topography)은 담화 차원의 영역으로도 볼 수 있다.

⑥ 역사언어학적 원칙: 표기를 결정할 때는 역사적 어원을 참고한다.

예: ‘우레’는 ‘우뢰(雨雷)’가 아니라 ‘울+에’에서 유래한다. ‘희망, 사례’의 ‘희, 레’는 아직도 전통 한자음에 근거한다. ‘있다, 굶다’의 ‘ㅅ’도 현재는 ‘ㅅ’음과 관계가 없지만 중세 이래의 전통적 표기를 존중함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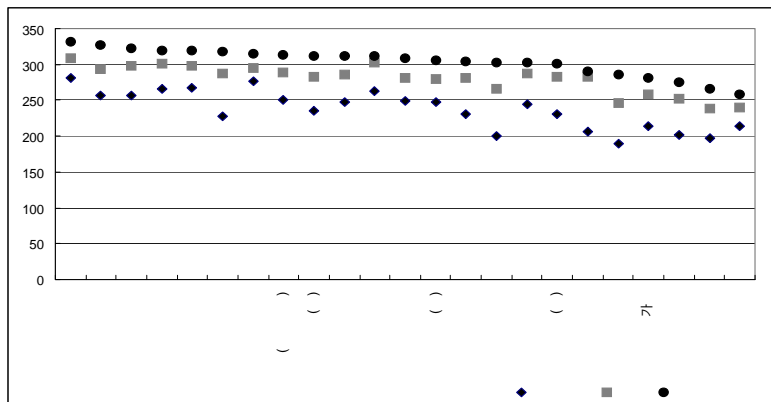
## 1.2. 실질 문맹률은 높다(OECD국가 중에서 문해력은 최하위)

이희수 외(2001)에 따르면 OECD의 ‘국제 성인 문해력 조사’(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IALS)에서 한국 성인 16-65세 남녀 1,200명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문해력(산문 문해, 문서 문해, 수량 문해) 평가에서 한국은 산문 문해 13위, 문서 문해 19위, 수량 문해 12위로 나타났다.

- ① 산문 문해력(prose literacy): 신문 사설, 뉴스, 시, 소설 따위의 이해력
- ② 문서 문해력(document literacy): 이력서, 봉급 명세서, 교통시간표, 지도, 도표 이해력
- ③ 수리 문해력(quantitative literacy): 수리 계산, 주문서 작성, 이자 계산 등 수리 능력

한국인의 산문, 수리 문해력은 대체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중간 정도이지만 제품 설명서, 구직 원서, 봉급 명세서 등 일상적 문서 문해력은 OECD 조사국 중 최하위로 드러났다. 특히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문서 문해력은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다. 이는 세종 덕분에 한글은 쉽게 배웠지만 그것을 활용하여 국어 능력을 기르는 데는 매우 방심한 결과이다.

[학력에 따른 국가간 문해력 점수 비교(문서 문해력)]



자료: 이희수 외(2001), 한국 성인의 문해 실태 및 OECD 국제비교 조사연구

[사례 1] 국립국어원(2008)의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7%인 260만 명이 '문맹'이거나 문맹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ㄱ, ㄴ'과 같은 낱글자도 읽지 못하는 비문해자수는 약 62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1.7%이고 낱글자나 단어를 읽을 수는 있으나 문장 이해 능력이 거의 없는 반문해자는 약 198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5.3%였다. 성인 문해 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문해 교육이 필요한 인구를 전체 인구의 약 15.7%에 해당하는 577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례 2] 2003년~2005년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국어 우수 학력자 비율이 가장 낮고, 영어 우수 학력자 비율이 월등히 높음
- 3년간 우수 학력자 비율이 국어는 감소, 영어는 매년 증가
- 기초 미달 학생의 경우는 국어(3.7%~4%)가 영어(2.5%~2.3%)보다 높음
- 국어 기초 학습 능력 부진 학생은 63%에 이름
  - 서울시내 3~6학년 기초 학습 능력 부진 초등학교생 3,709명 중 국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63%인 2,335명이나 됨.
  - 서울시내 3~6학년 초등생 49만 명에서 100명 중 3~4명은 한글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함.

### 1.3. 한자(漢字) 문맹률은 동아시아 최고이다.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한자 자음학습이나 교장 재량의 한자 학습을 하지만 실제 50% 정도만 하여 초등학교의 반수는 한자교육을 자음이나 재량학습으로조차 하고 있지 않다. 자신의 성명을 한자로 쓰는 학생은 60% 수준이며, 부모 성명 한자 쓰기는 10% 수준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성명 한자 쓰기는 1% 수준이다.

한자문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의식이 존재한다. 한자문화 긍정론자들은 아시아에서 문명을 갖춘 대표 국가가 한·중·일 3국으로 한자 문명권이라는 점이 공통이라고 본다. 따라서 조상들이 선택한 한자문명의 존속은 한국사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한자문화 부정론자들은 한자문화가 민중 지배의 도구라고 보고 한자문화를 비판하는 편이라 극단적 한글전용론으로 나타난다.

한글전용론은 원래 한문교육까지 무조건 부정하지 않는다. 대표적 한글전용론자(최현배, 허웅)는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반대할 뿐 중학교 때부터는 한문교육을 외국어 교과 차원에서 철저히 하라고 주장한다. 다음은 한글전용의 논리를 요약한 허웅 선생의 논설(경향신문 1998. 10. 9 시론)이다.

- (ㄱ) 한글만으로 글자살이를 꾸려나가야 한다.
- (ㄴ) 한자에 눌러 기를 펴지 못한 순수한 우리말의 힘을 되찾아야 한다.
- (ㄷ) 말의 표현은 바르고 쉽게 아름답게 논리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

(ㄹ) 글자의 기계를 최대한 이용하여 정보화 조류에 앞장서야 한다.

(ㄷ) 한문은 외국어 교과와 하나로 조직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특히 (ㄷ)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지금의 한문교육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상태이다. 이렇게 해서는 시간만 낭비될 뿐이다.”

한자파들도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글파도 대체로 한자교육을 포함한 한문교육을 인정한다. 단지 차이는 시행 시기만이 다르다. 한자파는 대체로 초등 한자교육을 주장하고 한글파는 대체로 중학교 때부터로 주장함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양자는 언론에 대립 갈등 집단으로 비칠 필요가 없으며 시기만 타협하면 된다. 오늘날 영어 조기교육을 하고 있음을 볼 때 한자교육이 퇴출된 결과 한자가 사라진 자리는 영어로 채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자교육은 중국 문자의 교육이 아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을 위해 조상들과 대화하고자 조상들의 문자를 익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한자를 전통(傳統) 국자(國字)로 볼 수 있다. 국민 의견은 과거로부터 일관되게 초등학교 한자교육 주장으로 나타나는데도 학자들의 합의 능력 부재로 한자교육 없는 국어교육이 벌어지고 한자 문맹자들만 양산하고 있다. 한자교육은 중등 국어교육에서 거의 퇴출되었는데 이는 한자문화유산에 대한 부정이고 파괴 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어 교사들의 한자 지도, 고전 지도 능력도 약해졌다. 한자 문맹은 역사에 무지한 역사 문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어문정책의 쟁점은 다음 두 가지로 압축된다.

- (1) 국어생활의 이상적 문제론: 한글전용인가? 국한혼용인가?
- (2) 한자 교육의 이상적 시기론: 초등학교부터인가? 중학교부터인가?

정부는 (1)은 국어기본법에서 ‘공문서는 한글로 적는다(다른 민간 논저에 강제하지는 않는다)’라는 한글전용 정책을,<sup>1)</sup> (2)는 교육과정의 공포를 통해 중학교에서부터의 한문 교육 정책을 표방한다.

- (1) 한글전용인가? 국한혼용인가?

현재 국어기본법 14조의 한글 전용 규정은 공용문서에 대한 규정으로 언론, 학술 논저 등에서 한자 혼용을 강제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혼용할 자유가 주

1) [1] 6 ( , 1948. 10. 9): “ .  
 . ” => 2005 .

[2] (2005) 14 ( )

.< 2009.3.18>

.< 2009.3.18>

어져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컴퓨터, 인터넷의 영향으로 한글전용이 대세이므로 한글전용이 가속화할수록 한자 교육도 철저히 하여 국민의 한자 문맹은 막아야 한다.

국어생활을 일상 언어생활과 전문 언어생활로 나눌 때 일상 언어생활은 고유어나 쉬운 한자어 중심이라 한글전용체로도 족하다. 장기적으로 한글전용체가 이상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자어가 대부분인 전문 언어생활(초중고교 대학의 교육 공간, 전문 직업 세계 등)에서는 한글전용체가 암호문과 같아 독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자를 아는 한글전용론자들은 한자를 배웠기에 한글전용을 해도 큰 불편이 없다. 그러나 1990년대 한문과목이 선택화되면서 한자 소양이 없이 국어교육을 받았거나 현재도 받고 있는 청소년 세대들은 한글전용체에 나오는 전문 한자어 이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최소한 한자 병기를 해 주어야 하고 그 한자를 이해하려면 한자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따라서 공용문서인 교과서는 한자를 괄호 병기하여 전문어 이해에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고 괄호 한자의 이해를 위해 한자 교육도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중고교 국어 교과서만 일부 한자어만 괄호 병기하는데, 전문어가 더 많은 국사, 도덕, 윤리, 사회, 과학 교과서는 한자어 병기를 전혀 하지 않고 암호문처럼 되어 학습 부진아를 양산하므로 이들 교과에도 어휘 이해용으로 한자 병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2) 한자교육 이상적 시기론: 초등학교부터인가? 중학교부터인가?

초등학교에서 국어과가 수행해 오던 한자 교육은 1973년 3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폐지되고 대신 교장 재량 선택으로 비정규과정 시간(재량활동, 아침자습시간)에 한자 교육이 선택적,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현행 2009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창의체험활동이라는 교장 재량활동시간에 39개 각종 특별교육(보건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통일교육 등)의 요구를 응하다 보니 교장 재량 한자 교육 시간은 1학기에 10여 시간도 못하고 국어과와 연계도 없어 효과가 없다. 교장 재량이다 보니 안 하는 학교도 절반이라 학교마다 학력 차이도 심하다.

한글전용파인 최현배, 허웅 선생은 한문교육을 중학교에서 더욱 철저히 하라고 하였고, 국한혼용파인 이희승, 남광우 선생은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주장하였으므로 적어도 두 학파는 중학교에서의 “한문교육 정상화”를 인정하므로 대립하지 말고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화해 한자/한문 교육의 정상화에 공동 협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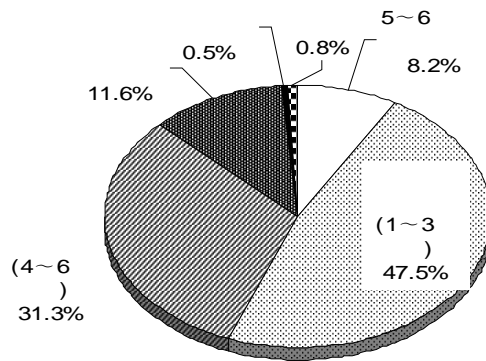
이 문제는 두 학파가 수십 년 소모적으로 대립해 왔는데 국민 여론에 따라 해결함이 이상적이다. 대규모로 조사한 국립국어원(2005, 2010)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의 한자 교육 조사를 보면 국민 여론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한자교육을 하라는 요구가 압도적 대세이다. 이 세 연구물은 모두 국민이 한자 교육 필요성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의

무가 있다.

① 국립국어원(2005)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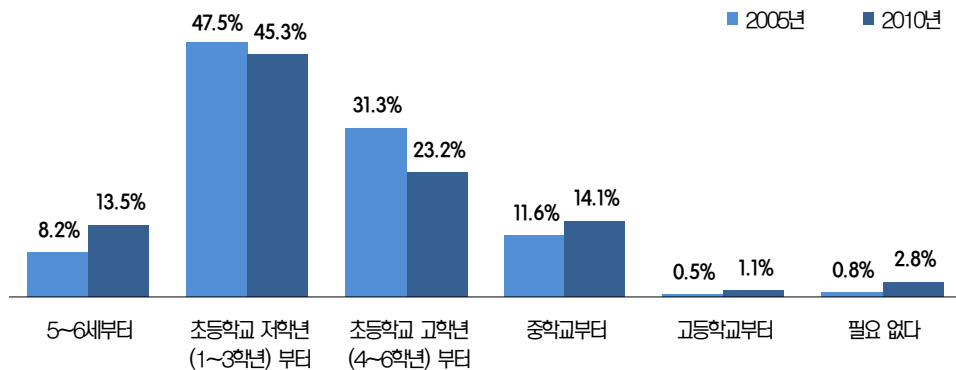
국립국어원(2005)의 성인 대상 ‘국민 언어의식 조사’에서는 한자 교육을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부터 하라는 요구가 47.5%로 가장 높고,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은 31.3%이이고 여기에 5-6세 한자 교육 주장 8.2%를 더하면 조기 漢字 教育論은 87%라 국민의 漢字 教育 요구는 조기 교육론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학파의 논쟁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 여론에 따라 이를 정책화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 , (2005): 】



## ② 국립국어원(2010)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이는 2005년에 이은 조사로 한자 교육의 시기와 관련한 결과는 2005년과 2010년의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05년〉 〈2010년〉

초등학교 입학 전	8.2 %	13.5 %
초등학교 1-3학년	47.5 %	45.3 %
초등학교 4-6학년	31.3 %	23.2 %
초등학교 이하 합	87.0 %	82.0 %

위의 2005년 조사와 2010년 조사를 비교하여 보면 초등학교 이하 시기가 87%에서 82%로 줄었지만 초등 입학 전은 8.2%에서 13.5%로 오히려 더 늘었고 초등 1-3학년 시기는 47.5%에서 45.3% 정도로 큰 차이 없이 유지하고 있어서 국민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한자교육 요구는 확고한 요구사항이라 하겠다.

### ③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의 ‘초등학교의 바람직한 한자교육 방안 연구’

정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구체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사 77.3%, 학부모 89.1%, 전체적으로 5,222명 중 83%인 4,334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국어교육의 문제점과 국어능력 부실의 원인과 실태

우리나라 국어교육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국어능력 부실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진단해 볼 수 있다.

### (1) 입시용의 비정상적 국어교육

- 문제 풀이식 국어 수업
- 동아시아 최고의 한자 문맹화 정책: cf. 일본 노벨상 16명(과학상 13명)
- 입시용 발췌 독서
- 입시용 논술 중심의 작문교육
- 수능 제도의 한계

### (2) 문법교육의 부실

- 4차 교육과정기부터 ‘중학 문법’의 폐지
- 국정 통일 ‘고교 문법’ 체제가 다양한 문법 교과서 출현 막아
- 대입 수능의 문법 및 규범 평가 소홀
- 규범교육의 체계적 실천 부재
-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문법 및 규범교육 부실
- 국어를 경시하고 ‘한글은 쉽다’고 믿는 맹신



학생들은 조기 영어교육으로 영어 8품사는 알아도 국어 품사 교육은 중학 3학년 때나 배워 영어 교사들이 국어 교사들에게 국어 품사 교육 좀 해 달라고 하는 실정이다.

(1) <영어 배우느라 한글 잊었나...초중고생 국어교육 소홀>(동아일보 2006. 7. 8)

(ㄱ) 2005년 12월 서울, 인천, 충남 천안시의 6개 중학교 작문 오용 실례

‘나는 약간 삼만합니다(산만합니다). 나서는 걸 좋아하지만 아페못나갑니다(앞에 못 나갑니다).’ ‘내꿈은 기술자였는데(테) 지금은 꿈이 밖였습니다(바뀌었습니다).’

2학년 학생 200여 명이 장래 희망을 주제로 글짓기를 한 결과 맞춤법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학생은 2명뿐이었다.

(ㄴ) 인천의 모 중학교 이모(38) 교사는 지난해 12월 영어 시험문제를 채점하면서 당황했다. caterpillar(애벌레)의 철자와 한글 뜻을 쓰라고 했더니 350명 중 70% 정도가 영어 철자를 맞게 썼지만 한글은 ‘에벌레’ 또는 ‘애벌레’로 썼다.

(ㄷ) 13일 인천 A고교 문학시간. 교사가 “지문 속 등장인물이 회의적(懷疑的)”이라고 말하자 학생들은 대부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눈치였다.

(ㄹ) 대학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권 B대학 이모(45) 교수는 “강의 도중 군도(群島)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3분의 2 정도가 뜻을 몰랐다”며 “학생의 어휘력이 부족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푸념했다.

(ㄴ) 현재 전국 초등학교의 30%가량이 1, 2학년생에게 특기적성시간을 통해 영어를 가르친다. 재량수업시간 과목을 한자에서 영어로 바꾸는 학교가 늘었다.

(2) <말이 안 되는 우리 국어실력(조선일보 2008. 7. 3)>

(ㄱ) 철학과 교수의 '타자(他者)' 개념 설명을 학생들이 '타짜(노름꾼)로 착각

(ㄴ) 중3 남학생들이 춘향전 장면 연습시 "자, 내 숙청을 들라"라고 '숙청(肅淸)'과 '수청(守廳)'을 혼동

(ㄷ) 고1 논술 문장에서 '수포로 돌아갔다'를 '숲으로 돌아갔다'라고 했다.

(ㄹ) 중3 학생, '문외한(門外漢)'을 '무뇌한'(무뇌아처럼 뇌 없는 사람)으로 착각.

이상과 같이 국민 국어 능력을 비판하는 언론은 얼마나 국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언론도 외래어 남용을 비롯하여 국어 오용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다.

(ㄱ) 커피 의존도가 훨씬 더 큼니다. → 커피 의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의존도'는 '정도'이므로 '크고 작기'보다는 '높거나 낮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ㄴ) 환자 쏘림 현상→ 환자 몰림 현상. ('쏘림'을 새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쏘림'은 사물에 쓰는 경향이 있어, 사람이라면 몰리는 것으로 보아 '몰림'이 적절하다)

(ㄷ) 환자를 썩썩이하는 → 환자를 독점하는. ('썩썩이'는 비속어이며 '독식'도 부적절하므로 '독점'이 무난하다)

- (ㄹ) 소년소녀 가장 → 소년소녀 가장 가정, 청소년 가장 가정, 사랑 가정.
- (ㄴ) 언론에서 ‘세계문화유산’과 해례본이 등록된 ‘세계기록유산’은 구별해야 하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한글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는 식의 오보가 언론에 많고, 한글 외에 문자 창시자가 있는 문자가 있는데(가령 에스페란토 어) ‘한글은 창시자가 있는 유일한 문자’라는 식의 과장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 (ㄷ) 김연아, ‘찰떡궁합’ 오서 코치와 결별: 南女 관계를 ‘찰떡宮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夫婦(부부) 사이뿐이다
- (ㄸ) 이번 개각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대 10개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폭이 될 것으로 알려져...: ‘최대, 최다, 최고’를 혼동
- (ㄹ) 김정일 매제, 장성택 2위 登極: 정상에 오른 자에게만 등극을 써야 한다
- (ㄺ) 한나라 親李 핵심들 ‘반란’: ‘반대’로도 충분한데 전투적, 자극적 표현이 많다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개념이 불분명한 명칭 사례들이라는 지적이 많다.

- (ㄱ) 전쟁기념관’은 ‘호국기념관’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 (ㄴ) 북한 이탈자, 탈북자, 귀순자, 새터민 등의 지칭어 문제가 있다.
- (ㄷ) 청와대 비서관의 통일 방안 설명에서 “남북이 2 국가를 유지한다.”: ‘2 체제’라고 해야. 헌법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을 유일한 국가로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하는 표현임
- (ㄹ) 김정일 하얼빈 거쳐 귀국길: ‘귀환’이 적합
- (ㄴ) 김정일, 성지순례: ‘유적지 순례’가 적합. 성지란 용어를 타락시키고 있음
- (ㄷ) 건국 기준 논란: 건국, 광복절 기준 문제. 제1회 광복절 기념식은 1949년 8월 15일에 거행되었어야 하는데,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1949년 9월에 제정되어서 거행하지 못했다. 1950년 8월 15일 대구에서 거행된 광복절 기념식이 제2회 광복절이었다는 사실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광복절 기념사에 명기되어 있다. 이 대통령의 기념사 제목은 ‘기념사(제2회 광복절을 맞이하여)’로 되어 있고, 기념사의 첫머리는 “금년 8·15경축일은 만국 독립 제2회 기념일로서”라고 시작하고 있다.

언론, 인터넷 포털 뉴스는 ‘초비상, 대란, 00폭탄, 폭거’ 등의 선정적, 선동적 언어로 독자를 유인하고 있어 인터넷 포털 편집자들의 언어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또한 십대 학생의 대화가 반은 욕설이라고 할 정도이고 인터넷의 악성 댓글도 욕설로 뒤덮여 無禮 言語의 범람도 심각하다. 인터넷이나 미디어 영상언어의 선정성(煽情性), 폭력성(暴力性)은 더욱 저질화, 지능화하고 한국인의 정서를 병들게 하고 있다.

### 3. 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 영역

국어교육이 설정하는 세부 영역과 각 영역에서 추구하는 인간형과 함양하려는 목

표 국어능력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위 영역 이름	교과 가치	대상 언어	목표 특성	목표 능력	목표 인간형
기초 영역 (뿌리)	문법 영역 (말소리, 단어, 문장, 담화)	국어과 내부의 도구 및 지식 교과적 가치	일상 언어 전문 언어 예술 언어	정확성 적절성	[1차 능력] 문법 능력: ①발음 능력: 발음력 ②단어 능력: 어휘력 + 표기력 ③문장 능력: 문장력 ④담화 능력: 담화력	문법적 인간 (문법 생활인)
중핵 영역 (줄기)	기능 영역 ① 이해 영역 (듣기, 읽기, 보기) ② 표현 영역 (말하기, 쓰기, 보이기)	범 도구 교과가치	일상 언어 전문 언어	유창성 효과성 (효율성)	[2차 능력] ①표현력: 말하기, 쓰기, 보여주기 능력 ②이해력: 듣기, 읽기, 보기 능력	기능적 인간 (독서 생활인 작문 생활인 화법 생활인)
종합 영역 (꽃, 열매)	문학 영역	종합언어 예술교과적 가치	예술 언어	창의성 예술성	[3차 능력] ①문예(문학) 능력: 문예 감상 능력 + 문예 창작 능력 ②문화 능력: 문화 이해력 + 비판력 + 창의력	문학적 인간 (문학 생활인)

### [국어 지식과 문학 작품의 감상]

<p>춘망(春望)</p> <p>두보</p> <p>나라히 破亡하니 뫼과 ㄱ름쑤 잇고          잣 앓 보미 플와 나모쑤 기뻐도다          時節을 感嘆호니 고지 ㄴ름쑤 썩리게코          여희여슈를 슬후니 새 ㅁ스믈 놀래느다          烽火   석 드를 니세시니          지뵈 音書는 萬金이 스도다          셴 머리를 글구니 쑤 더르니          다 빈혀를 이기디 ㅁ홀 듯호도다</p> <p>- 두시언해 초간본, 성종 12년(1481)</p> <p>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          感時花賤漏 恨別鳥驚心          烽火連三月 家書抵萬金          白頭搔更短 渾欲不勝簪</p>	<p>봄</p> <p>김소월</p> <p>이 나라 나라는 부서졌는데          이 山川 옛태 山川은 남아있드냐          봄은 왔다 하건만          풀과 나무에쑤이어</p> <p>오! 설업다 이를 두고 봄이나          치어라 싯넙페도 눈물쑤 흐트며          새무리는 지저귀며 울지만          쉬어라 이두군거리는가슴아</p> <p>못보느냐 뵈히케 싯구는 봉숫불이          싯싯내 그 무엇을 태우랴 함이료          그립어라 내 집은          하늘박게 있나니</p> <p>애달프다 곱어 쥐어쓰더서          다시금 떨어졌다고          다만 이 희긋희긋한 머리칼쑤          인저는 빗질할 것도 업구나</p> <p>- 조선문단 14호(1926. 3)</p>
---	---

## 4. 각국의 국어교육

### 4.1. 미국

미국은 1960년대부터 ‘국가교육향상평가’(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EP) 사업을 하여 미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파악한다. 미국 부시 대통령의 ‘낙오 학생 금지법(No Children Left Behind)’(2001)은 미국의 학력 저하가 가져올 국가경쟁력 저하에 대한 위기의식의 산물이다.

리터러시 코칭(literacy coaching)은 국어과 수석교사 제도로써 ‘리터러시 코치’ 교사의 역할은 리터러시 학습 프로그램 설계 및 재설계하기, 평가체계 만들기, 교육과정 개혁하기, 학습자료 선택하기이다.<sup>2)</sup>

조기 문해 교육(Early Literacy)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문해력은 취학전 가정환경에서 결정한다고 보아 가정언어 전문성이 학생 문해력을 좌우한다고 본다. 읽기 우선 정책(Reading First)을 채택하여 IRA(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는 읽기 표준을 제시하고 ‘읽기 우선’ 전담 교사를 채용한다.

철자법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phonics 교육은 발음과 표기의 상관교육으로 독서 교육의 기초로 기능한다. 철자법 교육을 중시함은 영어 알파벳이 표음문자이지만 표의문자 또는 상형문자 수준으로 고착화하여 발음과 표기의 불일치가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 중에는 한글 표기법이 어렵다고 비판하는 이들이 많지만 알파벳보다 표음성이 높은 한글의 표기법이 발음과 표기의 괴리가 심한 영어 표기법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덜 까다롭다는 사실의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 즉, 영어에서 /i/를 위해 ‘ink, become, savage, busy, women’처럼 여러 모음자가 동원되고 ‘fee, sea, field, conceive, key, quay, people, subpoena, Caesar’처럼 겹글자조차 쓰이는 복잡함에 비할 바가 아니다. 역시 a가 [a](car), [æ](man), [ɔ](was), [ɛ](many), [ə](about), [i](village), [e](made), [u](coat)처럼 1:8로 무려 8 가지로나 발음되는 것과 한글 ‘ㅏ’의 1:1의 표음성은 비할 바가 없다.

또한 /k/를 위해 ‘kiss, cap, queen, exception’처럼 여러 철자가 동원되고 ‘khaki, chaos, rock, accord, acquaintance’처럼 겹글자까지 쓰이는 것도 영어 철자법의 까다로움을 보여 준다.

이에 비하면 한글의 표기법은 매우 간편한 것이다. 이를 까다롭게 보는 것은 단지

2) 코칭: 행위 주체가 학생, 자기주도적, 양방향적, 馬車처럼 개인맞춤 서비스형, 미래지향적, 학생 목표 설정과 성장에 목표, 코치와 학생은 수평적 동반자 관계(파트너십), 촉진자, ‘누구’에 관심.

cf. 티칭: 행위 주체가 교사, 부모, 교사는 지식 전달자 학생은 수용자.

트레이닝: 汽車처럼 동일 훈련 목적지 도달.

카운슬링: 과거지향적, 치료 기능 중점,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상하관계.

컨설팅: 진단하고 해결책 제시하지 않음. 문제해결이 목적, ‘무엇’에 관심.

멘토링: 멘토라는 권위자 전문가에 의존. 멘토와 학생은 수직 상하관계.

국어 정서법의 학습을 게을리 하는 개인과 학교 교육의 태만일 뿐이다. 오히려 한글 사용자들의 태만과 무관심으로 오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서법 학습은 우리가 교양인의 문화생활에 지불하여야 할 최소한의 문화적 의무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4.2. 영국

교과서가 없이 각 학교별로 교과 교사 책임 하에 개별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영국은 독서 문화가 도서관 문화와 결합되어 이상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영국 학생들은 북스타트(Bookstart) 운동에서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책을 선물로 제공받으며 독서 습관을 평생 발전시킨다. 방과 후에는 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으로 가서 학습 과제를 수행한다. 도서관에는 사서(司書)와 자원봉사자들이 이들의 과제와 독서를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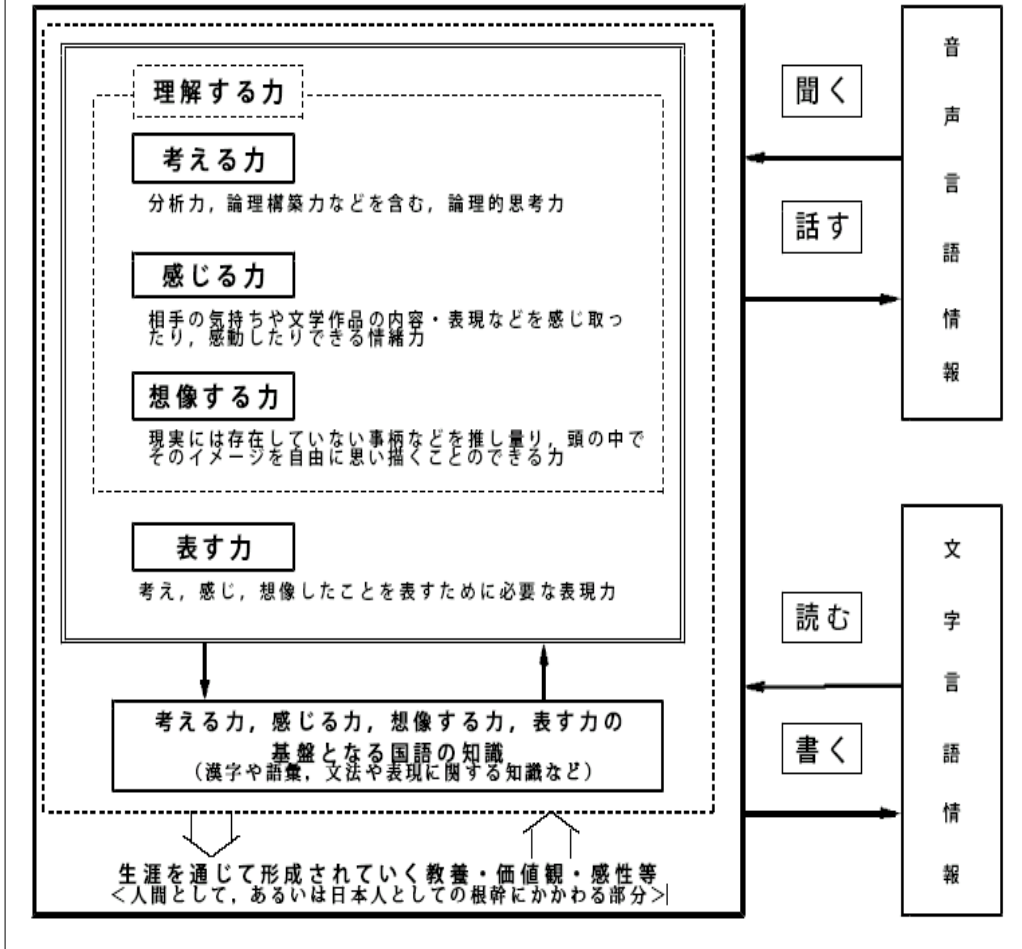
영국에서는 학생들의 읽기 능력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문해력 전략’(National Literacy Strategy)을 국가 실천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학생들의 언어능력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정책은 1996년부터 준비하여 1997년 7월부터 시작하였는데 ‘국가 문식성 전략 실행 보고서’(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Literacy Strategy)가 1997년 9월에 발행되면서 구체화하였다. 이 정책은 어떻게 하면 5-10세 아동들이 읽기를 잘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는 정책으로 ‘읽기 혁명’(literacy revolution)이라고도 부른다. 그리하여 학교는 날마다 ‘문해력 시간’(literacy hour)을 배정하여 읽기 훈련을 하게 하였다. 1998, 1999년에는 ‘읽기의 해’(National Year of Reading)로 정하여 부모들에게는 집에서 하루에 20분씩 읽어주기 운동을 매스컴 홍보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권장하였다. 문해 국가 건설(Building a literate nation)이란 구호 아래 ‘국가 문해 연맹’(National Literacy Trust)이란 단체도 만들어 ‘오늘의 문해력’(Literacy Today)이란 잡지도 발간하고 있다.

## 4.3. 일본

일본 문부과학성은 국민의 국어력(國語力)을 증진하는 시책을 펴고 있다. 일본어교육에서 제시하는 ‘국어력’의 개념과 구조는 ‘생각하는 힘, 느끼는 힘, 상상하는 힘, 표현하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정보를 처리, 조작하는 영역’과 이런 정보 처리와 조작 영역의 기반이 되는 ‘국어의 지식’ 영역 그리고 평생학습으로 형성되는 ‘교양, 가치관, 감성의 영역’이라는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여기서 문법 영역을 ‘국어지식’이라 하고 이를 모든 국어능력의 기초능력으로 봄은 주목된다.<sup>3)</sup>

3) 일본의 국어정책 관련 정보는 문화청의 누리집에서 ‘國語に関して’ 부분이 좋은 안내가 된다.  
[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kokugo\\_sisaku.html](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kokugo_sisaku.html) 또한 다음 자료도 참고할 수 있다.  
 新「ことば」シリーズ 1, 解説編「国際化と日本語」(平成6年度)  
 新「ことば」シリーズ 9, 解説編「情報化時代の言語能力」(平成10年度)

＜参考＞ これからの時代に求められる「国語力」の構造（モデル図）



일본에서는 문법을 국어지식이라 하며 국어능력의 기초로 보는 점, 국어력은 개인차가 크다는 점, 평생 발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어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 I. 기본 인식

- ① 국어교육과 사회 전체의 과제이다.
- ② 언어 신뢰를 육성해야 한다.
- ③ 정서력, 논리적 사고력, 어휘력 육성을 해야 한다.
- ④ 스스로 국어능력을 키우는 아동을 육성해야 한다.
- ⑤ 발달 단계에 따른 국어교육을 구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これからの時代に求められる国語力について(平成 16年 2004年 2월 3일), 文化廳 文化審議會答申 자료([http://www.mext.go.jp/b\\_menu/shingi/bunka/toushin/04020301/015.pdf](http://www.mext.go.jp/b_menu/shingi/bunka/toushin/04020301/015.pdf)) 참고.

- (ㄱ) 3세까지 유아기: 커뮤니케이션 중시기(重視期). 말하기, 듣기 중심, 가정언어
- (ㄴ) 3-11,12세(소학교 고학년 정도): 기초기. 읽기, 쓰기 중심, 어휘력
- (ㄷ) 13세(중학생) 이상: 발전기. 정서력, 상상력, 논리적 사고력, 어휘력 종합  
학교, 가정, 사회의 구체적, 중점 처방은 다음과 같다.

## Ⅱ. 학교 국어교육

### (1) 기본 인식

- ① 국어교육을 학교교육의 중핵으로 둔다.
- ②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조합하여 지도한다.

### (2) 국어과교육의 처방

- ① 정서력, 논리적 사고력, 어휘력을 육성한다.
- ② 교과내용을 명확히 한다.
- ③ 지도 중점은 독서, 작문에 둔다.
- ④ 연극 수업을 도입 강화한다.
- ⑤ 음독(音讀, 낭독), 암송(暗唱)과 고전을 중시한다.
- ⑥ 한자 지도를 강화한다.

### (3) 국어과와 타 교과와의 관계

- ① 국어과 이외에서도 국어력을 육성한다
- ② 타 교과와의 연대(관련 학습 강화), 교원의 국어력 향상을 도모한다.

## Ⅲ. 가정, 사회의 국어교육

### (1) 기본 인식

- ① 국어력 향상은 평생학습 관점에서 중시한다.
- ② 가정과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한다.

### (2) 가정과 사회의 연합

- ① 가정 내 언어능력을 기른다.
- ② 지역사회 국어교육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老少 낭독회 등)
- ③ 매스컴의 영향을 활용한다.

(ㄱ) 가정이나 지역에서 “読み聞かせ(읽어주기) 등을 지원한다.

가정뿐만 아니라 각종 동아리, 공공 도서관 등에서 “읽어주기 운동”을 전개한다.

(ㄴ) 학교 주 5일제의 토요일 등을 독서활동 추진에 활용한다.

독서를 국어과라는 한 교과 속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적으로 모든 교과에서 다루도록 명확히 위계화 해야 한다. “아침 10분간 독서”를 교사 지도하에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국어력을 개인차가 크다는 점, 평생 발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어력 향상에 힘쓰고 있는데 주로 가정과 학교가 독서 지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 예로 하야시 히로시(林公)라는 교사는 10분간의 ‘아침독서’(朝の読書) 운동을 하여 학생들과 학교를 변화시킨 것으로 유명한데 그 책도 발행하여<sup>4)</sup> 전국적으로 퍼졌다.

#### 4.4. 중국

중국에서는 ‘국어’를 ‘어문(語文)’이라고 한다. 1920년대에 ‘國語’또는 ‘國文’이라고 하다가 1950년대 이후부터 입말과 글말을 가르치는 도구 과목으로 인식되면서 이를 ‘어문’으로 규정하였다. ‘語’는 입말이고 ‘文’은 글말이다.

##### 제1 학단(1-2학년)

1. 읽기를 좋아하게 하고 읽기의 재미를 알게 한다.
2. 표준어로 본문을 정확하고 유창하며 감정을 실어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배운다.
7. 유아 시, 동요와 간단한 옛 시(古詩)를 읽고 연상의 나래를 펴고 초보적인 정감 체험을 하며 언어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9. 자신이 좋아하는 성구, 격언, 관용구 등을 누적한다. 우수한 시문 50편을 암송한다.  
과외 독서 분량이 5만자 이상이어야 한다.
10. 도서를 사랑하고 애호해야 한다.

##### 제2 학단(3-4학년)

9. 우수한 시문을 읽는 과정에 정감을 체득하는데 유의한다. 우수한 시문 50편을 암송한다.
10. 독서를 하고 신문을 보는 습관을 기르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동학들과 도서 자료를 공유한다. 과외 독서량이 40만자 이상이어야 한다.

##### 제3 학단(5,6학년)

10. 우수한 시문을 읽고 시문의 성조, 리듬 등을 통해 작품의 내용과 정감을 체득한다. 우수한 시문 60편을 암송한다.

4)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가 전국 48500여 초·중·고교 중에서 1만8천여 학교에 이른다. 이 운동이 한국에도 상륙하여 실천하는 학교가 많은데 학생들의 집중력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이 운동이 말하는 아침독서의 4원칙은 “모두가 한다, 매일 한다,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 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읽는 것에만 집중해 한다”는 것으로 이 운동의 결과 첫째, 아침독서로 인하여 오랫동안 학교에서 사라졌던 정숙과 집중이 살아났다. 둘째, 정숙과 집중이 아이들의 다른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아침독서가 시작되고 나서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졌다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는 아이들도 있다. 셋째, 책을 읽을 수 없던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책을 읽게 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하였음을 느끼게 되었다.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실력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한다.



11. 도서관, 인터넷 등 정보 매체를 이용하여 탐구성 읽기를 시도한다. 자기의 독서범위를 넓히고 과외 독서는 100만자 이상으로 한다.

#### 제4 학단(7-9학년)

12. 알기 쉬운 문언문을 읽고 주해와 사전의 도움을 받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우수한 시문 80편을 암송한다.
15. 독서 계획을 작성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글을 광범위하게 읽고 과외 독서량이 260만자 이상이어야 한다. 매 학년마다 2~3편의 명작을 읽는다.

### 4.5. 유럽 연합(EU)

27개 회원국, 23개 공용어가 쓰이는 EU는 통역비, 번역비 과다로 언어문제가 복잡하지만 영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모어(母語) + 2 외국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령 스위스는 26개 연방으로 되어 독어, 불어, 이탈리아, 스위스로망어가 공용어로 쓰이므로 고교 졸업 후에는 3,4개 언어가 가능하다.

## 5. 국어능력 함양을 위한 국어교육

### 5.1. 국어를 잘하려면 국어 의식을 높여야 한다

어려서부터 국어에 대한 민감성 곧 국어 의식(consciousness), 국어 정신을 높이는 태도 교육이 필요하다. 말에는 힘이 있고, 말은 개인의 생명이며 영혼의 결정체로 개인, 가정,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자각이 내재화되어야 한다. 할 말은 하면서도 말을 신중히 하는 국어사용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 사실의 왜곡, 선동, 과장을 분별해 내는 사실적, 비판적, 분석적 사고력도 국어 의식의 결과로 형성되어야 한다. 언어예절, 국어순화의 태도 등도 이런 국어 의식의 함양에 필요한 교육 내용이다. 국어의 역사에서는 국어 의식 함양을 위해 다음의 교육 내용이 유용하다.

- (1) 훈민정음 어제서문(御製序文): 한민족 최고 명문. 자주, 애민, 실용의 3대 정신
- (2) 주시경(周時經, 1876-1914)의 국어사랑 나라사랑: 주시경 선생의 국어 연구에 바친 일생은 좋은 귀감이 된다.
- (3) 조선어학회 정신: 우리말과 글을 빼앗겨 수난받을 때 국어사전을 편찬하고 어문 규범을 연구 제정하고 국어를 지키다 모진 고문으로 고초를 겪은 조선어학회 선열들의 국어 수호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 5.2. 국어를 잘해야 외국어를 잘한다

한국인이 세계화하고 동아시아를 제어하려면 ‘한국어(한글+한자 두 날개) + 영어 + 중국어/일본어’ 소통 능력 갖추어야 한다. 한중일 경제 공동체를 예상한다면 스위스 고교생이 3,4개 언어 구사함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처럼 외국어 사용이 증대할수록 모어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형 이민과 후진국형 난민의 경우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언어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을 받아들이는 나라에서는 다언어사회로 이행되는 현상을 낳게 되며 개인으로서는 모어 외에 제2, 제3의 언어를 학습하며 생존하게 되어 다중언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언어 공동체가 다문화공동체로 이행 중에 있고 개인은 다중언어능력을 갖추어야 생존이 가능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전자를 다언어주의(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라고 한다면 후자는 다중언어주의(multilingualism)가 된다.

한국 사회도 남한 5천만(남북 7300만) 단일민족사회였는데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이 생겨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면서 현재는 120만 외국인이 와서 사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하였다. 이러한 인구 이동의 변화와 함께 급속한 언어 소통 방식의 혁명도 일어나고 있다. 영상매체의 발달, 전자 소통기기의 혁명적 변화로 농경사회, 유목사회에서처럼 가정언어를 기반으로 한 제1언어만으로 소통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 전문직 종사자일수록 국제적 의사소통을 위해 1-3개 외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것을 필요로 하게 되어 외국어교육이 더욱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외국어의 중요성이 커 갈수록 자신의 모어 정체성이 분명히 확립되고 갖추어져야 한다. 언어학자들은 모어를 잘해야 외국어도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어를 잘할수록 외국어도 잘하며 외국어를 잘할수록 인지능력, 사고력, 학습 능력도 발달한다고 한다. 고급 외국어를 구사하려면 모어를 고급스럽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잊은 한국인이 너무 많다.

## 5.3. 국어를 잘하려면 어휘력을 길러야 한다

국어 잘하려고 어휘력을 풍부히 한다는 것은 고유어뿐 아니라 한자어로 된 학문어(academic vocabulary, 개념어, 전문어)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학문어 잘 알려면 한자를 아는 것이 유리하다. 궁극적으로 한글문화 꽃 피워 한글전용 잘하려면 한자교육도 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학문어의 99%가 한자어인데 한자 이해력이 부족하다 보니 어휘 학습 특히 한자어 학습은 암호 학습이 되어 버렸다. ‘경연(經筵/競演), 진통(陣痛/鎭痛)’와 같은 동음이의어를 헛갈리고, ‘결재(決裁)/결제(決濟), 물의(物議)/무리(無理)’ 같은 유사어를 헛갈린다. ‘당뇨병(糖尿病)’을 “똥똥하면 걸리는 병”으로 알고 ‘수평선(水平線)/수직선(垂直線)’의 ‘수-’가 같은 줄 알며,

‘서정시(抒情詩)/서사시(敍事詩)’의 ‘서-’를 같은 줄 착각한다.

#### 5.4. 국어를 잘하려면 문법 의식과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부모에게 필요한 문법 능력은 자식의 국어 질문(단어 뜻이 무엇인지, 어떤 단어가 정확한 단어인지, 어법이 맞는지, 훈민정음 원리, 주요 국어 역사, 국어 인물, 국어 사건 등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답할 수 있는 능력 정도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국어 분석 능력(품사, 성분 용어): 국어 문법 용어로 문장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올바른 표현에 대한 국어 의식고양(意識高揚, awareness raising): 국어 민감성
- 외국어 학습 대조 문법용의 최소한의 자국어 문법 지식
- 국어 규범 이해와 실용(맞춤법)
- 표준어 구사 능력
- 외래어에 대한 태도 형성(외래어 표기, 로마자 표기, 국어사랑, 국어순화)
- 국어사전 활용 능력
- 국어예절(표준화법)
- 국어의 역사 이해: 훈민정음 등
- 국어 운동사, 사건사, 인물사 이해(세종, 주시경, 조선어학회 사건 등)

#### 5.5. 국어능력의 출발은 독서능력이다.

국어능력의 기본은 독서능력에서 출발한다. 문법지식은 이를 돕는 기초 역할을 수행한다. 독서능력을 키워야 작문도 잘한다.

(1) 2010년 문화관광체육부,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

① 독서율: 성인의 연평균 독서율(1년에 일반도서를 1권이라도 읽은 사람의 비율)은 65.4%로, 지난 2007년 이래 독서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한편, 비독서자를 포함한 연

평균 독서량은 10.8권으로 전년도(10.9권)와 비슷한 수준임.

. 전년 대비 성인 독서율 하락(-6.3% 포인트)은 응답자 특성별로 30.40대(각각 -10%P),

생산·판매직(평균 -17.3%P) 및 자영업(-11.0%P), 저소득층(월소득 100~200만원, -21.5%P)의 독서율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다만, 직업별 전년 대비 연평균 독서율 변화는 생산·판매/자영업의 경우 두 자릿수 이상 크게 감소한 반면 관리직/전 문직/사무직 종사자(-3.8%P), 대학생(+0.3%P), 전업주부(+5.1%P), 은퇴/

무직(+1.5%P)

등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증가한 경우도 있어 직업별 편차가 존재함.

한국인의 연평균 독서율(만15세 이상) 67%는 유럽(EU 27개국) 평균(71%)보다 약간 저조

- ② 독서량: 한국인의 월평균 독서량(성인 1.3권, 초·중·고 6.4권)은 일본인(성인 1.4권 등)과 비슷한 수준

- ③ 시간 부족 및 독서습관 미흡이 독서 장애 요인

· 평소 ‘책 읽기가 생활화되어 있다’는 성인들은 17.4%에 불과하며, 과반수 이상(55.7%)은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로 연령이 높을수록 독서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많음. 성인들의 독서 장애 요인 역시 ‘일이 바빠서’(41.3%)가 가장 주된 이유이나 두 번째는 ‘독서습관 미형성’(25.8%)인 것으로 나타남.

- ④ 전자책의 이용 확산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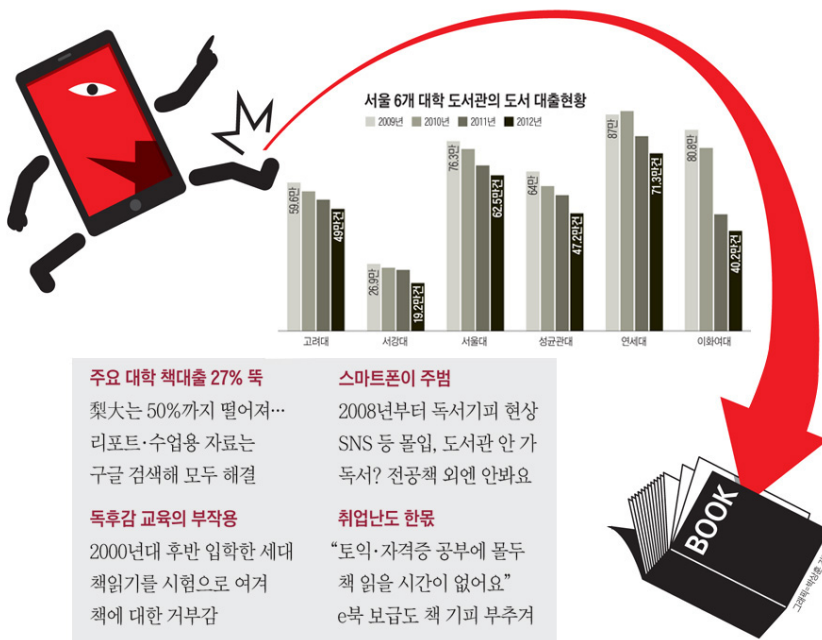
· 스마트폰, 태블릿PC(스마트패드) 등 디지털 매체의 확산에 따라 ‘종이책’ 위주의 독서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음. 전자책(e-book) 이용 경험률은 성인 11.2%, 학생 43.5%로 학생층을 중심으로 전자책 이용이 대폭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아직까지는 ‘스마트폰/태블릿PC’보다는 일반적인 ‘컴퓨터(데스크톱 컴퓨터)’ 위주로 전자책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 경로는 주로 ‘포털 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남. 성인들은 ‘문학도서’(33.9%), ‘실용도서’(30.4%),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문학도서’(50.1%)와 ‘만화’(43.4%), 초등학생은 ‘어린이소설’(47.1%), ‘학습용 만화’(39.0%), ‘오락용 만화’(38.1%)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전자책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③ 독서시간

성인 독서인구의 독서시간은 증가, 학생은 감소 (초등학생은 증가, 중·고등학생은 감소)

- 비독서자를 포함한 성인 전체의 평균 독서시간은 평일 31분, 주말 32분으로 지난 '09년 (평일 28분, 주말 29분) 대비 소폭 증가함. 이는 독서자들의 독서시간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평일 40분 → 50분, 주말 44분 → 53분).
- 학생들의 평일 독서시간은 41분(초등학생 57분, 중학생 36분, 고등학생 30분), 주말 48분(초등학생 65분, 중학생 43분, 고등학생 36분)으로 초등학생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대비 평일/주말 독서시간이 소폭 감소함.

[대학생 도서 대출 경향] 대학생들 '폰'은 가깝고 책은 멀다(조선일보 2013-2-4)<sup>5)</sup>



- 주요 대학 책대출 27% 뚝: 梨大는 50%까지 떨어져... 리포트·수업용 자료는 구글 검색해 모두 해결. 독서? 전공책 외엔 안봐요
- 스마트폰이 주범: 2008년부터 독서기피 현상... SNS 등 몰입, 도서관 안 가
- 독후감 교육의 부작용: 2000년대 후반 입학한 세대... 책임기를 시험으로 여겨 책에 대한 거부감.
- 취업난도 한몫: “토익·자격증 공부에 몰두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 e북 보급도 책 기피 부추겨

전통적으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집단이었던 대학생들의 독서 기피가 최근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의 6개 대학(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 도서관의 도서 대출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출 건수는 최근 3~4년 새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대출 건수도 17.9% 감소

5)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생 독서 기피의 외부요인이 스마트폰이라면 내부요인은 독서교육에 있다고 지적했다. 중·고교생 시절 잘못된 독서교육을 받아 책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는 것이다. 2005년 교육 당국은 '사도 교육청 독서지도 매뉴얼'을 발간해 학생들에게 선정도서를 중심으로 독후감을 쓰도록 하는 등 독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007년 고교 과정부터 독서 포트폴리오 제도를 본격 도입했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독서활동사항을 기록하도록 했다. 서울대 국문과 방민호 교수는 “독서교육이 강화되고 입시제도에 논술이 포함되면서 학생들이 오히려 깊은 독서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읽으면서 사색을 해야 하는데 시험 준비용으로 삼으니 진정한 독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서를 교육과정에 넣은 것은 옳았으나, 성적평가의 대상이 되며 중·고생들에게 책을 심리적 혐오 대상으로 만들었다. 점수화된 독서교육을 받은 세대가 대학에 와 스마트폰·아이패드를 익숙하게 다루게 되면서 더욱 독서를 기피하게 됐다는 분석이다(이상 조선일보 2013-2-4 기사 인용).

했다. 이화여대는 2009년 80만8764건에서 2012년 40만2439건으로 도서 대출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 스마트폰 때문에 독서를 하지 않으면 사고력이 약화되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국력은 독서량으로도 측정한다. 독서량이 많으면 그 나라는 장래가 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보급은 1위라고 하지만 인터넷 발전이 ‘지식의 단편화’를 부추겨서 ‘사색을 요하는 독서’를 저해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은 이런 병리 현상을 보여 준다.

## (2) 읽기 교육의 중요성

- 언어, 읽기를 통해 다른 과목을 배운다.
- 4 기능은 신체와 함께 기른다. 눈은 읽기, 귀는 듣기, 입은 말하기, 손은 쓰기.
- 듣기, 말하기는 타고 태어난다(장애인 제외). 읽고 쓰기는 후천적이다.
- 듣기, 말하기가 선천적이지만 후천적 교육 발달 과정이 필요하다.
- 읽고 쓰기는 후천적이나 선천적 지능, 능력에 좌우되며 훈련 필요하다.
-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은 사고력이 있음을 뜻한다. 생각하기 싫어하는 민족은 독서력이 낮고 게으르고 미개하다. 읽을수록 사고력이 발달한다.
- 운동이 신체를 자라게 하듯 독서는 마음을 자라게 한다.
-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 책 읽으면 결정적 영향 받는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좋은 책과의 만남처럼 인생의 중요한 만남이 없다.

## (3) 학교 독서교육의 방향

- 학생들이 좋은 책을 바르게 선택하여 능률적인 방법으로 읽게 한다.
- 저학년(1학년) 아동기의 독서 습관이 학습과 진로에 절대적이므로 저학년 지도부터 철저히 한다.
- 독서에 흥미를 갖고 독서 행위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독서 심리를 자극하고 독서 환경을 조성한다.
- 바람직한 독서 습관을 형성하여 일생 동안 독서 생활화 도와준다.
- 초현실적 반복 이야기(2세~6세) - 옛날 이야기(4세~6세) - 우화기(寓話期, 6세~8세) - 동화기(童話期, 8세~10세) - 이야기기(10세~12세) - 전기기(傳記期, 12세~14세) - 문학기(文學期, 14세~) - 사색기(思索期, 17세~)

## (4)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한 환경의 조성

- 독서교육에 대한 교사, 부모, 학생들의 인식 대전환 필요
- 가정 독서 문화 수립: TV보다 독서(읽어주기, 같이 읽기, 홀로 읽기)  
아동이 흥미 느끼는 독서로 유도하라. 책 읽는 모습을 보여라. 책 읽을 시간을 만들어 줘라. 어린아이에게는 큰소리로 읽어 주라. 독서를 한 뒤 줄거리를 쓰게

- 하지 마라. 다독보다는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게 하라(3회 읽을 가치 있는 책으로 하라).
- 책의 내용을 토대로 대화 시간을 가져라. 개방형 질문을 하라(너라면?, 결말은?). 책 속의 장소로 가족여행을 떠나 보라. ‘책의 줄거리를 요약하라, 주인공이 그때 뭐라고 말했지?’ 퀴즈식이 아니라, ‘네가 주인공이라면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식으로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해야 생각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톨스토이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책을 끝까지 읽어 주지 않고 ‘결말이 어떻게 될까?’ 하고 물었다고 한다.
  - 재미있는 학교 독서 지도: 독서 통장, 독서 우체국, 10분 독서 등 지속적 실천지도. 요약, 퀴즈식 독후감 활동을 넘어 개방형, 창의적 질문 학습
  - 학교 도서관 기능 강화: 하드웨어(공간 규모와 시설, 환경 등), 소프트웨어(장서와 운영 프로그램 등), 휴먼웨어(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서 교사나 담당 교사 등) 3 요소. 학교 도서관은 ‘독서 활동의 장, 학습 활동의 장, 자료제공의 장, 정보 제공의 장, 레크리에이션의 장’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 정보 문화 센터로 자리 잡아야 한다.
  - 체계적 독서 시간 제공: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의 시간을 이용한 독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하고, 독서의 방법과 원리 지속적 교육.

#### (5) 읽기 잘하기 환경 만들기

- 읽기 천성(天性) 만들기
- 공감대 형성하기(가족과 읽기, 부모의 읽어주기)
- 일상읽기 강화(가정에서 환경 조성. 신문 방송 매체언어 활용 등)
- 상호작용 읽기(주제 접근 피드백 읽기, 프롬프트 읽기(예/아니요 질문, Wh형 질문))
- 무조건 책을 많이 읽는다고 좋은 건 아니다. 글의 표현이나 의미에 중점을 두면서 읽는 게 아니라 줄거리만 기억하는 방식으로 읽으면 창의성이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 오히려 부정적이다. 2학년(저학년)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통독(通讀)’이, 4학년(중학년)과 6학년(고학년)의 경우에는 ‘정독(精讀)’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다. 모든 학년에서 가장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꼽힌 것이 ‘다독(多讀)’과 ‘발췌독(拔萃讀)’이다. 한 권이라도 아이가 집중해 즐겁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읽고 나서는 아이의 독특한 발상을 격려하는 쪽으로 자유로운 글쓰기를 한다. 결말 바꿔 쓰기, 뒷이야기 만들어가기 등 아이가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도와야 한다[조미아,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 미치는 독서교육의 영향에 관한 연구’]

- (6) 성공한 지도자의 공통점은 초등시절 좋은 책을 자주 접했다. 범죄자들은 초등시절 책을 거의 읽지 않았다. 어떤 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인생 방향이 결정된다.

첫째, 책 읽는 환경이 중요하다. 좋은 책을 구비하는 것은 물론, 부모가 먼저 아이의 역할모델이 돼 책을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가정에서 독서의 생활화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부모의 목소리로 책을 읽자. 어려서부터 꾸준히 책을 읽어주는 일은 스킨십만큼이나 아이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된다. 특히, 아빠의 중저음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와의 유대관계를 위해서도 아이의 정서발달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TV·인터넷 등 영상매체를 최소화하자. 요즘 아이들은 휴대폰, 인터넷 등 다양한 영상매체에 노출돼 있어 책을 접할 기회를 잃고 있다. 영상매체 활용 시간은 주 1, 2회로 줄이고 좋은 프로그램은 부모가 먼저 살펴보고 아이와 함께 골라보는 것이 좋다.

넷째, 독서 육아에 아빠가 적극 참여하자. 주말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인 아빠들이 많은데 아이와 함께 동네 도서관이나 서점을 찾아 함께 책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적극적인 독서 육아가 된다.

독서교육은 특히, 어린 시절 부모의 관심이 중요하다. 행복한 아이를 원한다면 좋은 책을 선물하라. 밥처럼 꾸준히 책을 읽는 분위기가 아이를 달라지게 한다.

## 5.6. 국어의 힘은 가족 대화와 토론 교육에서 나온다

말과 글은 개인의 영혼이고 인격(人格)이며, 한국어는 한국의 정신이고 문화이며 국격(國格)을 보여 준다. 오늘의 한국어가 한국의 미래라는 점에서 국어 능력이 평생의 자산이요 국가 경쟁력의 기초라 할 수 있다. 개인도 말을 다스려야 성공하며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도 한다. 한국 사회는 계층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이 극심하고, 경제적 약자 배려, 기회균등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이 높고, 자살률, 성폭력, 이혼율도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한다.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으면 행복지수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며 물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른다고 한다. 그 밖에 정치, 안보, 경제의 위기로 사회적 불통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물속의 개구리 같다. 정작 한국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경고(2013. 4. 세계적 컨설팅사 맥킨지 보고서)도 보인다. 향후 15년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네 가정은 가족 대화부터, 식탁대화부터 단절되어 불통 해체 수준이라 가족대화 훈련의 부재는 사회적 인간관계의 미숙함으로 나타난다. 학교도 질문



이 없이 꿈이 없는 절망의 교실로 변하였다. 성적으로 일생이 결정되는 체제로 꿈을 상실한 열등감 학생을 양산하고 있다. 유대인의 대화 토론 문화(하브루타)를 본받아 연습하여 대화 토론 철저히 준비하는 풍토가 필요하다. 유대인 부모는 자녀에게 학교에서 오늘 무엇을 배워 왔느냐고 하기 전에 무슨 질문을 학교에서 하고 왔느냐고 묻는다고 한다. 질문 교육이 창의 교육의 원천이라 할 만하다. 우리 사회의 소통능력을 기르려면 가정, 학교에서부터 대화와 토의 토론이 활발해야 한다. 유대인의 우수성은 ‘하브루타’라는 유대인의 가정 대화와 토의교육에서 나오는데 식탁 대화부터 다양한 주제로 풍성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교실은 교사가 민망할 정도로 질문과 토론이 활발하여 이것이 유대인의 창의성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 [부록]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어문 상식

### 1. 국어의 위상

세계 6,000여 언어. 문자 400여 개. 실제 주요 문자는 30여 개.

(1) 20-50클럽(2만 달러 5천만 인구국가): 1위 1987년 일본. 2위 1988년 미국. 3위/4위 1990년 프랑스, 이탈리아. 5위 1991년 독일. 6위 1996년 영국. 7위 2012년 한국(5천만 최소 인수로 도달).

(2) 무역 1조 달러 달성: 2011. 12. 5. 수출 5,150억 달러, 수입 4,850억 달러. 1조 달성. 세계 9위(1위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한국순). 2012년에도 달성. 5위권 안에 든 한국의 산업: 정보통신(IT) 반도체, 철강, 조선, 자동차.

5-16 이후 1995년 36년간 한국 평균 경제성장률 7.1%. 세계 1위.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계열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사가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서열에서 네 범주(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 민주주의, 권위주의)에서 2010년부터 한국은 '완전 민주국가'로 분류되었다. 이전에는 한국이 '결함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2010년 조사에서 한국은 20등으로 일본(22등)을 앞섰다. 2012년 결과는 25개의 완전한 민주국가군에서 20위로 미국 21위, 일본 23위, 프랑스 28위를 앞섬. 중국은 142위, 북한 꼴찌 167위

(3) 한국어는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힌디어, 벵갈어, 포르투갈, 독일어, 일본어, 아랍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에 이은 8천만 인구, 13위권의 대국언어(남 5천만, 북 2300만, 해외 750만).

(4) 전 세계 60%는 다중언어사회. 대부분은 2개 이상의 언어를 익혀야 경제생활.  
한국 내 150만 외국인. 매년 2만 명 귀화 신청

(5) 유엔 6대 통용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2007년 유엔 10대 실용어 발표(영어 일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아라비아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2039년 중국어가 세계통용어가 된다는 유엔 보고서

1994년 2월 26일자 영국 가디언(Guardian)지, ‘돌고래 한국’

“한국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한국은 지난 역사의 전환기마다 주변 고래들의 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은 또다시 주변 고래들의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러면 한국은 다시 등이 터질 것인가? 아니다. 한국은 이제 새우가 아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20위권의 무역대국, 경제대국이 되었다. 아직 큰 고래는 아니지만 앞으로 큰 고래가 될 수 있는 영리하고 민첩한 돌고래가 되었다. 한국이 앞으로 큰 고래가 되어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나라의 하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새우로 전락하여 다시 등이 터질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 2. 국어의 계통

(1) 북방설: 알타이 어족설(핀란드 학자 람스테드) / 고(古)시베리아 어족설

(2) 남방설: 삼국유사 권2 가락국기(駕洛國記) 김수로왕(金首露王) 왕비

아유타국(阿踰陀國) 허황옥(許黃玉) 보주대비(普州大妃)

삼국유사 권3 탑상편 금관성 파사석탑 조(塔像篇 金官城 婆娑石塔條)

아유타국에서 실어온 수호 불상

김병모(1999, 김수로왕비의 혼인길, 푸른숲)(1998, 금관의 비밀 : 한국 고대사와

김씨의 원류를 찾아서, 푸른 역사)(1994, 김수로왕비 허황옥: 쌍어의 비밀, 조선일보)

수로왕릉 쌍어문(雙魚紋)(인도 아오디아주 문장(紋章)), kara, kayal, kaye 魚

(3) 현대 한국어의 뿌리: 신라 삼국통일(민족사 최대 영웅, 김유신)

대한민국의 민족적, 역사적 뿌리를 멀리는 고조선에서부터 보지만 통일신라의 삼국통일이 한민족 통합과 통일 민족국가 성립의 중요한 기초가 되어 대한민국은 제2의 통일신라와 같은 존재이다. 북한은 고조선-고구려-김일성 조선(북조선)으로 민족사의 정통성을 잇는 것으로 역사 조작을 하였다.

김부식(金富軾)이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列傳) 10권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인물로 1-3권에 김유신(金庾信)을 넣은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김유신 열전(金庾信 列傳)의 끝에는 “유신과 같은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칭송하여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으니 이 점 사대부들이 알아야 한다. 추동목수(菟童牧豎, 풀 베는 아이와 목동)까지도 능히 알고 있으니 그 사람됨이 반드시 보통 사람과 다름이 있다”라고 하여 김유신이 소년들에게까지 영웅으로 회자되어 있음을 증언하고 있고 사대부들이야말로 이를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날 한국의 지식인들이 얼마나 김유신을 고대 민족사 최고의 인물로 생각하고 있을까? 삼국통일기에 대당(對唐) 통일전쟁을 벌여 당나라 군대를 내쫓고 통일 성업을 이룬 676년 장항 앞바다의 기벌포(伎伐浦) 전투와 김유신을 우리의 교육은 잊고 있다. 당시 김유신의 통일신라군이 당나라 군대에 졌다면 우리는 영원히 중국의 일개 군현으로 전락하였을 것이다.

#### (4) 국어문화의 정체성 7 요소

- ① 언어 정체성, ② 민족 정체성, ③ 의식주 생활 정체성, ④ 국민 의식 정체성(국민성), ⑤ 종교 정체성, ⑥ 역사 정체성, ⑦ 국가 정체성

## 4. 국어, 국문, 한글

[훈민정음]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御製 序文) 且國語雖不分輕重 皆得成音(合字解)  
· 一起 | 聲 於國語無用 兒童之言 邊野之語 或有之當合二字而用 如기그之類 其先縱後橫 與他不同(合字解)

[개화기] 六. 敎民才德文藝以治本

先敎人民以國史及國語國文事(不敎本國之歷史文章而但敎清國之歷史文章故人民以清爲本而重之至有不知自國之典故者此可謂捨本取末也)[박영효가 고종에게 건의한 ‘內政 改革에 대한 建白書’(1888)의 8개 조항 중 제6항]

[한글] 주시경(1876~1914) 작명설, 최남선(1890~1957) 작명설이 있다.

## 5. 훈민정음론

### (1)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

- ① 성리학의 영향: 성리대전(1415),의 전래(1419). 홍무정운(1375) 전래로 중국 음운학인 성운학(聲韻學)의 도입과 영향. 해례본 본문에 성리대전 곳곳 인용.  
② 인근 제민족의 문자에 대한 관심: 사역원(司譯院) 설치(1394)

③ 한자 음훈차(音訓借) 표기법(이두, 구결, 향찰)의 불편

(2)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

- ① 백성들에게 표기수단 제공(便民) ② 한자음 개혁(東國正韻) ③ 이두의 불편  
 ④ 애민정신 ⑤ 고유어 표기, 한자음 표기(注音부호)의 수단  
 ⑥ 훈민교화적 동기(殺父 사건 - 三綱行實圖 1434 편찬, 한문본 - 한글본)  
 ⑦ 원(元) 세조(世祖)의 파스파[八思巴] 문자 ⑧ 문자 없는 국가 체면  
 ⑨ 불교적 동기(해례서문 54자-언해서문 108자, 석보상절 등 불경언해)

(3) 훈민정음의 창제 기원

① 상형설(象形說): 해례본(解例本)

자음: 발음 기관 상형, 가획, 병서 + 모음: 三才 상형, 합용

ㄱ. 자음(子音)

	牙	舌	脣	齒	喉	半舌	半齒
전청(全淸)	ㄱ 君	ㄷ 斗	ㅂ 淸	ㅈ 即	ㅇ 挹		
차청(次淸)	ㅋ 快	ㅌ 吞	ㅍ 漂	ㅊ 侵	ㅎ 虛		
전탁(全濁)	ㄴ 蚪	ㄹ 覃	ㅃ 步	ㅆ 慈	ㅇ 洪		
불청불탁(不淸不濁)	ㅇ 業	ㄴ 那	ㅇ 彌		ㅇ 欲	ㄹ 閭	ㄷ 穰
전청(全淸)				ㅅ 戌			
전탁(全濁)				ㅆ 邪			

	기본자	제자 원리	가획자	병서자	
엄소리(牙音)	ㄱ	象舌根閉喉之形	ㅋ	ㄴ	ㅇ
혀소리(舌音)	ㄴ	象舌附上腭之形	ㄷ, ㅌ	ㄹ	ㄹ
입시울소리(脣音)	ㅂ	象口形	ㅃ, ㅍ	ㅆ	
니소리(齒音)	ㅅ	象齒形	ㅆ, ㅊ	ㅆ, ㅆ	ㄷ
목소리(喉音)	ㅇ	象喉形	ㅇ, ㅎ	ㅇ	

ㄴ. 모음(母音)

· → ㅏ ㅑ → ㅓ ㅕ → ㅗ ㅛ → ㅜ ㅠ  
 — → ㅜ ㅠ → ㅗ ㅛ → ㅓ ㅕ → ㅏ ㅑ

② 고전(古篆) 기원설: 세종실록 권 102, 세종 25년(1443/4) 계해 12월 기록.

ㄱ. 이 달에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만드셨다. 그 글자는 ‘고전(古篆)’을 모방하였다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ㄴ. 解例本 정인지 서문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象形而字倣古篆 因聲而音叶七調. 三極之義 二氣之妙 莫不該括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 簡而要 精而通 故智者不終朝而會 愚者可浹旬而學”의 象形而字倣古篆 논쟁

ㄷ. 鄭樵(1104~1162)의 六書略(通志 卷34)에 나오는 ‘起一成文圖’

③ 몽고 파스파[八思巴] 문자 기원설: 李瀾(星湖僊說), 柳僖(諺文誌)

④ 범자(梵字) 기원설: 成倪(慵齋叢話)

⑤ 창호(窓戶) 상형설: P.A.Eckardt 신부

#### (4) 훈민정음의 특성

① 창제자, 창제 기록, 창제 연대 분명하다.

② 과학성, 체계성, 경제성, 실용성(애민정신)

③ 한글 운용: 음소문자이자 음절문자로 사용. 표음문자와 표의문자의 장점 활용

#### (5) 창제의 주제: 세종 친제설.[이기문(1992), 훈민정음 친제론, 한국문화 13]

세종(1397~1450, 재위 1419~1450)은 조선초에 국가의 기초를 든든히 한 성군이다. 성운학에 능통하고, 집현전을 설치해 학문 진작에 힘썼고, 농업서, 역사서 등 서적 출판, 활자 주조, 음악 정리, 제도 개혁 등의 내치뿐만 아니라 북진 개척, 대명(對明) 외교 등에서 외치에도 힘썼다. 그는 1415년에 나온 ‘성리대전(性理大典)’을 구입해 직접 읽고 1418년에 발간, 신하들에게 배포해 유행케 한 유학자이지만 소현 왕후를 잃고는 신하들과 충돌하면서도 불교 신앙에 심취한 불자였고 풍수설로 경복궁 거주를 꺼리고 왕자, 형제의 집을 전전하다가 승하한 풍수설 신봉자여서 그의 사상의 폭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그동안 한글 창제의 주체가 누군가라는 문제에 대해 ‘용재총화’의 기록처럼 세종이 신숙주 등에게 명해 만들었다는 <명제설(命制說)>, 주시경의 주장처럼 신하들의 협력으로 만들었다는 <협찬설(協贊說)>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견해는 결국 세종의 비(非)친제설을 가리키는데 이는 세종 당시 기록들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는 막연하고도 잘못된 주장이다. 세종 당시의 다음 기록들은 분명히 세종의 친제를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ㄱ. ……是月上親制諺文二十八字……(세종실록25년 12월 끝 기사)라고 ‘親制’를 명시하고 있다.

ㄴ.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 ‘우리 전하는 하늘이 낸 성인으로 제도를 베풀어 백왕을 초월하고 정음을 지으심도 선인의 가르침을 받은 것 없이 자연에서 이루신 것이라’(恭惟我殿下 天縱之聖 制度施爲 超越百王 正音之作 無所祖述 而成於自然)라고

세종의 공로임을 강조하고 있다.

- ㄷ. 세종어제(世宗御製) 서문에도 ‘내 이를 위해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予爲此憫然…)라고 세종 자신이 주어로 등장하고 있다.
- ㄹ. 세종의 문자 제정의 사명감과 열정이 최만리 반대상소에 대한 반박에서 드러난다. 세종은 최만리에게 ‘그대들의 군상이 한 일은 옳지 못하다고 하는 일이 무엇때문이나……내가 운서를 바로 잡지 않으면 누가한단말이냐’(而非其君上之事 何哉……若非予正其韻書 則伊誰正之乎)라고 반박한다.
- ㄴ. 세종은 학문적으로 호학자(好學者)이어서 직접 성리학을 토대로 한 중국의 성운학을 연구하였다. ‘성리대전’을 읽고 발간, 배포한데서 알 수 있다.
- ㄷ. 세종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의 두 문헌은 세종이 개인적으로 선호한 표의주의 맞춤법(예: 꽃, 높고, 빛나)을 보여주지만 다른 불경서들은 8종성법에 따라 소리대로 적은 표음주의 표기(예: 꽃, 높고, 빛나)를 보여 세종 개인의 표기의식이 남달랐음을 보여 주며 이는 세종 개인의 언어 표기의식이 강력하고 이론적이었음을 반영한다. 세종은 이미 기본형을 밝혀 적는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6) 최만리(崔萬理) 7인 원로의 6개 항목 갑자(甲子) 상소(上疏, 1444. 음 2. 20)

최만리(?-1445): 최고 청백리, 충신, 집현전 부제학 책임자. 역적으로 봄은 잘못.

자주적 사대(事大)노선과 외세의존적 사대주의 구별해야. 당시 사대 노선은 국가 이념.

서문: 정음 창제 신묘 칭송, 상소 이유(정음 창제에 대한 의문점) 명시와 성재(聖裁) 간구

- 1항: 문화 및 문자 사대주의 전통 확인(중국과 글 및 법도 동일 확인). 정음 창제 및 한자음 개혁으로 국가 노선 훼손 및 중국과 불화 우려, 고전 기원설 의심
- 2항: 문화 사대주의(소중화) 강조. 문자 창제는 오랑개 이적(夷狄)의 일. 오랑개와 조선의 차별성과 사대 모화의 당위성 강조, 문자 창제는 중국 포기 노선 간주
- 3항: 이두 효용 주장과 언문 불필요론, 정음 시행 후의 공직 혼란 및 한문 보급 쇠퇴와 문화 쇠락 우려, 한자 기원설 부정(한자 무관 단정)
- 4항: 언문일치/불일치 문제와 법치를 위한 문자 용도론의 한계 설파
- 5항: 어문 정책의 중요성과 세종의 독단적 어문정책, 특히 한자음 개혁의 비판
- 6항: 동궁의 정음 사업 관여 우려

## 6. 개화기 국어와 국문의 자각

- ① 1886년 민간 사학 ‘배재학당, 이화학당’. 관립학교 ‘육영공원(育英公院)’ 교사 헐버트의 순한글체 지리 교과서 ‘스민필지’(土民必知, 1889경). 유길준의 ‘서유견

문’(1895, 개화기 혼용체)

- ② 성경 번역: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로스, 1882). 신약마가전복음서언히(李樹廷, 1885).  
최초의 신약 성서: 예수성교전서(존 로스 목사, 1887)  
언더우드/아펜젤러 ‘성서번역자회’: 신약전서(1900), 구약전서(1910), ‘성경전서’(1911)

#### 〈성서 문체의 변천〉

- [로스87] 들에밧팀레를베풀교회기의밧팀레를던혀여씨죄를샤케하느요안너닐으니  
[이수정85] 約翰요한네쓰가드을에서洗禮밧테슈마를베푸러뉘웃쳐곳치는洗禮밧테슈  
마를傳전하야혀여금罪죄의赦사하믈엇게하느니  
[언더우드87] 요한이들에서세레를베푸러뉘웃쳐곳치는세레를전하야혀여금죄샤함을  
엇게하느니  
[1900] 뵈 들에서 세레 주는 요한이 와서 뉘웃쳐 곳치는 세레를 전파하매 이는 죄  
샤함을 엇게 함이니  
[1911] 요한이 니르러 광야에서 세레를 줄식 회기하느 세레를 전파하야 죄 샤함을  
엇게 하느니  
[1938] 세레요한이 니르러 광야에서 죄샤함을 밧게 하는 회개의 세레를 전파하니  
[1952] 세레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밧게 하는 회개의 세레를 전파하니  
[1998] 세레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밧게 하는 회개의 세레를 전파하니

## 7. 개화기의 국어 운동사/인물사

- (1) 서재필(徐載弼, 1864~1951) 송재(松齋)·쌍경(雙慶), 필립제이슨(Philip Jaisohn)  
갑신정변 실패로 탈출 도미. 최초의 의학박사. 10년 후 갑오경장으로 1895년 귀국  
후 순한글체 ‘독립신문’ 발간.

- (2) 이승만(李承晩, 1875~1965) 우남(雲南)

양녕대군 후손. 한학(漢學) 수학, 한시에 능함. 배재학당 졸업. 영어를 1학년 때 익  
혀 재학 때 영어 가르치고 졸업연설을 영어로 함(조선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였다는  
평). 고종에게 내정 개혁 요구한 최초의 국민 권기대회인 만민공동회 주동(최초의 학  
생 운동 민중 계몽가). 만민공동회 직후 반역죄로 사형수가 됨. 23세부터 6년간 투  
옥. 그의 재주를 아껴 감형됨(감옥에서 죄수들에게 한글 가르치고 영한사전 집필).

1904년 29세 특사(特赦) 출옥 후 남대문 상동(尙洞)교회 부설 상동학교 교장. 고  
종 밀사로 도미. 일본 침탈에서 조선 독립 요청. 그러나 약소국 외교 한계 느끼고 서  
구 학문 익히고자 1905년부터 5년반 동안 조지워싱턴대 학사, 하버드대 석사, 프린

스턴 석, 박사 마침, 1910년 10월 귀국 후 와이엠시에이(YMCA) 활동. 105인 사건으로 하와이로 도피. 하와이에서 독립운동 시작.

1919년 3.1 운동 직후 상해 임정 초대 총리, 초대 대통령. 1945년 10월 귀국. 건국, 2,3대 대통령. 동서양의 학문을 겸비한 이승만은 건국 후 어문정책의 기본을 한글전용 정책으로 추진하였다.<sup>6)</sup> 그러나 한자, 한문 교육은 현존시켜 국한 혼용을 현실적으로 지속했으며 과격성을 띠지 않았다. 반면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문자 개혁을 혁명 도구로 삼아 북한 김일성은 한자 폐지 정책으로 문화를 말살하고 우민화 정책과 역사 조작을 시작하여 북한 독재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 (3) 주시경(周時經, 1876~1914) 한민생

독립신문사의 맞춤법 연구 모임인 국문동식회 활동, 정부 내에 설치한 국문연구소(1907) 위원. 상동학교 부설 조선어강습원 강습. <국어문전음학><국어문법><말의 소리>

國文同式會(1896. 5.) - 국어연구학회(1908. 8. 31. 주시경 등) - 배달말글모음(1911. 9. 3.) - 한글모(1913. 3. 23.) - 조선어연구회(1921. 12.) - 조선어학회로 개명(1931. 1. 10.) - 한글학회로 개명(1949. 9. 25.)

### (4)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1942)

조선어학회(한글학회) 업적: 한글날 제정(1926),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1933), 표준말 사정(1936),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제정(1940), 큰사전 편찬(1957), 우리말 다듬기(1967), 한국 지명 총람 편찬(1986), 한국 땅이름 큰사전 편찬(1991), 우리말 큰사전 편찬(1991) 등.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 개요: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1929년 10월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해 <큰사전>의 편찬을 시도했다. 조선어사전편찬회의 발기인 108명 모두가 민족주의 사상을 지녔다고 판단한 일제는 이들을 강제해산하기 위한 구실을 찾기 시작했다. 이에 회원들은 사전출판을 서둘러 1942년 4월 그 일부를 대동출판사에 넘겨 인쇄하기 시작했다. 이때 일제는 조선어학회사건을 조작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함흥학생사건을 꾸몄다.

함흥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 박영옥이 기차 안에서 친구들과 태극기를 그리며 '우리나라 국기'라고 속삭이다가 경찰에게 발각되어 취조받게 되었는데,<sup>7)</sup> 취조 결과 조선어학회의 사전편찬을 맡고 있는 정태진(丁泰鎭)이 관련되었음을 알았다. 같은 해

6) 법률 6호(한글전용법, 1948. 10. 9):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 2005 국어기본법 제정으로 폐지됨.

7)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 다른 주장도 보인다.

이용호 글: 영생여고생 조선어 사용 트집. 박영희 여학생 일기장 사건(일어 사용 야단친 교사로 정태진 선생 지목 철폐)

아들 정해동 증언: 일본 유학생 박병엽이 검문에 조선어로 대답, 시비. 가택 수색, 조카 박영희 일기장에 “오늘 국어를 썼다가 선생님한테 단단히 꾸지람을 들었다”를 트집.



9월 5일 정태진이 검거되어 조선어학회가 민족주의 단체로서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짓자백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42년 10월 1일 이중화·장지영·최현배·이극로·한징·이운재·이희승·정인승·김윤경·권승욱·이석린 등 핵심인물 11명이 검거되어 함경남도 홍원으로 압송된 뒤, 1943년 4월 1일까지 모두 33명이 검거되어 고문을 당했다. 사건을 취조한 홍원경찰서에서는 33명 모두 '치안유지법'의 내란죄로 기소했다.

이들 중 16명은 기소, 12명은 기소유예 되었으며 기소자는 예심에 회부되고 나머지는 석방되었다.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운재가 1943년 12월 8일에, 1944년 2월 22일에는 한징이 옥중에서 사망하고, 장지영·정열모 두 사람이 공소 소멸로 석방되어 공판에 넘어간 사람은 12명이었다.

1945년 1월 16일 함흥지방법판소에서는 이극로(李克魯) 징역 6년, 최현배(崔鉉培) 징역 4년, 이희승(李熙昇) 징역 2년 6개월, 정인승(鄭寅承)·정태진(丁泰鎭) 징역 2년, 김법린·이중화·이우삭·김양수·김도연·이인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장현식 무죄 등의 판결을 내렸다. 실형을 받은 이들은 1945년 해방을 계기로 풀려났으며, 이 사건으로 조선어학회는 강제로 해산당했다가 해방 후 조직을 정비한 뒤 1949년 9월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한징(韓澄, 1887~1944. 2. 22.), 이운재(李允宰, 桓山 한메 1888~1943. 12. 8.) 선생은 모진 고문으로 옥중 순국하였다[참고: 새국어생활 1998년 가을호 '石人(쇠돌) 丁泰鎭(1903~1952) 선생 특집호']

외솔 최현배(崔鉉培, 1894~1970) 조선어강습원, 히로시마고등사범, 교토대 문학부(교육학) 졸. 연희전문 교수, 군정청 편수과장, 연세대 교수. 한글학회 이사장.

일석 이희승(一石 李熙昇, 1896~1989) 경성제대, 이화여전, 서울대 교수.

석인 정태진(石人 丁泰鎭, 1903~1952) 경성고보, 연희전문, 우스터(Wooster)대, 컬럼비아대 석사, 영생여고 교사.



# 한글 맞춤법의 이해와 실제

정 호 성 (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장)





# 한글 맞춤법의 이해와 실제



※ 여기에 실린 한글 맞춤법 해설은 ‘문교부(1988) 편수 자료 Ⅱ-4: 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로마자 표기법(표기 용례),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의 일부를 다듬은 것입니다.

## 한글 맞춤법 해설 ·

### 제1장 총 칙

### 제2장 지 모

###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 제1절 된소리
- 제2절 구개음화
- 제3절 ‘ㄷ’ 소리 받침
- 제4절 모 음
- 제5절 두음 법칙
-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 제1절 체언과 조사
- 제2절 어간과 어미
-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 제5절 준 말

### 제5장 띄어쓰기

- 제1절 조 사
-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 제3절 보조 용언
-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 제6장 그 밖의 것

## 제1장 중 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시**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을 정한 것이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근본 원칙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맞춤법이란 주로 음소 문자(音素文字)에 의한 표기 방식을 이른다. 한글은 표음 문자(表音文字)이며 음소 문자다. 따라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 형식에 의하여 표준어를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이 근본 원칙이다. 예컨대

구름      나무      하늘      놀다      달리다

따위는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형식이다.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꽃[花]’이란 단어는 그 발음 형태가 몇 가지로 나타난다.

- (1) [꼬츠] - (꽃이)[꼬치]      (꽃을)[꼬츄]
- (꽃에)[꼬체]
- (2) [꼰] -- (꽃나무)[꼰나무]      (꽃놀이)[꼰노리]
- (꽃망울)[꼰망울]
- (3) [꼰] -- (꽃과)[꼰파]      (꽃다발)[꼰파발]
- (꽃밭)[꼰뻐]

이것을 소리대로 적는다면, 그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고, 따라서 독서의 능률이 크게 저하된다. 그리하여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은 것이다.

어법(語法)이란 언어 조직의 법칙, 또는 언어 운용의 법칙이라고 풀이된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말이다. 형태소는 단어의 기초 단위가 되는 요소인 실질 형태소(實質形態素)와 접사(接辭)나 어미, 조사처럼 실질 형태소에 결합하여 보조적 의미를 덧붙이거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요소인 형식 형태소(形式形態素)로 나뉜다. 맞춤법에서는 각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본모양을 밝히어 적는 것을 또 하나의 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예컨대

(늡고)[늡꼬]      (늡지)[늡찌]      (늡는)[늡는]

처럼 발음되는 단어를 ‘늡-’으로 쓰는 것은, (늡어) [늡거], (늡은) [늡근]을 통하여 실질 형태소(어간)의 본모양이 ‘늡-’임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모든 언어 형식에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형식 형태소의 경우

는 변이 형태(變異形態)를 인정하여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막 - 하/먹 - 허                      소 - 가/말 - 히

따위와 같이, 음운 형태가 현저하게 다른 것을 한 가지 형태로 통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가 아니라,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표현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다만, 한자어의 경우는, 예컨대 ‘국어(國語) 〈나라+말〉, 남아(男兒) 〈남자+아이〉’처럼 결합한 글자가 각기 독립적인 뜻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각 글자의 음을 밝히어 적는 것이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단어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단위이기 때문에, 글은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말의 조사는 접미사 범주(範疇)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이어서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형식 형태소이며 의존 형태소(依存形態素)이므로, 그 앞의 단어에 붙여 쓰는 것이다.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해설** 외래어 표기도 여기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래어의 표기에서는 각 언어가 지닌 특질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래어 표기법을 따로 정하고(1986년 1월 7일 문교부 고시), 그 규정에 따라 적도록 한 것이다.

## 제2장 자 모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귄)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읇)		
ㅏ(야)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붙임 1]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쌍기역) ㄴ(쌍디근) ㄷ(쌍비읍) ㄹ(쌍시옷) ㅈ(쌍지읒)

ㅁ (ㅇ)                      ㅂ (ㅇ)                      ㅅ (ㅇ)                      ㅇ (ㅇ)

나(와)                  내(와)                  너(와)                  저(와)

계(위)                  기(위)                  기(의)

[붙임 2]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음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ㅂ ㅅ ㅆ ㅇ ㅈ ㅊ ㅋ ㅌ ㅍ ㅎ

[illegible]

**해설** 한글 자모(字母)의 수와 차례 및 이름은 통일안(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와 마찬가지로 하였다. 글자 이름에서, ‘ㄱ, ㄷ, ㅅ’도 나머지 글자의 경우처럼 ‘기억, 다음, 시옷’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억하기 쉽도록 한다는 것이 오랜 관용(慣用)을 바꾸어야 할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용대로 ‘기억, 디귤, 시옷’으로 하였다.

[붙임 1] 한글 자모 24자만으로 적을 수 없는 소리들을 적기 위하여, 두 개 자모를 어우  
른 글자인 ‘ㄲ, ㄳ, ㅃ, ㅆ, ㅈ’, ‘ㅊ, ㅌ, ㅋ, ㆁ, ㄷ, ㄴ, ㄹ, ㄺ, ㄻ, ㄼ’와, 세 개 자모를 어우른  
글자인 ‘ㄷㄹ, ㄹㄹ’을 쓰고 있는 것이다.

[붙임 2] 사전에 올릴 적의 차례를 정했는데, 글자(특히 겹글자)의 차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편찬자가 임의로 배열하는 데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받침 글자의 차례가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ㅆ ㅈ ㅊ ㅋ ㆁ ㆅ ㆆ ㆊ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𠂔 口 日 𠂔 人 从 𠂔 ス え 𠂔 𠂔 𠂔 𠂔

###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 제1절 된소리

**제5형**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 ###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쩍새      어깨      오빠      으름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떠하다    해쓷하다    가끔

거꾸로 부씩 어찌 이따금

- ## 2. ‘ㄴ, ㄷ,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뱃

음쫄                  몽땅                  엉뚱하다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국수	깍두기	딱지	색시	썩둑(~썩둑)
법석	갑자기	몹시		

**해설** 여기서 말하는 ‘한 단어 안’은 하나의 형태소 내부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시어 중, ‘소쩍 - 새, 아끼 - 다’ 따위는 두 개 형태소로 분석되는 구조이긴 하지만, 된소리 문제는 그 중 한 형태소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란, 발음에 있어서 경음화의 규칙성이 적용되는 조건(환경)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본디 예사소리인 것이 환경에 따른 변이음(變異音)으로서의 된소리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님을 말한다.

1. 한 개 형태소 내부에 있어서, 두 모음 사이에서(곧 모음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예컨대 ‘소쩍(-새)’은 그 새의 울음소리를 시늉(음성 상징)한 의성어(擬聲語)이므로, ‘숯/적’처럼 갈라질 수 없고, ‘어깨’는 ‘엇개, 억개’처럼 적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피꼬리 메뚜기 부뚜막 새끼 가꾸다 가까이 부쩍

등은 다 이 규정이 적용된다.

‘숯제[순제]’(거짓이 아니라 참말로, 무엇을 하기 전에 차라리)는 흔히 [수제]로 발음되지만, 이 경우의 ‘숯’은 ‘숯 - 되다, 숯 - 접다, 숯 - 지다’ 등과 연관되며, ‘숯접 - 이→숯저비→숯저이→숯제’처럼 분석되는 것이므로, ‘수제’로 적지 않는다.

다만, ‘기쁘다(나쁘다, 미쁘다, 바쁘다)’는 어원적인 형태가 ‘깃 - 브다(낫 - 브다, 밍 - 브다, 밧 - 브다)’로 해석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원형(原形)이 인식되지 않으므로, 본 항에서 다른 것이다.

2. 역시 한 개 형태소 내부에 있어서, 울림소리 ‘ㄴ, ㄷ, ㄹ, ㅇ’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받침 ‘ㄴ, ㄷ, ㄹ, ㅇ’은 예사소리를 경음화시키는 필연적인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단작	번쩍	물썸	절뚝거리다
듬뿍	함박	경뚱하다	몽뚱그리다

따위는 ‘단작, 번쩍, 물썸, 절뚝거리다, 듬뿍, 함박, 경뚱하다, 몽뚱그리다’처럼 적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다만, 한 개 형태소 내부에 있어서도, ‘ㄱ, ㅂ’ 받침 뒤는 경음화의 규칙성이 적용되는 환경이므로, 된소리로 나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곧,

늑대[늑때] 낙지[낙찌] 접시[접씨] 납작하다[납짜카다]

처럼 필연적으로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된소리로 적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 있어서도, 예컨대 ‘뚝뚝(-하다), 쓱쓱(~쓱쓱), 짹짹(-하다)’ 따위처럼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거듭되는 경우에는 같은 글자로 적는다(제13항 참조).

## 제2절 구개음화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 이(-)’나 ‘-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ㅅ, ㅈ’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맡이	마지	활이다	할치다
해돋이	해도지	견히다	거치다
굳이	구지	닫히다	다치다
같이	가치	묻히다	무치다
끝이	끄치		

**해설** ‘종속적(從屬的) 관계’란, 형태소 연결에 있어서 실질 형태소인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형식 형태소인 조사, 접미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 형식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에 딸려 붙는(종속되는) 요소인 것이다.

실질 형태소의 끝 받침 ‘ㄷ, ㅌ’이 구개음화(口蓋音化)하여 [ㅅ, ㅈ]으로 발음되더라도, 그 기본 형태를 밝히어 ‘ㄷ, ㅌ’으로 적는다. 그런데 앞(제1항 해설)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형식 형태소의 경우는 변이 형태를 인정하여 소리 나는 대로 적지만, 실질 형태소의 경우는 그 본모양을 밝히어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ㅅ, ㅈ]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로 적는 것이다.

굳이(- 곧대로, - 듣다)	(미-, 여-)닫이
(해-)돋이	맡이
(휘-)묻이	(땀-, 물-, 씨-)받이
굳히다	닫히다
묻히다	날날이
(겨레-, 살-, 일가-, 피-)붙이	살살이
붙이다	벼훅이
활이다	훅이다

따위처럼 ‘ㄷ, ㅌ, ㅍ’ 받침 뒤에 조사나 접미사의 ‘- 이, - 히’가 결합되는 구조에도 적용된다.

한편, 명사 ‘맡이[마지][尾]’를 ‘마지’로 적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맡- 아들, 맡- 손자, 맡- 형’ 등을 통하여 ‘태어난 차례의 첫 번’이란 뜻을 나타내는 형태소가 ‘맡’임을 인정하게 되므로, ‘맡이’로 적기로 하였다.

## 제3절 ‘ㄷ’ 소리 받침

**제7항**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덜저고리    돛자리    엇셈      웃어른    핫옷    무릎  
사뭇      얼핏      자칫하면    뭇[衆]    옛    첫    헛

**해설** ‘ㄷ’ 소리로 나는 받침이란, 음절 끝소리로 발음될 때 [ㄷ]으로 실현되는 ‘ㅅ, ㅆ, ㅈ, ㅊ, ㅌ’ 등을 말한다. 이 받침들은, 뒤에 형식 형태소의 모음이 결합될 경우에는 제 소릿값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내리이어져 발음되지만,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는 -음절 말음으로 실현될 때는- 모두 [ㄷ]으로 발음된다.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이란, 그 형태소가 ‘ㄷ’ 받침을 가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예컨대 ‘걸 - 잡다(거두어 붙잡다), 곧 - 장(똑바로 곧게), 날 - 가리(날알이 붙은 곡식을 쌓은 더미), 돈 - 보다(←도두 보다)’ 등은 본디 ‘ㄷ’ 받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반질 - 고리, 사흘 - 날, 순 - 가락’ 등은 ‘ㄹ’ 받침이 ‘ㄷ’으로 바뀐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ㄷ’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것이지만,

갓 - 스물    걸핏 - 하면    그 - 까짓    기껏      늦 - 그릇  
덜 - 셈      빗장              샅대      숯 - 접다    자칫  
짓 - 밝다    풋 - 고추      헛 - 곡식

따위는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이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을 적용하면 ‘덜저고리, 돛자리, 엇셈, ……」처럼 적어야 할 것이지만, 고래의 관용 형식에 따라 ‘ㅅ’으로 적기로 한 것이다. 표기법은 보수성을 지닌 것이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래의 형식을 바꾸지 않는 게 통례로 되어 있다.

한편, 사전에서 ‘밭 - ’형으로 다루고 있는 ‘밭사돈, 밭상제’를 ‘땃사돈, 땃상제’로 적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바깥’과의 연관성을 살리기 위하여 ‘밭 - ’형을 취하기로 하였다. ‘표준말 모음’(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는 ‘(바깥쪽→)밭쪽’이 ‘땃쪽’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땃’은 ‘바깥’의 뜻으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밭벽    밭부모    밭사돈    밭상제    밭아버이    밭쪽  
처럼 적기로 한 것이다.

#### 제4절 모 음

**제8항** ‘계, 레, 메, 폐, 헤’의 ‘ㄱ’은 ‘ㅋ’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ㅋ’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계수(桂樹)	계수	혜택(惠澤)	혜택
사례(謝禮)	사례	계집	계집
연매(連袂)	연매	핑계	핑계
폐품(廢品)	폐품	게시다	게시다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게송(偈頌)

게시판(揭示板)

휴게실(休憩室)

**해설** ‘계, 레, 매, 폐, 혜’는 현실적으로 [계, 레, 매, 폐, 혜]로 발음되고 있다. 곧, ‘예’ 이외의 음절에 쓰이는 이중 모음 ‘꺠’는 단모음화하여 [꺠]로 발음되고 있는 것이다.(표준 발음법 제5항 다만 2 참조)

이 중, ‘레(禮)’의 경우는, 같은 한자음을 단어 첫머리에서는 ‘꺠’로, 제2음절 이하에서는 ‘꺠’로 적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밖의 ‘계, 매, 폐, 혜’는 발음대로 ‘꺠’로 적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철자 형태와 발음 형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또 사람들의 인식이 ‘꺠’형으로 굳어져 있어서, 그대로 ‘꺠’로 적기로 하였다.

다만, 한자 ‘偈, 揭, 憩’는 본음인 ‘꺠’로 적기로 하였다. 따라서 ‘게구(偈句), 계기(揭記), 게방(揭榜), 계양(揭揚), 게재(揭載), 게판(揭板), 게류(憩流), 게식(憩息), 게제(偈諦), 게휴(憩休)’ 등도 ‘꺠’로 적는 것이다.

한편, ‘으레, 꺠꺠묵다’는 표준어 규정(제10항)에서 단모음화한 형태를 취하였으므로, ‘으 레, 꺠 꺠묵다’로 적어야 한다.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ㅣ’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의의(意義)	의이	닝큼	닝큼
본의(本義)	본이	띄어쓰기	띠어쓰기
무늬[紋]	무니	씩어	씨어
보늬	보니	틔어	티어
오늬	오니	희망(希望)	히망
하늬바람	하니바람	희다	히다
닐리리	닐리리	유희(遊戱)	유희

**해설** ‘ㄴ’의 단모음화 현상을 인정하여, 표준 발음법(제5항 다만 3, 4)에서는

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ㅣ]로 발음하고,

닐리리[닐리리] 띄어[띠어] 유희[유희]

②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할 수 있다.

주의[주의/주이]    우리의[우리의/우리에]

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ㄴ’과 ‘ㄷ’, ‘ㄴ’과 ‘ㄹ’이 각기 변별적 특징(辨別的特徵)을 가지고 있으며, 또 발음 현상보다 보수성을 지니는 표기법에서는 변화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ㄴ’이 [ㄴ]나 [ㄹ]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더라도 ‘ㄴ’로 적기로 한 것이다.

‘띄어(←뜨이어), 씹어(←쓰이어), 티어(←트이어)’ 등은 ‘ㄴ’이 줄어진 형태이므로 ‘ㄴ’로 적으며, ‘희다, 희뵈다, 희뵈거리다’ 등은 관용에 따라 ‘ㄴ’로 적는다. 다만, ‘닐리리, 닝큼, 무늬, 보늬, 하늬바람’ 등의 경우는, ‘늬’의 첫소리 ‘ㄴ’이 구개음화하지 않는 음([n])으로 발음된다는 점을 유의한 표기 형식이다. ‘ㄴ’은 ‘ㄷ(ㄱ, ㅋ, ㆁ, ㄷ)’ 앞에 결합하면, ‘어머니, 읽으니까’에서의 [니]처럼 경구개음(硬口蓋音) [ɲ]으로 발음된다. 그런데 ‘닐리리, 무늬’ 등의 ‘늬’는 구개음화하지 않는 ‘ㄴ’, 곧 치경음(齒莖音) [n]을 첫소리로 가진 음절로 발음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발음 형태는 [니]를 인정하면서도, 재래의 형식대로 ‘늬’로 적는 것이다.

## 제5절 두음 법칙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여자(女子)	녀자	유대(紐帶)	뉴대
연세(年歲)	년세	이토(泥土)	니토
요소(元素)	뇨소	익명(匿名)	닉명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냥(兩)      냥쫘(兩-)      년(年) (몇 년)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당뇨(糖尿)    결뉴(結紐)    은닉(隱匿)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해설** 단어 첫머리에 위치하는 한자의 음이 두음 법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달라지는 대로 적는다. 음소 문자인 한글은 원칙적으로 1자 1음(소)의 체계를 취하지만, 표의 문자인 한자의 경우는, 국어의 음운 구조에 따라 두 가지 형식을 취한 것이다.

본음이 ‘녀, 뇨, 뉴, 니’인 한자가 첫머리에 놓일 때는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연도(年度) 열반(涅槃) 요도(尿道) 육혈(衄血)

이승(尼僧) 이토(泥土) 익사(溺死)

다만, 의존 명사인 ‘냥(←兩), 냥쫙(←兩-), 년(年)’ 등은 그 앞의 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기로 한 것이다.

금 한 냥 은 두 냥쫙 십 년

‘년(年)’이 ‘연 3회’처럼 ‘한 해(동안)’란 뜻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가 아니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한편, 고유어 중에서도 다음 의존 명사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녀석(고안 녀석) 년(꽤썸한 년) 님(바느질 실 한 님)

뉘(엽전 한 뉘, 가마니 두 뉘)

[붙임 1] 단어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 것이다.

소녀(少女) 만년(晩年) 배뇨(排尿) 결뉴(結紐)

비구니(比丘尼) 운니(雲泥) 은닉(隱匿) 탐닉(耽溺)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란, 사전들에서 접두사로 다루어지는 게 통레이긴 하나, 그 성격상 접두사로 단정하기 어려운 한자어 형태소를 말한다. 예컨대 ‘신(新), 구(舊)’는 의존 형태소라는 점에서 접사적 성격을 띠는 것이지만 ‘신구(新舊)와 같이 양자가 대등한 관계로 결합된 구조에서는 명사적 성격을, ‘신인(新人), 신참(新削)’과 같이 수식피수식의 관계로 결합된 구조에서는 형용사 또는 부사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한자어의 구조적 특질을 고려할 때, ‘신 - 세계, 신 - 여성’처럼 독립성을 지닌 단어 앞에 결합한 구조에서만 접두사로 분석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처리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견해에서,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

독립성이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혹은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 뒤의 단어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신 - 여성, 구 - 여성, 공 - 염불’은 독립성이 있는 단어 ‘여성, 염불’에 접두사적 성격의 한자어 형태소 ‘신 -, 구 -, 공 -’이 결합된 구조이므로 ‘신녀성, 구녀성, 공념불’로 적지 않으며, ‘남존 - 여비, 남부 - 여대(男負女戴)’ 등은 각각 단어(혹은 절) 성격인 ‘남존, 남부’와 ‘여비, 여대’가 결합한 구조이므로, ‘남존녀비, 남부녀대’로 적지 않는다.

한편, 예컨대 ‘신년도, 구년도’ 등은 그 발음 형태가 [신년도, 구 : 년도]이며 또 ‘신년 - 도, 구년 - 도’로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한국 여자 약사회 → 한국 여자약사회’처럼 결합된 각 단어를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이것은 합성어의 경우에 준하는 형식이다.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양심(良心)	량심	용궁(龍宮)	룽궁
역사(歷史)	력사	유행(流行)	류행
예의(禮儀)	례의	이발(理髮)	리발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里) : 몇 리냐?

리(理) : 그럴 리가 없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사례(謝禮)      혼례(婚禮)

와룡(臥龍)      쌍룡(雙龍)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道理)      진리(眞理)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나열(羅列)	나렬	규율(規律)	규룰
치열(齒列)	치렬	비율(比率)	비룰
비열(卑劣)	비렬	실패율(失敗率)	실패룰
분열(分裂)	분렬	선율(旋律)	선룰
선열(先烈)	선렬	전율(戰慄)	전룰
진열(陳列)	진렬	백분율(百分率)	백분룰

[붙임 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립(申屹)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붙임 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연합)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붙임 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예시** 본음이 ‘랴, 러, 레, 료, 류, 리’인 한자가 단어 첫머리에 놓일 때는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의존 명사 ‘량(輛), 리(理, 里, 厘)’ 등은 두음 법칙과 관계없이 본음대로 적는다.

객차(客車)            오십 량(輛)            2푼 5리(厘)

[붙임 1]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예시어 중 ‘쌍룡(雙龍)’에 대해서는, 각기 하나의 명사로 다루어지는 ‘쌍’(한 쌍, 두 쌍, ……)과 ‘용’이 결합한 구조이므로 ‘쌍용’으로 적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쌍룡’의 ‘쌍’은 수량 단위를 표시하지 않으며, 또 ‘쌍룡’이 하나의 단어로 익어져 쓰이고 있는 것이므로, ‘쌍룡’으로 적기로 하였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결합되는 ‘렬(列, 烈, 裂, 劣), 률(律, 率, 栗, 慄)’은 발음 형태가 [나열, 서: 열, ……]이므로, 관용에 따라 ‘열, 올’로 적는다.

나열(羅列)	서열(序列)	분열(分列)	전열(前列)
의열(義烈)	치열(熾烈)	선열(先烈)	
사분오열(四分五裂)		균열(龜裂)	분열(分裂)
비열(卑劣)	우열(優劣)	천열(賤劣)	
규율(規律)	자율(自律)	운율(韻律)	선율(旋律)
비율(比率)	이율(利率)	백분율(百分率)	
외율(煨栗)	조율(棗栗)	전율(戰慄)	

‘율(率)’을 독립적인 단어로 다루어 ‘명중율(命中率), 합격율(合格率)’처럼 적기도 하였으나, ‘올’로 쓰는 것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국한시켰으므로, ‘명중률, 합격률’로 적어야 한다.

[붙임 2] 한 글자(음절)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쓰는 경우, 본음대로 적는 것을 허용하였다. 역사적인 인물의 성명에 있어서,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申砬[실립], ‘崔麟[최린]’처럼 익어져 있으므로, 표기 형태인 ‘신립, 최린’과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 글자 이름의 경우에 국한되는 허용 규정이므로, 두 글자 이름의 경우에는 ‘박린수(朴麟洙), 김륜식(金倫植)’처럼 적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이 줄어들어서 두 개 단어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뒤 한자의 음을 본음대로 적는다. 이 경우, 뒤의 한자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국제 연합(두 개 단어)→국련(國聯)(두 단어로 인식되지 않음.)

교육 연합회(두 개 단어)→교련(敎聯)(두 단어로 인식되지 않음.)

[붙임 4] 전항 [붙임 2]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 뒤의 단어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물 - 이해(沒理解)      과 - 인산(過隣酸)      가 - 영수(假領收)  
 등 - 용문(登龍門)      불 - 이행(不履行)      사 - 육신(死六臣)  
 생 - 육신(生六臣)      선 - 이자(先利子)      소 - 현방(蘇聯邦)  
 청 - 요리(淸料理)      수학 - 여행(修學旅行)  
 낙화 - 유수(落花流水)      무실 - 역행(務實力行)  
 시조 - 유취(時調類聚)

그러나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본음의 형태로 굳어져 있는 것은 예외 형식을 인정한다.

미 - 립자(微粒子)      소 - 립자(素粒子)  
 수 - 류탄(手榴彈) <총 - 유탄(銃榴彈)>  
 파 - 렴치(破廉恥) <몰 - 염치(沒廉恥)>

다만, 고유어 뒤에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는 뒤의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개 - 현(蓮)      구름 - 양(量)[雲量]  
 허파숨 - 양(量)[肺活量]

[붙임 5] ‘육육삼십육(6×6=36)’ 같은 형식도 이에 준하여 적는다.

다만, ‘오륙도(五六島), 육륙봉(六六峰)’ 등은 ‘오/육, 육/육’처럼 두 단어로 갈라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뢰, 누, 느’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낙원(樂園)	락원	뇌성(雷聲)	뢰성
내일(來日)	래일	누각(樓閣)	루각
노인(老人)	로인	능묘(陵墓)	릉묘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쾌락(快樂)      극락(極樂)      거래(去來)  
 왕래(往來)      부로(父老)      연로(年老)  
 지뢰(地雷)      낙뢰(落雷)      고루(高樓)  
 광한루(廣寒樓)      동구릉(東九陵)      가정란(家庭欄)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예시** 본음이 ‘라, 레, 로, 뢰, 루, 르’인 한자가 첫머리에 놓일 때에는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붙임 1]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릉(陵)’과 ‘란(欄)’은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뜻에서 ‘능, 난’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왕릉(王陵), 정릉(貞陵), 동구릉(東九陵)’처럼 쓰이는 ‘릉’이나 ‘독자란(讀者欄), 비고란(備考欄)’처럼 쓰이는 ‘란’은 한 음절로 된 한자어 형태소로서, 한자어 뒤에 결합할 때에는 통상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본음대로 적기로 한 것이다.

강릉(江陵)	태릉(泰陵)	서오릉(西五陵)
공란(空欄)	답란(答欄)	투고란(投稿欄)

다만, 예컨대 ‘어린이 - 단, 어머니 - 단, 가십(gossip) - 단’과 같이 고유어나 (구미)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제11항 [붙임 4]에서 보인 ‘개 - 연(蓮), 구름 - 양(量)’의 경우처럼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 뒤의 단어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반 - 나체(半裸體)	실 - 낙원(失樂園)	중 - 노인(中老人)
육체 - 노동(肉體勞動)	부화 - 뇌동(附和雷同)	
사상 - 누각(砂上樓閣)	평지 - 낙상(平地落傷)	

한편, ‘고랭지(高冷地)’는 ‘표고(標高)가 높고 찬 지방’이란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고 - 냉지’로 적지 않고 ‘고랭 - 지’로 적는 것이다.

##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딱딱	딱닥	꽃꽃하다	꽃긋하다
씩씩	씩씩	놀놀하다	놀롤하다
씩씩	씩씩	눅눅하다	눅눅하다
똑딱똑딱	똑닥똑닥	밋밋하다	민밋하다
씩씩씩씩	씩씩씩씩	씩씩하다	씩씩하다
연연불망(戀戀不忘)	연련불망	쌍쌍하다	쌍살하다
유유상종(類類相從)	유류상종	썹썹하다	썹슬하다
누누이(屢屢 - )	누루이	짹짹하다	짹잘하다

**예시** ‘딱딱, 짹짹’ 등은 의성어 ‘딱, 짹’이 겹쳐진 첩어(疊語)이며, 한자어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 등도 첩어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 그런데 ‘꽃꽃하다, 놀놀하다’ 등에서의 ‘꽃, 놀’ 따위는 의미적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격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왼쪽 예시어와 오른쪽 예시어) 유형이 마찬가지로 동일 음절, 혹은 유사 음절이 중복되는 형식이므로, 본 항에서 함께 다루었다.

다만,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는 제11항 [붙임 1] 규정을 적용하면 ‘연련(-불망), 유류(-상종), 누루(-이)’로 적을 것이지만,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여:년-], [유유-], [누:누-]로 굳어져 있는 것이므로 관용 형식을 취하여 ‘연연-, 유유-, 누누-’로 적기로 한 것이다. 이런 예로 ‘노노법사(老老法師), 요요무문(寥寥無聞), 요요(寥寥)하다’ 등도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는 (제2 음절 이하에서) 본음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낭랑(朗朗)하다	냉랭(冷冷)하다	녹록(碌碌)하다
늪늪(凜凜)하다	연년생(年年生)	염념불망(念念不忘)
역력(歷歷)하다	인린(鱗鱗)하다	적나라(赤裸裸)하다

##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 제1절 체언과 조사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떡이	떡을	떡에	떡도	떡만
손이	손을	손에	손도	손만
팔이	팔을	팔에	팔도	팔만
밤이	밤을	밤에	밤도	밤만
집이	집을	집에	집도	집만
옷이	옷을	옷에	옷도	옷만
콩이	콩을	콩에	콩도	콩만
낮이	낮을	낮에	낮도	낮만
꽃이	꽃을	꽃에	꽃도	꽃만
발이	발을	발에	발도	발만
앞이	앞을	앞에	앞도	앞만
밖이	밖을	밖에	밖도	밖만
넋이	넋을	넋에	넋도	넋만
흙이	흙을	흙에	흙도	흙만
삶이	삶을	삶에	삶도	삶만
여덟이	여덟을	여덟에	여덟도	여덟만
끓이	끓을	끓에	끓도	끓만
값이	값을	값에	값도	값만

**예시** 실질 형태소인 체언의 형태를 고정시키고, 조사도 모든 체언에 공통적으로 결합하는 통일된 형식을 유지시켜 적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값(價)’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면,

갑씨          갑쓸          갑또          갑만  
처럼 되어서, 실질 형태소(체언)의 본모양이 어떤 것인지, 또 형식 형태소인 조사와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아보기가 어렵게 된다. 실질 형태소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표기되면 그 의미 파악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독서의 능률이 크게 저하될 것이다.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는 것은, 결국 체언의 끝 받침을 조사의 첫소리 자리로 내리이어 적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밭 - 이’를 ‘바티’ 혹은 ‘바치’로 적는다고 하면, 체언의 형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주격(主格)을 표시하는 조사의 형태가 불분명해진다. 그리하여 ‘田’이란 뜻을 표시하는 실질 형태소를 ‘밭’으로 고정시키고, 여기에 주격을 표시하는 ‘이’가 결합한 형태는 ‘밭이’로 적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이다.

젓	+	은
[乳]		의
꽃		을
[花]		에
부엌		으로
[廚]		이다

## 제2절 어간과 어미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신다	신고	신어	신으니
믿다	믿고	믿어	믿으니
올다	올고	올어	(우니)
넘다	넘고	넘어	넘으니
입다	입고	입어	입으니
웃다	웃고	웃어	웃으니
찾다	찾고	찾아	찾으니
좃다	좃고	좃아	좃으니
같다	같고	같아	같으니
높다	높고	높아	높으니
좋다	좋고	좋아	좋으니
깎다	깎고	깎아	깎으니

앉다	앉고	앉아	앉으니
많다	많고	많아	많으니
늡다	늡고	늡어	늡으니
젊다	젊고	젊어	젊으니
넓다	넓고	넓어	넓으니
훔다	훔고	훔어	훔으니
웁다	웁고	웁어	웁으니
웁다	웁고	웁아	웁으니
없다	없고	없어	없으니
있다	있고	있어	있으니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떨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되짚어가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벌어지다
엮어지다	접어들다	틀어지다	흠어지다

(2) 본뜻에서 떨어진 것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	------	------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이것은 책이오.	이것은 책이요.
이리로 오시오.	이리로 오시요.
이것은 책이 아니오.	이것은 책이 아니요.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해설** 전향과 마찬가지로, 실질 형태소인 어간의 형태를 고정시키고, 형식 형태소인 어미도 모든 어간에 공통적으로 결합하는 통일된 형식을 유지시켜 적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어간 형태소 ‘늡-’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면,

늡꼬	늡찌	늡는	늡그니
① (      )	② (      )	③ (      )	④ (      )
늡께	늡쏘	늡네	늡거서

처럼 되어서, 어간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어미와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워진다. 이 경우 역시, ‘늘-고, 늘-지, 늘-는, 늘-으니’처럼 어간과 어미의 형태를 분명히 구별함으로써, 어간이 표시하는 어휘적 의미와 어미가 표시하는 문법적 의미가 쉽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꺾(折)	+	-는다
잊(忘)		-느나
덮(覆)		-으니
긁(搔)		-어서
읊(咏)		-도록
잃(失)		-거든

[붙임 1] 두 개 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된 경우, 앞 단어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어간의 본모양을 밝히어 적고, 본뜻에서 떨어진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본뜻에서 떨어진 것’이란, 그 단어가 단독으로 쓰일 때 표시되는 어휘적 의미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거나 변화되었음을 말한다. 예시어 중, ‘늘어나다, 되짚어가다, 접어들다, 틀어지다’는 통일안에서 안 다루어졌던 것을 추가하였다.

(1)의

늘어나다-늘다[増]	늘어지다-늘다[延]
돌아가다-돌다[回]	들어가다-들다[入]
떨어지다-(밤을) 떨다	벌어지다-(아람이) 벌다
엎어지다-엎다[覆]	틀어지다-틀다[妨]
흩어지다-흩다[散]	

따위는 앞 단어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되짚어가다’(및 ‘되짚어오다’)는 ‘되짚어’라는 단어(부사)가 사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다만, ‘넘어지다, 접어들다’의 경우는 그 의미 구조가 좀 모호하긴 하지만, 어원적인 형태를 ‘넘어-지다’, ‘접어-들다’로 해석하는 관례에 따라 여기서 다른 것이다.

한편, ‘돌아가다[歸], 접어들다[移入]’ 따위는 예컨대

산모퉁이를 돌아(서) 간다.      우산을 접어(서) 든다.

같은 형식과는 구별된다.

(2)의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등은 ‘들다/나다’, ‘살다/지다’, ‘쓸다/지다’처럼 분석되지 않는다. 사전에서는 ‘(방을) 쓸다’의 피동형은 ‘쓸리다’로 다루고 있으나, ‘지다’ 결합 형식은 ‘쓸어지다’(비가 좋으니, 방이 잘 쓸어진다.)로서, ‘쓰러지다[麤]’와 구별된다. (2)의 규정이 적용되는 단어로는

나타나다	바라보다	바라지다[垢]
배라먹다[乞食]	부서지다[碎]	불거지다[凸]
부러지다[折]	자라나다[長]	자빠지다[沛]
토라지다[少滯]		

등도 있다.

[붙임 2, 3] 통일안 부록 I 표준말 5에는, 연결형(連結形)이나 종지형(終止形)이나 마찬가지로, ‘이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 표기에서는 연결형은 ‘이요’, 종지형은 ‘이오’로 적고 있어서, 관용 형식을 취한 것이다. 연결형의 경우는, 옛말에서 ‘이고’의 ‘ㄱ’이 묵음화(默音化)하여 ‘이오’로 굳어진 것이긴 하지만, 다른 단어의 연결형에 ‘오’ 형식이 없으므로(연관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요’로 적는 것이다. 그러나 종지형의 경우는, ‘나도 가오’, ‘집이 크오’처럼 모든 용언 어간에 공통적으로 결합하는 형태가 ‘오’인데, ‘이-’ 뒤에서만 예외적인 형태 ‘요’를 인정하는 것은 체계 있는 처리가 아니므로 ‘오’로 적는 것이다.

**제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적는다.

1. ‘-아’로 적는 경우

나아	나아도	나아서
막아	막아도	막아서
앉아	앉아도	앉아서
돌아	돌아도	돌아서
보아	보아도	보아서

2. ‘-어’로 적는 경우

개어	개어도	개어서
겪어	겪어도	겪어서
되어	되어도	되어서
베어	베어도	베어서
쉬어	쉬어도	쉬어서
저어	저어도	저어서
주어	주어도	주어서
피어	피어도	피어서
희어	희어도	희어서

**예시** 어간 끝 음절의 모음이 ‘ㅏ, ㅑ’(양성 모음)일 때에는 어미를 ‘-아’ 계열로 적고, ‘ㅐ, ㅓ, ㅕ, ㅖ, ㅗ, ㅛ, ㅜ, ㅠ, ㅡ, ㅚ, ㅣ’(음성 모음)일 때에는 ‘-어’ 계열로 적는다. 이것은 전통적인 형식으로서의 모음조화(母音調和)의 규칙성에 따른 구별인데, 어미의 모음이 어간의 모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제약(制約) 받는 현상이다. 현실적으로 모음조화의 파괴로 말미암아 (잡아→)[자버], (앉아→)[알버]처럼 발음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표준 형태로 인정되지 않는다.

어간 끝 음절의 모음	어미의 형태
ㅏ, ㅑ	- 아(아라, 아서, 아도, 아야)(았, 았)
ㅕ, ㅗ, ㅛ, ㅛ, ㅛ, ㅛ, ㅜ, ㅠ, ㅡ, ㅡ, ㅡ	- 어(어라, 어서, 어도, 어야)(었, 었)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읽어	읽어요
참으리	참으리요
좋지	좋지요

**해설** 이 경우의 ‘요’는, 그것만으로 끝날 수 있는 어미 뒤에 결합하여 높임의 뜻을 더하는 성분인데, 어미에 결합하는 조사로 설명되고 있다. 이 ‘요’는 의문형 어미 뒤에도 결합한다.

가리 - 요	가지 - 요
가나 - 요	가는가 - 요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

갈다 :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놀다 :	노니	논	놀니다	노시다	노오
불다 :	부니	분	불니다	부시다	부오
둥글다 :	둥그니	둥근	둥굽니다	둥그시다	둥그오
어질다 :	어지니	어진	어집니다	어지시다	어지오

[불임]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ㄹ’이 준 대로 적는다.

마지못하다	마지않다	(하)다마다	(하)자마자
(하)지 마라	(하)지 마(아)		

2. 어간의 끝 ‘ㅅ’이 줄어질 적

긋다 :	그어	그으니	그었다
낫다 :	나아	나으니	나았다
잇다 :	이어	이으니	이었다
짓다 :	지어	지으니	지었다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그렇다 :	그러니	그럴	그러면
	그립니다	그러오	
까맣다 :	까마니	까말	까마면
	까맅니다	까마오	



동그랗다 :	동그라니	동그랄	동그라면
	동그랍니다	동그라오	
퍼렇다 :	퍼러니	퍼럴	퍼려면
	퍼룹니다	퍼러오	
하얏다 :	하야니	하얏	하야면
	하얏니다	하야오	

4. 어간의 끝 ‘ㄱ, ㅡ’가 줄어질 적

푸다 :	퍼	폈다
뜨다 :	떠	뒀다
끄다 :	껴	꼈다
크다 :	커	꼈다
담그다 :	담가	담갔다
고프다 :	고파	고팠다
따르다 :	따라	따랐다
바쁘다 :	바빠	바빴다

5.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뀔 적

걷다[步] :	걸어	걸으니	걸었다
듣다[聽] :	들어	들으니	들었다
묻다[問] :	물어	물으니	물었다
싣다[載] :	실어	실으니	싣었다

6. 어간의 끝 ‘ㅂ’이 ‘ㄴ’로 바뀔 적

깎다 :	기워	기우니	기웠다
굽다[炙] :	구워	구우니	구웠다
가깝다 :	<u>가까워</u>	가까우니	<u>가까웠다</u>
괴롭다 :	<u>괴로워</u>	괴로우니	<u>괴로웠다</u>
맵다 :	매워	매우니	매웠다
무겁다 :	무거워	무거우니	무거웠다
밟다 :	미워	미우니	미웠다
쉽다 :	쉬워	쉬우니	쉬웠다

다만, ‘돕-, 곱-’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돕다[助] :	도와	도와서	도와도	도왔다
곱다[麗] :	고와	고와서	고와도	고왔다

7. ‘하다’의 활용에서 어미 ‘-아’가 ‘-여’로 바뀔 적

하다 :	하여	하여서	하여도	하여라	하였다
------	----	-----	-----	-----	-----

8. 어간의 끝음절 ‘ㄹ’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적

이르다[至] :	이르러	이르렀다
노르다 :	노르러	노르렀다
누르다 :	누르러	누르렀다
푸르다 :	푸르러	푸르렀다

9. 어간의 끝음절 ‘르’의 ‘ㄹ’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 -어’가 ‘-라/ -러’로 바뀔 적

가르다 :	갈라	갈랐다
거르다 :	걸러	걸렀다
구르다 :	굴러	굴렀다
벼르다 :	별러	별렀다
부르다 :	불러	불렀다
오르다 :	올라	올랐다
이르다 :	일러	일렀다
지르다 :	질러	질렀다

**해설** 어휘적 형태소인 어간이 문법적 형태소인 어미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활용의 체계에는

- (1) 어간의 모양은 바뀌지 않고 어미만이 교체된다(변화한다).
- (2) 어미는 모든 어간에 공통되는 형식으로 결합한다.

라는 원칙이 있다.

‘원칙에 벗어나면’이란, 이 두 가지 조건에 맞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니,

- ① 어미가 예외적인 형태로 결합하는 것
  - ②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고, 어미도 예외적인 형태로 결합하는 것
- 등, 두 가지 형식을 들 수 있다.

1. 어간 끝 받침 ‘ㄹ’이 어미의 첫소리 ‘ㄴ, ㅂ, ㅅ’ 및 ‘-(으)오, -(으)르’ 앞에서 줄어드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

살다 - (살네) 사네	(살세) 사세
(살으오) 사오	(살을수록) 살수록
빌다 - (빌네) 비네	(빌세) 비세
(빌으오) 비오	(빌읍시다) 빙시다
(빌을뿐더러) 빌뿐더러	

어간 끝 받침이 ‘ㄹ’인 용언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붙임] 어간 끝 받침 ‘ㄹ’은 ‘ㄷ, ㅅ, ㅂ’ 앞에서 줄지 않는 게 원칙인데, 관용상 ‘ㄹ’이 줄어진 형태가 굳어져 쓰이는 것은 준 대로 적는다.

(-다 말다) - 다마다	(말지 못하다) 마지못하다
(멀지 않아) 머지않아	(-자 말자) - 자마자

(-지 말아) -지 마(아)      (-지 말아라) -지 마라

‘(-지 말아라→) -지 마라’의 경우는, 어간 끝 받침 ‘ㄹ’과 어미의 ‘아’가 함께 줄어지는 형태인데, 이른바 문어체(文語體) 명령형이나 간접 인용법의 형식에서는 ‘말라’가 사용된다.

(가지 말아라) 가지 말라.      읽지 말라고 하였다.

한편 ‘-다마다’는 사전에 따라 ‘-고말고’의 방언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으나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다.(표준어 규정 제26항 참조)

2. 어간 끝 받침 ‘ㅅ’이 어미의 모음 앞에서 줄어지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 어간 끝에 ‘ㅅ’ 받침을 가진 용언 중, ‘긋다, 낫다, 붓다, 잇다, 잣다, 젓다, 짓다’ 등이 이에 해당되고, ‘벗다, 빗다, 빼앗다, 솟다, 찢다, 웃다’ 등은 ‘ㅅ’받침이 줄어들지 않는다.

붓다 - (붓으니) 부으니      (붓어도) 부어도      (붓었다) 부었다

‘긋다’가 상당히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줍다’의 방언으로 다루어진다. 어원적으로 ‘줍다’에서 파생된 부사 ‘주섬주섬’은 ‘주엄주엄’으로 적지 않는다.

3. 형용사의 어간 끝 받침 ‘ㅎ’이 어미 ‘-네’나 모음 앞에서 줄어지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 다만, 어미 ‘-아/-어’와 결합할 때는 ‘-애/-에’로 나타난다.

노랑다 - (노랑네) 노라네      (노랑은) 노란      (노랑으니) 노라니

(노랑아) 노래      (노랑아지다) 노래지다

허영다 - (허영네) 허여네      (허영을) 허열      (허영으면) 허여면

(허영어) 허예      (허영어지다) 허예지다

어간 끝에 ‘ㅎ’ 받침을 가진 형용사 중, ‘좋다’ 이외의 단어는 모두 이에 해당된다.

4. 어간이 모음 ‘ㄴ’으로 끝나는 동사 ‘푸다’와, 어간이 모음 ‘ㅡ’로 끝나는 용언 중 8, 9에 해당하는 단어 이외의 단어들은, 뒤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 ‘ㄴ, ㅡ’가 줄어진다.

푸다 - (푸어) 퍼      (푸어서) 퍼서      (푸었다) 폈다

바쁘다 - (바쁘어) 바빠      (바쁘어도) 바빠도      (바쁘었다) 바빴다

‘ㄴ’이 줄어지는 단어는 ‘푸다’ 하나뿐이며, ‘ㅡ’가 줄어지는 단어로는 ‘끄다, 담그다, 따르다, 뜨다, 잠그다, 치르다, 트다, 가쁘다, 고프다, 기쁘다, 나쁘다, 미쁘다, 바쁘다, 슬프다, 아프다, 예쁘다, 크다’ 등이 있다.

5. 어간 끝 받침 ‘ㄷ’이 모음 앞에서 ‘ㄹ’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

일컫다 - (일컫으면) 일컬으면      (일컫어서) 일컬어서

(일컫었다) 일컬었다

어간 끝에 ‘ㄷ’ 받침을 가진 용언 중, ‘걷다[步], 긴다, 깨닫다, 눕다, 닫다[走], 듣다, 묻다[問], 붙다, 신다, 일컫다’ 등이 이에 해당되고, ‘걷다[收, 撤], 닫다[閉], 돌다, 뜯다, 묻다[埋], 밟다, 받다, 벌다, 뺏다, 얻다, 곧다, 굳다’ 등은 ‘ㄷ’이 ‘ㄹ’로 바뀌지 않는다.

6. 어간 끝 받침 ‘ㅂ’이 모음 앞에서 ‘우’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

눕다 - (눕으니) 누우니      (눕어) 누워      (눕었다) 누웠다

덥다 - (덥으면) 더우면      (덥어) 더워      (덥었다) 더웠다

어간 끝에 ‘ㅂ’ 받침을 가진 용언 중 ‘굽다[炙], 갑다, 눅다, 줍다, 가깝다, 가볍다, 간지럽다, 괴롭다, 그럽다, 노엽다, 더럽다, 덥다, 맵다, 메스껍다, 무겁다, 미덥다, 밋다, 사납다, 서럽

다, 쉽다, 아니꼽다, 어둡다, 역겹다, 즐겁다, 지겹다, 차갑다, 춥다' 등과, 접미사 '-답다, -롭다, -스럽다'가 결합하여 된 단어들이 이에 해당되고, '(손-)꼽다[屈指], 뽀다, 찜다, 업다, 잡다, 족다, 집다, (손이) 곱다, 굵다[曲], 좁다' 등은 'ㅂ' 받침이 '우'로 바뀌지 않는다. 다만, 모음 조화의 규칙성에 따라 'ㅓ, ㅗ'에 붙은 'ㅂ' 받침 뒤에 어미 '-아(았)'가 결합한 형태는

가까와, 가까와서 아름다와, 아름다와야 괴로와도, 괴로왔다  
 처럼 모두 '와(왔)'로 적었으나, 이번에는 현실적인 발음 형태를 취하여, 모음이 'ㅗ'인 단음절 어간 뒤에 결합하는 '-야'의 경우만 '와'로 적고, 그 밖의 경우는 모두 '워'로 적기로 하였다.

돕다 -도와, 도와라, 도와서, 도와도, 도와야, 도왔다  
 곱다 -고와, 고와서, 고와도, 고와야, 고왔다

'] '와' 형

괴롭다 -괴로워, 괴로워서, 괴로워도, 괴로워야, 괴로웠다  
 아름다다 -아름다워, 아름다워서, 아름다워도, 아름다워야,  
 아름다왔다

'] '워' 형

7. 제16항 규정을 적용한다면, 어간 '하-' 뒤에는 어미 '-야'가 결합되어야 한다. 그런데 '하-' 뒤에서는 분명히 [여]로 발음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형태인 '여'로 적는 것이다.

(하아) 하여 (하아라) 하여라  
 (하아도) 하여도 (하았다) 하였다

8. 제16항 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르-, 노르-' 뒤에는 어미 '-어'가 결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르다(至), 누르다, 푸르다' 따위의 경우는 분명히 [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형태인 '리'로 적는다.

(푸르어) 푸르러 (푸르어서) 푸르러서  
 (푸르었다) 푸르렀다 (푸르어지다) 푸르러지다

어간 끝 음절이 '르'인 용언 중, '노르다, 누르다, 푸르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9. 어간 끝 음절 '르' 뒤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어간 모음 'ㅡ'가 줄면서 'ㄹ'이 앞 음절 받침으로 올라붙고, 어미 '어'가 '라/리'로 나타나는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

나르다 - (나르어) 날라 (나르어서) 날라서  
 (나르었다) 날랐다  
 누르다 - (누르어) 눌러 (누르어도) 눌러도  
 (누르었다) 눌렀다

어간 끝 음절이 '르'인 용언 중, 4나 8에 해당하는 단어 이외의 것들은 다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어간 끝 음절 '르' 뒤에 피동사화, 사동사화 접미사 '-이'가 결합하는 경우에도 역시 어간 모음 'ㅡ'가 줄면서 'ㄹ'이 앞 음절의 받침으로 올라붙고, '이'가 '리'로 바뀌어 나타난다.

(누르이다) 눌러다 (오르이다) 올리다 (흐르이다) 흘리다  
이 밖에, 예외적인 형태의 어미가 결합하는 형식으로

가다 - (가아라) 가 처라      자다 - (자아라) 자 처라

오다 - (오아라) 오 너라

가 더 있으나, 예외 형식이 단지 명령형 한 가지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받이    달맞이  
먹이    미단이    별이    벼훔이    살림살이    쇠붙이

####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걸음    묶음    믿음    얼음    엮음    울음  
웃음    줄음    죽음    앓    만듦

####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좋이    짓궂이

####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히    익히    작히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굽도리    다리[鬚]    목거리(목병)    무녀리  
코끼리    거름(비료)    고름[膿]    노름(도박)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1) 명사로 바뀐 것

귀머거리    까마귀    너머    뜨더귀    마감    마개  
마중    무덤    비렁뱅이    쓰레기    올라미    주검

#### (2) 부사로 바뀐 것

거뭇거뭇    너무    도로    뜨덤뜨덤    바투  
불긋불긋    비로소    오긋오긋    자주    차마

## (3)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

나마          부터          조차

**해설** 1, 2. 명사화 접미사 ‘- 이, - 음’은 비교적 널리 (여러 어간에) 결합하며, 또 본디 어간 형태소의 뜻이 그대로 유지된다.

(굽다) 굽이	(걸다) 귀걸이	(밟다) 귀밟이
(넓다) 넓이	(놀다) 놀음놀이	(더듬다) 더듬이
(뚫다) 대뚫이	(받다) 물받이	(뿜다) 물뿜이
(얹다) 배얹이	(놀다) 뱃놀이	(맞다) 손님맞이
(잡다) 손잡이	(막다) 액막이	(닫다) 여닫이
(걸다) 옷걸이	(박다) 점박이	(살다) 하루살이
(돈다) 해돈이	(씻다) 호미씻이	(묻다) 휘묻이
(갈다) 갈음(-하다)	(볶다) 고기볶음	(그을다) 그을음
(모질다) 모질음	(살다) 삶	(섧다) 섧음
(숙다) 숙음	(수줍다) 수줍음	(값다) 양값음
(엮다) 엮음	(솟다) 용솟음	(일컫다) 일컫음
(놀다) 탈놀음	(막다) 판막음	

‘겨레불이, 쇠불이, 일가불이, 피불이’의 ‘- 불이’를 ‘부치’로 적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경우 ‘불-’에는 ‘불다, 팔리다’란 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불이’로 적기로 하였다.

3, 4. 부사화 접미사 ‘- 이, - 히’도 비교적 규칙적으로 널리 (여러 어간에) 결합한다.

(곧다) 곧이(-듣다)	(없다) 덧없이	(옳다) 옳이
(적다) 적이	(밝다) 밝히	(익다) 익히
(작다) 작히		

‘밝히’는 그 뒤에 ‘증명하다(되다)’ 같은 말이 연결되긴 하지만, ‘만들다, 비치다, 빛나다’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제약성을 지니므로, 부사적 기능이 약한 단어이며, ‘작히(작히나)’는 그 어근(어간)의 본뜻과 상당히 떨어진 단어다. 그러나 용언 어간 ‘밝-, 작-’에 부사화 접미사가 결합하여 된 단어이므로, 여기서 다룬 것이다.

**다만.** 명사화 접미사 ‘- 이, - 음’이 결합하여 된 단어라도, 그 어간의 본뜻과 떨어진 원형(原形)을 밝힐 필요가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시어들은 ‘돌(다), 달(다), 걸(다), 열(다), 길(다), 놀(다)’ 같은 어간 형태소의 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굽돌이, 달이, 목걸이(땀 단어), 문열이, 코걸이(코끼리), 꿇음, 놀음(땀 단어)’처럼 적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너비	도리깨	두루마리	목도리
빈털터리	턱거리(언턱거리, 종기)		

따위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거름[肥料], 노름[賭博], 어름[物界]’ 등은 ‘걸음[步], 놀음[遊], 얼음[氷]과 달리 적는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인 것이다.

[붙임] 비교적 널리 (여러 어간에) 결합하는 ‘-이, -음’과는 달리, 불규칙적으로 결합하는,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1) 명사로 된 것

(꾸짚음) 꾸중	(남어지) 나머지	(눈웅지) 누룽지
(늡으막) 늡그막	(돌앙) 도랑	(돌으래) 도르래
(동글아미) 동그라미	(불engi) 불경이	(뺨으렁) 빠드렁니
(웁아미) 올가미	(죃앙이) 지팡이	(똥예) 코뚜레

(2) 부사로 된 것

(늘우) 느루	(돌우) 도두	(돌오) 도로
(맞우) 마주	(비똥오) 비투로	(밭암) 밭밤밭밤
(잡암) 자밤자밤	(죃엄) 주섬주섬	

‘넘어, 너머, 너무’는

산을 넘어(동사) 날아간다.      산 너머(명사)에 있는 마을.  
사람이 너무(부사) 많다.

처럼 구별되며, ‘참아, 차마’는

괴로움을 참아(동사) 왔다.      차마(부사) 때릴 수는 없었다.

처럼 구별된다.

(3) 조사로 된 것

동사 ‘남다, 불다, 좇다’의 부사형 ‘남아, 불어, 좇아’가 허사화(虛辭化)한 것인데, 형식 형태소인 조사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마저(←마자←맞아)’도 이에 해당된다.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부사로 된 것

곳곳이    낱낱이    뭇뭇이    살살이    앞앞이    집집이

2. 명사로 된 것

곰배팔이    바둑이    삼발이    애꾸눈이    육손이  
절뚝발이/절름발이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꼬락서니	꼬트머리	모가치	바가지
바깥	사타구니	싸라기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짜개	

**해설** 명사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다른 품사로 바뀌거나 뜻만 달라지는 경우에도, 명

사의 본모양을 밝히어 적는다. 이 경우의 ‘이’는 어간에 붙는 ‘이’처럼 규칙적으로 널리 결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1의 예와 같이 명사가 중복되면서 ‘이’가 결합하여 부사화하는 형식은 꽤 널리 적용된다.

간간이      겹겹이      길길이      눈눈이      땀땀이  
 번번이      사람사람이      옆옆이      줄줄이      참참이  
 철철이      첩첩이      툼툼이      나날이      다달이  
 골골살살이      구구절절이      사사건건이

품사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뜻만 달라지는 것으로는

각설이      검정이      고리눈이      네눈이      딸깍발이  
 맹문이      생손이      왕눈이      외 툼이      외팔이  
 우걱뿔이      통방울이

따위도 있다. ‘외툼이’는 ‘외툼(←외돌토리)’에 ‘- 이’가 결합한 구조이므로, ‘외툼이’로 적는 것이다.

[붙임] 명사 뒤에 ‘-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결합하여 된 단어의 경우는, 그것이 규칙적으로 널리 결합하는 형식이 아니므로, 명사의 형태를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골양) 고랑      (굴영) 구렁      (끝으러기) 끄트러기  
 (목아지) 모가지      (살애) 사태 - 고기      (속아지) 소가지  
 (솔애) 소댕      (올아기) 오라기      (털억) 터럭

‘모가지’는 ‘뿔’에 ‘- 아지’가 붙어서 된 단어다. 따라서 본 규정을 적용하여 ‘목사치’로 적을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 어원적인 형태를 인식하지 못하며, 또 발음 형태도 [모가치]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관용에 따라 ‘모가치’로 적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으로 ‘값어치’가 있다. ‘값어치’에서의 ‘어치’는 사전들에서 접미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본 규정을 적용하여 ‘갑서치’로 적을 것이고, ‘모가치’의 경우와 같이 발음 형태를 취한다면 ‘가버치’로 적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푼어치, 십 원어치, 백 불(달러)어치, 천 엔어치, 만 프랑어치, 십만 마르크어치, ……」처럼 쓰이는 ‘어치’는 (의존) 명사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은 ‘어치’가 붙는 ‘푼, 원, ……」, ‘값’ 등의 형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푼너치, 원너치, ……」 같은 표기 형태에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형식으로 다루어서, 관용에 따라 ‘값어치’로 적는 것이다.

예외 형식으로는 ‘벼슬아치’도 있다. 이 경우의 ‘- 아치’(동녕아치, 장사아치)는 접미사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본 규정을 적용하면, ‘벼스라치’로 적을 것이지만, 역시 사람들이 ‘벼슬(동녕, 장사)’의 형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관용에 따라 ‘벼슬아치’로 적는다.

또, 표준어 규정 제17항에서 다루어진 ‘반빛아치’는 ‘반빛’(반찬 만드는 일)에 ‘- 아치’가 붙어서 된 단어이지만, 발음 형태가 [반비다치]로 굳어져 있어서 ‘반비사치’로 적을 수 없는 것이므로, 관용에 따라 ‘반빛아치’로 적는다.

본 규정에 따라 해석하면,

(원칙적인 형식) - 목사치, 갑서치, 벼스라치, 반비사치



(예외적인 형식) - 모가치, 값어치, 벼슬아치, 반빛아치  
에서, 예외적인 형식을 취한 것이다.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값지다    홀지다    낫두리    빛깔    옆당이    잎사귀
2.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남시            늙정어리            덮개  
    뜯게질        갑작갑작하다        갑작거리다  
    뜯적거리다    뜯적뜯적하다        굶다랴다  
    굶직하다        깊숙하다            넓적하다  
    높다랴다        늙수그레하다        얼죽얼죽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 (1)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할짝거리다    널따랴다    널찍하다    말끔하다  
    말쑹하다      말짱하다    실쭙하다    실끔하다  
    알따랴다      알팍하다    짤따랴다    짤막하다  
    실컷
-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떨어진 것  
    넙치    올무    골막하다    납작하다

**예시** 명사나 어간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결합하여 된 단어는, 그 명사나 어간의 형태를 밝히어 적는다.

- |                      |                  |          |
|----------------------|------------------|----------|
| (값) 값지다              | (꽃) 꽃답다          | (끝) 끝내   |
| (맛) 맛깔스럽다            | (멋) 멋지다          | (밑) 밑지다  |
| (별) 별뿔               | (부엌) 부엌데기        | (빛) 빛 채이 |
| (빛) 빛깔               | (숯) 숯장이          | (숲) 숲정이  |
| (앞) 앞장(-서다)          | (옆) 옆구리          | (잎) 잎사귀  |
| (흙) 흙질(-하다)          | (굽) 굶적거리다, 굶죽거리다 |          |
| (넓) 넓죽하다             | (늙) 늙다랴다         |          |
| (늙) 늙다리, 늙바탕, 늙수그레하다 |                  |          |
| (묻) 묻숙하다, 묻수그레하다     | (엷) 엷적엷적하다       |          |
| (엷) 엷지르다             | (옴) 옴조리다         |          |

다만, 2에 딸린 규정으로서, (1)은, 겹받침에서 뒤엿것이 발음되는 경우에는 그 어간의 형태를 밝히어 적고, 앞엿것만 발음되는 경우에는 어간의 형태를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굶다랗다([국 - ]), 굶적거리다([극 - ]), 늙수그레하다([늑 - ])’ 따위는 어간의 형태를 밝히어 적지마는, ‘할짝거리다, 말끔하다, 실쭙하다’ 따위는 어간의 형태(할 -, 말 -, 실 -)를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게 된다. ‘넓적하다, 넓적다리’를 ‘넙적하다, 넙적다리’로 적지 않는 이유는, 겹받침 ‘ㅼ’([넙 -])에서 뒤의 ‘ㅅ’이 발음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넙따랗다, 넙적하다’는 ‘넙다’에서 파생된 것이냐 ‘너르다’에서 파생된 것이냐 하는 데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 ‘너르다’(공간으로 넓다.)와 대응시켜 볼 수도 있으나, ‘넙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해석하여 (1)에서 다루었다.

(2)는,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떨어진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넙치’는 한자어 ‘광어(廣魚)’와 대응시켜 볼 때 ‘넙다’와 결부되는 것으로 생각되긴 하지만, 그 어원적 형태가 인식되지 않는 것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넙치’로 적는다. 그리고 ‘올무’(새나 짐승을 잡는 올가미)도 ‘올다’와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역시 어원적 형태가 인식되지 않는 것이므로, ‘올무’로 적는다. 이와는 달리 ‘골막하다’는 ‘굶다’와 연관되지 않고 ‘납작하다’는 ‘넓적하다’의 작은말로 설명되지만, ‘납다, 넓다’ 같은 단어가 없으므로, 어원이 불분명한 것으로 다루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

1. ‘-기-, -리-, -이-, -히-, -구-, -우-, -추-, -으키-, -이키-, -애-’가 붙는 것

말기다	옮기다	웃기다	쫓기다	푹리다
올리다	늑이다	썰이다	활이다	굳히다
굽히다	넙히다	얹히다	얹히다	잡히다
돈구다	숫구다	돈우다	갓추다	곤추다
맞추다	일으키다	돌이키다	엮애다	

다만, ‘-이-, -히-,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떨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도리다(칼로 ~)	드리다(용돈을 ~)	고치다
바치다(세금을 ~)	부치다(편지를 ~)	거두다
미루다	이루다	

2. ‘-치-, -프리-, -트리-’가 붙는 것

놓치다	덮치다	떠받치다	받치다
발치다	부딪치다	뺨치다	엮치다

부딪트리다/부딪트리다      쏘트리다/쏘트리다  
 찢트리다/찢트리다      찢트리다/찢트리다  
 흘트리다/흘트리다

[붙임] ‘- 업-, - 읍-, - 브-’가 붙어서 된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미답다      우습다      미쁘다

**해설** 1. 이 접미사들은 다만 파동, 사동 등의 의미와 기능을 표시하는 요소이므로, 실질 형태소인 (본디의) 어간과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곧, ‘(본디의) 어간+파동화·사동화 요소+어미’의 구조에 있어서 파동화, 사동화 요소의 첨가는 규칙적인 형식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파동화, 사동화 접미사가 파생어의 어간을 형성하는 성분이면서도 본디의 어간과 분명히 구별되며, 규칙적인 형식으로 결합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본디 어간의 형태를 밝히어 적음으로써, 그 의미가 쉽게 파악되도록 하는 것이다.

‘납다’의 파동사나 사동사는 마찬가지로 ‘납이다’로 적으며, ‘눅다, 눅다[柔, 軟], 썩다’의 사동사는 ‘눅이다(×눅히다), 눅이다(×눅히다), 썩이다(×썩히다)’로 적는다. 그리고 ‘돌우다, 돌구다’는 안경의 도수(度數) 따위를 높게 하다란 뜻으로는 ‘돌구다’를, 높아지게 하다, 끌어 올리다란 뜻으로는 ‘돌우다’를 쓰는 게 통례다. 흔히 사용되고 있는 ‘늘구다(→늘리다, 늘이다)’도 비표준어로 다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어원적인 형태는 어간에 접미사 ‘-이-, -히-, -우-’가 결합한 것으로 해석되더라도, 본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파동이나 사동의 형태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시어 ‘도리다, 드리다, 고치다, 바치다, 부치다, 거두다, 미루다, 이루다’는 ‘돌[廻]이다, 들[入]이다, 곧[直]히다, 받[受]히다, 붙[附]이다, 걷[擻, 捲]우다, 밀[推]우다, 일[起]우다’와 같은 사동의 형태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2. 이 경우는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결합하는 형식이므로, 전항(제21항) 규정의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프리, -트리’는 지금까지 ‘프리’만을 취했었으나, 표준어 규정(제26항)에서 두 가지를 다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빠치다(…까지 미치다, 닿다), 뻘치다(‘뻘지르다’의 강세어)’는 구별 없이 ‘뻘치다’로 적는다.(제55항 참조) 또, ‘부딪다, 부딪치다, 부딪히다, 부딪치이다’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부딪다(힘있게 마주 닿다, 또는 그리 되게 하다.)

부딪치다(‘부딪다’의 강세어)

부딪히다(‘부딪다’의 파동사. 부딪음을 당하다의 뜻)

부딪치이다(‘부딪치다’의 파동사. 부딪침을 당하다의 뜻)

[붙임] ‘미답다, 우습다, 미쁘다’는 ‘(민다) 민답다, (웃다) 웃습다, (민다) 민쁘다’처럼 형성된 단어인데, 제19항 [붙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역사적인 현상으로는, ‘고프다(←꼴쁘다), 기쁘다(←깃쁘다), 나쁘다(←낫쁘다), 바쁘다(←뵈쁘다), 슬프다(←숯쁘다)’ 따위도 이런 유형이다.

**제23항** ‘- 하다’나 ‘-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깎쪽이	깎꾸기	살살이	살사리
꿀꿀이	꿀꾸리	씩씩이	씩새기
눈깜짝이	눈깜짜기	오뚝이	오뚜기
더필이	더퍼리	코납작이	코납자기
배불뚝이	배불뚜기	푸석이	푸서기
빠죽이	빠죽기	홀쪽이	홀쭉기

[붙임] ‘- 하다’나 ‘-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 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개구리	귀뚜라미	기리기	각두기
팽과리	날라리	누더기	동그라미
두드러기	<u>딱따구리</u>	매미	부스러기
빠꾸기	<u>얼루기</u>	칼썩두기	

**해설** 통일안에는 ‘- 하다’가 붙은 어근으로 되어 있는데, ‘- 거리다’가 붙는 어근까지 포함 시켰다.

접미사 ‘- 하다’나 ‘- 거리다’가 붙는 어근이란, 곧 동사나 형용사가 파생될 수 있는 어근을 말한다. 제19항 및 제24항과 연관되는 규정인데, 예컨대 ‘깜짝깜짝-깜짝하다, 깜짝거리다, 깜짝이다, (눈)깜짝이’와 같이 나타나는 형식에 있어서, 실질 형태소인 어근 ‘깜짝-’의 형태를 고정시킴으로써, 그 의미가 쉽게 파악되도록 하는 것이다.

‘(더필거리다)더필이[輕率人], (빠죽거리다)빠죽이[易怒人], (살살거리다)살살이[奸人], (푸석하다)푸석이[胞物]’는 통일안에서 ‘더퍼리, 빠쭉기, 살사리, 푸서기’로 하였던 것을 이번에 바꾸었다. 그리고 ‘(깎쪽거리다)깎쪽이[銀錢]’는 사전에서 ‘깎쭉기’로 다루 어지던 것이다. ‘(홀썩하다)홀 썩이’는 몸이 야위어 가냘픈 사람을, ‘(꿀꿀거리다)꿀꿀이’는 게걸스럽고 욕심이 많은 사람, 또는 꿀꿀이죽(의 준말)을 이르는 말이다.

한편, ‘오뚝이[不倒翁]’는 사전에서 ‘오뚝이’로 다루던 것인데, 표준어 규정(제8항)에서 ‘오뚝이’로 바꾸었으며, 부사도 ‘오뚝이(우뚝이)’로 적는다.(제25항 참조) 또, ‘(씩씩거리다)씩씩이’는 ‘ㄱ기’를 이르는 말이다. ‘씩씩’이란 울음소리를 사뭇하여 지은 것이긴 하지만, ‘씩씩거리다’와 거리가 먼 곤충의 이름은 ‘씩 썩기’로 적는다. 같은 음절이 겹쳐 나는 구조이므로, ‘씩새기’로 적지 않는다.(제18항 참조)

[붙임] ‘- 하다’나 ‘-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 된 접미사가 결합하여 파생된 명사의 경우는, 그 어근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

‘딱따구리’는 통일안(제22항)에서 ‘딱다구리’로 하였던 것을 이번에 바꾸었다. 의성어 ‘딱딱’

에 접미사 ‘-우리’가 결합한 형태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룩이[斑點]/얼루기[斑毛獸]’로 다루어지고 있는 단어는 구별 없이 ‘얼루기’로 적는다.

한편, ‘깍두기, 칼썩두기[切麪]’에서의 ‘깍둑, 썩둑’은 ‘깍둑거리다(〈썩둑거리다), 썩둑거리다(〈삭둑거리다)에서의 ‘깍둑-, 썩둑-’과 연관시켜 볼 수도 있으나, 어근의 본뜻이 인식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 형태를 밝히어 적지 않는다. 그리고 ‘부스럭기’는 ‘부스럭거리다’란 의성어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부스럭이’로 적지 않는다.

**제24항**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깜짝이다	깜짜기다	속삭이다	속사기다
꾸벅이다	꾸버기다	속닥이다	속더기다
끄덕이다	끄더기다	울먹이다	울머기다
뒤척이다	뒤쳐기다	움직이다	움지기다
들먹이다	들머기다	지껄이다	지껴리다
망설이다	망서리다	퍼덕이다	퍼더기다
번득이다	번드기다	허덕이다	허더기다
번쩍이다	번쩌기다	헐떡이다	헐떠기다

**해설** 접미사 ‘-이다’는 규칙적으로 널리 (여러 어근에) 결합한다. 예컨대 ‘꾸벅하다, 꾸벅거리다, 꾸벅이다’처럼 나타나는 형식에서 실질 형태소인 ‘꾸벅’의 형태가 고정되지 않으면, 의태어(擬態語)인 ‘꾸벅꾸벅’과의 연관성이 이해되기 어려워진다. 그리하여 어근과 ‘이다’가 구별되게 적는 것이다.

(간질간질)간질이다	(간죽간죽)간죽이다
(꿈적꿈적)꿈적이다	(끈적끈적)끈적이다
(곰적곰적)곰적이다	(덜렁덜렁)덜렁이다
(땀적땀적)땀적이다	(뒤적뒤적)뒤적이다
(들썩들썩)들썩이다	(떨럭떨럭)떨럭이다
(홀쩍홀쩍)홀쩍이다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렵듯이    깨끗이

[붙임]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곰곰이 더욱이 생긱이 오뚝이 일찍이 해죽이

**해설** ‘-하다’가 붙는 어근이란, ‘급(急)하다, 꾸준하다, 도저(到底)하다’처럼 접미사 ‘-하다’가 결합하여 용언이 파생되는 어근 형태소를 말한다. 그리고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란, 품사는 바뀌지 않으면서 발음 습관에 따라, 혹은 감정적 의미를 더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부사 형태에 ‘-이’가 결합하는 형식을 말한다.

1. ‘-이’나 ‘-히’는 규칙적으로 널리(여러 어근에) 결합하는 부사화 접미사다. 그리하여 명사화 접미사 ‘-이’나 동사, 형용사화 접미사 ‘-하다’, ‘-이다’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결합하는 어근의 형태를 밝히어 적는다.

(나란하다) 나란히                      (넉넉하다) 넉넉히  
 (무던하다) 무던히                      (속하다) 속히  
 (뚜렷하다) 뚜렷이                      (버젓하다) 버젓이

그러나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는 어근과 접미사의 결합체로 분석되지 않으므로,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반듯하다[正, 直]’의 ‘반듯-’에 ‘-이’가 붙은 ‘반듯이(반듯하게)’와 ‘반드시[必]’는 뜻이 다른 단어다.

반듯이(반듯하게) 서라.                  그는 반드시(꼭) 돌아온다.

2. 발음 습관에 따라, 혹은 감정적 의미를 더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부사 형태에 ‘-이’가 결합된 경우는, 그 부사의 본모양을 밝히어 적는 것이다.

‘곰곰이’는 ‘곰곰’을 표준어로 삼았으나, 이번에 ‘곰곰이’도 인정하였다.(표준어 규정 제26항 참조) 그리고 ‘더욱이, 일찍이’는 ‘더우기, 일찍이’(‘더욱, 일찍’은 준말로)로 적던 것을 이번에 바꾸었다. ‘더욱-이, 일찍-이’처럼 ‘부사+ -이’의 구조로 설명된다. 또, ‘오뚝이’는 명사와 부사의(표기) 형태가 동일한데, 표준어의 형태가 ‘오뚝이(<우뚝이>)’였던 것을 ‘오뚝이(<우뚝이>’로 바꾸었다.(표준어 규정 제8항 참조) 부사화 접미사 ‘-이, -히’의 구별은 제51항에서 다루었다.

**제26항**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하다’나 ‘-없다’를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딱하다    술하다    착하다    툇툇하다    폭하다
2.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부질없다    상없다    시름없다    열없다    하염없다

**해설** 1. 예시어 중 ‘술하다’는 어원적으로 명사 ‘술[物量]’에 형용사 ‘하다[多]’가 결합하여 된 단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술’에 접미사 ‘-하다’가 결합된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술하다’ 이외의 단어들에 있어서는 어근(및 접미사)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

다’는 어근 뒤에 결합하여 동사나 형용사가 파생되게 하는 요소이므로, 이 단어들에서의 ‘딱, 착’ 따위도 어근으로 다루어지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다’는 규칙적으로 널리 결합하는 접미사다. 그러므로 ‘-하다’가 결합된 형식임을 밝히어 적음으로써 형태상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꽂하다    눅눅하다    단단하다    명하다    뻘하다  
성하다    옥하다    찹찹하다    칠칠하다    털털하다

2. ‘부질없이[부지럽씨], 상없이[상업씨], 시름없이[시르몹씨], 열없이[여 : 럽씨], 하염없이[하염몹씨]’ 등을 통하여 ‘-없다’가 결합된 형식임을 알 수 있다. ‘상없다, 시름없다’ 따위를 파생어로 다룰 것이냐 합성어로 다룰 것이냐 하는 데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겠지만, 통례에 따라 접미사(-없다) 결합 형식으로 잡아 본 항에서 다루었다.

####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국말이	꺾꽃이	꽃잎	끝장
물난리	밀천	부엌일	싫증
웃안	웃웃	젖몸살	첫아들
칼날	팔알	햇웃음	홀아비
홀몸	홀내	값없다	겉늬다
굴주리다	낮잡다	맛먹다	받내다
변놓다	빗나가다	빚나다	새파랗다
셋노랑다	시꺼멓다	씻누렇다	엇나가다
엷누르다	엷든다	웃오르다	짓이기다
헛되다			

[붙임 1] 어원은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

할아버지    할아범

[붙임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골병    골탕    골탕    며칠    아재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부리나케

[붙임 3] ‘이[齒, 𪎮]’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

간니    텃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젓니    톱니    틀니    가랑니    머릿니

**예시** 예시한 단어들은

## (1) 두 개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한 것(합성어)

꽃잎	물난리	부엌일	옷안	젓몸살
칼날	팔알	흙내	끝장	밑천
싫증	값없다	걸눴다	국말이	빛나다
옷오르다	굶주리다	꺾꽃이	낮잡다	반내다
변놓다	엎누르다			

## (2) 접두사가 결합한 것(파생어)

웃웃	헛웃음	홀몸	홀아비	맛먹다
빛나가다	새파랗다	셋노랑다	시꺼멓다	싯누렇다
엷나가다	엷든다	짓이기다	헛되다	

처럼 나누어진다.

(1)에서 보인 ‘끝장, 밑천, 싫증’이 합성어나 하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끝장’의 ‘장’을 ‘초장(初場), 파장(罷場)’의 ‘장(場)’과 같은 것으로 볼 때, 이 ‘장’은 하나의 어휘(한자어) 형태소로 해석되므로, ‘끝장’을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합성어로 다룬 것이라고 설명된다. 그리고 ‘밑천’의 ‘천’은 ‘전(錢)’이 바뀐 형태라고 볼 때, ‘밑(←밑절미) - 천’에서의 ‘천’도 하나의 어휘 형태소로 해석되기 때문에 합성어로 다룬 것이라고 설명된다. 또, ‘싫증’의 ‘증(症)’ 역시 단어 문자인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형태소로 해석되기 때문에(그리하여 [실증]으로 발음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합성어로 다룬 것이라고 설명된다.

둘 이상의 어휘 형태소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루거나, 어근에 접두사가 결합하여 파생어를 이룰 때, 그 사이에서 발음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실질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히어 적음으로써,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꺾꽃이’는 ‘꺾다, 꽃다’란 뜻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꺾꽃이, 꺾꽃이’로 적지 않고, ‘반내다’는 ‘받다, 내다’란 뜻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반내다, 밧내다’로 적지 않는 것이다.

접두사 ‘새 - /시 -, 셋 - /싯 -’의 구별은

새까맣다, 시꺼맣다	새빨갳다, 시빨갳다
새파랗다, 시퍼렇다	새하얗다, 시허옇다

처럼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는 ‘새 - /시 -’를 붙이되, 어간 첫 음절이 양성 계열 모음일 때는 ‘새 -’, 음성 계열 모음일 때는 ‘시 -’로 적으며,

셋노랑다, 싯누렇다

처럼 올림소리 앞에는 ‘셋 - /싯 -’으로 적도록 하였다. 따라서 ‘새노랑다, 시누렇다’는 바른 표기 형태가 아닌 것이다.

[붙임 1] ‘할아버지, 할아범’은 ‘한아버지, 한아범’이 바뀐 형태다. 곧, 옛말에서 ‘큰’이란 뜻을 표시하는 ‘한’이 ‘아버지, 아범’에 결합한 형태가 바뀐 것이다.

이 규정은,

## ① 어원은 분명하나,

한 - 아버지    한 - 아범



②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

한→할

③ 다만, 실질 형태소의 기본 형태를 밝히어 적는다.

(할)아버지 (할)아범

과 같이 해석된다.

[붙임 2] ‘골병’은 사전에서 ‘속 깊이 든 병, 심한 타격을 받은 손해’, ‘골탕’은 ‘소의 등골이나 머릿골에 녹말을 묻히고 달걀을 씌워, 맑은장국이 끓을 때 넣어 익힌 국’이라고 풀이되어 있어서, 그 어원적 형태가 ‘골(골수) - 병(病), 골(골수) - 탕(湯)’인지, ‘끓 - 병(病), 끓 - 탕(湯)’인지, 혹은 ‘골병(骨病), 골탕(骨湯)’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골탕’(속을 끓이는 걱정)의 앞부분은 ‘끓 - ’로 분석되지만, 뒷부분은 ‘탕(湯)’인지 ‘당’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며칠’은 ‘몇 - 일(日)’로 분석하기 어려운 것이니, 실질 형태소인 ‘몇’과 ‘일(日)’이 결합한 형태라면 [(면닐→)면닐]로 발음되어야 하는데, 형식 형태소인 접미사나 어미, 조사가 결합하는 형식에서와 마찬가지로 ‘ㄷ’ 받침이 내리이어져 [며칠]로 발음된다. ‘이틀[二日]’도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단어다. 이 단어를 ‘인홀’이나 ‘잇홀’로 적는다면, ‘홀’은 ‘사홀, 나홀’ 등의 ‘홀’과 공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인, 잇’은 무슨 뜻의 형태소인지 알 수가 없다. 한자어 ‘이(二)’와 결부시키기도 어려운 것이다.

‘아재비’는 그 옛 형태가 ‘아자비’였으므로, ‘아스[弟] - 아비→(앗아비)아사비→아자비→아재비’처럼 해석될 수 있지만, 현대어 ‘아재비’를 ‘앗아비’로 분석하여 적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라비’도 접두사 ‘올 - ’과 ‘아비’로 분석되지 않는다.

‘업신여기다’(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내려다보거나 없는 것과 같이 생각하다.)는 ‘없이 여기다’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ㄴ’음이 첨가될 환경(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없이 여기다→[업 : 썬여기다]’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진다.

‘부리나케’(급하고 빠르게)는 ‘화급(火急)하게’와 대응되는 말이므로 ‘불이 나게’가 바뀌어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발음 형태 [부리나케]로 볼 때는 ‘불이 낭게’와 결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원이 불분명한 단어들은, 그 원형을 밝히려 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한편, ‘섰부르다’(숨씨가 설고 어설피다.)도 이 규정에 따라 ‘서뿌르다’로 적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설다’(경험이 없어 서투르다.)와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구조이므로, 제29항 규정을 적용하여 ‘(설부르다→)섰부르다’로 적기로 하였다.

[붙임 3]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구조의 단어에서 실질 형태소는 본모양을 밝히어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齒, 虱]’의 경우는 예외로 다룬 것이다. ‘이[齒]’는 옛말에서 ‘니’였으나, 현대어에서는 ‘이’가 표준어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간이, 덧이’처럼 적고, [니]로 발음되는 것은 ‘ㄴ’음 첨가 현상으로 설명하는 게 본 항 규정에 맞는 일이지만, ‘송곳이, 앞이’처럼 적으면 ‘송곳, 앞’에 주격 조사 ‘이’가 붙은 형식과 혼동됨으로써 [송고시, 아피]로 읽힐 수도 있으며, 새끼 이를 ‘가랑이’로 적으면 끝이 갈라져 떨어진 부분을 이르는 ‘가랑이’와 혼동될 수 있다. 그리하여 다른 단어나 접두사 뒤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나는 ‘이’는 ‘간니

[代生齒], 덧니, 틀니, ……; 가랑니[幼虱], 머릿니[頭髮蟲], ……’처럼 적기로 한 것이다.

**재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다달이(달 - 달 - 이)	따님(딸 - 님)
마되(말 - 되)	마소(말 - 소)
무자위(물 - 자위)	바느질(바늘 - 질)
부나비(불 - 나비)	부삽(불 - 삽)
부손(불 - 손)	소나무(솔 - 나무)
싸전(쌀 - 전)	여닫이(열 - 닫이)
우짚다(울 - 짚다)	화살(활 - 살)

**예설** 합성어나 (접미사가 붙은) 파생어에서 앞 단어의 ‘ㄹ’ 받침이 발음되지 않는 것은 발음되지 않는 형태로 적는다. 이것은 합성어나,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결합하여 된 파생어의 경우는 실질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원칙에 벗어나는 규정이지만, 역사적인 현상으로서 ‘ㄹ’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원적인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 것이다. ‘ㄹ’은 대체로 ‘ㄴ, ㄷ, ㅅ, ㅈ’ 앞에서 탈락하였다.

‘ㄹ’ 받침이 떨어진 단어로는

(날날이) 나날이	(물논) 무논	(물수리) 무수리
(밀닫이) 미닫이	(불넘기) 부넘기	(아들님) 아드님
(줄납시) 주낙	(찰돌) 차돌[石英]	(찰조) 차조
(찰지다) 차지다	(하늘님) 하느님	

따위도 있다. 그리고 한자 ‘불(不)’이 첫소리 ‘ㄷ, ㅈ’ 앞에서 ‘부’로 읽히는 단어의 경우도 ‘ㄹ’이 떨어진 대로 적는다.

부단(不斷), 부당(不當), 부동(不同, 不凍, 不動), 부득이(不得已), 부등(不等), 부적(不適), 부정(不正, 不眞, 不定), 부조리(不條理), 부주의(不注意), ……

**재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반진고리(바느질 ~)	사흘날(사흘 ~)	삼진날(삼질 ~)
섣달(섣 ~)	순가락(술 ~)	이튿날(이틀 ~)
잔주름(잘 ~)	폰소(폴 ~)	섣부르다(섣 ~)
잔다듬다(잘 ~)	잔다랗다(잘 ~)	

**예설** ‘ㄹ’ 받침을 가진 단어(나 어간)가 다른 단어(나 접미사)와 결합할 때, ‘ㄹ’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이 경우 역시 합성어나,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가 결합하여 된 파생어는 실질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원칙에 벗어나는 규정이지만, 역사적 현상으로서 ‘ㄷ’으로 바뀌어 굳어져 있는 단어는 어원적인 형태를 밝히어 적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규정의 대상은 ‘ㄹ’이 ‘ㄷ’으로 바뀐 것이므로, 제7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받침이 ‘ㄷ’으로 바뀐 단어로는

(나흘날) 나흘날 (잘갈다) 잘갈다 (잘갈리다) 잘갈리다

(잘닐다) 잘닐다 (잘다랗다) 잘달다 (잘타다) 잘타다

따위도 있다.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고랫재	꿇밥	나룻배	나뭇가지
넋가	넋가지	뒷갈망	맷돌
머릿기름	모깃불	못자리	바닷가
뱃길	뱃가리	부싷돌	선짓국
씻조각	아랫집	우렁잇속	잇자국
젓터미	조갯살	찻집	젓바퀴
킷값	핏대	햇별	햇바늘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맷나물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뒷머리  
잇몸 껏묵 냇물 빗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꺄얇 뒷웃 두꺄얇 뒷일 뒷입맛  
베꺄얇 옷잇 꺄얇 나뭇잇 꺄얇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꿇병	머릿방	뱃병	붓둑	사꺄얇
꺄꺄	아랫방	자꺄꺄	전꺄꺄	꺄꺄
꺄꺄	꺄꺄	꺄꺄	꺄꺄	꺄꺄
꺄꺄	꺄꺄	꺄꺄꺄	꺄꺄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꺄꺄 꺄꺄꺄 꺄꺄 꺄꺄꺄 꺄꺄꺄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꺄꺄꺄 꺄꺄꺄 꺄꺄꺄 꺄꺄꺄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횃수(回數)

**해설** (1) 고유어끼리 결합한 합성어(및 이에 준하는 구조) 또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합성어 중 앞 단어의 끝 모음 뒤가 폐쇄되는 구조로서,

- ①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 등이 된소리로 나는 것
- ② 폐쇄시키는 음([ㄷ])이 뒤의 ‘ㄴ, ㅁ’에 동화되어 [ㄴ]으로 발음되는 것
- ③ 뒤 단어의 첫소리로 [ㄴ]이 첨가되면서 폐쇄시키는 음([ㄷ])이 동화되어 [ㄴㄴ]으로 발음되는 것

(2) 두 글자(한자어 형태소)로 된 한자어 중, 앞 글자의 모음 뒤에서 뒤 글자의 첫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6개 단어에 사이시옷을 붙여 적기로 한 것이다.

사이시옷 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개 - 구멍, 배 - 다리, 새 - 집[鳥巢], 머리 - 말[序言]
- ② 개 - 똥, 보리 - 쌀, 허리 - 띠, 개 - 펄, 배 - 탈, 허리 - 춤
- ③ 개 - 값, 내 - 가[川邊], 배 - 가죽[腹皮], 새(←사이) - 길[間路]  
귀 - 병(病), 기(旗) - 대, 세(貰) - 돈, 화(火) - 김
- ④ 배 - 놀이[船遊], 코 - 날[鼻線], 비 - 물[雨水], 이 - 몸[齒齦]  
무시(無市) - 날, 보(洑) - 물, 패(牌) - 말
- ⑤ 깨 - 잎, 나무 - 잎, 뒤 - 옷, 허드레 - 일  
가외(加外) - 일, 보(洑) - 일
- ⑥ 고 - 간(庫間), 세 - 방(貰房), 수 - 자(數字), 차 - 간(車間), 퇴 - 간(退間), 회 - 수(回數)  
에서 ①~⑤는 모두 합성어이며, ⑥은 이에 준하는 한자어다. 그런데
- ①의 경우는, 앞 단어의 끝이 폐쇄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
- ②의 경우는, 뒤 단어의 첫소리가 된소리나 거센소리이므로, 역시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
- ③의 경우는, 앞 단어의 끝이 폐쇄되면서 뒤 단어의 첫소리가 경음화하여 [깁 : 깎, 낸 : 깨]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붙이어  
깎값, 냇가, 뱃가죽, 셋길      껏병, 깃대, 셋돈, 핫김  
으로 적는다.
- ④의 경우는, 앞 단어의 끝이 폐쇄되면서 자음 동화 현상(ㄷ+ㄴ→ㄴ+ㄴ, ㄷ+ㅁ→ㄴ+ㅁ)이 일어나 [뱃놀이, 빈물]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붙이어  
뱃놀이, 콧날, 빗물, 잇몸      무시날, 붓물, 팻말  
로 적는다. ‘팻말, 풋말’은 한자어 ‘패(牌), 표(標)’에 ‘말(말뚝)’(옛말에서 ‘ㅎ’곡용어)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2의 규정을 적용하여 ‘팻말, 풋말’로 적는 것이다.
- ⑤의 경우는, 앞 단어 끝이 폐쇄되면서 뒤 단어의 첫소리로 [ㄴ]음이 첨가되고, 동시에 동화 현상이 일어나 [깁닙→깁닙, 나뭇닙→나뭇닙]으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붙이어  
깁잎, 나뭇잎, 뒗옷, 허드렛일

가윗일, 붓일

로 적는다.

⑥의 경우는,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6개 단어만은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텃간, 횃수

로 적는다.

이 설명에 따르면, ‘내과(內科), 이과(理科), 총무과(總務課), 장미과(薔薇科)’ 등은 3에서 다루어진 6개 이외의 한자어이므로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으며, ‘나리 - 과(科), 말선두리 - 과(科)’ 등은 ‘과’가 비교적 독립성이 약한 형태소이긴 하지만 앞의 고유어와의 사이에 경계가 인식되는 구조이므로 2의 규정을 적용하여

나릿과, 말선두릿과

로 적는 것이다.

한편, 2(1)의 예시어 ‘찻잔, 찻종’에서의 ‘차’가 순우리말이나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예로부터 ‘茶’자의 새김[訓]이 ‘차’였으므로, 한자어 ‘다(茶)’와 구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1. ‘ㅂ’ 소리가 덧나는 것

덥싸리(대ㅂ싸리)    뭇쌀(메ㅂ쌀)    뱌씨(벼ㅂ씨)

입때(이ㅂ때)    입쌀(이ㅂ쌀)    접때(저ㅂ때)

좁쌀(조ㅂ쌀)    햅쌀(해ㅂ쌀)

2. ‘ㅎ’ 소리가 덧나는 것

머리카락(머리ㅎ가락)    살고기(살ㅎ고기)

수캐(수ㅎ개)    수컷(수ㅎ것)

수탉(수ㅎ닭)    안팎(안ㅎ밖)

암캐(암ㅎ개)    암컷(암ㅎ것)

암탉(암ㅎ닭)

**해설** 1. ‘싸리[荊], 쌀[米], 씨[種], 때[時]’ 등은 단어 첫머리에 ‘ㅂ’음을 가지고 있었던 단어다. 이 단어들이 다른 단어 또는 접두사와 결합하는 경우, 두 형태소 사이에서 ‘ㅂ’음이 발음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구조의 합성어나 파생어에 있어서는 뒤의 단어가 주장이 되는 것이므로, ‘싸리, 쌀, 씨, 때’ 따위의 형태를 고정시키고 첨가되는 ‘ㅂ’을 앞 형태소의 받침으로 붙여 적는 것이다. 이런 단어로는

넙뜨다    부릅뜨다    칩떠보다    뺨싸다    뺨쓸다

등도 있다.

한편, ‘덥싸리’는 사전에서 ‘대싸리’로 다루어지던 단어인데 표준어 규정(제17항)에서 ‘덥싸리’로 정하였다.

2. 옛말에서 ‘ㅎ’속용어이었던 ‘머리[頭], 살[肌], 수[雄], 암[雌], 안[內]’ 등에 다른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 중에서, [ㅎ]음이 첨가되어 발음되는 단어는 소리 나는 대로(뒤 단어의 첫소리를 거센소리로) 적는다.

‘암-, 수-’가 결합하는 단어의 경우는 표준어 규정(제7항 다만)에서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태지, 수평아리, 암강아지, 암캐, 암컷, 암키와, 암탉,

암탕나귀, 암톨찌귀, 암태지, 암평아리

를 예시하였다.

## 제5절 준 말

**제32항** 단어의 끝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기러기야	기러아	가지고, 가지지	갓고, 갓지
어제 그저께	엇그저께	디디고, 디디지	딘고, 딴지
어제저녁	엇저녁		

**해설** 단어 또는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경우, 그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올려붙여 적는다. 곧, 실질 형태소가 줄어진 경우에는 줄어진 형태를 밝히어 적는 것이니, ‘어제 그저께’에서 ‘어제’의 ‘ㄷ’이 준 형태는 ‘엇’으로, ‘가지고’에서 ‘가지’의 ‘ㅣ’가 준 형태는 ‘갓’으로 적는 것이다.

그런데 줄어지는 음절의 첫소리 자음이 올라붙지 않고 받침 소리가 올라붙는 형식도 있다.

바둑 - 장기→박장기

어긋 - 매끼다→엇매끼다

바깥 - 벽→발벽

바깥 - 사돈→발사돈

이 규정을 적용하면, ‘아기야’에서 ‘아기’의 ‘ㅣ’가 줄면 ‘악야’가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가, 이리 오너라.’처럼 표현되는 형식에서의 ‘아가’는 ‘아가야’에서의 ‘야’가 줄어진 형태로 설 명될 수 있다.

**제33항** 체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그것은	그진	너는	넌
그것이	그게	너를	널
그것으로	그걸로	무엇을	뭇을/무얼/뭇
나는	난	무엇이	뭇이/무에
나를	날		

**예시**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어떤 음이 줄어들거나 음절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그 본모양을 밝히지 않고 준 대로 적는다.

(그 애→개) 그 애는→개는→겐, 그 애를→개를→겔

(이 애→예) 이 애는→예는→엔, 이 애를→예를→엘

(저 애→재) 저 애는→재는→젠, 저 애를→재를→젤

그리로→글로, 이리로→일로, 저리로→절로, 조리로→줄로

그것으로→그걸로, 이것으로→이걸로, 저것으로→저걸로

처럼 줄어지기도 한다. 다만, ‘아래로→알로’는 비표준어로 처리하였다.(표준어 규정 제15항 [붙임] 참조)

**제34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 -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가아	가	가았다	갔다
나아	나	나았다	났다
타아	타	타았다	탸다
서어	서	서었다	섰다
켜어	켜	켜었다	켰다
펴어	펴	펴었다	폈다

[붙임 1] ‘ㅐ, ㅑ’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개어	개	개었다	갸다
내어	내	내었다	노다
베어	베	베었다	뵈다
세어	세	세었다	췌다

[붙임 2] ‘하어’가 한 음절로 줄어서 ‘해’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하어	해	하였다	햌다
더하어	더해	더하였다	더햌다
흔하어	흔해	흔하였다	흔햌다

**예시** 모음 ‘ㅏ, ㅑ’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 ‘-아/-어’가 붙는 형식에서는 ‘아/어’가 줄어지며, ‘-았-/ -었’이 붙는 형식에서는 ‘아/어’가 줄어들고 ‘ㅁ’만 남는다.

따아→따

따아서→따서

따아도→따도

따았다→땃다

건너어→건너

건너어서→건너서

건너어도→건너도 건너었다→건넸다

다만, ‘ㅅ’불규칙 용언의 어간에서 ‘ㅅ’이 줄어진 경우에는 ‘아/어’가 줄어들지 않는 게 원칙이다.

났다 : 나아, 나아서, 나아도, 나아야, 나았다

졌다 : 저어, 저어서, 저어도, 저어야, 저었다

[붙임 1] 어간 끝 모음 ‘ㄱ, ㅋ’ 뒤에 ‘-어, -었’이 붙을 때 ‘어’가 줄어지기도 한다.

매어→매 매어라→매라 매었다→땀다 매어 두다→매 두다

떼어→떼 떼어라→떼라 떼었다→땀다 떼어 놓다→떼 놓다

다만, 어간 모음 ‘ㅏ’ 뒤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ㅐ’로 줄어지는 경우는 ‘어’가 줄어들지 않는 게 원칙이다.

빈틈없이 (짜이어→) 째어 있다.

우묵우묵 (파이어→) 패어 있다.

[붙임 2] ‘하다’는 ‘여’ 불규칙 용언이므로, ‘하아’로 되지 않고 ‘하여’로 된다. 이 ‘하여’가 한 음절로 줄어진 형태는 ‘해’로 적는다.

하여→해 하여라→해라 하여서→해서 하였다→했다

**제35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 -었-’이 어울려 ‘ㅏ/ㅑ, ㅗ/ㅓ’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꼬아	꽂	꼬았다	꿰다
보아	봐	보았다	봤다
쏘아	쑈	쏘았다	쐈다
두어	둬	두었다	뒀다
쑤어	쑤	쑤었다	쐈다
주어	쑤	주었다	쐈다

[붙임 1] ‘놓야’가 ‘놔’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 2] ‘ㅑ’ 뒤에 ‘-어, -었-’이 어울려 ‘ㅑ, ㅓ’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괴어	괘	괴었다	괘다
되어	뎌	되었다	뒀다
뵈어	배	뵈었다	뵈다
쇠어	쇄	쇠었다	쐈다
썰어	썰	썰었다	쐈다

**예시**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어미 ‘-아/-어’가 붙어서 ‘ㅏ/ㅑ’로 줄어지는 것은 ‘ㅏ/ㅑ’로 적는다.

오아→와 오아도→와도 오아서→와서 오았다→왔다

추어→취 추어서→취서 추어야→취야 추었다→쐈다

다만, 제18항 4에서 다루어진 ‘푸다’의 경우는 ‘푸어→퍼’처럼 어간 모음 ‘ㅑ’가 줄어들므로,



‘ㅍ’로 적지 않는다.

[붙임 1] 예컨대 ‘좋다’의 어간 ‘좋-’에 어미 ‘-아’가 붙으면 ‘좋아’가 되는데, 이 ‘좋아’가 줄어들어서 ‘좌’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놓다’(규칙 동사)의 경우는

놓아→(노아→)놔

놓아라→(노아라→)놔라

놓았다→(노았다→)놔다

처럼, 어간 받침 ‘ㅎ’이 줄면서 두 음절이 하나로 줄어진다. 그리하여 ‘놓다’의 경우는 예외적인 형식을 인정한 것이다.

[붙임 2] 어간 모음 ‘ㅛ’ 뒤에 ‘-어’가 붙어서 ‘내’로 줄어지는 것은 ‘내’로 적는다.

되다 - 일이 뜻대로 (되어→)돼 간다.

만나게 (되어서→)돼서 기쁘다.

일이 잘 (되어야→)돼야 한다.

나도 가게 (되었다→)됐다.

와 같이 줄어지는 형식을 적용하면, 예컨대 ‘죄다, 쪼다’ 따위도

죄다 - 나사를 (죄어→)쪼 분다.

나사를 (죄어야→)쪼야 한다.

나사를 (죄었다→)쪘다.

쪼다 - 별을 (쪼어라→)쪘라.

별을 (쪼어야→)쪘야 한다.

별을 (쪘었다→)쪘다.

처럼 줄어진다.

**제36항** ‘ㄷ’ 뒤에 ‘-어’가 와서 ‘ㄷ’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가지어	가져	가지었다	가졌다
견디어	견더	견디었다	견뎠다
다니어	다녀	다니었다	다녔다
막히어	막혀	막히었다	막혔다
버티어	버터	버티었다	버텼다
치이어	치여	치이었다	치였다

**예시** 접미사 ‘-이, -히, -기, -리, -으키, -이키’ 뒤에 ‘-어’가 붙은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녹이어→녹여

먹이어서→먹여서

숙이었다→숙였다

업히어→업혀

입히어서→입혀서

잡히었다→잡혔다

굴기어→굴겨

남기어야→남겨야

옮기었다→옮겼다

굴리어→굴려

날리어야→날려야

돌리었다→돌렸다

일으키어→일으켜

돌이키어→돌이켜

**제37항** ‘ㄱ, ㅋ, ㆁ, ㄷ, ㅌ’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ㄱ, ㅋ, ㆁ, ㄷ, ㅌ’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싸이다	쌌다	누이다	눅다
퍼이다	폈다	뜨이다	퓌다
보이다	봔다	쓰이다	썩다

**해설** 어간 끝 모음 ‘ㄱ, ㅋ, ㆁ, ㄷ, ㅌ’ 뒤에 ‘-이-’가 결합하여 ‘ㄱ, ㅋ, ㆁ, ㄷ, ㅌ’로 줄어 지는 것은 ‘ㄱ, ㅋ, ㆁ, ㄷ, ㅌ’로 적는다.

까이다[被擧]→깨다    커이다[被鋸]→케다    쏘이다→썩다

꾸이다[現夢]→꿔다    트이다→티다

‘놓이다’가 ‘늑다’로 줄어지는 경우도 ‘늑다’로 적는다. 또, 형용사화 접미사 ‘-스럽(다)’에 ‘-이-’가 결합한 ‘스리어’가 ‘-스레’로 줄어지는 경우도 준 대로 적는다

새삼스러이→새삼스레    천연스러이→천연스레

**제38항** ‘ㄱ, ㆁ, ㄷ, ㅌ’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싸이어	쌌어 싸여	뜨이어	퓌어
보이어	봔어 보여	쓰이어	썩어 쓰여
쏘이어	썩어 쏘여	트이어	티어 트여
누이어	눅어 누여		

**해설** 어간 끝 모음 ‘ㄱ, ㆁ, ㄷ, ㅌ’ 뒤에 ‘-이어’가 결합하여 줄어질 때는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난다. 곧, ‘이’가 앞(어간) 음절에 올라붙으면서 줄어지기도 하고, 뒤(어미) 음절에 내리어지면서 줄어지기도 한다.

까이어→깨어/까여

꼬이어→꾀어/꼬여

누이어→늑어/누여

뜨이어→퓌어/(늑이)뜨여

쓰이어→썩어/쓰여

트이어→티어/트여

‘놓이다’의 준말 ‘늑다’의 경우는 ‘늑어’로 적지만, ‘놓이어’가 줄어진 형태는 ‘놓여’로 적는다. 다만, ‘퓌어쓰기, 퓌어 쓰다, 퓌어 놓다’ 따위는 관용상 ‘뜨여쓰기, 뜨여 쓰다, 뜨여 놓다’ 같은 형태가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뜨이우다)퓌우다, (쓰이우다)썩우다, (트이우다)티우다’처럼 ‘-이’ 뒤에 다시 ‘-우’가 붙는 형식에서는, ‘이’를 앞 음절에 올려붙여 적는다.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그렇지 않은	그렇잖은	만만하지 않다	만만찮다
적지 않은	적잖은	변변하지 않다	변변찮다

**해설** 제36항 규정을 적용하면, ‘-지 않-’, ‘-치 않-’이 줄어지면 ‘잖, 찬’이 된다. 그러나 줄어진 형태가 하나의 단어처럼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구태여 그 원형과 결부시켜 준 과정의 형태를 밝힐 필요가 없다는 견해에서 소리 나는 대로 ‘잖, 찬’으로 적기로 한 것이다. 실상, 사전에서 준말로 다루어지고 있는

(깔밋하지 않다→) 깔밋잖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잖다  
 (남부럽지 않다→) 남부럽잖다    (의젓하지 않다→) 의젓잖다  
 (대단하지 않다→) 대단찮다    (만만하지 않다→) 만만찮다  
 (시원하지 않다→) 시원찮다

따위와, 준말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렇지 않다→그렇잖다    적지 않다→적잖다  
 무심하지 않다→무심찮다    편안하지 않다→편안찮다

따위와의 구별은 임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좌우되기 쉬운 것이며, 또 표기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킬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지 않-’, ‘-치 않-’이 한 개 음절로 줄어지는 경우는 모두 ‘잖, 찬’으로 적도록 하였다.

두렵지 않다→두렵잖다    많지 않다→많잖다  
 예사롭지 않다→예사롭잖다    의롭지 않다→의롭잖다  
 성실하지 않다→성실찮다    심심하지 않다→심심찮다  
 평범하지 않다→평범찮다    허술하지 않다→허술찮다

‘귀찮-, 점잖-’처럼 어간 끝소리가 ‘ㅎ’인 경우는, [찬]으로 소리 나더라도 ‘귀찮지 않다→귀찮잖다, 점잖지 않다→점잖잖다’로 적는다.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 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간편하게	간편케	다정하다	다정타
연구하도록	연구토록	정결하다	정결타
가하다	가타	흔하다	흔타

[붙임 1]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않다      않고      않지      않든지

그렇다	그렇고	그렇지	그렇든지
아무렇다	아무렇고	아무렇지	아무렇든지
어떻다	어떻고	어떻지	어떻든지
이렇다	이렇고	이렇지	이렇든지
저렇다	저렇고	저렇지	저렇든지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거북하지	거북지	넉넉하지 않다	넉넉지 않다
생각하건대	생각건대	못하지 않다	못지않다
생각하다 못해	생각다 못해	섭섭하지 않다	섭섭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익숙지 않다

[붙임 3]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해설** 제15항에서는 실질 형태소인 어간과 형식 형태소인 어미를 구별하여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통일안(제56항)에서와 같이 ‘흔하다’가 준 형태는 ‘흔<sup>ㅎ</sup>다’ 또는 ‘흙<sup>ㅎ</sup>다’로 적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준 소리 ‘ㅎ’을 사이 글자로 적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한글 맞춤법의 체계에 있어서 예외적인 형식이 된다. 곧, 한글 맞춤법의 체계는 말소리를 음절 단위로 적는 것인데, 다만 이 준 소리 ‘ㅎ’만은 한 개 자음이 독립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필기의 형식이나 인쇄물의 체재에서 시각적으로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게 된다.

둘째는, 대중이 사이 글자 ‘ㅎ’의 용법을 익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맞춤법은 교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의 성격을 띠는 게 통레이긴 하지만,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대중을 위한 규정을 지향(指向)하는 것이므로, 대중이 이해하고 대중이 준용(準用)할 수 있는 규정이 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어간 끝 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남는 경우”를 이해하고 사이 글자 ‘ㅎ’을 쓰는 일은 아무래도 대중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까닭으로 통일안 제56항(준 소리 ‘ㅎ’ 관계)은 교과서 표기에서나 제대로 지켜졌을 뿐 유아무야(有耶無耶)한 규정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이 경우도 예외로 다루어, 소리 나는 대로 적기로 한 것이다.

가(可)하다	부(否)하다	→가타 부타(→가타부타)
무능하다	→무능타	부지런하다→부지런타
아니하다	→아니타	감탄하게→감탄케
달성하게	→달성케	실망하게→실망케

당(當)하지→당치	무심하지→무심치
허송하지→허송치	분발하도록→분발토록
실천하도록→실천토록	추진하도록→추진토록
결근하고자→결근코자	달성하고자→달성코자
사임하고자→사임코자	청하건대→청컨대
회상하건대→회상컨대	

[붙임 1] 준말에 있어서,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져 있는 것은 받침으로 붙여 적는다. 이 경우 한 개 단어로 다루어지는 준말의 기준은 관용에 따르는데, 대체로 지시 형용사(指示形容詞)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어떠하다, 아무러하다’ 및 ‘아니하다’ 등이 줄어진 형태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하다→) 이렇다, 이렇게, 이렇고, 이렇지, 이렇거나, ……

(아니하다→) 앓다, 앓게, 앓고, 앓지, 앓든지, 앓도록, ……

[붙임 2] 어간의 끝 음절 ‘하’가 줄어진 형태로 관용되고 있는 형식을 말하는데, 안을 림소리 받침 뒤에서 나타난다.

갑갑하지 앓다→갑갑지 앓다→갑갑잖다

깨끗하지 앓다→깨끗지 앓다→깨끗잖다

넉넉하지 앓다→넉넉지 앓다→넉넉잖다

답답하지 앓다→답답지 앓다→답답잖다

못하지 앓다→못지앓다(→못잖다)

생각하다 못하여→생각다 못해

생각하건대→생각컨대

익숙하지 못하다→익숙지 못하다

[붙임 3] 어원적인 형태는 용언의 활용형으로 볼 수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부사로 전성된 단어는 그 본 모양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들 단어는 용언적 기능(서술 기능)을 지니지 않을 뿐 아니라, 불변화사(不變化詞)인 부사는 활용의 형태와 연관시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19항 [붙임 2] (3)에서 다루어진 조사 ‘나마, 부터, 조차’의 경우와도 상통하는 규정이다. 이런 단어의 경우는 대개 원형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준말의 유형에서 제외할 만한 것이지만 그 표기 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기 쉬운 것이어서 여기서 다루어 놓았다.

예시어 중, ‘아무튼, 하여튼’은 사전에서 ‘아뭇든, 하엿든(지)’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바꾸었다. 그러나 ‘이렇든(지), 그렇든(지), 저렇든(지), 아무렇든(지), 어떻든(지)’ 따위는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아무렇다, 어떻다’의 활용형이므로 ‘튼(지)’으로 적지 않는다. 이 경우, 부사 ‘어떻든’은 형용사 ‘어떻든(지)’이 부사로 전성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한편, ‘-하다’형 용언과 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토록, 그토록, 저토록, 열흘토록, 종일토록, 평생토록’ 등도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 제5장 띄어쓰기

## 제1절 조사

**재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마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이다	꽃입니다
꽃처럼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해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사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단어 뒤에 종속적(從屬的)인 관계로 존재한다.

조사는 그것이 결합되는 체언이 지니는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므로, 그 앞의 단어에 붙여 쓰는 것이다.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지거나 조사가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집에서처럼	학교에서만이라도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나가면서까지도	들어가는커녕
아시다시피	웁니다그러	“알았다.”라고

##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재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해설** 의존 명사는 의미적 독립성은 없으나 다른 단어 뒤에 의존하여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진다.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앞 단어에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지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띄어 쓰는 것이다.

동일한 형태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들’이 ‘남자들, 학생들’처럼 하나의 단어에 결합하여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는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쌀, 보리, 콩, 조, 기장 등을 오곡(五穀)이라 한다.

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는 구조에서 ‘그런 따위’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바, 더, ㄱ 등은 파열음이다.”처럼 쓰이는 ‘등’도 마찬가지다.

(2) ‘뿐’이 ‘남자뿐이다, 셋뿐이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의를 나타내는 경우는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옷을 **뿐**이다.            만졌을 **뿐**이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을’ 뒤에서 ‘따름’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3) ‘대로’가 ‘대로, 약속대로’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아는 **대로** 말한다.    약속한 **대로** 이행한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4) ‘만큼’이 “여자도 남자만큼 일한다.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그런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볼 **만큼** 보았다.        애쓴 **만큼** 얻는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런 정도로’ 또는 ‘실컷’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5) ‘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것은 그것만 못하다.”처럼 체언에 붙어서 한정 또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온 **지** 1년 만에 떠나갔다.

와 같이,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6)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처럼 쓰이는 ‘-지’는 어미의 일부이므로 붙여 쓰지만,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7) ‘차(次)’가 “연수차(研修次) 도미(渡美)한다.”처럼 명사 뒤에 붙어서 ‘……하려고’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고향에 갔던 차에 선을 보았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어떤 기회에 겹쳐서’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8) ‘판’이 ‘노름판, 씨름판, 웃음판’처럼 쓰일 때는 합성어를 이루는 명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바둑 한 **판** 두자.        장기를 세 **판**이나 두었다.

와 같이 수 관형사 뒤에서 승부를 겨루는 일의 수효를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재<sup>43</sup>형**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죽  
집 한 채      신 두 켤레      복어 한 껍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2대대
16동 502호	제1실습실
80원	10개
7미터	

**해설**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수량 단위 불완전 명사)는 그 앞의 수 관형사와 띄어 쓴다.

나무 한 그루	고기 두 근	열 길 물 속
은 닢 냥(- 쫘)	바느질 실 한 닢	엽전 두 닢
금 서 돈(- 쫘)	토끼 두 마리	논 두 마지기
쌀 서 말	물 한 모금	실 한 바람
장작 한 바리	열 바퀴	새끼 두 발
국수 한 사리	벼 석 섬	밥 한 술
흙 한 줌	집 세 채	밤 한 톨
김 네 톳	풀 한 포기	

다만, 수관형사 뒤에 의존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나, 의존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제일 편→제일편    제삼 장→제삼장    제칠 항→제칠항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붙여 쓸 수 있다.

(제)이십칠 대→이십칠대	(제)오십팔 회→오십팔회
(제)육십칠 번→육십칠번	(제)구십삼 차→구십삼차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붙여 쓸 수 있다.

(제)일 학년→일학년	(제)구 사단→구사단
(제)칠 연대→칠연대	(제)삼 층→삼층
(제)팔 단→팔단	(제)육 급→육급
(제)16 통→16통	(제)274 번지→274번지

제1 연구실→제1연구실

또, 연월일, 시각 등도 붙여 쓸 수 있다.

일천구백팔십팔 년 오 월 이십 일  
→ 일천구백팔십팔년 오월 이십일



여덟 시 오십구 분 → 여덟시 오십구분  
 다만, 수효를 나타내는 ‘개년, 개월, 일(간), 시간’ 등은 붙여 쓰지 않는다.  
 삼 (개)년 육 개월 이십 일(간) 체류하였다.  
 그러나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의존 명사는 모두 붙여 쓸 수 있다.  
 35원 70관 42마일 26그램 3년 6개월 20일간

**재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해설** 십진법(十進法)에 따라 띄어 쓰던 것을 ‘만’ 단위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만, 억, 조’ 및 ‘경(京), 해(垓), 자(秭)’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다.

십진법에 의하여 띄어 쓰면 그것이 합리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너무 작게 갈라 놓는 것이 되어서, 오히려 의미 파악에 지장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금액을 표기할 때 십표를 치는 것처럼 세 자리 단위로 띄어서,

십 이억삼천사백 오십육만칠천 육백구십팔(1,234,567,698)

과 같이 띄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되었으나, ‘십’과 ‘이억’, ‘사백’과 ‘오십육만’이 떨어지는 등 불합리한 형식이 되므로 ‘만, 억, 조, ……」 단위로 띄어 쓰기로 한 것이다.

삼천이백사십삼조 칠천팔백육십칠억 팔천구백이십칠만 육천삼백오십사

3243조 7867억 8927만 6354

다만,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變造)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붙여 쓰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

일금 : 삼십일만오천육백칠십팔원정.

돈 : 일백칠십육만오천원임.

**재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책상, 결상 등이 있다
이사장 및 이사들	사과, 배, 귤 등등
사과, 배 등속	부산, 광주 등지

**해설** (1) ‘겸(兼)’은 한 가지 일 밖에 또 다른 일을 아울러 함을 뜻하는 한자어 형태소다. ‘국장 겸 과장’ 같은 경우 한문 구조에서는 ‘겸’이 뒤의 ‘과장’을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로 설명되는 것이지만, 국어에서는 ‘뽕도 딸 겸 임도 볼 겸’처럼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구조로도 사용되므로 의존 명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장관 겸 부총리      친구도 만날 겸 구경도 할 겸

(2) ‘청군 대 백군’의 경우도, 한문 구조에서는 ‘대(對)’가 뒤의 ‘백군’을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로 설명되지만, 예컨대 “윗마을 대 아랫마을, 다섯 대 셋”처럼 고유어 사이에서 ‘상대하는’, 또는 ‘짜이 되는, 비교되는’ 같은 뜻을 나타내기도 하므로 의존 명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 대 일본      남자 대 여자      5 대 3

그러나 “대(對)를 이룬다.”처럼 쓰이는 경우는 자립 명사이며, 또 ‘대미(對美) 수출, 대일(對日) 무역’과 같이, ‘대’가 앞뒤 두 단어에 관계되지 않는 구조일 때는, 뒤의 형태소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내지(乃至)’는 순서나 정도를 나타내는 데 그 중간을 줄일 때 쓰는 말이라고 풀이되고 있으나, 흔히 ‘혹은, 또는’ 같은 뜻을 표시하므로 접속 부사로 다루어 띄어 쓴다.

하나 내지 넷      열흘 내지 보름      경주 내지 포항

(4) ‘및’은 ‘그 밖에도 또, ……와 또’처럼 풀이되는 접속 부사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다.

위원장 및 위원들      사과 및 배, 복숭아

(5) ‘등(等), 등등(等等), 등속(等屬), 등지(等地)’ 따위는 열거의 뜻을 표시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ㄴ, ㄷ, ㄹ, ㅇ 등은 올림소리다.

과자, 과일, 식혜 등등 먹을 것이 많다.

사과, 배, 복숭아 등속을 사 왔다.

충주, 청주, 대전 등지로 돌아다녔다.

**재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때 그곳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해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글을 띄어 쓰는 것은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한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가 여럿 이어지는 경우,

좀 더 큰 이 새 집

처럼 띄어 쓰면 기록하기에도 불편할 뿐 아니라 시각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독서 능률이 감퇴(減退)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좀더 큰 이 새 집

처럼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곳 저 곳→이곳 저곳      내 것 네 것→내것 네것

이 집 저 집→이집 저집      한 잔 술→한잔 술

그러나 이 허용 규정은 단음절어인 관형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자연스럽게 의미적으로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훨씬 더 큰 새 집→(×)훨씬 더큰 새집

더 큰 이 새 책상→(×)더큰 이새 책상

처럼 한 개 음절로 된 단어는 무조건 붙여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음절어이면서 관형어나 부사인 경우라도, 관형어와 관형어, 부사와 관형어는 원칙적으로 띄어 쓰며, 또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더 못 간다(×더못 간다)      꽤 안 온다(×꽤안 온다)

늘 더 먹는다(×늘더 먹는다)

와 같이 의미적 유형이 다른 단어끼리는 붙여 쓰지 않는 게 원칙이다.

### 제3절 보조 용언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불이 꺼져 간다.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잘 아는척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내가 덤벼들어 보아라.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가 올 듯도 하다.      잘난 체를 한다.

**해설** 여기서 말하는 보조 용언은 (1)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 (2)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언을 가리킨다.

제15항 [붙임 1]에서 다루어진 ‘늘어나다, 돌아가다, 접어들다’처럼, ‘-아/-어’ 뒤에 다른 단어가 붙어서 된 단어의 예가 꽤 많다. 그리고 예컨대 ‘놀아나다, 늘어나다’에서의 ‘나다’와 ‘고난을 겪어 냈다.’에서의 ‘나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얼른 생각하기로는 양자의 구별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아/-어’ 뒤에 탄 단어가 연결되는 형식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 붙여 쓰고 어떤 경우에는 두 단어로 다루어 띄어 써야 하는지,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곤혹을 겪기가 쉽다. 그리하여 ‘-아/-어’ 뒤에 붙는 보조 용언을 붙여 쓰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일관성 있는 표기 체계를 유지하려는

뜻에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 것이다.

보조 용언	원 칙	허용
가다(진행)	높어 간다, 되어 간다	높어간다, 되어간다
가지다(보유)	알아 가지고 간다	알아가지고 간다
나다(종결)	겪어 났다, 견뎌 났다	겪어났다, 견뎌났다
내다(종결)	이겨 낸다, 참아 냈다	이겨낸다, 참아냈다
놓다(보유)	열어 놓다, 적어 놓다	열어놓다, 적어놓다
대다(강제)	떠들어 댄다	떠들어댄다
두다(보유)	알아 둔다, 기억해 둔다	알아둔다, 기억해둔다
드리다(봉사)	읽어 드린다	읽어드린다
버리다(종결)	놓쳐 버렸다	놓쳐버렸다
보다(시행)	뛰어 본다, 써 본다	뛰어본다, 써본다
쌓다(강제)	울어 쌓는다	울어쌓는다
오다(진행)	잡아 온다, 견뎌 온다	잡아온다, 견뎌온다
지다(피동)	이루어진다, 써진다, 예뻐진다	

그러나 ‘-아/ -어’ 뒤에 ‘서’가 줄어진 형식에서는 뒤의 단어가 보조 용언이 아니므로, 붙여 쓰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시험삼아) 고기를 잡아 본다→잡아본다. <허용>

고기를 잡아(서) 본다(×잡아본다).

(그분의) 사과를 깎아 드린다→깎아드린다. <허용>

사과를 깎아(서) 드린다(×깎아드린다).

한편, 의존 명사 ‘양, 척, 체, 만, 법, 듯’ 등에 ‘-하다’나 ‘-싶다’가 결합하여 된 보조 용언(으로 다루어지는 것)의 경우도 앞 말에 붙여 쓸 수 있다.

보조 용언	원 칙	허 용
양하다	학자인 양한다.	학자인양한다.
체하다	모르는 체한다.	모르는체한다.
듯싶다	올 듯싶다.	올듯싶다.
뻔하다	놓칠 뻔하였다.	놓칠뻔하였다.

**다만**,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붙거나, 앞 단어가 합성 동사인 경우는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는다. 조사가 개입되는 경우는, 두 단어(본 용언과 의존 명사) 사이의 의미적, 기능적 구분이 분명하게 드러날 뿐 아니라 제42항 규정과도 연관되므로, 붙여 쓰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본 용언이 합성어인 경우는, ‘뜸벼들어보아라, 떠내려가버렸다’처럼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띄어 쓰도록 한 것이다.

아는 체를 한다(×아는체를한다).

비가 올 듯도 한다(×올듯도하다).

값을 물어만 보고(×물어만보고).

믿을 만한 하다(×믿을만은하다).

밀어내 버렸다(×밀어내버렸다).

잡아매 둔다(×잡아매둔다).

매달아 놓는다(×매달아놓는다).

집어넣어 둔다(×집어넣어둔다).

‘물고늘어져 본다, 파고들어 본다’ 같은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그런데 합성 동사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도록 한 것은, 그 표기 단위가 길어짐을 피하려는 것이므로, 예컨대

나 - 가 버렸다→나가버렸다      빛 - 나 보인다→빛나보인다

손 - 대 본다→손대본다      잡 - 매 준다→잡매준다

따위처럼, 단음절로 된 어휘 형태소가 결합한 합성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은 붙여 쓸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해 둘 만하다      읽어 볼 만하다

도와 줄 법하다      되어 가는 듯하다

처럼 보조 용언이 거듭되는 경우는

기억해둘 만하다      읽어볼 만하다

도와줄 법하다      되어가는 듯하다

와 같이, 앞의 보조 용언만을 붙여 쓸 수 있다.

####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채영신 씨	최지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남궁억/남궁 억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해설** 성명에 있어서, 성과 이름은 별개 단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곧, 성은 혈통을 표시하며, 이름은 특정한 개인에게만 부여된 식별부호(識別符號)이므로, 순수한 고유 명사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성과 이름을 띄어 쓰는 게 합리적이긴 하지만,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에서는 성명을 붙여 쓰는 것이 통례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붙여 쓰는 게 관용 형식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 민족의 성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거의 모두 한 글자(음절)로 되어 있어서 보통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성과 이름은 붙여 쓰기로 한 것이다.

이름과 마찬가지로 성격을 지닌 호(號)나 자(字)가 성에 붙는 형식도 이에 준한다.

최학수(崔學洙)      김영애(金榮愛)      유버들(柳 - )

정송강(鄭松江) (‘송강’은 호)      이태백(李太白) (‘태백’은 자)

다만, 예컨대 ‘남궁수, 황보영’ 같은 성명의 경우, ‘남/궁수, 황/보영’인지 ‘남궁/수, 황보/영’인지 혼동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성과 이름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성명 또는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官職名) 등은 고유 명사와 별개의 단위이므로 띄어 쓴다. 호나 자 등이 성명 앞에 놓이는 경우도 띄어 쓴다.

강인구 씨      강 선생      인구 군

총장 정영수 박사      백범 김구 선생      계 계장(桂係長)

사 사장(史社長)      여 여사(呂女史)      주 주사(朱主事)

우리 한자음으로 적는 중국 인명의 경우도 본 항 규정이 적용된다.

소정방(蘇定方)      이세민(李世民)      장개석(莊介石)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대한 중학교	대한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해설** 예컨대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처럼 단어별로 띄어 쓰면,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의 네 개 단어가 각각 지니고 있는 뜻은 분명하게 이해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되지 않는 단점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란, 그 고유 명사로 일컬어지는 대상물의 구성 단위를 뜻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체계를 가지는 구조물에 있어서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지시 대상물로서 파악되는 것을 이른다. 예컨대 ‘서울 대학교 인문 대학 국어 국문학과’는 ‘서울 대학교 / 인문 대학 / 국어 국문학과’의 세 개 단위로 나누어지고, ‘한국 상업 은행 재동 지점 대부계’는 ‘한국 상업 은행 / 재동 지점 / 대부계’의 세 개 단위로 나누어진다.

(원칙) 서울 대공원 관리 사업소 관리부 동물 관리과

(허용)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관리부 동물관리과

(원칙) 한국 방송 공사 경영 기획 본부 경영 평가실 경영 평가 분석부

(허용) 한국방송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평가실 경영평가분석부

‘부설(附設), 부속(附屬), 직속(直屬), 산하(傘下)’ 따위는 고유 명사로 일컬어지는 대상물이 아니라 그 대상물의 존재 관계(형식)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원칙적으로 앞뒤의 말과 띄어 쓴다.

(원칙) 학술원 부설 국어 연구소

(허용) 학술원 부설 국어연구소

(원칙) 대통령 직속 국가 안전 보장 회의

(허용)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

다만, ‘부속 학교, 부속 초등학교, 부속 중학교, 부속 고등학교’ 등은 교육학 연구나 교원 양성을 위하여 교육 대학이나 사범 대학에 부속시켜 설치한 학교를 이<sup>ㄹ</sup>므로, 하나의 단위로 다루어 붙여 쓸 수 있다.

(원칙) 서울 대학교 사범 대학 부속 고등학교

(허용)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의학 연구나 의사 양성을 위하여 의과 대학에 부속시켜 설치한 병원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 한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

(허용)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중거리탄도유도탄

**해설** 전문 용어란 특정의 학술 용어나 기술 용어를 말하는데, 대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 단위에 대응하는 말, 곧 합성의 성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붙여 쓸 만한 것이지만 그 의미 파악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상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원칙	허용
만국 음성 기호(萬國音聲記號)	만국음성기호
긴급 재정 처분(緊急財政處分)	긴급재정처분
무한 책임 사원(無限責任社員)	무한책임사원
배당 준비 적립금(配當準備積立金)	배당준비적립금
손해 배상 청구(損害賠償請求)	손해배상청구
관상 동맥 경화증(冠狀動脈硬化症)	관상동맥경화증
급성 복막염(急性腹膜炎)	급성복막염
지구 중심설(地球中心說)	지구중심설
탄소 동화 작용(炭素同化作用)	탄소동화작용
해양성 기후(海洋性氣候)	해양성기후
두 팔 들어 가슴 벌리기	두팔들어가슴벌리기
무릎 대어 돌리기	무릎대어돌리기
여름 채소 가꾸기	여름채소가꾸기

다만, 명사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된 관형어의 수식을 받거나, 두 개 (이상의) 체언이 접속조사로 연결되는 구조일 때는 붙여 쓰지 않는다.

간단한 도면 그리기

쓸모 있는 주머니 만들기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 바닷말과 물고기 기르기  
 두 개 (이상의) 전문 용어가 접속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문 용어 단위로 붙여 쓸 수 있다.  
 감자찌기와 달걀삶기                  기구만들기와 기구다루기  
 도면그리기와 도면읽기

## 제6장 그 밖의 것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 1. ‘이’로만 나는 것

가בות이	깨끗이	나בות이	느긋이
둥긋이	따뜻이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많이
적이	헛되이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 2. ‘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작히	죽히	특히	엄격히
정확히			

### 3. ‘이, 히’로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급급히	답답히	섬섬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예시**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라는 규정은 모호하게 해석될 수도 있다. [이]로만 나는 것, [히]로만 나는 것 이란 실상 발음자의 습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고, 따라서 예시된 단어 이외의 경우는 자칫 기록자의 임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좌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규정의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성이 제시될 수 있다. 음운 형태는 발음자의 습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규칙성에 대해서도 이견(異見)이 없지 않으리라 생



각되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 ‘이’로 적는 것

① (첩어 또는 준첩어인) 명사 뒤

간간이	겹겹이	골골살살이	곳곳이
길길이	나날이	다달이	땀땀이
묵묵이	번번이	살살이	알알이
앞앞이	줄줄이	짹짹이	철철이

② ‘ㅅ’ 받침 뒤

기웃이	나긋나긋이	남짓이	뜨뜻이
버젓이	번듯이	빠듯이	지긋이

③ ‘ㄴ’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가벼이	괴로이	기꺼이	너그러이
부드러이	새로이	쉬이	외로이
즐거이	- 스러이		

④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 어간 뒤

같이	굳이	깊이	깊이
높이	많이	실없이	적어
헛되이			

⑤ 부사 뒤(제25항 2 참조)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히죽이		

(2) ‘히’로 적는 것

① ‘-하다’가 붙는 어근 뒤(단, ‘ㅅ’ 받침 제외)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족히	엄격히	정확히	간편히
고요히	공평히	과감히	급급히
꼼꼼히	나른히	능히	답답히

예시된 단어 중, ‘도저히, 무단히, 열심히’ 등은, ‘-하다’가 결합한 형태가 널리 사용되지는 않지만, ‘도저(到底)하다, 무단(無斷)하다, 열심(熱心)하다’ 등이 사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②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가 결합하여 된 부사가 줄어진 형태

(익숙히→) 익히                      (특별히→) 특히

③ 어원적으로는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에 부사화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로 분석되더라도, 그 어근 형태소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단어의 경우는 익어진 발음 형태대로 ‘히’로 적는다.

작히(어찌 조그만큼만, 오죽이나)

부사화 접미사 ‘이/히’의 구별 문제는, 표준어 사정(‘표준어 모음’ 발간)에서 더 검토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이 규칙성이 모든 경우에 반드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재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본음으로 나는 것	속음으로 나는 것
승낙(承諾)	수락(受諾), 쾌락(快諾), 허락(許諾)
만난(萬難)	곤란(困難), 논란(論難)
안녕(安寧)	의령(宜寧), 회령(會寧)
분노(忿怒)	대로(大怒), 희로애락(喜怒哀樂)
토론(討論)	의논(議論)
오륙십(五六十)	오뉴월, 유월(六月)
목재(木材)	모과(木瓜)
십일(十日)	시방정토(十方淨土), 시왕(十王), 시월(十月)
팔일(八日)	초파일(初八日)

**해설** 속음은 세속에서 널리 사용되는 익은소리(습관음)이므로, 속음으로 된 발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게 되며, 따라서 맞춤법에서도 속음에 따라 적게 된다.

표의 문자인 한자는 하나하나가 어휘 형태소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본음 형태와 속음 형태는 동일 형태소의 이형태(異形態)인 것이다.

이 밖에도, 불교 용어의

보 리(菩提)/제공(提供)

도 량(道場)(불도를 닦는 깨끗한 마당)/도장(道場)(무예를 닦는 곳)

보시(布施)/공포(公布)

따위라든가,

본 택(本宅), 시 택(媳宅), 택 내(宅內)/자택(自宅)

모 환(牧丹)/단심(丹心)

통찰(洞察)/동굴(洞窟)

사 탕(砂糖), 설 탕(雪糖)/당분(糖分)

등과 같이, 속음으로 적는 단어가 많이 있다.

**재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 (으)르거나	- (으)르꺼나	- (으)르지니라	- (으)르찌니라
- (으)르결	- (으)르꺄	- (으)르지라도	- (으)르찌라도
- (으)르께	- (으)르꺄	- (으)르지어다	- (으)르찌어다
- (으)르세	- (으)르꺄	- (으)르지언정	- (으)르찌언정
- (으)르세라	- (으)르꺄라	- (으)르진대	- (으)르꺄대
- (으)르수록	- (으)르꺄록	- (으)르진저	- (으)르꺄저
- (으)르시	- (으)르꺄	- 올시다	- 올꺄다
- (으)르지	- (으)르꺄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 (으)르까?      - (으)르꺄?      - (스)뻐니까?  
- (으)리까?      - (으)르꺄냐?

**해설** 형식 형태소인 어미의 경우, 규칙성이 적용되지 않는 현상일 때는 변이 형태를 인정하여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 르거나, - 르꺄, - 르꺄, ……」처럼 적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ㄹ’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로 적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 르까      - 르꺄      - 르꺄냐

(- 나이까    - 더이까    - 리까    - 뻐니까/ - 습니까    - 뻐니까/ - 습니까)

등은 된소리로 적는다. 이것은, 1957년 6월 30일 한글 학회 총회에서 결정한, 통일안 보유(補遺)에서 그렇게 정해져서 이미 널리 익어져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관용을 따른 것이다. 그리고 ‘- 르꺄’는 ‘ㄹ꺄’로 적던 것인데, 예외를 인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예사소리 형태로 통일한다는 뜻에서 ‘ㄹ꺄’로 바꾼 것이다.

**제54항** 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심부름꾼	심부름꺄	귀때기	꺄때기
익살꺄	익살꺄	볼때기	볼꺄기
일꺄	일꺄	판자때기	판꺄때기
장꺄	장꺄	뒤꺄치	꺄꺄치
장난꺄	장꺄꺄	팔꺄치	꺄꺄치
지꺄꺄	꺄꺄꺄	이꺄꺄기	꺄꺄꺄기
꺄꺄	꺄꺄	꺄꺄기	꺄꺄기
꺄꺄	꺄꺄	꺄꺄다	꺄꺄다
꺄꺄	꺄꺄	꺄꺄꺄다	꺄꺄꺄다

**예시** (1) ‘- 군/ - 궂’은 ‘꾼’으로 통일하여 적는다.

개평꾼	거간꾼	결꾼	구경꾼
나무꾼	낚시꾼	난봉꾼	내왕꾼
노름꾼	농사꾼	도망꾼	땅꾼
막별이꾼	만석꾼	말쌍꾼	목도꾼
몰이꾼	봉 죽꾼	사기꾼	사냥꾼
소리꾼	술꾼	씨름꾼	장타령꾼
정탐꾼	주정꾼	짐꾼	투전꾼
해살꾼	협잡꾼	휘방꾼	흥정꾼

(2) ‘- 갈/ - 깔’은 ‘깔’로 통일하여 적는다.

맛깔                      태깔 (態 -)

(3) ‘- 대기/ - 때기’는 ‘때기’로 적는다.

거적때기          나무때기          등때기          배때기  
 송판때기(松板 - )          - 판때기(널 - )          팔때기

(4) ‘- 굶치/ - 꿈치’는 ‘꿈치’로 적는다.

발꿈치                  발뒤꿈치

(5) ‘- 배기/ - 빼기’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는,

첫째, [배기]로 발음되는 경우는 ‘배기’로 적고,

귀통배기    나이배기    대짜배기    육자배기(六字 -)

주정배기(酒醒 -)          포배기          혀짤배기

둘째, 한 형태소 내부에 있어서 ‘ㄱ, ㅂ’ 받침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경우는 ‘배기’로 적으며, (제5항 다만 참조)

뚝배기                  학배기[蜻幼蟲]

셋째, 다른 형태소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것은 모두 ‘빼기’로 적는다.

고들빼기    그루빼기    대갈빼기    머리빼기    재빼기[嶺頂]

곱 빼기    과녁 빼기    밥 빼기    악착 빼기    앞둑 빼기

앞작 빼기    억척 빼기    엷둑 빼기    엷 빼기    엷적 빼기

(6) ‘- 적다/ - 꺾다’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는,

첫째, [적다]로 발음되는 경우는 ‘적다’로 적고,

괘다리적다    괘달머리적다    판기적다    열통적다

둘째, ‘적다[少]’의 뜻이 유지되고 있는 합성어의 경우는 ‘적다’로 적으며,

맛적다(맛이 적어 싱겁다)

셋째, ‘적다[少]’의 뜻이 없이, [꺾다]로 발음되는 경우는 ‘꺾다’로 적는다.

맥 꺾다          밋 꺾다          해망 꺾다          행망 꺾다

**제55항**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다음 말들은 한 가지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맞추다(입을 맞추다. 양복을 맞추다.)	마추다
뺨치다(다리를 뺨친다. 멀리 뺨친다.)	빼치다

**해설** ‘주문(注文)하다’란 뜻의 단어는 ‘마추다’로, ‘맞게 하다’란 뜻의 단어는 ‘맞추다’로 쓰던 것을, 두 가지 경우에 마찬가지로 ‘맞추다’로 적는다.

양복을 맞추다. 구두를 맞추다. 맞춤 와이셔츠

입을 맞추다. 나사를 맞추다. 차례를 맞추다.

그리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닿다, 멀리 연하다’란 뜻일 때는 ‘빼치다’로, ‘뺨다, 뺨지르다’의 강세어는 ‘뺨치다’로 쓰던 것을, 구별 없이 ‘뺨치다’로 적는다.

세력이 남극까지 뺨 친다. 다리를 뺨친다.

**제56항** ‘- 더라, - 던’과 ‘-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 더라, - 던’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지난겨울은 몹시 춥더라.	지난겨울은 몹시 춥드라.
깊던 물이 얕아졌다.	깊든 물이 얕아졌다.
그렇게 좋던가?	그렇게 좋든가?
그 사람 말 잘하던데!	그 사람 말 잘하든데!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얼마나 놀랐든지 몰라.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배던지 사과던지 마음대로 먹어라.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

**해설** 1. 지난 일을 말하는 형식에는 ‘- 더’가 결합한 형태를 쓴다.

그런 형태로는

- 더구나 - 더구 려 - 더구 현 - 더군(←더구나, 더구먼)

- 더냐 - 더니 - 더니라 - 더니만(←더니마는)

- 더라 - 더라면 - 던 - 던가

- 던걸      - 던고      - 던데      - 던들      - 던지  
등이 있고, 이 밖에 ‘더’형 어미로 ‘- 더라도’ 따위가 있다.

2. ‘- 던’은 지난 일을 나타내는 ‘더’에 관형사형 어미 ‘- ㄴ’이 붙어서 된 형태이며, ‘- 든’은 내용을 가리지 않는 뜻을 표시하는 연결 어미 ‘- 든지’가 줄어진 형태다.

어렸을 때 놀던 곳                  아침에 먹던 밥

그 집이 크던지 작던지 생각이 안 난다.

그가 집에 있었던지 없었던지 알 수 없다.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렴.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다.

**제57항**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가름      둘로 가름.

갈음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

**해설** 제55항과는 반대로, 발음 형태는 같거나 비슷하면서 뜻이 다른 단어를 구별하여 적음으로써 달리 적는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로 다루는 것이다.

‘가름’은 ‘가르다’의 어간에 ‘- ㄹ’이 붙은 형태이며, ‘갈음’은 ‘갈다[代替]’의 어간에 ‘- 음’이 붙은 형태다. ‘가름’은 나누는 것을, ‘갈음’은 대신하는 것, 대체하는 것을 뜻한다.

가름 - 둘로 가름.      편을 가름.      판가름

갈음 - 연하장으로 세배를 갈음한다.

가족 인사로 약혼식을 갈음한다.

거름      풀을 썬 거름

걸음      빠른 걸음

**해설** ‘거름’은 ‘(땅이) 갈다’의 어간 ‘갈-’에 ‘- 음’이 붙은 형태로, ‘걸음’은 ‘걷다’의 어간 ‘걷-’에 ‘- 음’이 붙은 형태로 분석되는 것이지만, ‘거름’은 ‘(땅이) 건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비료를 뜻하므로, 본뜻에서 멀어진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리하여 소리 나는 대로 ‘거름’으로 적어서, 시각적으로 ‘걸음’과 구별하는 것이다.(제19항 참조)

거름 - 밭에 거름을 준다.      밑거름, 거름기

걸음 - 걸음이 빠르다.      걸음걸이, 걸음마

거치다      영월을 거쳐 왔다.

견히다      외상값이 잘 견힌다.

**해설** ‘거치다’는 ‘무엇에 걸려서 스치다, 경유하다’란 뜻을 나타내며, ‘견히다’는 ‘견다’의 파동사다.

거치다 - 대전을 거쳐서 논산으로 간다. 가로거치다

견히다 - 안개가 견히다. 세금이 잘 견히다.

견잡다	견잡을 수 없는 상태
겉잡다	겉잡아서 이틀 걸릴 일

**해설** ‘견잡다’는 ‘쓰러지는 것을 거두어 붙잡다’란 뜻을 나타내며, ‘겉잡다’는 ‘겉가량하여 먼저 어림치다’란 뜻을 나타낸다.

견잡다 - 견잡을 수 없게 악화한다.

견잡지 못할 사태가 발생한다.

겉잡다 - 겉잡아서 50만 명 정도는 되겠다.

그러므로(그러니까)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그럼으로(써)(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해설** ‘그러므로’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란 뜻을 나타내며, ‘그럼으로(써)’는 대개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란 뜻을 나타낸다. 곧, ‘그러므로’는 ‘(그러하다→) 그렇다’의 어간 ‘그렇→그러(ㅎ 불규칙)’에 까닭을 나타내는 어미 ‘-므로’가 붙은 형태, 또는 ‘(그렇게 하다→) 그러다’의 어간 ‘그러-’에 까닭을 나타내는 어미 ‘-므로’가 결합한 형태이며, ‘그럼으로’는 ‘(그렇게 하다→) 그러다’의 명사형 ‘그럼’에 조사 ‘-으로(써)’가 붙은 형태다.

그러므로 - ① (그러하기 때문에) 규정이 그러므로, 이를 어길 수 없다.

② (그러하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그러므로, 만류하기가 어렵다.

③ (그렇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학자다. 그러므로 존경을 받는다.

그럼으로(써) -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 그는 열심히 일한다. 그럼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낀다.

조사 ‘-(으)로써’가 이유를 표시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그러므로(써)’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로 풀이되기도 한다.

그럼으로(써) -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네가 그럼으로(써), 병세가 더 악화하였다.

노름	노름판이 벌어졌다.
놀음(놀이)	즐거운 놀음

**해설** ‘노름[賭博]’도 어원적인 형태는 ‘놀-’에 ‘-음’이 붙어서 된 것으로 분석되지만, 그

어간의 본뜻에서 멀어진 것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제19항 다만 참조) 그리고 ‘놀음’은 ‘놀다’의 ‘놀-’에 ‘-음’이 붙은 형태인데, 어간의 본뜻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형태를 밝히어 적는다.(제19항 2 참조)

노름 - 노름꾼, 노름빚, 노름판 (도박판)

놀음 - 놀음놀이, 놀음판 (←놀음놀이판)

느리다	진도가 너무 느리다.
늘이다	고무줄을 늘인다.
늘리다	수출량을 더 늘린다.

**해설** ‘느리다’는 ‘속도가 빠르지 못하다’란 뜻을, ‘늘이다’는 ‘본디보다 길게 하다, 아래로 처지게 하다’란 뜻을, ‘늘리다’는 ‘크게 하거나 많게 하다’란 뜻을 나타낸다.

느리다 - 걸음이 느리다.    느리광이

늘이다 - 바지 길이를 늘인다.

(지붕 위에서 아래로) 빗줄을 늘어 놓는다.

늘리다 - 마당을 늘린다.    수효를 늘린다.

다리다	옷을 다린다.
달이다	약을 달인다.

**해설** ‘다리다’는 ‘다리미로 문지르다’란 뜻을, ‘달이다’는 ‘끓여서 진하게 하다, 약제에 물을 부어 끓게 하다’란 뜻을 나타낸다.

다리다 - 양복을 다린다.    다리미질

달이다 - 간장을 달인다.    한약을 달인다.

다치다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
달히다	문이 저절로 달혔다.
닫치다	문을 힘껏 닫쳤다.

**해설** ‘다치다’는 ‘부딪쳐서 상하다, 부상을 입다’란 뜻을 나타내며, ‘달히다’는 ‘닫다[閉]’의 파동사이니, ‘닫아지다’와 대응하는 말이다.

다치다 - 발을 다쳤다.    허리를 다치었다.

달히다 - 문이 달힌다.

‘닫치다’는 ‘닫다’의 강세어이므로, ‘문을 닫치다(힘차게 닫다)’처럼 쓰인다.

마치다	벌써 일을 마쳤다.
맞히다	여러 문제를 더 맞혔다.



**해설** ‘마치다’는 ‘끝내다’란 뜻을, ‘맞히다’는 ‘표적(標的)에 맞게 하다, 맞는 답을 내놓다, 침이나 매 따위를 맞게 하다, 눈바서리 따위를 맞게 하다’란 뜻을 나타낸다.

마치다 - 일과(日課)를 마친다. 끝마치다.  
 맞히다 - 활로 과녁을 맞힌다. 답을 (알아)맞힌다.  
 침을 맞힌다. 비를 맞힌다.

목거리	목거리가 덧났다.
목걸이	금목걸이, 은목걸이

**해설** ‘목거리’는 ‘목이 붓고 아픈 병’을, ‘목걸이’는 ‘목에 거는 물건(목도리 따위), 또는 여자들이 목에 거는 장식품’을 이른다.

목거리 - 목거리(병)가 잘 낫지 않는다.  
 목걸이 - 그 여인은 늘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

바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받치다	우산을 받치고 간다. 책받침을 받친다.
받히다	쇠뿔에 받혔다.
받치다	술을 체에 받친다.

**해설** ‘바치다’는 ‘신이나 웃어른께 드리다, 마음과 몸을 내놓다, 세금 따위를 내다’란 뜻을, ‘받치다’는 ‘밑을 괴다, 모음 글자 밑에 자음 글자를 붙여 적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아래에서 잡아 들다’ 등의 뜻을 나타내며, ‘받히다’는 ‘받다[觸]’의 피동사, ‘받치다’는 ‘받다’(체 따위로 쳐서 액체만 받아 내다)의 강세어이다.

바치다 - 재물을 바친다. 정성을 바친다. 목숨을 바친다. 세금을 바친다.  
 받치다 - 가동 밑을 돌로 받친다.  
 ‘소’ 아래 ‘ㄴ’을 받쳐 ‘손’이라 쓴다.  
 우산을 받친다(‘받다’의 강세어). 받침, 밑받침  
 받히다 - 소에게 받히었다.  
 받치다 - 체로 받친다. 술을 받친다.

반드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반듯이	고개를 반듯이 들어라.

**해설** ‘반드시’는 ‘꼭, 틀림없이’란 뜻을, ‘반듯이’는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란 뜻을 나타낸다.

반드시 - 그는 반드시 온다.

성(盛)한 자는 반드시 쇠할 때가 있다.  
 반듯이 - 반듯이 서라. 선을 반듯이 그어라.  
 반듯이 <변듯이

부딪치다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부딪히다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해설** ‘부딪치다’는 ‘부딪다’(물건과 물건이 서로 힘 있게 마주 닿다, 또는 그리되게 하다.)의 강세어이고, ‘부딪히다’는 ‘부딪다’의 피동사다.

부딪다 - 뒤의 차가 앞차에 부딪는다. 몸을 벽에 부딪는다.  
 부딪치다 - 자동차에 부딪친다. 몸을 벽에 부딪친다.  
 부딪히다(부딪음을 당하다) - 자전거에 부딪혔다.  
 부딪치이다(부딪침을 당하다) - 자동차에 부딪치이었다.

부치다	힘이 부치는 일이다. 편지를 부친다. 논발을 부친다. 빈대떡을 부친다. 식목일에 부치는 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인쇄에 부치는 원고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친다.
붙이다	우표를 붙인다. 책상을 벽에 붙였다. 홍정을 붙인다. 불을 붙인다. 감시원을 붙인다. 조건을 붙인다. 취미를 붙인다. 별명을 붙인다.

**해설** ‘부치다’는

- ① 힘이 미치지 못하다.
- ② 부채 같은 것을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다.
- ③ 편지 또는 물건을 보내다.
- ④ 논발을 다루어서 농사를 짓다.
- ⑤ 변철에 기름을 바르고 누름적, 저냐 따위를 익혀 만들다.

- ⑥ 어떤 문제를 의논 대상으로 내놓다.
- ⑦ 원고를 인쇄에 넘기다.
- ⑧ 몸이나 식사 따위를 의탁하다.

등의 뜻을 나타내며, 붙이다는

- ① 붙게 하다.
- ② 서로 맞당게 하다.
- ③ 두 편의 관계를 맺게 하다.
- ④ 암컷과 수컷을 교합(交合)시키다.
- ⑤ 불이 옮겨서 타게 한다.
- ⑥ 노름이나 싸움 따위를 어울리게 만들다.
- ⑦ 팔려 붙게 하다.
- ⑧ 습관이나 취미 등이 익어지게 하다.
- ⑨ 이름을 가지게 하다.
- ⑩ 뺨이나 볼기를 손으로 때리다.

등의 뜻을 나타낸다.

부치다 - 힘에 부치는 일. 부채로 부친다.  
 편지를 부친다. 책을 소포로 부친다.  
 남의 논을 부친다. 저냐를 부친다.  
 그 문제를 토의에 부친다.  
 원고를 인쇄에 부친다.  
 당숙 댁에 몸을 부치고 있다.

붙이다 - 포스터를 붙인다. 찬장을 벽에 붙인다.  
 흥정을 붙인다. 접을 붙인다(→접붙인다).  
 불을 붙인다. 싸움을 붙인다.  
 경호원을 붙인다. 단서(但書)를 붙인다.  
 습관을 붙인다. 이름(호, 별명)을 붙인다.  
 한 대 올려붙인다.

부치이다 ('부치다'의 피동사, 곧 '부치어지다') - 바람에 부치이다. 풍구로 부치이다.  
 '부치다' ⑧은 '붙이다'로 적던 것을 바꾸었다. 이 단어는 '기숙(寄宿)'(남의 집에 몸을 부쳐 있음.), '기식(寄食)'(밥을 남의 집에 부쳐 먹음.)과 상통하는 말이다. 그리고 '붙이다'가 '부치다'로 바뀔 때 따라 '붙여 - 지내다'도 '부쳐 - 지내다'로 적게 된다.

시키다	일을 시킨다.
식히다	끓인 물을 식힌다.

**해설** '시키다'는 '하게 하다'란 뜻을 나타내며, '식히다'는 '식다'의 사동사(식게 하다)다.

시키다 - 공부를 시킨다. 청소를 시킨다.

다만, ‘공부 - 시키다, 청소 - 시키다’처럼 쓰일 경우는, ‘시키다’를 사동화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쓴다.

식히다 - 뜨거운 물을 식힌다.

아름	세 아름 되는 둘레
알음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
얹	얹이 힘이다.

**해설** ‘아름’은 ‘두 팔을 벌려서 껴안은 둘레의 길이’를 나타내며, ‘알음’은 ‘아는 것’이란 뜻을 나타낸다. ‘알음’은 ‘알다’의 어간 ‘알-’에 ‘-음’이 붙은 형태인데, 그것이 한 음절로 줄어지면 ‘얹’이 된다.(살음→얹)

아름 - 둘레가 한 아름 되는 나무.

밤, 상수리 따위가 저절로 충분히 익은 상태를 이르는 ‘아람’과 구별된다.(아람 - 별다)

알음 - 서로 알음이 있는 사이. 알음알음, 알음알이

얹 - 바로 얹이 중요하다. 얹의 힘으로 문화를 창조한다.

안치다	밥을 안친다.
앉히다	윗자리에 앉힌다.

**해설** ‘안치다’는 ‘끓이거나 찔 물건을 솥이나 시루에 넣다’란 뜻을 나타내며, ‘앉히다’는 ‘앉다’의 사동사(앉게 하다)다. ‘앉히다’는 또 ‘버릇을 가르치다, 문서에 무슨 줄거리를 따로 잡아 기록하다’란 뜻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안치다 - 밥을 안치다. 떡을 안치다.

앉히다 - 자리에 앉힌다. 끓여앉히다. 버릇을 앉히다.

어름	두 물건의 어름에서 일어난 현상
얼음	얼음이 얼었다.

**해설** ‘어름’은 ‘두 물건의 끝이 닿는 데’를 뜻하며, ‘얼음’은 ‘물이 얼어서 굳어진 것’을 뜻한다. ‘얼음’은 ‘얼다’의 어간 ‘얼-’에 ‘-음’이 붙은 형태이므로, 어간의 본모양을 밝히어 적는다.(제19항 2 참조)

어름 - 바다와 하늘이 닿은 어름이 수평선이다.

왼쪽 산과 오른쪽 산 어름에 솟막(-幕)들이 있었다.

얼음 - 얼음이 얼다. 얼음과자, 얼음물, 얼음장, 얼음주머니, 얼음지치기

이따가	이따가 오너라.
있다가	돈은 있다가도 없다.

**해설** ‘이따가’는 ‘조금 지난 뒤에’란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고, ‘있다가’는 ‘있다’의 ‘있-’에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끝나고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옮겨지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다가’가 붙은 형태다. ‘이따가’도 어원적인 형태는 ‘있다가’로 분석되는 것이지만, 그 어간의 본뜻에서 떨어진 것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따가 - 이따가 가겠다. 이따가 만나세.

있다가 - 여기에 있다가 갔다. 며칠 더 있다가 가마.

저리다	다친 다리가 저리다.
절이다	김장 배추를 절인다.

**해설** ‘저리다’는 ‘살이나 뼈마디가 오래 눌러 피가 잘 돌지 못해서 힘이 없고 감각이 둔하다’처럼 풀이되는 형용사이며, ‘절이다’는 ‘절다’의 사동사(염분을 먹여서 절게 하다.)다.

저리다 - 발이 저리다. 손이 저리다.

절이다 - 배추를 절인다. 생선을 절인다.

조리다	생선을 조린다. 통조림, 병조림
줄이다	마음을 줄인다.

**해설** ‘조리다’는 ‘어육(魚肉)이나 채소 따위를 양념하여 국물이 바득하게 바짝 끓이다’란 뜻을, ‘줄이다’는 ‘속을 태우다시피 마음을 초조하게 먹다’란 뜻을 나타낸다.

조리다 - 생선을 조린다. 장조림, 통조림

줄이다 - 마음을 줄인다.

주리다	여러 날을 주렸다.
줄이다	비용을 줄인다.

**해설** ‘주리다’는 ‘먹을 만큼 먹지 못하여 배곯다’란 뜻을 나타내며, ‘줄이다’는 ‘줄다’의 사동사(줄게 하다.)다.

주리다 - 오래 주리며 살았다. 주리어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먹는단 말인가? 굶주리다.

줄이다 - 양을 줄인다. 수효를 줄인다. 줄임표(생략부)

하노라고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해설** ‘-노라고’는 말하는 이의 말로, ‘자기 나름으로는 한다고’란 뜻을 표시하며, ‘-느라

고’는 ‘하는 일로 인하여’란 뜻을 표시한다.

- 노라고 - 하노라고 하였다.

쓰노라고 쓴 게 이 모양이다.

- 느라고 - 소설을 읽느라고 밤을 새웠다.

자느라고 못 갔다.

- 느니보다(어미) 나를 찾아오느니보다 집에 있어라.

- 는 이보다(의존 명사) 오는 이가 가는 이보다 많다.

**해설** 현행 문법에서는 어미 ‘- 느니보다’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 는 이보다’로 적어야 할 것이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의존 명사 ‘이’가 사람을 뜻할 뿐 사물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이것을 어미로 처리하여 ‘- 느니보다’로 적기로 하였다.

- 느니보다 - 마지못해 하느니보다 안 하는 게 낫다.

당치 않게 떠드느니보다 잠자코 있어라.

- 는 이보다(세 개 단어) - 아는 이보다 모르는 이가 더 많다.

바른말 하는 이보다 아첨하는 이를 가까이한다.

- (으)리만큼(어미) 나를 미워하리만큼 그에게 잘못된 일이 없다.

- (으)ㄹ 이만큼(의존 명사)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나 많을 것이다.

**해설** ‘- (으)ㄹ 이만큼’으로 적던 것을 ‘- (으)리만큼’으로 바꾸었다. 사람을 뜻하는 경우에만 의존 명사 ‘이’를 밝히어 적도록 한 것이다. ‘- (으)리만큼’은 ‘- ㄹ 정도만큼’이란 뜻을 표시하는 어미로 다루어지며, ‘- ㄹ 이만큼(세 개 단어)’은 ‘- ㄹ 사람만큼’이란 뜻을 표시한다.

- (으)리만큼 - 싫증이 나리만큼 잔소리를 들었다.

배가 터지리만큼 많이 먹었다.

- (으)ㄹ 이만큼 - 반대할 이는 찬성할 이만큼 많지 않을 것이다.

- (으)러 (목적) 공부하러 간다.

- (으)려 (의도) 서울 가려 한다.

**해설** ‘- (으)러’는 그 동작의 직접 목적을 표시하는 어미이고, ‘- (으)려(고)’는 그 동작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표시하는 어미다.

- (으)러 - 친구를 만나러 간다. 책을 사러 간다.

- (으)려 - 친구를 만나려(고) 한다.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 (으)로서 (자격)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 (으)로써 (수단)      답으로써 핑을 대신했다.

**해설** ‘- (으)로서’는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자격을 가진 입장에서’란 뜻을 나타내며, ‘- (으)로써’는 ‘재료,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조사다.

- (으)로서 - ① (…가 되어서) 교육자로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사람의 자식으로서, 인륜을 어길 수는 없다.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과 학자로서의 임무  
 ② (…의 입장에서) 사장으로서 하는 말이다. 친구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피해자로서 항의한다.  
 ③ (…의 자격으로) 주민 대표로서 참석하였다.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발언한다.  
 ④ (…로 인정하고) 그를 친구로서 대하였다. 그분을 선배로서 예우(禮遇)하였다.
- (으)로써 - ① (…를 가지고) 톱으로(써) 나무를 자른다. 톱으로(써) 이긴다.  
 동지애로(써) 결속(結束)한다.  
 ② (…때문에) 병으로(써) 결근하였다.

- (으)므로 (어미)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ㅁ, -음)으로(써) (조사) 그는 믿음으로(써) 산 보람을 느꼈다.

**해설** ‘- (으)므로’는 까닭을 나타내는 어미이며, ‘- (으)므로(써)’는 명사형 어미 또는 명사화 접미사 ‘- (으)ㅁ’에 조사 ‘- 으로(써)’가 붙은 형태다. 어미 ‘- (으)므로’에 ‘써’가 붙는 형식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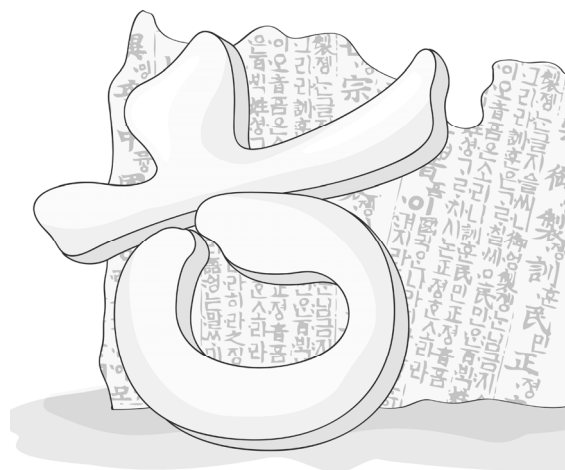
- (으)므로 - 날씨가 차므로, 나다니는 사람이 적다.  
 비가 오므로, 외출하지 않았다.  
 책이 없으므로, 공부를 못 한다.
- (으)ㅁ으로(써) - 그는 늘 웃음으로(써) 대한다.  
 책을 읽음으로(써) 시름을 잊는다.  
 담배를 끊음으로(써) 용돈을 줄인다.





# 떡어쓰기의 이해와 실제

유 하 라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 띄어쓰기의 이해와 실제



### 1. 띄어쓰기의 필요성

‘띄어쓰기’는 왜 하는 것일까?

- (1) ㄱ. 한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ㄴ.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1ㄱ)과 띄어쓰기를 한 (1ㄴ)을 비교해 보자. 띄어쓰기를 한 것이 하지 않은 것에 비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이처럼 띄어쓰기는 의미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간혹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지 않아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띄어쓰기가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의미 전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 (2) ㄱ. 어제 산토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ㄴ. 어제 산 토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2ㄱ)과 (2ㄴ)은 비슷해 보이지만 띄어쓰기에 따라 시장에 내다 판 토끼의 종류가 달라진다. (2ㄱ)은 산에 사는 토끼를 내다 팔았다는 것이고, (2ㄴ)은 다른 사람에게 구입한 토끼나 살아 있는 토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것이다.

- (3) ㄱ. 큰집으로 이사를 갔다.  
       ㄴ.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

(3)의 예 역시 비슷하다. 띄어쓰기를 안 한 ‘큰집’은 큰아버지 댁을 의미하지만, 띄어쓰기를 한 ‘큰 집’은 크기가 큰 집을 의미한다. 가령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 큰어머니께

서 우리를 반겨 주셨다.”와 같은 문장을 읽을 때 ‘(크기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큰 어머니가 왜 반겨 주실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오해는 ‘큰집’을 ‘큰 집’으로 쓴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띄어쓰기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 2. 띄어쓰기의 원리

### 2.1. 자립성과 의존성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 있고 항상 다른 말의 앞이나 뒤에 붙어 쓰이는 말이 있다. 아래의 말들을 두 개의 동아리로 나누어 보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4) 하늘, 자동차, 바다, 구름, -는구나, -겠-, -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하늘, 자동차, 바다, 구름’과 ‘를, -는구나, -겠-, -습니다’로 나누는 데 동의할 것이다.

(5) ㄱ. 하늘, 자동차, 바다, 구름  
 ㄴ. 를, -는구나, -겠-, -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동아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앞의 것은 명사이고 뒤의 것은 명사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고 뜻이 있는 말과 없는 말의 차이가 아니냐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늘’과 ‘를’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쓸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6) ㄱ. 무얼 보니?  
 - 하늘.  
 ㄴ. 어딜 가니?  
 - 바다.

(6)에서처럼 ‘하늘, 바다’ 등은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쓸 수 있다. 그렇지만 ‘를, -는구

나, -겠-' 등은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쓰는 일이 없다. [를], [는구나]라고 일부러 읽지 않는 한 이들을 단독으로 소리 내서 쓰지는 않는다.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쓰는 말들을 '자립적'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말들은 '의존적(비자립적)'이라고 한다. 의존적인 말들은 단독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언제나 앞이나 뒤에 나타나는 다른 요소에 붙어 쓰인다는 특징이 있다.

- (7) ㄱ. 학교를  
 ㄴ. 먹-습니다  
 ㄷ. 가-겠-다

(7ㄱ)의 '학교를'에서 '를'은 '학교'에 붙어 쓰이고 (7ㄴ)의 '-습니다'는 '먹-'에, (7ㄷ)의 '-겠-'은 '가-'와 '-다'에 각각 붙어 쓰인다. 다른 말에 붙어서 쓰이는 의존적인 말들은 다음과 같다.

- (8) ㄱ. 조사: 이/가(친구가), 을/를(친구를), 에게(친구에게), 도(친구도) 등  
 ㄴ. 접사: 덧-(덧버선), 최-(최첨단), -질(도둑질), -님(선생님) 등  
 ㄷ. 어간: 먹-(먹다), 하-(하다), 예쁘-(예쁘다), 좋-(좋다) 등  
 ㄹ. 어미: -는다(먹는다), -습니다(먹습니다), -겠-(먹겠다), -었-(먹었다) 등

[연습 1] 띄어 써야 할 곳에 √ 표시를 하세요.

- ① 가야하겠습니다./가야겠습니다.  
 ② 해야하지만/해야지만

## 2.2. 단어의 판별 기준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한글 맞춤법”에 명시되어 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한글 맞춤법” 제1장 제2항)

이 원칙은 대단히 명료해서 ‘단어’가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띄어쓰기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띄어쓰기 문제는 명료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단어란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을 가리키지만 ‘밤낮, 국밥, 돌아가다’ 등과 같이 두

말이 합쳐져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것이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새로운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의미이다. 즉 새로운 의미가 생겼는지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루의 신체 기관’을 의미하는 ‘노루 귀’는 띄어 쓰지만 ‘미나리아재빗과의 풀’을 의미하는 ‘노루귀’는 붙여 쓴다. ‘노루귀’에는 ‘노루’나 ‘귀’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의미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 (9) ㄱ. 노루√귀 - 노루의 귀  
 ㄴ. 노루귀 - 미나리아재빗과의 풀

두 번째 기준은 단어의 긴밀성이다. 즉 두 말 사이의 관계가 긴밀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단어인 ‘가져가다’는 ‘가져’와 ‘가다’의 관계가 긴밀하여 다른 요소가 중간에 끼어들 수 없지만 한 단어가 아닌 ‘받아 가다’는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있다.

- (10) ㄱ. 여기 있는 물건을 {가져갔다/\*가져서 갔다}.  
 ㄴ. 모두들 선물을 {받아 갔다/받아서 갔다}.

이러한 사실은 ‘가져가다’와 ‘받아 가다’의 띄어쓰기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 띄어 써야 할 곳에 √ 표시를 하세요.

[연습 2] 한번/한√번

- ① · 한번에하나씩만처리하자.  
 ② · 언제한번술이나마시자.

[연습 3] 안되다/안√되다

- ① · 합격이안되어서기분이별로야.  
 ② · 열심히공부했는데시험에떨어졌다니안됐네.

[연습 4] 못쓰다/못√쓰다

- ① · 너무낡아서이젠못쓰게되었다.  
 ② · 무엇이든지나치면못쓴다.

### 3. 띄어쓰기의 실제

#### 3.1. 조사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서 다른 말에 의존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자립적인 명사와 달리 조사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그것이 결합하는 단어의 문법적인 기능을 표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이다, 부터, 까지, 는커녕, 조차, 보다’ 등을 앞말과 띄어 쓰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조사이므로 띄어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11) ㄱ. 이곳은 {국립국어원입니다/\*국립국어원V입니다}.
- ㄴ. {5시부터/\*5시V부터} {7시까지/\*7시V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 ㄷ. {노래는커녕/\*노래는 커녕/\*노래 는커녕} {말하기조차/\*말하기V조차} 어렵다.
- ㄹ. 다른 {회사보다/\*회사V보다} 늦게 끝나는 편입니다.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잘못된 예는 여러 개의 조사가 겹칠 경우 띄어 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는 둘 이상 겹치거나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 (12) ㄱ. {학교에서처럼만/\*학교에서V처럼만/\*학교에서처럼V만} 행동하면 된다.
- ㄴ. {집에서만이라도/\*집에서V만이라도/\*집에서만V이라도} 편하게 쉬고 싶었다.
- ㄷ. {언제인지부터는/\*언제인지V부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소화가 되지 않는다.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형태는 동일한데 의미와 기능이 달라지는 예들이다. ‘같이, 밖에, 하고’ 등은 형태는 동일한데 의미와 기능에 따라 조사로 다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래서 문장에서의 쓰임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진다.

##### 1) 같이

‘당신같이’의 ‘같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이때의 ‘같이’는 ‘처럼’으로 바뀌어 쓸 수 있다. 단 ‘친구와 같이’처럼 조사가 앞에 오는 경우 ‘같이’는 ‘함께’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앞말에 붙여 쓰지 않는다. 참고로 ‘당신 같은’의 ‘같

은’ 또한 조사가 아니다.

- (13) ㄱ. 당신같이 친절한 사람은 없을 거야.  
 ㄴ. 친구와같이 오세요.  
 ㄷ. 당신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 2) 밖

‘밖’은 ‘밖’이라는 명사에 조사 ‘에’가 결합한 것이다. 이때의 ‘밖’은 ‘안’에 대응되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 (14) ㄱ. 학교밖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다.  
 ㄴ. 이밖에 다른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나 ‘밖’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와 호응하여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밖’은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조사로 다룬다. 따라서 앞말에 붙여 쓴다.

- (15) ㄱ. 가진 것이 천 원밖에 없어.  
 ㄴ. 이런 일은 철수밖에 못할걸.  
 ㄷ. 아직은 “맘마”라는 말밖에 몰라.

## 3) 하고

‘하고’는 ‘와/과’로 바꿀 수 있는 ‘하고’와 인용문 뒤에 오는 ‘하고’로 나뉜다. ‘와/과’로 바꿀 수 있는 ‘하고’는 ‘와/과’와 마찬가지로 조사로 다루며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러나 인용문 뒤에 오는 ‘하고’는 조사가 아닌 동사 ‘하다’의 어간에 어미 ‘-고’가 결합한 것으로 보아 앞말에 붙여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인용문 뒤에 오는 ‘라고’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 (16) ㄱ. 친구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  
 ㄴ. 할아버지께서는 “알았구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ㄷ. 할아버지께서는 “알았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띄어 써야 할 곳에 √ 표시를 하세요.

[연습 5] 같이

- ① 세월이물과같이흐른다.
- ② 당신같이세상물정모르는사람도없을거다.

[연습 6] 대로

- ① 하자는대로하는게어때?
- ② 네말대로하기로했어.

[조심해야 할 조사]

- ① 소주는커녕맥주도못마신다.
- ② 학교에서부터집까지의거리가총10km이다.
- ③ 조사결과에대해서조차의견이상이하다.
- ④ 누구를위해서라기보다스스로를위해서입니다.

### 3.2. 의존 명사

명사 중에는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가 있는데, 이를 의존 명사라고 한다. 의존 명사는 의미적인 독립성은 없으나, 다른 단어 뒤에 의존하여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단어로 다루어진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 (17) ㄱ. 할√수√없이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 ㄴ. 일을 제시간에 끝내야 할√텐데.
- ㄷ. 부재√시 관리실에 맡겨 주세요.
- ㄹ. 회의√중이오니 조용히 해 주십시오.
- ㅁ. 기간√내에 제출할 것

‘수, 터, 시, 중, 내’ 등은 모두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이 외에도 ‘것, 나, 름, 나위, 노릇, 놈, 등, 등등, 따름, 때문, 무렵, 바, 뻔, 뿐, 적, 줄, 즈음, 지, 터, 겹, 김, 대로, 듯이, 만, 만큼, 바람, 채, 체, 통’ 등도 의존 명사이다.

의존 명사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말과 형태는 동일한데 의미와 기능이 달라지는 예들이 있다. 의존 명사는 앞서 살펴본 조사와 형태가 동일한 경우도 있고, 어미의 일부와 동일한 경우도 있고, 접미사와 비슷한 경우도 있다.

#### 1) 대로

‘대로’가 ‘법대로, 약속대로’처럼 명사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며, ‘종으실 대로, 아는 대로’처럼 용언의 관형형<sup>1)</sup> 뒤에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대로’는 명사 뒤에 올 때는 붙여 쓰고, 용언의 관형형 뒤에 올 때는 띄어 쓴다.

(18) ㄱ.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마음대로 해라. (조사)

ㄴ. 당신 종으실 대로 하세요./아는 대로 말해라./지칠 대로 지친 몸 (의존 명사)

## 2) 뿐

‘뿐’ 역시 ‘당신뿐, 공부뿐’처럼 명사 뒤에 붙을 때는 조사이고 ‘말할 뿐, 먹을 뿐’처럼 용언의 관형형 뒤에 올 때는 의존 명사이다. 간혹 ‘너뿐만 아니라’는 ‘너뿐만아니라’로 모두 붙여 쓰거나 ‘너 V 뿐만 V 아니라’로 잘못 띄어 쓰는 일이 있으나, ‘뿐’과 ‘만’이 모두 조사이므로 ‘너뿐만 V 아니라’로 쓰는 것이 옳다.<sup>2)</sup>

(19) ㄱ.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온 사람은 철수뿐이다. (조사)

ㄴ. 조용히 들을 V 뿐 뭐라고 하지 않는다./열심히 노력할 V 뿐이다. (의존 명사)

## 3) 만

‘만’은 명사 뒤에서 ‘한정’의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가 있다. “혼자만 여행을 떠났다.”에서 ‘혼자만’의 ‘만’은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때의 ‘만’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돌아왔다.”에서 쓰인 ‘만’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데, 이때의 ‘만’은 의존 명사이다. ‘만’이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주로 ‘만에’, ‘만의’, ‘만이다’의 꼴로 쓰이며, 앞에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온다.

(20) ㄱ. 혼자만 여행을 떠났다./일만 하지 말고 좀 쉬어./밥만 먹는다. (조사)

ㄴ.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십 년 만의 귀향/이게 얼마 만이야.  
(의존 명사)

다만 “정말 오랜만이군.”이라고 할 때는 ‘오랜 V 만’으로 띄어 쓰지 않는데, 이것은 ‘오랜만’의 준말이기 때문이다.

1) 용언의 관형형이란 용언(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어미 ‘-ㄴ, -는, -르’ 등이 결합한 것으로, 이들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한다. 예를 들어 ‘먹은 음식, 먹는 음식, 먹을 음식’의 ‘먹은, 먹는, 먹을’을 용언의 관형형이라고 한다.  
2) 요즈음 ‘뿐만아니라’를 접속어로 쓰는 일이 있지만 이는 잘못이다. “과자를 먹었다. 뿐만 아니라 빵도 먹었다.”에서 ‘뿐만 아니라’는 ‘그뿐만 아니라’를 잘못 쓴 것이다.

이와 달리 용언의 관형형 뒤에 오는 ‘만’이 있다. 이때의 ‘만’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21) 지낼V만하다./먹을V만은 한데 좀 비싸다. (의존 명사)

참고로 ‘만’과 ‘하다’가 연결되어 나타나는 구성이 있는데, 이때의 ‘만’도 앞에 오는 말에 따라 띄어쓰기가 다르다.

(22) ㄱ. 강아지가 송아지만V하다.

ㄴ. 음악이 {들을V만하다/들을만하다}.

(22ㄱ)의 ‘송아지만V하다’의 ‘만’과 ‘하다’는 조사 ‘만’과 ‘하다’가 연결된 구성이다.<sup>3)</sup> 이때의 ‘만’은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낸다. 이와 달리 (22ㄴ)의 ‘들을V만하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형 다음에 오는 ‘만’은 의존 명사이며 ‘만하다’는 보조 용언이다. 그러므로 ‘만’은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일 수도 있다.<sup>4)</sup>

#### 4) 데

‘데’는 의존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어미인 ‘-는데’의 일부로 쓰일 때가 있다. ‘-는데’의 띄어쓰기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뒤에 ‘에’를 비롯한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에’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띄어 쓰지 않는다.<sup>5)</sup> (23ㄱ)의 ‘하는 데’ 뒤에는 ‘하는 데에’처럼 조사 ‘에’가 결합할 수 있으나 (23ㄴ)의 ‘가는 데’ 뒤에는 조사가 결합하면 문장이 부자연스러워진다.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그렇지 못한 ‘-는데’는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23) ㄱ. 이 일을 하는V데 며칠이 걸렸다.

ㄴ. 학교에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24) ㄱ. 이 일을 하는V데에…… (결합 가능)

ㄴ. \*학교에 가는데에 …… (결합 불가능)

3) ‘만하다’를 접미사로 보기도 하지만 ‘송아지만 하다’의 ‘만 하다’가 접미사가 아니라는 것은 ‘송아지만은 하다’처럼 보조사가 끼어들어 가는 것에서 알 수 있다.

4) 의존 명사 ‘만, 양, 법’ 등 뒤에 ‘하다’나 ‘싶다’가 붙은 보조 용언 구성은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 있다. ‘3.5. 보조 용언’ 참조.

5)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은 명사류의 특징 중 하나다.

다음도 조사 ‘에’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데’를 앞말과 띄어 쓴다.

(25) 얼굴이 예쁜 데(에)다가 마음씨도 곱다.

### 5) 바

‘바’도 의존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어미인 ‘-ㄴ바’의 일부로 쓰일 때가 있다. 이 역시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붙여 쓴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26) ㄱ. 금강산에 가 본바 과연 절경이더군.

ㄴ. 그 일은 고려해 본 바(가) 없다.

(26ㄱ)의 ‘본바’는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없지만 (26ㄴ)은 ‘그 일은 고려해 본 바가 없다’와 같이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26ㄴ)의 ‘본 바’는 띄어 쓴다.

### 6) 지

‘지’ 역시 의존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어미 ‘-는지, -ㄴ지’의 일부로 쓰일 때가 있다. ‘지’가 어미의 일부로 쓰였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다른 어미로 바꾸어 보는 것이다. ‘-ㄴ지’가 ‘-ㄴ까’와 띄어쓰기가 같고 ‘-는지’가 ‘-는가’와 띄어쓰기가 같다.

(27) ㄱ. 제시간에 도착할지 모르겠다.

ㄴ. 제시간에 도착할까 모르겠다.

‘도착할까’를 ‘도착할 까’로 띄어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착할까’와 ‘도착할지’가 서로 같으므로 ‘도착할지’로 붙여 쓴다고 이해하는 것이 ‘-ㄴ지’가 어미이므로 앞말과 붙인다는 문법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해하기가 쉽다.

다음의 ‘도착했는지 모르겠다’의 띄어쓰기 또한 ‘도착했는가 모르겠다’와의 비교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8) ㄱ. 제시간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

ㄴ. 제시간에 도착했는가 모르겠다.

이와는 달리 다음의 예들은 다른 어미와 바꾸기 어렵다.

- (29) ㄱ. 고향을 떠난<sup>ㄴ</sup>지 십 년 만에 돌아왔다.  
 ㄴ. 친구를 만난<sup>ㄴ</sup>지 한참 되었다.

(29ㄱ)의 ‘떠난<sup>ㄴ</sup>지’는 ‘떠난<sup>가</sup>’로 바꿀 수 없으며 (29ㄴ)의 ‘만난<sup>ㄴ</sup>지’ 역시 ‘만난<sup>가</sup>’로 바꿀 수 없다. 이때의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에 오는 용언의 관형형과 띄어 쓴다. ‘지’가 의존 명사로 쓰일 때에는 뒤에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온다.

## 7) 것(거)

‘ㄹ것’의 띄어쓰기는 ‘ㄹ것을’로 풀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30) ㄱ. 나중에 후회할<sup>ㄴ</sup>것.  
 ㄴ. 후회할<sup>ㄴ</sup>것 왜 그랬어?

(30ㄱ)의 ‘후회할<sup>ㄴ</sup>것’은 ‘-ㄹ것’이 어미로 쓰이는 경우로 ‘할 것’으로 풀 수가 없다. 그렇지만 (30ㄴ)은 의존 명사 ‘것’이 들어 있는 ‘후회할 것’으로 풀 수 있으므로 ‘후회할<sup>ㄴ</sup>것’로 띄어 쓴다.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는 ‘-ㄹ게’도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그러나 ‘-ㄹ<sup>ㄴ</sup>게(것)’로 바꿀 수 있으면 띄어 쓴다.

- (31) ㄱ. 나 먼저 할<sup>ㄴ</sup>게.(←갈 것이야)  
 ㄴ. 집에 가서 할<sup>ㄴ</sup>게(할<sup>ㄴ</sup>것이) 아주 많아.

## 8) 간

‘간’은 앞에 오는 명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간’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오면 ‘시간의 경과’를 의미한다. 이때의 ‘간’은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러나 ‘거리’나 ‘사이, 관계’를 나타낼 때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32) ㄱ. 삼 분간 기다려 주십시오.  
 ㄴ. 서울 부산<sup>ㄴ</sup>간 급행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ㄷ. 운동을 하든지 등산을 가든지<sup>ㄴ</sup>간에 좀 움직여라.

나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한미간, \*한일간’과 같이 붙여 쓰는 경우가 많으나 이때의 ‘간’ 역시 ‘사이, 관계’를 나타내므로 ‘한미<sup>ㄴ</sup>간, 한일<sup>ㄴ</sup>간’으로 써야 한다. 다만

(33ㄴ)과 같이 한 단어로 굳어진 것은 붙여 쓴다.

(33) ㄱ. 국가V간, 가족V간, 친구V간, 동료V간

ㄴ. 부자간, 모자간, 부녀간, 모녀간, 형제간, 자매간……

다자간

※ · 띄어 써야 할 곳에 √ 표시를 하세요.

[연습 7] 지

① · 떠난지3년만에고향에돌아왔다.

② · 내기분이어떨지생각은해봤어?

③ · 버스가언제도착하는지를알수있을까요?

[연습 8] 짓/거

① · 그렇게말하면화낼걸.

② · 화낼걸알면서왜그렇게했어?

③ · 네가가기싫으면내가갈게.

④ · 그사람이갈게확실하다.

## [기타] 열거하는 말과 이어 주는 말

열거할 때에 쓰이는 ‘등’은 의존 명사이므로 ‘굴, 사과 등’과 같이 앞말과 띄어 쓴다.  
그리고 두 말을 이어 줄 때 쓰이는 ‘겸’ 역시 ‘시인 겸 소설가’와 같이 띄어 쓴다.

(34) ㄱ. 굴, 사과V등이 있다.

ㄴ. 시인V겸V소설가

열거할 때 쓰이는 말에는 ‘등’ 이외에 ‘등등, 등속, 등지’가 있으며, 두 말을 이어 주는 말에는 ‘겸’ 이외에 ‘내지, 대, 및’ 등이 있다.

(35) ㄱ. 교실에는 책상, 걸상V들이 있다.

ㄴ. 사진, 그림, 영화V등등 볼 것이 많다.

ㄷ. 사과, 배, 복숭아, 감V등속을 샀다.

ㄹ. 충주, 청주, 대전V등지로 돌아다녔다.

(36) ㄱ. 국장V겸V과장

ㄴ. 열V내지V스물

ㄷ. 청군V대V백군, 삼V대V일

ㄹ. 기간V및V경비

### 3.3. 수 표현

#### 1) 숫자

‘스물여섯’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스물여섯’으로 붙여 쓴다. 그런데 국어사전에는 ‘스물여섯’이 올라 있지 않다. 이는 ‘스물여섯’이 합성어가 아니며 ‘스물V여섯’으로 띄어 쓴다는 말이다. 구성 요소인 ‘스물’과 ‘여섯’에서 ‘스물여섯’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물여섯’은 분명히 합성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스물여섯’으로 붙여 쓸까? ‘스물여섯’으로 붙여 쓰는 근거는 “한글 맞춤법” 제44항에서 찾을 수 있다.

수를 적을 때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이 규정은 ‘십이억V삼천사백오십육만V칠천팔백구십팔’과 같은 띄어쓰기에 적용되지만 ‘스물여섯’에도 적용된다. ‘만’ 단위로 띄어 쓴다는 것은 ‘만, 억, 조, 경’ 등을 단위로 띄어 쓴다는 뜻이지만, ‘만’보다 작은 수일 경우에는 언제나 붙여 쓴다는 뜻도 포함한다.

(37) ㄱ. 스물여섯

ㄴ. 십이억V삼천사백오십육만V칠천팔백구십팔

#### 2) 숫자와 단위 명사

숫자 뒤에 쓰인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그러나 ‘그 수를 조금 넘음’을 나타내는 ‘-여’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38) ㄱ. 금 서V돈, 바둑 한V판, 버전 한V줄, 신 두V켤레, 북어 한V궤

ㄴ. 십여만V명, 십만여V명, 십V년여, 십여V년, 삼십여V년간,  
두V시간여, 삼백오십여V명

### 3.4. 관형사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 있는데, 이를 관형사라 한다. 관형사는 뒤에 오는 명사와 띄어 쓴다. 문제는 관형사와 접두사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관형사와 접두사는 뒤에 오는 명사가 한정되어 있느냐 아니냐로 나뉜다. 예를 들어 관형사인 ‘전’은 ‘전V국민, 전V가족, 전V식당’ 등과 같이 뒤에 다양한 명사가 올 수 있다. 그러나 접두사인 ‘범-’은 ‘범국민(적), 범세계(적)’는 가능하나 ‘\*범학생(적), \*범단체(적)’ 등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관형사는 ‘전’과 같이 뒤에 다양한 명사가 올 수 있으나 접두사는 ‘범-’과 같이 뒤에 오는 말이 일부 명사로 한정된다. 관형사는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쓰고 접두사는 뒤에 오는 말과 붙여 쓴다.

- (39) ㄱ. 전V국민, 전V세계, 전V학교, 전V학년, 전V가족, 전V식당  
 ㄴ. 범국민적, 범세계적

그런데 관형사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말이 한 단어로 굳어지면 붙여 쓴다. (39ㄱ)에서 ‘전’은 관형사이지만 ‘전국, 전군, 전일’ 등은 한 단어로 굳어졌기 때문에 붙여 쓴다.

아래의 관형사들은 띄어쓰기를 잘못하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40) ㄱ. 각(各)V가정, 각V개인, 각V학교, 각V부처, 각V지방[비교] 각처, 각계각층  
 ㄴ. 고(故)V홍길동 [비교] 고인(故人)  
 ㄷ. 귀(貴)V회사, 귀V학교, 귀V연구원 [비교] 귀사(貴社)  
 ㄹ. 동(同)V회사, 동V학급, 동V부서 [비교] 동년  
 ㅁ. 매(每)V경기, 매V회계 연도 [비교] 매년, 매회  
 ㅂ. 별(別)V사이, 별V부담 없이 [비교] 별일

[연습 9] · 띄어 써야 할 곳에 √ 표시를 하세요.

- · ① 내일까지각학교에통보할것.
- · ② 각계각층에서열심히일하는사람들.
- · ③ 각부처에비치해둘것.
- · ④ 각처에서비슷한현상이나타남.
- · ⑤ 각호에안내문을전달했다.
- · ⑥ 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의1에해당함.

### 3.5. 보조 용언

다른 용언 뒤에서 앞에 오는 용언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을 보조 용언이라고 한다. ‘-고 싶다’의 ‘싶다’, ‘-지 않다’의 ‘않다’, ‘-지 말다’의 ‘말다’ 등은 보조 용언이다.



- (41) ㄱ. 하고▽싶은 얘기가 있다.  
 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않았다.  
 ㄷ.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지▽마세요.  
 ㄹ. 물건이 좋기는▽한데 좀 비싸다.

이런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모든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것은 아니다. 보조 용언 중에서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과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언만 붙여 쓸 수 있다.

- (42) ㄱ. 말도 없이 {서▽있었다/서있었다}.  
 ㄴ. 하늘을 보니 비가 {올▽듯싶다/올듯싶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도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일 때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존 명사와 ‘-하다’나 ‘-싶다’ 사이에 조사가 붙을 때도 붙여 쓰지 않는다.

- (43) ㄱ. {울어도▽보고/\*울어도보고} 매달려도 보았으나 모두 헛일이었다.  
 ㄴ. 너무 바빠다 보니 약속을 {잊어먹어▽버렸다/\*잊어먹어버렸다}.  
 ㄷ. 비가 {올▽듯도 하다/\*올듯도하다}.

참고로 ‘-어 지다’와 ‘-어 하다’는 보조 용언이기는 하지만, 용언의 종류를 바꾼다는 점에서 붙여 쓰는 것만 허용한다.

- (44) ㄱ. 의자는 나무로 {만들어▽졌다/\*만들어▽졌다}.  
 ㄴ. 그는 아이를 {예뻐▽한다/\*예뻐▽한다}.

간혹 어떤 말은 보조 용언으로 쓰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장이 화가 나서 서류를 찢어 버렸어.”라고 할 때 ‘찢어 버리다’의 띄어쓰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찢어 버리다’의 ‘버리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인 경우이다. ‘밥을 먹어 버렸다’, ‘국이 식어 버렸다’의 ‘버리다’와 같은 경우인데 이럴 때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45) 서류를 {찢어V버렸다/찢어버렸다}.

그런데 겉모습은 같지만 ‘버리다’가 보조 용언이 아니라 본용언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서류를 찢어 버렸다’를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46) 서류를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

‘버리다’가 본용언으로 쓰인 경우라면 ‘서류를 찢어V버렸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만 가능하고 ‘\*서류를 찢어버렸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습 10] · 띄어 써야 할 곳에 √ 표시를 하세요.

- ① · 떨어진나뭇잎을쓸어버릴곳이없다.
- ② · 태풍이마을을통째로쓸어버렸다.

### 3.6. 전문 용어

전문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붙여 쓸 수 있다(“한글 맞춤법” 제50항).

- (47) ㄱ.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ㄴ. 금동V미륵보살V반가V사유상

(47ㄱ)과 (47ㄴ)을 비교해 보면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한 경우가 뜻을 짐작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 영역에서는 붙여 쓰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문어에 속하는 말은 모두 단어별로 띄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48) 염화-나트륨, 강장-동물, 사과-나무, 두시-언해

화합물이나 동식물의 분류상의 명칭, 책명처럼 이미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전문어라 하더라도 띄어 쓸 수 없다.

### 3.7. 고유 명사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한글 맞춤법” 제49항).

- (50) ㄱ. 서울V대학교V의과V대학V부속V병원(단어별 띄어쓰기)  
 ㄴ. 서울대학교V의과대학V부속병원(단위별 띄어쓰기)

(50ㄱ)보다 (50ㄴ)의 띄어쓰기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서울대학교’가 한 단위이고, ‘의과대학’이 한 단위이고, ‘부속병원’이 한 단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관을 보여 주기 위해 ‘단위별로 띄어 쓴다’는 단서를 단 것이다.<sup>6)</sup>

다만 기관명에 ‘직속, 산하, 부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직속, 산하, 부설’은 앞뒤에 오는 말과 띄어 쓴다. 이것은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지 한 단위로 묶일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 (49) ㄱ. 대통령V직속V국가V안전V보장V회의  
 ㄴ. 대통령V직속V국가안전보장회의

### 3.8. 성과 이름, 호칭어

성과 이름, 성과 호, 성과 자는 붙여 쓴다. 다만 호나 자가 성명 앞에 놓일 때는 띄어 쓴다.

- (51) ㄱ. 김철수, 정송강, 이충무공  
 ㄴ. 송강 정철, 충무공 이순신

그리고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은 띄어 쓴다.

- (52) ㄱ. 홍 씨, 홍길동 씨, 길동 씨(군, 웅, 양, 님)  
 ㄴ. 홍 과장, 홍길동 과장(차장, 부장, 이사, 회장)

호칭어로 쓰이는 ‘씨’는 앞에 오는 성이나 이름과 띄어 쓴다. 그러나 (53ㄴ)처럼 성씨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붙여 쓴다.

- (53) ㄱ. 그 일은 김 씨가 맡기로 했네.

6) 이때의 ‘단위’는 직관에 맞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립V현대V미술관’, ‘국립V현대미술관’으로 띄어 쓸 수 있지만 ‘국립현대V미술관’으로 띄어 쓸 가능성은 낮다.

ㄴ. 우리나라에서 김씨가 제일 큰 성이다.

### 3.9. 단음절어의 연속

한 음절로 된 단어가 여럿 이어지는 경우, 일일이 띄어 쓰면 기록하기에도 불편할 뿐 아니라, 읽기에도 불편하므로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러나 이 허용 규정은 단음절어인 관형사와 명사가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자연스럽게 의미적으로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에 적용된다.

(54) ㄱ. 한 잎 두 잎/한잎 두잎

ㄴ. 이 집 저 집/이집 저집

그러므로 한 개 음절로 된 단어는 무조건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단음절어이면서 관형어나 부사인 경우라도, 관형어와 관형어, 부사와 관형어는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55) ㄱ. 더 큰 이 새집/\*더큰 이새집

ㄴ. 좀 더 큰 집/\*좀더 큰집

### 3.10. 외래어

외래어의 띄어쓰기는 원어의 띄어쓰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지만 국어에서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라면 띄어 쓰지 않는다. 그리고 준말로 굳어져 쓰이는 말은 붙여 쓴다.

(56) ㄱ. 덩크 슈트, 퍼스널 컴퓨터, 아이스 댄스, 로드 쇼, 백 스텝, 팝 아트, 그래픽 디자이너, 아트 페이퍼

ㄴ. 앵커맨, 백미러, 백네트, 콜론, 콜머니, 콜택시, 카페리, 슈크림, 커피숍, 콘칩, 코너킥, 쿠데타, 아이스크림, 골인, 골킥, 홀인원, 홈인, 홈런, 핫케이크, 핫도그, 핫라인, 립크림, 팝송, 리어카, 티오프, 워밍업, 와이셔츠, 월드컵

ㄷ. 에어컨, 리모콘, 오토바이, 아이큐, 오피스텔

외래어 인명 역시 원어의 띄어쓰기를 따른다. 우리나라의 인명과 달리 원어의 띄어쓰기대로 성과 이름을 띄어 쓴다. 일본인 역시 성과 이름을 띄어 쓴다. 그러나 중국인의 경우 성과 이름을 붙여 쓴다.

(57) ㄱ. 헤르만V해세, 마이클V잭슨

ㄴ. 도요토미V히데요시

ㄷ. 마오쩌둥/모택동

그리고 외래어 지명 뒤에 ‘산, 강, 호, 해’ 등이 올 때에는 앞에 오는 말과 띄어 쓰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외국 지명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었을 때는 띄어 쓰지 않는다.

(58) ㄱ. 알프스 산, 양쯔 강, 미시간 호, 오호츠크 해

ㄴ. 계족산, 양자강, 송화호, 지중해

## [연습 답]

[연습 1] ① 가야√ 하겠습니까./가야겠습니까.

② 해야√ 하지만/해야지만

[연습 2] ① ·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하자.

② · 언제√ 한번√ 술이나√ 마시자.

[연습 3] ① · 합격이√ 안√ 되어서√ 기분이√ 별로야.

② ·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졌다니√ 안됐네.

[연습 4] ① · 너무√ 낡아서√ 이젠√ 못√ 쓰게√ 되었다.

② · 무엇이든√ 지나치면√ 못쓴다.

[연습 5] ① · 세월이√ 물과√ 같이√ 흐른다.

② · 당신같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도√ 없을√ 거다.

[연습 6] ① ·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어때? ② · 네√ 말대로√ 하기로√ 했어.

[조심해야 할 조사] ① · 소주는커녕√ 맥주도√ 못√ 마신다.

② · 학교에서부터√ 집까지의√ 거리가√ 총√ 10km이다.

③ · 조사√ 결과에√ 대해서조차√ 의견이√ 상이다.

④ ·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 스스로를√ 위해서입니다.

[연습 7] ① · 떠난√ 지√ 3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다.

② · 내√ 기분이√ 어떨지√ 생각은√ 해√ 봤어?

③ ·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연습 8] ① · 그렇게√ 말하면√ 화낼걸.

② · 화낼√ 걸√ 알면서√ 왜√ 그렇게√ 했어?

③ · 네가√ 가기√ 싫으면√ 내가√ 갈게.

④ · 그√ 사람이√ 갈√ 게√ 확실하다.

[연습 9] ① 내일까지√ 각√ 학교에√ 통보할√ 것.

· · · ②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 · · ③ 각√ 부처에√ 비치해√ 둘√ 것.

· · · ④ 각처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남.

· · · ⑤ 각호에√ 안내문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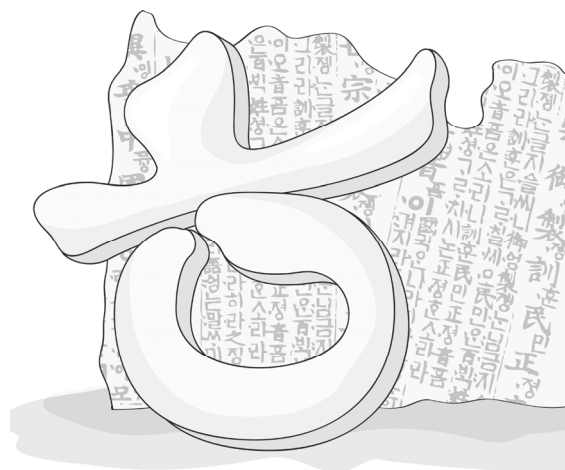
· · · ⑥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함.

[연습 10] ① · 떨어진√ 나뭇잎을√ 쓸어√ 버릴√ 곳이√ 없다.

② · 태풍이√ 마을을√ 통째로√ 쓸어√ 버렸다(쓸어버렸다).

# 표준어 규정에 대한 이해

김 문 오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2)

‘ , ‘ , (隱語) ( : ‘ { , ‘ { }, ‘ { }<sup>3)</sup>. [班村] [民村] 가 가 . ‘ , , ( ) ‘ , . 가 . . ㅈㅈ ㅈㅈ( ), ( ), ( ), ( ) 가 , , . ‘ ( 가 ( ) ‘ (Vogue)<sup>4)</sup> , , , . 가 , , 가 , .

기준	표준어	방언
1. ( , , , , )		
2. /		

2) ‘ , ‘ , - ‘ ,

3) : ‘ ,

4) : (Vogue) 가 ‘ ,

가 . [ : 2013 3 15 “ ”( : )]

3.	/		
4.			
5.			
6.	( 가)	,	가 ( , )
7.	.		
8.		( ‘ ’ )	
9.	‘ ’ ‘ ’ ,		
10.	‘ ,		
11.	/		
12.	. .		
13.	( , , )		
14.	( )		
15.	( )		

가

,

가

,

,

,

,

.

,

,

,

,

,

가

,

.

,

5)

.

.

( : “ ㄱ、 . ”)

.

(馬)

ㄱ、ㄴ ’

‘ ’

.

,

,

‘

( ), , ’

(長音)

ㄴ ’

‘ | + — ’

[jɪ:]

5)

(字母)

24

, 24

40

19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ㆁ, ㅌ, ㆁ, ㅎ)

21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ㅖ, ㅘ, ㅙ, ㅚ, ㅜ, ㅠ, ㅡ, ㅣ)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1], [2], [3]” “ ‘ ’ ‘ ’ .



(炭): [ , , ] )

( )

$$\left( \frac{1}{2} \right)^{\frac{1}{2}}$$

! “ ~ ! ? ” “ 가 ? ”

가

가?

가

100%

가

2.

가

{ , } , 1936 (査定)

『 』 ( )

가

2 “

\_\_\_\_\_ . 1988 1 19 “

\_\_\_\_\_ “

\_\_\_\_\_ ”

\_\_\_\_\_ 1

.6)

6) (1991 , 2010 ), ‘ ’ .

(1936) , (1933) 가  
 가 7)  
 가 가 ,  
 가 8)  
 , 가  
 가 가 가  
 가 , 가  
 ( ), ( )  
 가 가  
 가 9)

- 7) 1942 10 가  
 가  
 8) “ ” 23 2 (2013) ( )  
 131 1 ~4 Bloom(1990:52) \* Bloom, W.(1990), *Personal Identity, National Ident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9) 1 1 [2006 618, 2009. 5. 28.]

3.

1988 1 19 1989 3 1  
2014 3 25 . 1990  
( ) , 36 ‘ ,  
.10) ( )  
가 .  
‘ 1 ( , ,  
)’ ‘ 2 ( , , ,  
, , , 가)’ .  
가 .  
1. .  
2. ‘ , .( ‘ , ’ ).(  
‘ , )  
3. 2011. 8. 31. 가 .( : , ,  
, , , 39 )  
4. ‘ , .  
.

### 3.1.

10) 36 (1990 9 14 ) ‘ ’  
( 88-2 , 1988. 1. 19.) , 가 .  
“ ”( , 1965, 1986 ) “ ”( , 1982)  
가 ( ‘ ’  
, ) .





참 1 , , , , , 가 , , , , ,



3. ( ) , , ,

‘ (句) 가

참2 : ,

가 .

$\square$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

**(참고)**                  $f^*$  ,                  $g^*$  ,                  $h^*$  ,                  $i^*$  ,

$j^*$  (                 ,                 ,

,                 ·                 ·                 ‘                 ’                 .)

가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1 : / , / , /\* ,  
 ( )/\* ( ), /\* , ( )/\* ( ),  
 /\* , /\* , /\*

참2 가 / , / , / , / ,  
 .

### (18) 천장(天障)/\*천정(天井)

가 가 가  
 . ' ( , , , ,  
 ) , ' , , ,  
 ' , ' ,  
 . ' 가 ' ,  
 (天井不知) , ' ,  
 참 /\* ( ' , ), /\* , /\* ,  
 /\* , /\* , / (鳳仙花)/\* ,  
 /\* /\* , /\* , /\* , /\* ,  
 /\* , /\*

### (19) 먹습니다/\*먹읍니다

' / - ' ' / - ' .  
 ' , 가 \* , \* ,  
 참1 ' : /\* ,  
 ' , - , - : 가 /\* /\* , 가 /\* /\* ,  
 가 /\* /\*  
 참2 : /\* , ( /\* , /\* )

### (20) 금 서 돈/\*금 세 돈

,  
 ' / ' . ' , , , ,  
 ' / ' , ' , , , ' / '

[illegible]

(21) ખો/બો

가

참

$\frac{1}{\sqrt{2}}$ ,  $\frac{1}{\sqrt{2}}$ ,  $\frac{1}{\sqrt{2}}$ ,  $\frac{1}{\sqrt{2}}$ ,  $\frac{1}{\sqrt{2}}$ ,  $\frac{1}{\sqrt{2}}$ ,  
 $\frac{1}{\sqrt{2}}$ ,  $\frac{1}{\sqrt{2}}$ ,  $\frac{1}{\sqrt{2}}$ ,  $\frac{1}{\sqrt{2}}$ ,  $\frac{1}{\sqrt{2}}$ ,  $\frac{1}{\sqrt{2}}$

(22) 주웠다/\*줏었다

$$* \quad \left[ \begin{array}{c} \vdots \\ \vdots \\ \vdots \end{array} \right], \quad * \quad \left[ \begin{array}{c} \vdots \\ \vdots \\ \vdots \end{array} \right], \quad \cdot$$

참

$$/^{*} \quad \cdot \quad , \quad , \quad , \quad , \quad , \quad , \quad , \quad \dots$$

(23) 부나비/\*불나비

$$A + B = C$$

참

$$\begin{array}{cccc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 /^{*} \end{array}$$

(24) 짜집기/\*짜집기

가

참

$$\begin{array}{ccccccc} \text{가} & / * \text{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nd{array}$$

(25) 개 다/\*개 이 다

가  
/ \* 가  
2014 2 17 :

㉔ { / \* } ; { / \* } ,  
가 .

### (26) 거친/\*거칠은

은 ' 가 가 "{ / \* }  
가 . " 은 ' .

㉕ ( - + - ) , ( - + - ㄴ ) ,  
( - + - ㄴ ) , ( - + - ㄴ ) , ( - + - ㄴ )

### (27) -르는지/\*-르런지, -르는가/\*-르런가

' { / \* / \* } ' 'ㄴ 가  
\* -르 / \* -르 ' . [ㄴ] 가 \* -르 ' , 'ㄴ / - / - ' ,  
'ㄴ ' . 'ㄴ 가 / \* -르 가 / \* -르 가 / \* -르 가 ' ,  
' 가 ' ' 가 ' .

### (28) 살코기/\*살고기

' 가 . ' ' ' ' 가 \*  
' , ' [肉] 등 ' 가  
' 가 ' ' , ' , ' ,  
' , ' , ' , ' 등 ' 가  
.

## 3.2.

### (1) 설거지하다/\*설겅다

(死語)가

, . \* ,  
 \* 가 ' ,  
 , ' 가 ' , .

㉖ / \* , / \* , / \* , / \* , / \*

## (2) 외지다/\*벽지다(僻--)

가 ( )가  
가 )가

[참] /\* (盲-), /\* (乾--), /\* (- -沓),  
11)/\* (- -紋), /\* (- 錢), 12)/\* (皮-)<sup>13)</sup>,  
14)/\* (木-), /\* (分錢)\* (- 錢)

## (3) 총각(總角)무/\*알타리무/\*알무

가

가

[참] (兼床)/\*, (高峰-)/\*, (單-)/\*, (房--)<sup>15)</sup>/\*  
, (附缸--)/\*, (山--)/\*, (山--)/\*  
, (水蓼)/\*, (心---)<sup>16)</sup>/, (洋-)/\*,  
(- -病)/\*, (閨-)/\*, (齒-)/\*

## (4) 멍게/우렁챙이

[참] / , /

## (5) 코주부/\*코보

[참] /\* , /\* , /\* , / ( )/\*  
( 가 가 . [ ] (生)+ -+ -ㄴ+ )

## (6) 부끄럽게끔/\*부끄럽게서리/\*부끄럽게시리

‘ , - ’ , ‘ , - ’ .

11) :

12) :

13) : ‘ , ‘ [稗] ’ , ‘ (- 粥)’ , ‘ (皮-)’ .

14) : , ‘ 가 ’ , ‘ (木-)’ , ‘ 가 ’ , ‘ (木-)’ .

15) : , 가 가 . = (炕洞) .

16) :



㉠ / \* , / \*

(7) 까다롭다/\*까탈스럽다

가 가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가없어라/가여워라

가 가 가 ,  
 . 가 /가 ,

㉠1 가 / , 가 /가 , / , / , /  
 , / (c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3 - /- : /

㉠4 -( ) /-( ) : 가 /가 , /

(9) 이에요(=예요) / 이어요(=여요)

가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내로라하는/\*내노라하는} 학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 가 , ‘  
 ,  
 ‘ 가 [ : + + - - + - + ]. ‘ ’ ‘

가 .

(11) 도서관에 {들렀다/\*들렀다}

[illegible]

참

$$\left( \begin{array}{ccc} & & \\ & & \\ & & \end{array} \right), \quad \left( \begin{array}{ccc} & & \\ & & \\ & & \end{array} \right), \quad \left( \begin{array}{ccc} & & \\ & & \\ & & \end{array} \right)$$

(12) 삼가다/\*삼가하다

가 . ” \* 가 ,  
 ‘ 가 ’ “ 가( 가 - + - ) . ”  
 . ‘ 가 가 ’ 가 .

4.

[illegible]

-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11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간지럽히다	간질이다
남사스럽다	남우세스럽다
등물	목물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맨날	만날
못자리	뫓자리
복숭아뼈	복사뼈
세간살이	세간
쌈싸름하다	쌈싸래하다
토란대	고운대
허접쓰레기	허섭스레기
흙담	토담

○ 현재 표준어와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길래	~기에	~길래: '~기에'의 구어적 표현.
개발새발	괴발개발	'괴발개발'은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이고, '개발새발'은 '개의 발과 새의 발'이라는 뜻임.
나래	날개	'나래'는 '날개'의 문학적 표현.
내음	냄새	'내음'은 향기롭거나 나쁘지 않은 냄새로 제한됨.
눈꼬리	눈초리	눈초리: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눈에 나타나는 표정. 예) '매서운 눈초리' 눈꼬리: 눈의 귀 쪽으로 찌진 부분.
떨구다	떨어뜨리다	'떨구다'에 '시선을 아래로 향하다'라는 뜻 있음.
뜨락	뜰	'뜨락'에는 추상적 공간을 비유하는 뜻이 있음.
먹거리	먹을거리	먹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는 온갖 것. 예) 전통 먹거리/먹거리 장터/먹거리 문화/먹거리 산업 먹을거리: 먹을 수 있거나 먹을 만한 음식 또는 식품. 예) 먹을거리를 마련하다/시장에 가서 먹을거리를 장만하다
메꾸다	메우다	'메꾸다'에 '무료한 시간을 적당히 또는 그럭저럭 흘려가게 하다.'라는 뜻이 있음.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손주	손자(孫子)	손자: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 손주: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
어리숙하다	어수룩하다	‘어수룩하다’는 ‘순박함/순진함’의 뜻이 강한 반면에, ‘어리숙하다’는 ‘어리석음’의 뜻이 강함.
연신	연방	‘연신’이 반복성을 강조한다면, ‘연방’은 연속성을 강조.
황하니	황허케	황허케: ‘황하니’의 예스러운 표현.
걸리적거리다	거치적거리다	자음 또는 모음의 차이로 인한 어감 및 뜻 차이 존재
끄적거리다	끼적거리다	〃
두리몽실하다	두루몽술하다	〃
맨송맨송/ 맹송맹송	맨송맨송	〃
바둥바둥	바동바동	〃
새초롬하다	새치름하다	〃
아웅다웅	아웅다웅	〃
야멸차다	야멸치다	〃
오손도손	오순도순	〃
찌뿌둥하다	찌뿌듯하다	〃
추근거리다	치근거리다	〃

○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것(3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택견	태견
품새	품세
짜장면	자장면

## 5.



'ㅍ, ㅈ, ㅋ, ㆁ, ㄷ, ㅌ, ㄴ, ㄹ, ㅊ, ㅅ, ㅇ, ㅡ'      11

•

1. ‘ , , ’ [ , , ] .  
가 [가 ], [ ], [ ]  
[ ], [ ], [ ]

[ , , ]      矢, 𠂇, 𠂆 '      𠂆 '      가      ' | '      가

,      矢, 𠂇, 𠂆 '      가      ' | '      가

[ , , ]    [ , , ]      ' , , ,      가

. (      ' , , ,      가

. )      가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袂別: 설설히 헤어짐),                      [    /    ],  
[    :    /    :    ],                      [    /    ]

3. \_\_\_\_\_가 \_\_\_\_\_의' [1] \_\_\_\_\_.

$$\begin{array}{llll} \_ & [ \_ \_ - ], & \_ & [ \_ \_ - ], & \_ & [ \_ \_ - ], \\ \_ & & [ \_ \_ \_ - ], & \_ & [ \_ \_ - ], & \_ & [ \_ \_ - ], \\ \_ & [ \_ \_ - ], & \_ & & [ \_ \_ \_ - ], & \_ & [ \_ \_ - ], & \_ & [ \_ \_ - ] \end{array}$$

가 ‘ ’ 가  
(義士) ‘ ’ (義城) ‘ ’  
(醫大) ‘ ’

2. 4. \_\_\_\_\_ ‘ ’ [ | ] , \_\_\_\_\_ ‘ ’ [ ㄱ ] .  
\_\_\_\_\_ ‘ ’ 가 \_\_\_\_\_ ‘ \_\_\_\_\_ [ - ] [ | ]  
\_\_\_\_\_ ‘ ’ [ ㄱ ] .

[ / ], [ / ], (問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6 , 가  
 .

- (1)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7 가 , .

1. 가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begin{array}{ccccccc} \left[ \begin{array}{c} \vdots \\ \vdots \end{array} \right] - & \left[ \begin{array}{c} \vdots \\ \vdots \end{array} \right] & & \left[ \begin{array}{c} \vdots \\ \vdots \end{array} \right] - & \left[ \begin{array}{c} \vdots \\ \vdots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vdots \\ \vdots \end{array} \right] - & \left[ \begin{array}{c} \vdots \\ \vdots \end{array} \right] & & \left[ \begin{array}{c} \vdots \\ \vdots \end{array} \right] - & \left[ \begin{array}{c} \vdots \\ \vdots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vdots \\ \vdots \end{array} \right] - & \left[ \begin{array}{c} \vdots \\ \vdots \end{array} \right] & & & \end{array}$$

2

$$\begin{array}{l} \left[ \begin{array}{c} \vdots \\ \vdots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vdots \\ \vdots \end{array} \right] \quad \left[ \begin{array}{c} \vdots \\ \vdots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vdots \\ \vdots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vdots \\ \vdots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vdots \\ \vdots \end{array} \right] \end{array}$$
$$\left[ \begin{array}{c} \mathbf{y} \\ \mathbf{A} \end{array} \right] \quad \left[ \begin{array}{c} \mathbf{y} \\ \mathbf{A} \end{array} \right] \quad \left[ \begin{array}{c} \mathbf{y} \\ \mathbf{A} \end{array} \right]$$

[ ]

### 5.3.

8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9            ‘ㄱ, ㅋ; ㆁ, ㄷ, ㅌ, ㄴ; ㅅ, ㅆ’

$$[\neg, \sqsubseteq, \boxplus]$$
$$\begin{array}{cccc} \left[ \begin{array}{c} \phantom{0} \\ \phantom{0}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phantom{0} \\ \phantom{0}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phantom{0} \\ \phantom{0}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phantom{0} \\ \phantom{0}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phantom{0} \\ \phantom{0}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phantom{0} \\ \phantom{0}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phantom{0} \\ \phantom{0}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phantom{0} \\ \phantom{0}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phantom{0} \\ \phantom{0}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phantom{0} \\ \phantom{0}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phantom{0} \\ \phantom{0}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phantom{0} \\ \phantom{0}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phantom{0} \\ \phantom{0}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phantom{0} \\ \phantom{0} \end{array} \right] & & \left[ \begin{array}{c} \phantom{0} \\ \phantom{0} \end{array} \right] \end{array}$$

11 ( )—л, л̄, л̅,  
л, л̄, л̅, л̆, л̇, л̈, л̉, л̊— 2 (л, л̄).

2

 $(\top, \wedge).$





3. 등 ' ㄴ ' , [ ㄴ ] .

[     ]     [     ]

[     ] ㄹ, ㄹ ' ㄴ ' , 등 ' .

[     ]     [     ]     [     ]     [     ]

\* ' [     ], [     ] ' 20 .

4. 등 (ㄹ, ㄹ) ' 가 , 등 ' .

[     ]     [     ]     [     ]     [ : ]  
[ : ]     [     ]     [     ]     [     ]

13 , 가 .

[     ]     [     ]     [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ㅏ, ㅑ, ㅓ, ㅕ, ㅗ' 가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19       $\square, \circ$  '       $\ni$  '  $[\sqsubset]$       .  
 $\begin{bmatrix} \quad :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neg, \equiv$  '       $\ni$  '  $[\sqsubset]$       .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20       $\sqsubset$  '       $\ni$  '       $[\ni]$       .

(1)       $\begin{bmatrix} \quad :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 \quad \end{bmatrix}$   
 (2)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sqsubset$  '       $\ni$  '       $\ni$  '      .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       $\ni$  '  $[\sqsubset]$       .

$\begin{bmatrix} \quad :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21      .

$\begin{bmatrix} \quad : \quad \end{bmatrix}(\times \begin{bmatrix} \quad :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times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times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times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times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begin{bmatrix} \quad \end{bmatrix}(\times \begin{bmatrix} \quad \end{bmatrix})$



26 , ㄴ ' ㄷ, ㄴ, ㅈ ' .

[     ]	[     ]	[     ]	[     ]
[     ](弗素)	[     ]	[     ]	[     ]
[     ]	[     ]	[     ]	

, 가 .

[     ](虛虛實實) - [     ](切切-)

27 ‘-( )ㄴ’ ㄱ, ㄷ, ㅂ, ㄴ, ㅈ ’ .

[     ]	가[     ]	[     ]
[     ]	[     ]	[     ]
[     ]	[     ]	

, .

[     ] ‘-( )ㄴ’ .

[     ]	[     ]	[     ]
[     ]	[     ]	[     ]
[     ]		

28 , ㄱ, ㄷ, ㅂ, ㄴ, ㅈ ’  
( (休止)가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5.6. 가

29

‘ , , , , , ’ , ㄴ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ㄴ ’ 가 , .

- [ / ]	- [ / ]
[ : / : ]	- [ / ]
[ / ]	

[ 1] ㄴ ’ 가 ㄴ ’ [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3	[ ]	[ ]	[ ]
	[ ]	[ ]	
1	[ ]	[ ]	

[ ], [ ]

ㄹ 가

ㄴ 가,

, ㄴ(ㄹ)' 가 .  
 6-25[        ] 3-1 [        ] [ : ]  
           [        ]

30 .

1. 'ㄱ, ㄷ, ㅂ, ㅅ, ㅈ'

, [ㄷ]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ㄴ, ㅁ' [ㄴ] .

[        ]	[        ]
[ : : ]	[        ]

3. ' ' [ㄴㄴ] .

[        ]	[        ]
[        ]	[        ]
[ : : ]	

6.

가

가

.

.

,





2006 , 2008 ,

(2007~, ), (2008~, ),

(2008 ~, ) .

‘ , ,

· , , 가 .

5,000

가

· 가

·

( “《 》 :

2008 )

( ‘ )

·

·



- 20) 가
- 21) 가
- 22) 가
- 23) 가
- 24) 가 가 가
- 가
- 가
- 25) 가
- 26) 가
- 27) 가
- 28) 가
- 29) 가
- 30) 가
- 31) 가

2) 32) \* : 1938

“ 가 ”

“ ? ”

- 
- 20) : ,
- 21) : ‘ ’
- 22) : ‘ ’
- 23) : . 60~120cm
- 24) :
- 25) :
- 26) :
- 27) : 가
- 28) : ‘ ’
- 29) (房燈): ‘ ’ ( , )
- 30) : ‘ ’
- 31) : ‘ (同壻) ’
- 32) : ‘ ( ) ’ .

가 가

“ 가? ”

“ 33) ”

“ 가 가? ”

“ ? ! ”

— !

34)

. ( )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가 ( ),  
~ 이( ), ( ), ( ), 이( ), ( ),  
~ ~ ( 가 ), ( ) 가 .

‘가 가

‘ 가 가

가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가 . )

33) :

34) :

35) : “ ” 2007 (17 2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가 . ) ( ). ! 가  
( ! ).  
' / - ; ' / - ( ), ' / -  
( )가  
.  
' ,  
가 가  
( ' ; ' ), ' ( ' )  
가  
.

(  
).  
\_\_\_\_\_  
(  
\_\_\_\_\_  
(  
\_\_\_\_\_  
( 가  
).  
~ ~ '  
~ ( ), ~ ( )' .

?( ? )  
? : ( ?  
).  
.  
( )

36)

가 (大屈山)  
가  
“  
가  
.”

36) : ' , (1989). 62~63 . 4 “ ” ,  
1942 7

- 37) 가 . “  
 ? ”  
 가  
 .  
 “ ”  
 “ 가 가? ”  
 . “ 38) ”  
 가  
 가  
 가 가  
 . 가 가 39) 가  
 가 가  
 가  
 가  
 가 40)  
 41) .

## 2. 가.

- 42) \* :  
 43)  
 44)  
 45)

---

37) : ‘ ’ ( , , )

38) :

39) 가 : 가 , 가

40) :

41) : ,

42) :

43) : ,

44) : 가

45) :

46)

47)

48)

49)

50)

51)

■      •

\*      :

가

52)

가 53)

가

가

가

46) :

47) :

48) (無市 -):

, . = .

49) :

50) :

51) :

52) :

53) 가 : 1. 가 ' ( , ). 2. 가 ' ( , ).



- 
- 
- 
- 
- 1) \* :
- 54) 가 55) 가
- 가
- (能楫) 56)
- ?
- ,
- 가
- 가
- 57)
- 58)
- (能楫).....
- 2) 가 \* :
- 가 —,
- 가

---

54) :

55) 가 : 가

56) :

57) :

58) : . \* :

,

59)

가

,

가

가 가

,

,

가

가 ,

가

,

### 3. ( )

1)

\*

: 1916

.

(透明)

가

60)

.....

가

가

(黃土)

가

2)

\* :

( )

61)

62)

63)

64)

가<sup>65)</sup>

66)

! ,

?<sup>67)</sup>

가

68)

69)

?

60) :

61) :

62) : . .

63) :

64) :

65) 가: 가

66) : .

67) : , 가

68) 가 : 가 ( )

69) :

東 教

70)

71)

(內外) 72)

가 73)

가 74)

가 75)

李門 , 76)

가 77) 78) 79)

가

? 80)

81) ?

辛巳生 82)

? 83)

84)

, 85)

가 86)

- 
- 70) :
- 71) :
- 72) (內外) : ( )
- 73) :
- 74) :
- 75) :
- 76) : ( )
- 77) 가 : 가
- 78) :
- 79) :
- 80) :
- 81) : 1. . 2. .
- 82) 辛巳生 : 辛巳生 . ( ) 辛巳生 .
- 83) :
- 84) : .
- 85) :
- 86) : . 가 ( ) .

婚 87) 88)

89)

가 90)

3) \* :

가

---

87) 婚 : .  
 88) : ( ).  
 89) : ( )  
 90) 가 : 가 .

## 4. ( )

1) \* :

91)

가

가

92)

93)

94)

.....

95)

96)

97)

98)

99)

2) \* : , ,  
가

91) :

92) :

93) :

94) : 가 . \* :

95) :

96) :

97) :

98) :

99) :

가

, , .....

가

가

.

## 5.

\* :

100)

101)

가

102)

가

103)

가

가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00) :

101) :

102) :

103) : ( )

104) : ,

105) :

106) :

107) : ,

108) :

109) :

110) (車部):

111) :

- 112)            113)
- 114)                            115)
- 116)            117)            118)
- 119)            가                            120)
- 121)                            122)
- 123)    124)
- 125)            126)            127)
- 128)
- 129)            가
- 130)                            131)

- 
- 112) : ,
- 113) :
- 114) : ,
- 115) :
- 116) :
- 117) :
- 118) :
- 119) :
- 120) :
- 121) :
- 122) :
- 123) : ,
- 124) :
- 125) :
- 126) :
- 127) : .
- 128) :
- 129) :
- 130) :
- 131) :



# 국어사전과 국어 정보 활용법

이 현 주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 국어사전과 국어 정보 활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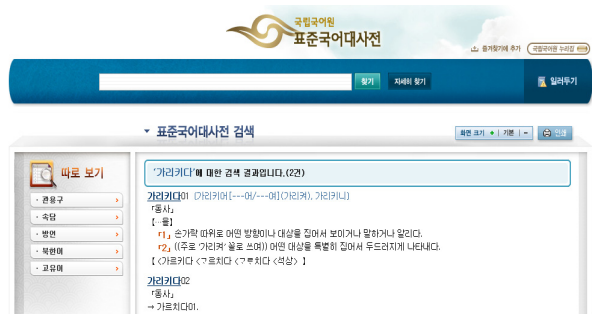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민의 국어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결과물인 다양한 국어 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어 정보를 소개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 1.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들어오면 정면에 국어사전 검색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1999년에 표제어·뜻풀이·용례 등 모든 부문에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규범을 적용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을 만들었다. 이 사전은 총 3권의 종이 사전으로 출간되었으며 2001년에는 컴퓨터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사전(CD 형태)으로 보급되었다. 그리고 사전의 오류를 수정하고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2008년에 사전을 개정하였는데, 이것이 지금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제공되고 있는 사전이다.

### 1.1 사전 정보

사전에는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단어에 대한 여러 정보가 실려 있다. ‘가리키다’를 예로 들어 사전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검색 칸에 ‘가리키다’를 넣고 ‘검색’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가리키다’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물건을 가리키다’와 관련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가르치다’



와 관련이 있다. 이 둘은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달라 01과 02로 나뉜 것이다.

‘가리키다02’는 뜻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가르치다01.”로 되어 있다. 이는 ‘가리키다02’는 ‘가르치다01’로 가라는 뜻으로, ‘학생을 가리키는 선생님’과 같이 쓰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다음으로 ‘가리키다01’을 통해 사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살펴보자.

**가리키다** 발음 듣기 발음

활용 정보: [가리키어[---머/---며](가리켜), 가리키니] 활용 ▶ 목록 보기

**「동사」** 품사 뜻풀이

【…을】 문형 용례

1. 손가락으로 북쪽을 가리켰다./시곱바늘이 이미 오후 네 시를 가리키고 있었다./나는 형사에게 뒷덜미를 잡힌 채 막사 안을 둘러다보며 자고 있는 두 사람을 가리켜 주었다. <한수산, 유민>

2. ((주로 가리켜 ‘꼴로 쓰여’) 어떤 대상을 특별히 집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1) 모두들 그 아이를 가리켜 신동이 낫다고 했다./사람들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 그를 가리켜 현대판 홍길동이라고 했다.

【<가리키다> <가르치다> <가르치다> <석상>】 어원

- 1) 발음: 단어의 발음을 알려 준다. ‘가리키다’ 옆에 ‘발음 듣기’를 누르면 그 단어의 발음을 들을 수 있다. 이 ‘발음 듣기’ 정보가 모두 제공되는 것은 아니나, 표기와 발음이 다를 경우 단어 옆에 발음을 제시해 두었다.

안다01 [안 : 따] / 찾다[찾따]

- 2) 활용 정보: 동사나 형용사에 어미가 연결되면 모습이나 발음이 바뀌는데, 이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사전에서는 ‘가리키다’의 어간에 ‘-어’가 연결되면 ‘가리키어’가 되고 이것이 ‘가리켜’로 된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리고 ‘가리키어’가 [가리키어]나 [가리키여]로 소리가 난다는 것도 알려 준다. 이와 달리 명사 뒤에 조사가 연결될 때도 소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활용 정보에서 알려 준다.

꽃01 [꽃이[꼬치], 꽃만[꼐만]]

- 3) 품사: 단어의 품사(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등)가 무엇인지 알려 준다. ‘가리키다’의 품사는 ‘동사’임을 알 수 있다.
- 4) 문형: 단어가 동사나 형용사일 때 어떤 문장 성분과 함께 쓰이는지 알려 준다. ‘가리키다’의 경우 ‘북쪽을 가리키다, 네 시를 가리키다, 사람을 가리키다’ 등과 같이 반드시 ‘~을’과 함께 쓰이므로, 문형 정보에서 【…을】을 제시하고 있다.
- 5) 뜻풀이와 용례: 사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단어의 뜻과 그 용례를 알려 준다.

다. 실례 뒤에는 그 출전을 밝혔다.

- 6) 어원: 단어가 15~17세기 문헌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알려 준다. 최초로 나타난 형태를 제시하며 그 형태가 바뀌면 함께 제시한다. ‘가리키다’는 “석보상절”에서 ‘ㄹ키다’로 처음 나타났으며, ‘ㄹ키다’가 ‘ㄹ치다’를 거쳐 ‘가르키다’로 형태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1.2. 사전 검색 방법

누리집에서는 ‘?’(물음표)와 ‘\*’(별표)를 이용하면 단어를 찾을 때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물음표)는 해당 글자를 모를 때 사용할 수 있다. 글자 한 자를 모르면 ‘?’, 글자 두 자를 모르면 ‘??’, 글자 세 자를 모르면 ‘???’처럼 글자 수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와 달리 ‘\*’(별표)는 글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단어들을 찾아준다. 만약 ‘인사말’인지 ‘인삿말’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인?말’로 검색하면 알 수 있다. 만약 ‘인\*말’로 검색하면 ‘인’으로 시작하고 ‘말’로 끝나는 모든 단어를 검색한다. 참고로 ‘?’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나 ‘\*’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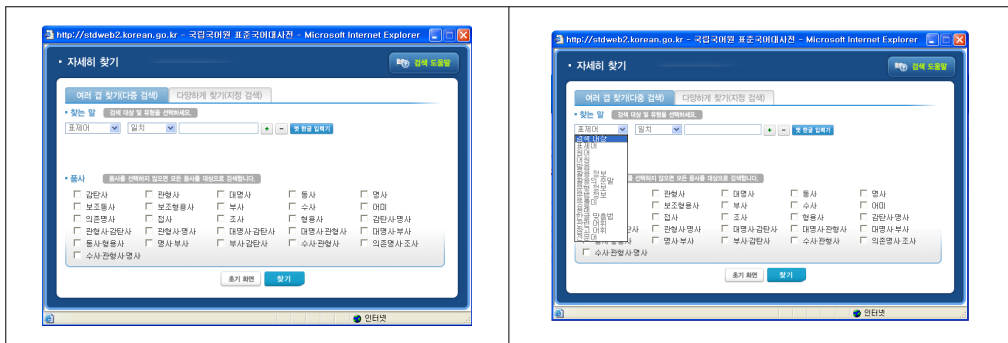
‘인?말’ 검색 결과	‘인*말’ 검색 결과
<div data-bbox="235 1058 554 1097">‘인?말’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2건)</div> <div data-bbox="235 1107 511 1234"> <p><b>인사-말</b>(人事-)</p> <p>「명사」</p> <p>인사로 하는 말. 또는 인사를 차려 하는 말.</p> <p><b>인삿-말</b>(人事-)</p> <p>「명사」</p> <p>→ 인사말.</p> </div>	<div data-bbox="678 1009 1182 1029">‘인*말’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6건)</div> <div data-bbox="678 1034 1182 1283"> <p><b>인말</b>(人末)</p> <p>「대명사」</p> <p>주로 편지글에서, 말하는 이가 이질(他族)이나 처조카에게 자기를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누인하(奴下).</p> <p><b>인말</b>(人末)</p> <p>「명사」, 「민족」</p> <p>인사(寅時)의 끝 무렵.</p> <p><b>인사-말</b>(人事-)</p> <p>「명사」</p> <p>인사로 하는 말. 또는 인사를 차려 하는 말.</p> <p><b>인삿-말</b>(人事-)</p> <p>「명사」</p> <p>→ 인사말.</p> <p><b>인종지말</b>(人種之末)</p> <p>「명사」</p> <p>사람의 씨 가운데 가장 늦은 것이라는 뜻으로, 태어나 형질이 사람답지 않고 막힌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p> <p><b>인중지말</b>(人中之末)</p> <p>「명사」</p> <p>사람 가운데 형질이나 인품이 제일 못한 사람.</p> </div>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관용구와 속담, 방언 등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속담은 일반적으로 그 속담의 첫 단어를 알아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속담의 일부분만 알아도 찾을 수 있도록 속담 검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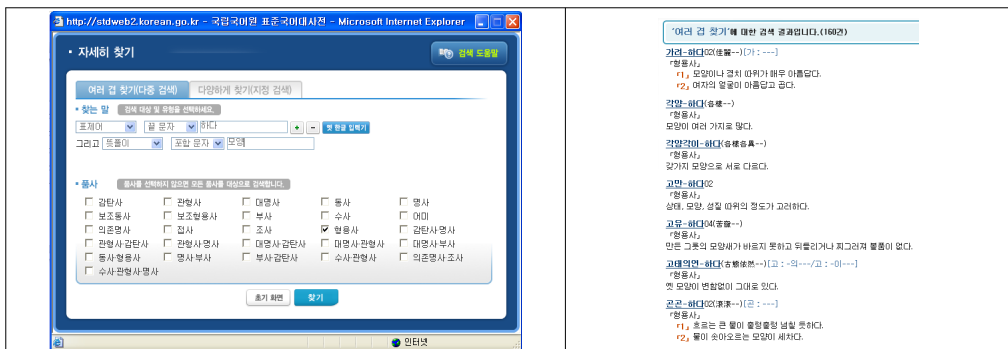
사전 화면 왼쪽에 ‘파로 보기’ 아래에 ‘관용구, 속담, 방언, 북한어, 고유어’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속담’을 누르면 속담을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표제어’에 ‘포함 문자’를 선택하고 찾고자 하는 단어를 넣으면 그 단어가 포함된 모든 속담을 찾아 준다. 다음은 ‘말’이 들어간 속담을 검색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용구’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화면으로 들어오면 검색 칸 옆에 ‘찾기’ 단추 외에 ‘자세히 찾기’ 단추가 있다. ‘자세히 찾기’란 검색 대상을 달리하거나 검색 조건을 세분하여 검색하는 기능으로, 이것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세히 찾기’는 표제어뿐만 아니라 원어, 발음, 뜻풀이, 용례 등도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검색 조건도 하나 이상 줄 수 있다. 가령 ‘하다’로 끝나는 형용사 중에서 뜻풀이에 ‘모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을 검색할 수 있다.





‘어문 규정’에는 각 어문 규정이 그대로 제시되어 있다. 가령 ‘한글 맞춤법’의 ‘제6절 겹쳐 나는 소리’를 누르면 ‘겹쳐 나는 소리’와 관련된 조항인 제13항이 나온다. 그런데 조항을 보면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알 수 있으나, 왜 그렇게 쓰는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조항마다 ‘해설’을 함께 제공한다. 조항 아래에 있는 ‘해설 보기’를 누르면 왜 그렇게 쓰는지 그와 비슷한 다른 단어는 어떻게 쓰는지 설명되어 있다.

## 한글 맞춤법

첫 화면 > 찾기 마당 > 어문 규정 > 한글 맞춤법

###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특히 보기

자음 단소리    자음 구개음화    자음 'ㄴ' 발음소리    자음 모음    자음 두음 법칙    **자음 겹쳐 나는 소리**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에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배임.)

ㄱ	ㄴ	ㄱ	ㄴ
막막	막막	꽃꽃하다	꽃꽃하다
책책	책책	놓놓하다	놓놓하다
씩씩	씩씩	눅눅하다	눅눅하다
똑똑똑똑	똑똑똑똑	잇잇하다	잇잇하다
씩씩씩씩	씩씩씩씩	착착하다	착착하다
연연불망(戀戀不忘)	연연불망	잡잡하다	잡잡하다
유유상종(優優相宗)	유유상종	습습하다	습습하다
누누이(累累)	누루이	잡잡하다	잡잡하다

해설 보기

## 한글 맞춤법

첫 화면 > 찾기 마당 > 어문 규정 > 한글 맞춤법

###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특히 보기

자음 단소리    자음 구개음화    자음 'ㄴ' 발음소리    자음 모음    자음 두음 법칙    **자음 겹쳐 나는 소리**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에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배임.)

ㄱ	ㄴ	ㄱ	ㄴ
막막	막막	꽃꽃하다	꽃꽃하다
책책	책책	놓놓하다	놓놓하다
씩씩	씩씩	눅눅하다	눅눅하다
똑똑똑똑	똑똑똑똑	잇잇하다	잇잇하다
씩씩씩씩	씩씩씩씩	착착하다	착착하다
연연불망(戀戀不忘)	연연불망	잡잡하다	잡잡하다
유유상종(優優相宗)	유유상종	습습하다	습습하다
누누이(累累)	누루이	잡잡하다	잡잡하다

해설 보기

‘막막’, ‘책책’ 등은 의성에 ‘막’, ‘책’이 겹쳐진 형태(疊聲)이다. 한자어 연연(戀戀), 유유(優優), 누누(累累) 등도疊聲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 그런데 ‘꽃꽃하다’, ‘놓놓하다’ 등에서와 ‘꽃’, ‘놓’ 따위는 연미적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성격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양쪽) 형식어와 오른쪽 형식어) 유방이 마찬가지로 동일 음절, 혹은 유사 음절이 겹쳐지는 형식이므로 본 항에서 함께 다루었다.

다음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는 제13항 본문 1 규정을 적용하면 ‘연연(戀戀)’, ‘유유(優優)’, ‘누누(累累)’로 적을 것이지만, 사립들의 발음 형식이 [매 : 난-], [유유-], [누 : 누-]로 발음되는 것이므로 관용 형식을 취하여 ‘연연-’, ‘유유-’, ‘누누-’로 적기로 한 것이다. 이런 예로 ‘노노법사(老老法師)’, ‘요요무론(孝孝無論)’, ‘요요(孝孝)’도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는 (제2 음절 이하에서) 본문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남남(孌孌)하다	방방(茫茫)하다	독독(蝸蝸)하다
능능(濘濘)하다	연년생(年年生)	연년불망(念念不忘)
역역(歷歷)하다	안안(寢寢)하다	적적(寂寂)하다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이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규정을 찾아 직접 표기해 볼 수도 있지만 ‘용례 찾기’를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외래어 표기법’의 ‘용례 찾기’를 누르고 검색 칸에 원어나 한글 표기를 넣고 ‘찾기’를 누르면 원어의 바른 한글 표기를 알려 준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역시 ‘용례 찾기’를 누르고 검색 칸에 로마자로 표기하고 싶은 말을 넣으면 그 말을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하는지 알려 준다.

## 외래어 표기법

첫 화면 > 찾기마당 > 어문, 용어 정보 > 외래어 표기법

용례 찾기

규정 보기

전체

보기

검색결과

정부정보공개에 참여정보담당관

검색결과: 49651건

입력순

가나다순

번호	원어 표기	한글 표기
49651	Torres (Casanova), Sandra	토레스 (카사노바), 산드라
49650	Kirch, Leo	카르히, 레오
49649	Chávez (Frias), Adán	차베스 (프리아스), 아단
49648	朱民(Zhū Mǐn)	주민
49647	Swayze, Patrick (Wayne)	스웨이지, 패트릭 (웨인)
49646	Sandberg, Sheryl	산드버그, 셰릴
49645	Mujawar, Ali Muhammad (통용 로마자: Ali Muhammad) 아랍 어명: علي محمد المجاور	무자위르, 알리 무함마드
49644	Murray, Douglas	마리, 더글러스
49643	Murdoch, James (Rupert Jacob)	머독, 제임스 (루퍼트 제이콥)
49642	Niemi, Lisa	니에미, 리사

## 로마자 표기법

첫 화면 > 찾기마당 > 어문, 용어 정보 > 로마자 표기법

용례 찾기

규정 보기

전체

보기

번호	우리말	로마자 표기
12803	가경동	Gagyeong-dong(O) Kagyeong-dong(X) Gakyeong-dong(X)
12802	가계 해수욕장	Gagye beach(O) Kagye beach(X)
12801	가계	Gagye(O) Kakyae(X) Kagye(X)
12800	가곡	gagok(O) Gagok(X) kagok(X) kakok(X)
12799	가곡동	Gagok-dong(O) Kagok-dong(X) Gakok-dong(X) Kakok-dong(X)
12798	가곡면	Gagok-myeon(O) Kagok-myeon(X) Gakok-myeon(X) Kakok-myeon(X)
12797	가곡비	Gagyobi(O) Gakyobi(X) Kagyobi(X) Kakyobi(X)
12796	가금면	Gageum-myeon(O) Kageum-myeon(X) Gakeum-myeon(X) Kageum-myeon(X)
12795	가나안	Ganaan(O), Kanaan(X)
12794	가남면	Ganam-myeon(O) Kanam-myeon(X) Kanam-myeon(X)



### 3.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온라인 가나다)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이란 어문 규범이나 어법, 국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문의하는 곳이다. 가령 ‘가십시오’가 맞는지 ‘가십시요’가 맞는지 궁금할 때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온라인 가나다)’에 질문을 남기면 다음날까지 답변을 들 수 있다.

이곳에서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검색할 수도 있다. 화면 윗부분에 있는 검색 칸에서 ‘질문 제목’이나 ‘질문 내용’을 설정한 후에 ‘가십시오’나 ‘가십시요’를 넣고 검색하면 ‘가십시오/가십시요’와 관련이 있는 질문들이 검색된다.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답인지 알 수 있다.

②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온라인 가나다) [첫화면](#) > [문의응답](#) >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온라인 가나다)

이곳은 주로 규범이나 어법,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 등에 대하여 문의하는 곳입니다.  
간단한 사항은 가나다 전화 1599-9979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두 단어 조합 검색 방법 : 단어와 단어 사이에 AND 를 삽입( 예 : 가 AND 나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자료 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	바른표기	박가영	2010.02.08.	17
※댓글	가십시오, 오십시오	온라인가나다	2010.02.09.	17
3	문의드립니다.	박희숙	2008.12.26.	19
※댓글	-십시오 (맞춤법)	이수연	2008.12.29.	19
2	안녕히 가십시오/시요	이강길	2008.02.25.	116
※댓글	-십시오 (맞춤법)	임현열	2008.02.26.	116
1	종결형어미에 ‘-요’ 사용을 허용합니까?	홍미균	2007.12.20.	187
※댓글	안녕히 가십시오. (맞춤법)	국립국어원	2007.12.21.	187

<< [처음](#) < [이전](#) | [다음](#) > 끝 >>

---

**답변 제목: 가십시오, 오십시오**

**작성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자** 2010.02.09.

안녕하십니까?  
정중한 명령이나 권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는 “-십시오”이므로, ‘가다, 오다’의 어간 ‘가-, 오-’ 뒤에 “-십시오”를 붙여 ‘가십시오, 오십시오’와 같이 적습니다. 종결 어미 “-셔요”는 상대방을 보듬으로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형으로, 형자에 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대방에게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질문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안 남기고 직접 전화를 해도 된다. 국립국어원은 ‘가나다 전화(1599-9979)’라는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가나다 전화로 전화해서 국어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 보면 상담원이 바로 답을 알려 준다.

그리고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에 들어오는 질문 중 자주 나오는 질문 300여 개를 모아 ‘자주 나오는 질문’에 정리해 놓았다. ‘자주 나오는 질문’에는 ‘로써’와 ‘로써’의 차이, ‘들려서/들러서’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있음/있슴’ 중 어느 것이 맞는지부터 부고하는 요령이나 단자 쓰는 법, 세배 인사법 등 국어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제시되어 있다.

## 자주 나오는 질문

첫화면 &gt; 길의종말 &gt; 자주 나오는 질문

공공해신 단어를 검색하면 입력하신 단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리집 이용에 관련된 내용은 **누리집 이용 안내** 를 이용해 주세요

번호	원부	제목	작성일	조회
9		'로서'와 '로써'의 차이	2000.05.31.	14371
8		'참구'와 '참거'의 차이	2000.05.31.	10682
7		'고마워요'와 '고맙습니다'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0.05.29.	12840
6		'있음'과 '있습'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0.05.29.	15871
5		'은색'과 '은색'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0.05.29.	12953
4		'꺼내들기'와 '꺼내들' 중 맞는 표기는?	2000.05.29.	14443
3		슈퍼맨은 '날으는' 것입니까, '나는' 것입니까?	2000.05.29.	13658
2		'남'과 '남'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0.05.29.	15889
1		'너머'와 '넘어'는 어떻게 다릅니까?	2000.05.29.	24738

&lt;&lt; 처음 &lt; 이전 41 42 43 다음 &gt; 끝 &gt;&gt;

## 자주 나오는 질문

첫화면 &gt; 길의종말 &gt; 자주 나오는 질문

공공해신 단어를 검색하면 입력하신 단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리집 이용에 관련된 내용은 **누리집 이용 안내** 를 이용해 주세요

번호	원부	제목	작성일	조회
429		부고하는 요일	2000.01.21.	6653
428		만지 병투 쓰는 법 ①	2000.01.21.	4790
427		질문 칸치의 속먹을 병투와 단자	2000.01.21.	2642
426		조식금 병투와 단자	2000.01.21.	3073
425		만지 병투 쓰는 법 ②	2000.01.21.	2480
424		만지 병투 쓰는 법 ③	2000.01.21.	3061
423		물상 깃들 때 인사말	2000.01.21.	5508
422		장년 퇴원 때 인사말	2000.01.21.	3189
421		병문안 깃들 때 인사말	2000.01.21.	4461
420		복음세배	2000.01.21.	2694

&lt;&lt; 처음 &lt;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gt; 끝 &gt;&gt;

## 4. 공공 언어 지원

## 4.1. 순화어와 '우리말 다듬기'

지나치게 어려운 말이나 비규범적인 말, 외래어 따위를 알기 쉽고 규범적인 상태로 또는 고유어로 바꾸어 쓰도록 권하고 있는데, 이를 '순화어'라고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러한 순화어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첫 화면의 '찾기 마당'을 누른 후에 '어휘-용어 정보'에서 '순화어'로 들어오면 된다.

순화어 자료 역시 검색이 가능하다. 가령 순화 대상어로 '나시'를 찾으면 '나시, 소테나시, 에리나시' 등이 검색된다. '나시'에 들어가면 'X'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순화한 용어만 쓸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즉 '나시', '소테나시'를 쓰지 말고 '민소매'를 써야 한다는 뜻이다.

## 순화어

첫화면 &gt; 찾기마당 &gt; 어휘,용어정보 &gt; 순화어

1991년 순화자료집(1977~1991 종말)부터 2002년 순화자료집까지 21,000여 개의 순화어를 종합한 **국어 순화 자료집** **집본**(2003년)과 2005년부터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통해 순화한 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번호	순화 대상어	원어	순화어	권장
4	나시	← せやなし말..	민소매	
3	소테나시	袖なし, せやなし..	민소매(笑)	
2	에리나시	裸なし	민것	
1	에리나시	裸なし, えりなし말..	민것	

&lt;&lt; 처음 &lt; 이전 1 다음 &gt; 끝 &gt;&gt;

## 나시

순 화 어: 민소매

원 어: ← せやなし말

순 화 정 도: X : 순화한 용어만 쓸 것

의 미/용 레: 패션 디자인

비 고: 국면1999(고시)

순화어에는 '나시'처럼 순화한 용어만 쓰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순화한 용어를 쓰도록 권장하는 것과 둘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다.

가드	
순 화 매:	수비수
원 매:	guard
순 화 정 도:	→ :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를 쓸 것
의 미/용 례:	운동경기(핸드볼)
비 고:	국연2001

가세	
순 화 매:	집안 형편
원 매:	家勢
순 화 정 도:	○ : 순화 대상 용어와 순화한 용어를 모두 쓸 수 있음
의 미/용 례:	행정
비 고:	국연1992

최근 인터넷에 오르는 글이나 신문 기사를 보면 외래어가 부적 많이 사용되고 있다. ‘모럴 해저드, 폴 옵션, 시스루, 플래스몰’ 등등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렵다.

어떻게 바꿨어요?					
번호	제목	수정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50	해터마크(watermark)는 '식별무늬'로	3	우민정	2013-11-04	17393
349	'스밍(sming)'은 '명지공용사기'로	1	우민정	2013-11-04	17429
347	'임링(limring)'은 '시범공용사기'로	0	우민정	2013-11-04	17441
346	'임링(limring)'은 '간지공용사기'로	12	우민정	2013-11-04	17448
345	한투라드(hantulard)는 '문신사'로	2	우민정	2013-10-07	38553
344	엔탈라드(entallard)는 '선물공용사기'로	2	우민정	2013-10-07	38594
343	엔탈라드엔탈라드(entallard instructor)는 '엔탈라드엔탈라드'로	1	우민정	2013-10-07	40016
342	엔탈라드엔탈라드(entallard planner)는 '엔탈라드엔탈라드'로	3	우민정	2013-10-07	40026
341	'시즌오조(season off)'는 '계절다' 또는 '계절다'로	1	우민정	2013-09-03	53802
340	'홈 플러스(home plus one)'는 '엔탈라드'로	0	우민정	2013-09-03	53805

‘우리말 다듬기(<http://malteo.korean.go.kr>)’에서는 어려운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일과 바꾼 단어를 알리는 일을 한다. 이곳에서는 다듬고 싶은 말을 건의할 수도 있고, 바꿀 단어를 제안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듬을 말을 정할 때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 4.2. 공공언어 지원 요청

국립국어원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 기관이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책 용어와 문장을 쓸 수 있도록 ‘공공언어 지원’이라는 누리집을 만들었다. 이 누리집에서 ‘공공언어 지원’을 요청하면 각 기관에서 다듬고 싶은 말이나 문장을 다듬어 준다.

공공언어 지원 누리집([www.korean.go.kr/publang](http://www.korean.go.kr/publang))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질의응답’ 아래에 있으며, 첫 화면 오른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



공공언어 지원을 받고 싶으면 ‘공공언어 다듬기 지원 요청’에 들어와 요청 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이 공공 언어 지원 사업은 공공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지원 요청 시 신청인이 공공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인지 실명 확인을 한다.

실명 확인을 한 후에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가 ‘날말’인지 ‘문장’인지 선택하면 된다. 행정 용어나 정책 용어 순화를 원하면 화면의 요청 서식을 내려받아 서식대로 작성하면 되고, 문장의 교열이나 교정을 받고자 하면 작성한 문장을 파일로 올리면 된다.



## 5. 강의 지원

### 5.1.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에서는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여 국민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어문화학교(<http://edu.korean.go.kr>)’를 운영하고 있다.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시행(2005. 7. 28.)으로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업체 등 공공 기관 종사자의 국어 재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커져 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국어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에서 교육 신청을 하면 국어 전문 강사가 요청 기관에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성인 30명 이상이 모여 2시간가량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중앙 부처나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군 부대 등 어떤 기관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강의료, 강사 여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국립국어원이 모두 부담한다.

## 5.2. 온라인 강의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는 어문 규정을 직접 볼 수도 있지만 그것과 관련된 온라인 강의도 들을 수 있다. ‘배움 마당’의 ‘온라인 강의’로 들어오면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한글 맞춤법’ 과목은 말 그대로 어문 규정 중 ‘한글 맞춤법’ 규정을 알려 주는 강의이다. 어문 규정 조항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궁금했던 예들로 수업을 진행해 한글 맞춤법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다.

### 온라인 강의

첫화면 > 배움 마당 > 국어문화 학교 > 온라인 강의

번호	제목	작성일
4	공문서 바로 쓰기	2010-06-21
3	외국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외식 개선과 국어 순화	2010-06-21
2	새터민 발음 교육	2010-01-31
1	한글 맞춤법	2009-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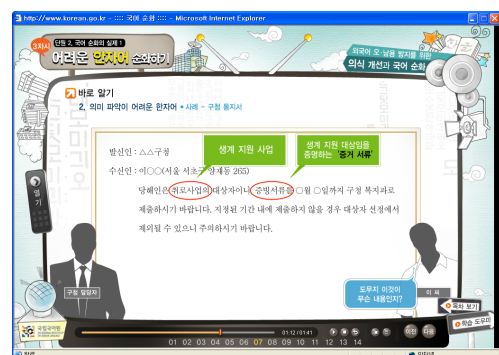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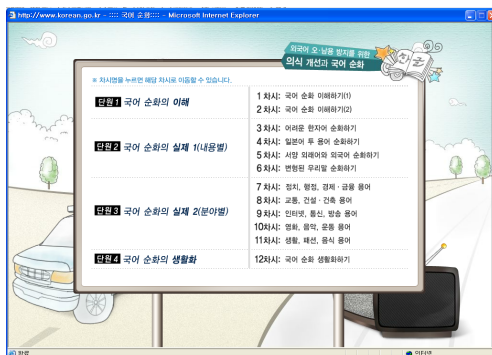
<< 처음 > 이전 1 다음 >>



‘새터민 발음 교육’은 새터민을 위한 온라인 강의이다. 새터민의 발음과 억양은 남한 사람들과 좀 차이가 있다. 이것을 고치고 싶어하는 새터민을 위해 다른 발음이나 억양을 중심으로 발음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신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발음을 녹음해서 들어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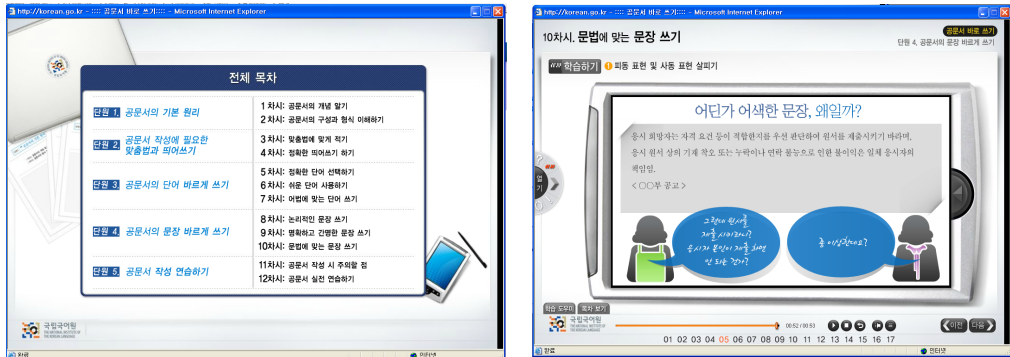


세 번째는 ‘외국어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의식 개선과 국어 순화’ 강의는 국어 순화와 관련된 강의이다. 국어 순화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 주고,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용어, 어려운 행정 용어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도 함께 공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문서 바로 쓰기’는 공문서를 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강의이다. 공문서를 쓸 때 필요한 어문 규정뿐만 아니라 어휘나 문장을 바르게 쓰는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다. 실제 공문서의 예를 들어 잘못된 곳을 찾고 고쳐 보기도 한다.



## 6. 디지털 한글 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한글 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글문화의 유산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덧붙인 디지털 전시관(한글의 탄생과 역사, 아름다운 한글, 생활 속 한글, 한글과 교육, 한글의 진화와 미래)을 운영하고 있다.



‘한글의 탄생과 역사’에서는 한글(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발전 과정을 상세히 보여 준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우리의 문자 생활에 대해서도 알려 주며, 세계 여러 문자의 역사도 소개한다.

‘아름다운 한글’에서는 글자의 모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한글의 자형의 변천 과정과 한글 글꼴 개발의 역사를 설명하고, 다양한 글꼴을 보여 준다. 그리고 글꼴 개발 산업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생활 속 한글’에서는 선조들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을 주제로 한 한글 관련 문헌을 전시한다. 특히 의식주와 관련된 한글 문헌과 사회상을 반영한 한글 문헌을 소개한다.

‘한글과 교육’에서는 한글을 빠르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어문 규범과 국어 교육 관련 자료를 전시한다. 어문 규정뿐만 아니라 국어 교과서, 국어 관련 교육 자료도 제공된다.

‘한글의 진화와 미래’에서는 한글의 모습과 사용 양상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여 준다. 한글의 세계화와 기계화, 국어 정보화 사업을 소개한다. 그리고 통일을 대비해 북한의 어문 규정을 소개하고 남북한 언어도 비교해 놓았다.

이 외에 ‘학술 정보관’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은 한글 관련 문헌들을 정리한 곳이다. 한글 관련 문헌을 정리하여 원문을 이미지로 제공하고 문헌에 대한 설명을 붙여 놓았다. 그리고 한글 문헌의 이본 및 소장처 정보, 영인본, 역주서, 연구 논저 정보뿐만 아니라 문헌 원문 이미지와 원문 입력 자료까지 검색할 수 있는 ‘한글 문헌 통합 정보’를 운영하고 있다.

## 7.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를 국외에 보급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자 한국어 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교사 연수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원 관리에도 힘쓰고 있으며, 다양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 ‘배움 마당’의 ‘한국어 교육’에 들어오면 다양한 한국어 교재를 내려받을 수 있다.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 기본 교재’, ‘이주민을 위한 교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마디’로 나뉜다. 한국어 교사이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건

이주민을 위한 교재	한국어 기본 교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마디
<b>1. 대성결혼대인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4</b> ▶ 대성결혼대인자가 한국어 학습을 통해 기초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 주인공 수간의 가족과 세 명의 대성결혼대인자, 아홉이 주인공들로 등장하며,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제와 상황을 사용하여 구성		
 한국어 1 발행하는 한국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판 교재  전자책 보기</li> <li>음성 자료 (MP3)  내려받기 (553)</li> </ul>	
 한국어 2 발행하는 한국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판 교재  전자책 보기</li> <li>음성 자료 (MP3)  내려받기 (231)</li> </ul>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이면 모두 교재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외에도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를 얻고 싶으면 ‘세종학당재단(www.ksif.or.kr)’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다. ‘세종학당재단’은 국외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을 지정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 8. 국립국어원 자료실

국립국어원 자료실에서는 국립국어원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간행된 연구 보고서뿐만 아니라 심의 결과나 우리말 순화 내용 등을 모두 제공한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 발간되는 정기 간행물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계간지인 ‘새국어생활’과 온라인 소식지인 ‘쉽표, 마침표’는 누리집에 공개될 뿐만 아니라 신청하면 전자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자료실**

- 연구 결과
  - 연구 보고서
  - 기타 자료
- 국어 정보화 자료
- 국어 논저
- 국어별 소장 도서
- 간행물 보기
- 국립국어원 관련 발간물 목록

**본내 자료실 이용안내** [\(새창 열기\)](#)

**기타자료** 찾아보기 > 자료실 > 기타 자료

입력항목 검색     
 찾은건수에 입력

번호	제목	문부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
330	소치 동계 올림픽 주요 경기(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		대중연구팀	2014-02-07	64
329	2013년 방송언어 조사 결과		관리자	2014-01-30	107
328	장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3년 39차 ...		대중연구팀	2013-12-27	94
327	제1회 국어순화정책 학술대회		관리자	2013-12-26	63
326	새종학 학술대회 - 세종 시대 과학 문명의 재조명		관리자	2013-12-26	35
325	장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3년 38차 ...		대중연구팀	2013-12-21	74
324	장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3년 37차 ...		대중연구팀	2013-12-14	58
323	장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3년 36차 ...		대중연구팀	2013-11-29	67
322	장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3년 35차 ...		대중연구팀	2013-11-22	62
321	외래어 표기 용어 자료 - 중국 연명과 지명		대중연구팀	2013-11-20	330

**국어원 소식지**

제 99호  
쉽표, 마침표.

**정기 간행물**

24권 제 3호(가을)  
새국어생활

**국어 연감**

2012년  
국어 연감



# 외래어 표기법

정 희 원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진흥과장)





## 외래어 표기법



### 1. 외래어 표기법의 필요성

외래어는 다른 나라 말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말소리가 우리말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런 말들을 일정한 규칙 없이 제각각 적도록 놓아둔다면 언어생활이 혼란해질 것이다. internet이란 낱말을 예로 들어 보자. 사람에 따라 ‘인터넷, 인터네트, 인터넬’ 등으로 달리 표기하게 될 것이고, 같은 개념을 지시하는 말이 표기가 이렇게 각각이라면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외래어 표기법’은 이렇게 다양한 어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외래어에 대해 표준 표기를 정해 주기 위한 규칙이다.

그런데 간혹 외래어 표기법을 외국어 교육과 연관 지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외래어 표기법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어 발음이 형편 없다는 것이다. [p]와 [f] 소리를 똑같이 ‘표’로 적거나, [l]과 [r] 소리를 똑같이 ‘르’로 적도록 하는 외래어 표기법 탓에 한국 사람들이 이 소리들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대개 한글 자모를 변형하여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f] 소리는 ‘표ㅎ’이나 ‘퐁’, [l] 소리는 ‘르르’ 같이 표기하자는 것이다.

외래어를 원음에 가깝게 적기 위해 새로운 부호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외래어 표기법의 목적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다. 외래어 표기의 목적은 국어 생활 속에 사용되는 외래어들을 통일된 방식으로 적기 위한 것이지, 외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영어에서 [kɔːfɪ]로 발음되는 단어를 ‘커피’, ‘코피’, ‘코오휘’ 등 제각각으로 적지 말고 ‘커피’라는 한 가지 형태로 고정하여 적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 표준 표기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외국어를 말할 때에도 그대로 발음하라는 것은 아니다.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한글로 적는 방식을 정해 놓은 규칙이다. 우리말을 적을 때에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기하듯이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항상 일정하게 적어야 한다.

## 2. 외래어 표기법의 제정 과정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1986년 1월 7일 문교부 고시 제85-11호로 고시한 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후, 외래어 표기법은 문화부 고시 제1992-31호(동구권 5개 언어), 문화 체육부 고시 제1995-8호(북구권 3개 언어),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1호(동남아시아 3개 언어)로 다시 고시되었으며, 2005년 12월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32호(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로 고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래어에 대한 표기 규정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서이다. 이는 조선어학회에서 1930년 12월 30일 조선어학회 총회 결의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한편으로 ‘들온말 적기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외래어 표기에 대해 조선어학회에서는 1931년부터 9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치며 계속 연구와 심의를 병행하였으며, 다시 2년의 시험 적용 기간을 거쳐 1940년 6월 총회에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확정하였다.

이후 문교부 학술용어제정위원회 제20분과 언어과학위원회에서 1948년에 ‘들온말 적기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문교부에서는 1956년 국어심위원회의 외래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로마자 한글화 방안을 연구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1958년 10월 20일에 문교부에서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을 공표하였다. 그 뒤 문교부는 외래어 표기의 세칙을 마련하고 1959년부터 1972년까지 편수 자료를 발간하였다.

그동안 외래어 표기법의 표준이 된 것은 1958년의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이었다. 이리고 이를 보완하여 1986년 1월 7일 문교부가 고시한 것이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근간이 된 것이다.

## 3.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제시되어 있는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제1장 제1항)
-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제1장 제2항)
-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제1장 제3항)
-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장 제4항)
-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제1장 제5항)

제1항은 외래어를 표기할 때 원음에 충실하게 적기 위하여 국어의 현용 24자모 외의 글자나 기호를 만들어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장모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자모 아닌 기호를 도입하거나, 국어에 없는 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퐁, 빙’을 사용하거나 ‘œ, œ̃’과 같은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제2항은 외래어의 음운과 국어의 자모를 일대일 대응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힌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 대 이 대응, 이 대 일 대응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영어의 [p]는 ‘퍼센트, 수프, 솥’과 같이 ‘ㅍ, 프, ㅍ’로 다양하게 적고, [r], [l]은 ‘리본, 레이스’와 같이 모두 ‘ㄹ’로 똑같이 적는다.

제3항은 국어의 표기 방법과 달리 7개의 받침으로만 표기한다는 뜻으로, 이 규정에 따라서 ‘coffee shop’은 ‘커피숍’으로, ‘internet’은 ‘인터넷’으로, ‘stick’은 ‘스틱’으로 적는다.

제4항은 외래어 표기에서 파열음 된소리인 ‘ㅃ, ㅆ, 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영어의 무성 파열음은 된소리보다 거센소리에 가깝고 프랑스어나 일본어의 무성 파열음은 거센소리보다 된소리에 가깝지만, 외국어의 정확한 발음 전사는 불가능하므로 일관성과 간결성을 살려서 거센소리로 통일하여 적음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서 영어의 ‘game, dam, bus’는 ‘게임, 댐, 버스’가 아니라 ‘게임, 댐, 버스’로, 프랑스어의 ‘café, latte, Paris’는 ‘까페, 라페, 빠리’가 아니라 ‘카페, 라테, 파리’로 적는다.

제5항은 이미 언중들이 오랫동안 사용하여 굳어진 외래어는 표기법에 맞지 않아도 관용을 존중하여 사용한다는 뜻이다. ‘camera[kæməɾə]’를 ‘캐머리’가 아니라 ‘카메라’로, ‘radio[reidiou]’를 ‘레이디오’가 아니라 ‘라디오’로, ‘system[sistəm]’을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적는 것이 그 예이다.

## 4. 외래어 익히기

### 4.1. 자음의 표기

- (1) ㄱ. 카페/\*까페, 파리/\*빠리, 버스/\*빠스
  - ㄴ. 시스템/\*씨스템, 센터/\*센터, 취리히/\*쥘리히
  - ㄷ. 마오쩌둥, 쑨원
  - ㄹ. 빵, 껌, 히로뽕, 빠라
  - ㅁ. 빠따니(타이 지명), 푸껫(타이 지명), 호찌민(베트남 인명, 지명)

우리말의 파열음은 소리 특징에 따라 예사소리(ㄱ, ㄷ, ㅂ), 거센소리(ㅋ, ㅌ, ㅍ), 된소리(ㅃ, ㅆ, ㅉ)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영어나 일본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어에는 유성음(b, d, g)과 무성음(p, t, k) 두 가지 구분만 있다.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유성 파열음은 예사소리에, 무성 파열음은 거센소리에 각각 대응시키고, 된소리는 쓰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어의 [k, t, p] 소리는 ‘ㄱ, ㅌ, ㅍ’으로, [g, d, b] 소리는 ‘ㄱ, ㄷ, ㅂ’으로 적는다. 따라서 (ㄱ)에서 ‘\*까페, \*빠리, \*빠스’와 같은 표기는 잘못된 것이고, ‘카페, 파리, 버스’ 등이 바른 표기이다.

파열음뿐만 아니라 마찰음(ㅅ, ㅆ)과 파찰음(ㅈ, ㅉ, ㅊ) 표기를 할 때에도 된소리 글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ㄴ)에서 ‘\*씨스템, \*쎌터, \*쥘리히’ 같은 표기는 잘못된 것이고, ‘시스템, 쎌터, 쥘리히’ 등이 바른 표기이다.

그렇지만, (ㄷ)에서 보듯이, 중국어 표기에는 ‘ㅆ’과 ‘ㅉ’을 사용한다. 또 된소리로 굳어진 몇몇 낱말들에는, (ㄹ)에서처럼, 된소리 표기를 허용한다. 그리고 자음에 3분 대립이 존재하는 타이 어와 베트남 어에는, (ㄹ)에서처럼, 파열음과 파찰음에 된소리 표기를 도입한다.

## (2) 커피숍/\*커피쑈, 디스켓/\*디스켈, 코너킥/\*코너킵

외래어를 적을 때에는 받침 글자로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일곱 가지만 쓸 수 있다. 외래어와 달리 고유어 표기에는 이런 제약이 없다. ‘잎, 꽃, 밭, 값’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고유어에 대해서는 겹자음을 포함한 모든 자음들이 받침으로 사용된다. 고유어를 표기할 때 ‘ㄷ, ㅈ, ㅊ, ㅋ, ㅌ, ㅍ, ㅎ’ 등을 받침으로 쓰는 이유는, 그것이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대표음으로 소리 나더라도 모음 앞에 올 때에는 그 음가(音價)대로 발음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즉 ‘잎’을 ‘입’으로 쓰지 않는 이유는 ‘잎이[이피]’, ‘잎을[이플]’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ㅍ’ 소리가 발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래어의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도 [커피쇼피], [디스케티], [코너키키]와 같이 발음하지 않고 항상 [커피쇼비], [디스케시], [코너키키]로 발음하므로 ‘커피쑈, 디스켈, 코너킥’으로 표기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커피숍, 디스켓, 코너킥’이 바른 표기이다.

## (3) ㄱ. 로봇/\*로보트, 카펫/\*카페트, 인터넷/\*인터넷

ㄴ. 테이프/\*테입/\*테잎, 케이크/\*케익/\*케익, 플루트/\*플룻/\*플룻

ㄷ. 매트리스/\*맷리스, 투르크메니스탄/\*투르크메니스탄

ㄹ. 넷/\*넛, 셋/\*셋/\*셀, 매트/\*맷

ㅁ. 블라디보스토크/\*블라디보스톡, 티베트/\*티벳, 아베크/\*아벵

무성 파열음 [p, t, k]가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올 때에는, (ㄱ)에서처럼, 어말이나 자음 앞 무성 파열음 바로 앞의 모음이 짧은 모음일 때에는 받침으로 적고, (ㄴ)에서처럼, 긴 모음이나 이중 모음일 경우에는 ‘ㅡ’를 받쳐 적는다. 그리고 (ㄷ)에서처럼,



바로 앞 모음이 짧은 모음이라도, 무성 파열음 뒤에 비음(m, n)이나 유음(r, l)이 있는 경우에는 ‘ㄴ’을 받쳐 적는다. 그러나 (ㄹ)에서처럼, 1음절어이면서 어말 무성 파열음 [t]로 끝나는 말은 그 앞 모음이 짧은 모음이라도 ‘ㄴ’을 받쳐 한 음절을 늘려 적는 경우가 많다. 한편, (ㄹ)에서처럼, 영어 이외 다른 언어에서 온 말의 경우는 어말 파열음을 무조건 파열시켜 ‘ㄴ’을 받쳐 적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로봇, 카펫, 인터넷, 테이프, 케이크, 플루트, 매트리스, 투르크메니스탄, 넷, 세트, 매트, 블라디보스토크, 티베트, 아베크’가 맞는 표기이다.

(4) ㄱ. 허브/\*헝, 개그/\*개

ㄴ. 핸드백/\*핸드배그, 웹/\*웹브

유성 파열음 [b, d, g]가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올 때에는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지 않고 항상 ‘으’를 붙여 적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ㄱ)에서는 ‘허브, 개그’가 바른 표기이다. 그러나 ‘백’, ‘웹’ 등 이미 굳어진 말들은 예외를 인정하여 유성 파열음을 받침으로 적는다. 따라서 (ㄴ)에서 맞는 표기는 ‘핸드백, 웹’이다.

(5) 파이팅/\*화이팅, 패밀리/\*웨미리, 프라이/\*후라이

[f] 소리는 항상 ‘ㅍ’으로 적는다. 일본식 표기의 영향을 받아 [f]를 ‘후’나 ‘호’로 적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잘못된 것이다. [f]와 [p] 소리는 우리말에서 모두 ‘ㅍ’으로 적으므로 ‘파이팅, 패밀리, 프라이’가 맞는 표기이다.

(6) ㄱ. 슈미트/\*시미트/\*쉬미트

ㄴ. 대시/\*대쉬, 플래시(flash)/\*플래쉬/\*후래쉬, 잉글리시/\*잉글리쉬, 리더십/\*리더쉽

ㄷ. 패션/\*패손, 쇼핑/\*샤핑, 셰익스피어/\*섹스피어

ㄹ. 아인슈타인/\*아인시타인/\*아인쉬타인, 타슈켄트/\*타시켄트

[ʃ]는 영어의 경우 자음 앞에서는 ‘슈’로, 어말에서는 ‘시’로 적는다. 따라서 (ㄱ)에서는 ‘슈미트’가 맞는 표기이고, (ㄴ)에서는 ‘대시, 잉글리시, 플래시, 리더십’이 맞는 표기이다.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셔, 세, 쇼, 슈, 시’로 적는다. 따라서 (ㄷ)의 ‘fashion[ˈfæʃən]’, ‘shopping[ˈʃɒpiŋ]’, ‘Shakespeare[ˈʃeɪkspiə]’ 등의 [ʃ]는 뒤의 모음과 합쳐져 ‘패션’, ‘쇼핑’, ‘셰익스피어’로 적어야 한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서 온 말은 [ʃ]를 언제나 ‘슈’로 적는다. 따라서 (ㄹ)에서 독일 사람

인 ‘Einstein’은 ‘아인슈타인’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Tashkent’는 ‘타슈켄트’로 적는 것이 맞다.

(7) 브리지/\*브릿지, 스위치/\*스윗치, 스케치/\*스켓치, 케첩/\*켓첩/\*케잡

[ɕ, ʃ]는 모음 앞에서는 ‘스, 스’으로 적고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지, 치’로 적는다. 앞의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고 이 소리들이 올 때에 흔히 앞에 ‘스’ 받침을 넣어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따라서 ‘브리지, 스위치, 스케치, 케첩’이 바른 표기이다.

(8) 플라자/\*프라자, 클리닉/\*크리닉, 클럽/\*크럽, 살롱/\*싸롱

[r]과 [l] 소리는 구분 없이 ‘ㄹ’로 적는다. 다만 낱말 중간의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뒤따르지 않는 비음(m, n, ŋ) 앞에 올 때에는 ‘ㄹ’을 겹쳐 ‘ㄹㄹ’로 적는다. 예컨대, cream은 ‘크림’으로 적지만 clean은 ‘\*크린’이 아니라 ‘클린’으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플라자, 클리닉, 클럽, 살롱’이 맞는 표기이다.

## 4.2. 모음의 표기

(1) 센터/\*센타/\*쎄타, 디지털/\*디지탈/\*디지틀, 터미널/\*터미날

[ə]는 우리말의 ‘어’와 ‘으’의 중간 소리처럼 들리는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이를 ‘어’로 적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center[séntə]는 ‘센터’로, digital[diɕitəl], terminal[tá:minəl]은 각각 ‘디지털’과 ‘터미널’로 적어야 한다. 특히 digital, terminal 표기에서 철자 a에 이끌려 ‘\*디지털, \*터미날’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이다.

(2) ㄱ. 콘서트/\*컨서트, 콘택트/\*컨택트, 콘텐츠/\*컨텐츠/\*칸텐츠

나. 컨디션/\*콘디션, 에어컨/\*에어콘, 컨트롤/\*콘트롤

ㄷ. 톱/\*탑, 솥/\*샙, 보디/\*바디

[ɔ]는 [o]와 구분하지 않고 ‘오’로 적는다. [ɔ] 소리는 우리말의 ‘오’보다는 입을 더 크게 벌려 ‘어’에 가깝게 소리 내는 것이어서 사람에 따라 ‘오’로 적기도 하고 ‘어’로 적기도 하나 ‘오’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ㄱ)의 예들은 [kon]으로 소리 나

니까 ‘콘서트, 콘택트, 콘텐츠’로 적어야 한다.

(ㄴ)에 있는 예들은 발음이 [kən]으로 나는 것이다. 따라서 ‘컨디션, 에어컨, 컨트롤’로 적어야 한다. 흔히 concert, contact, contents의 con을 ‘콘’으로 적으니까, condition, control 따위의 con도 역시 ‘콘’으로 적으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들은 발음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ㄷ)은 [ɔ]로 소리가 나는 것들이므로 ‘아’로 적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탑, \*샵, \*바디’가 아닌, ‘톱, 숭, 보디’로 적어야 한다.

### (3) 컬러/\*칼라, 커버/\*카바, 허니/\*하니

위의 예들은 [ʌ] 소리를 가지는 단어들이다. [ʌ]는 듣기에 따라 ‘아’로 들리기도 하고 ‘어’로 들리기도 하는데, 표기 원칙에 따르면 ‘어’로 적어야 한다. 일본식 표기의 영향을 받아 ‘\*칼라, \*카바, \*하니’ 등의 표기가 더러 눈에 띄는데, ‘컬러, 커버, 허니’로 적어야 맞다.

- (4) ㄱ. 보트/\*보우트, 코트/\*코우드, 보너스/\*보우너스, 옐로/\*옐로우  
       윈도/\*윈도우  
       ㄴ. 타워/\*타우어, 파워/\*파우어, 아이젠하워/\*아이젠하우어

음가가 다른 모음이 둘 이상 결합한 중모음은 각각의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는다. 따라서 [ai], [ei], [au] 등은 각각 ‘아이, 에이, 아우’ 따위로 적는다. 다만 [ou]는 ‘오’로, [auə]는 ‘아워’로 적는다. 이들은 ‘오우’나 ‘아우어’로 적을 경우에 원음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오’, ‘아워’로 적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boat[bout], coat[cout], bonus[bóunəs]는 ‘\*보우트, \*코우트, \*보우너스’로 적지 않고, ‘보트, 코트, 보너스’로 적어야 하며, yellow[jélou]나 window[windou] 같은 경우도 ‘옐로, 윈도’로 적어야 한다. (ㄴ)은 [auə]로 소리 나는 것들이므로 ‘타워, 파워, 아이젠하워’로 적어야 맞다.

- (5) ㄱ. 오사카/\*오오사카/\*오오사까, 뉴욕/\*뉴우요르크  
       ㄴ. 알코올/\*알콜, 아밀라아제/\*아밀라제, 알마아타/\*알마타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장모음을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오사카’, ‘\*뉴우욕’ 등 모음을 겹쳐 쓴 표기는 틀린 형태이며 각각 ‘오사카’, ‘뉴욕’으로 적어야 옳다. 고유어나 한자어 중에도 ‘밤:[栗] 대 밤[夜]’, ‘눈[眼] 대 눈:[雪]’ 등 모음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구분되는 단어 쌍들이 있으나 이들을 ‘\*바암, \*누운’으로 표기하지 않는 것처럼 외래어에서도 장음을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다만 (L)에 있는 예들은 예외적으로 모음을 겹쳐 적는 것을 허용하는 예들이다. ‘알코올’은 ‘메탄올, 에탄올’ 따위 용어들과 관련성을 밝혀 주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아밀라아제’라는 효소의 명칭도 ‘락타아제, 말타아제’ 등 다른 효소들과의 관련성을 보이기 위해 모음의 겹침을 허용한 것이다. ‘알마아타’의 경우는 원어가 Alma Ata이므로 ‘\*알마타’가 아니라, ‘알마아타’로 적게 된다.

(6) 주니어/\*쥬니어, 레저/\*레저, 찬스/\*찬스, 벤처/\*벤처

외래어를 적을 때에는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 등 ‘ㅈ’이나 ‘ㅊ’ 뒤에 이중모음이 결합한 형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로 적어야 한다. 우리말에서 ‘ㅈ, ㅊ’ 같은 경구개음은 그 뒤에서 이중모음과 단모음이 구분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잠자다’를 [잠자다]로 발음하거나 ‘전화’를 [전화]로 말해도 뜻을 혼동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주니어, 레저, 찬스, 벤처’로 쓰는 것이 맞다.

### 4.3. 그 밖의 표기 세칙

(1) 로그인/\*로긴, 아울렛/\*아울렛/\*아우틀렛, 메이크업/\*메이컵

원어가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복합어를 한 단어로 보아 표기하면 이들이 각각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와 아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를 살려서 적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log in’이란 말은 ‘로그’와 ‘인’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말이므로 ‘로그인’으로 적는다. 원어의 발음이 ‘\*로긴’, ‘\*로가웃’에 가깝게 들리더라도 그렇게 적지 않는다. ‘아울렛, 메이크업’도 마찬가지이다.

(2) ㄱ. Charles: 찰스(영), 샤를(불)

ㄴ. San Jose: 산호세(코스타리카), 새너제이(미국)

외래어 표기는 현지 발음에 가깝게 적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원어 철자가 같은 말들이라도 한글로는 달리 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Charles는 그것이 영어 이름인지, 프랑스 어 이름인지에 따라 한글 표기가 달라진다. 영어권 사

람의 이름이라면 ‘찰스’라고 해야 하지만 프랑스 어 사용 지역의 사람 이름이라면 ‘샤를’이라고 적는다. 지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지도에 보면 San Jose라고 적혀 있는 도시가 두 곳 있다. 하나는 코스타리카의 수도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도시이다. 이들은 비록 같은 철자를 쓰지만 두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한글로는 전혀 다르게 적힌다. 코스타리카는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지역이므로 그 수도는 에스파냐어 표기법에 따라 ‘산호세’라고 적어야 하며, 미국 도시는 영어 발음 [sænəʒeɪ]에 따라 ‘새너제이’로 적는다.

(3) ㄱ. 라디오/\*레이디오, 시보레/\*셰브렐레이

ㄴ. 컷/커트, 타입/타이프

우리말에 들어온 지 오래되어 표기와 발음이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대로 적도록 한다. radio는 발음이 [réidiðu]이므로, 외래어 표기법 원칙에 따르면 ‘레이디오’가 되어야 하지만 이미 ‘라디오’로 굳어진 말이므로 ‘라디오’를 옳은 표기로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이름인 Chevrolet는 프랑스 어에서 온 말로 [ʃevraléi]라는 발음에 따르면 ‘\*셰브렐레이’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일본어를 통해서 ‘시보레’로 들어와 오랫동안 쓰여 왔던 관용을 인정해 ‘시보레’로 적도록 한다. (ㄴ)의 예들은 관용을 고려해서 두 가지 표기형을 다 맞는 것으로 인정하고 각각의 표기형에 다른 뜻을 부여한 것들이다. 같은 영어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지만 표기와 쓰임이 우리말에 달리 정착한 상황을 반영한 예들이다. ‘커트’는 머리를 자르거나 탁구 등의 운동에서 공을 깎아 치는 것을 가리킬 때 쓴다. ‘컷’은 영화 따위의 장면이나 작은 삽화를 뜻할 때 쓴다. ‘타입’은 어떤 형태나 유형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타이프’는 ‘타이프라이터’의 줄임말로 타자기를 가리킨다.

(4) ㄱ. 鹿兒島: 가고시마/\*녹아도,

伊藤博文: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

ㄴ. 杭州: 항저우/\*항주

孔子: 공자/\*콩쯔, 孟子: 맹자/\*멍쯔

張國榮: 장국룽/\*장국영, 張藝謀: 장이머우/\*장예모

ㄷ. 北京: 북경/베이징, 東京: 동경/도쿄

한자로 적힌 중국이나 일본의 인명, 지명에 대해서는 우리 한자음으로 읽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으나, 현행 외래어 표기법 원칙에 따라 원어의 발음을 따라 적는다. 예를 들어 일본의 지명 ‘鹿兒島(かごしま)’의 우리 한자음은 ‘녹아도’이지만 일본어의 발음을 따라 ‘가고시마’로 적는다. 일본 인명도 마찬가지로 ‘이등박문’ 대신에 ‘이토 히로부

미'로 적는다.

중국 인명 중에서 고대인의 경우는 현대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하지 않고 ‘공자, 맹자’ 등 우리 한자음대로 표기한다. 현대인의 경우는 중국어 발음에 맞추어 ‘주음부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서 표기한다. 따라서 ‘張國榮(Zhāng Guó róng)’은 ‘장국영’이 아니라 ‘장궈룽’으로, ‘張藝謀(Zhāng Yì móu)’는 ‘장예모’가 아니라 ‘장이머우’로 표기해야 한다. 중국 인명을 표기할 때 고대인과 현대인의 구분은 신해혁명(1911년)을 기준으로 한다. 중국의 지명은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長安: 장안/\*창안),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 일본 지명 중에서 우리 한자음대로 읽는 것이 친숙한 몇몇 예들에 대해서는 현지 발음에 따른 표기와 우리 한자음 표기를 둘 다 인정한다. (ㄷ)의 ‘북경’과 ‘베이징’, ‘동경’과 ‘도쿄’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 &lt;부록&gt;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

자 음			반 모 음		모 음	
국 제 음 기 호	한 글		국 제 음 기 호	한 글	국 제 음 기 호	한 글
	모음 앞	자음 앞 또는 어말				
p	ㅍ	ㅍ, 프	j	이*	i	이
b	ㅂ	브	ɥ	위	y	위
t	ㅌ	ㅌ, 트	w	오, 우*	e	에
d	ㄸ	드			ø	외
k	ㅋ	ㄱ, ㅋ			ɛ	에
g	ㄱ	그			ɛ̃	앵
f	ㅍ	프			œ	외
v	ㅂ	브			œ̃	윙
θ	ㅌ	스			æ	애
ð	ㄸ	드			a	아
s	ㅌ	스			ɑ	아
z	ㅌ	즈			ã	앙
ʃ	시	슈, 시			ʌ	어
ʒ	ㅌ	지			ɔ	오
ts	ㅌ	츠			õ	옹
dz	ㅌ	즈			o	오
tʃ	ㅌ	치			u	우
dʒ	ㅌ	지			ə**	어
m	ㅁ	ㅁ			ə̃	어
n	ㄴ	ㄴ				
ɲ	니*	뉴				
ŋ	ㅇ	ㅇ				
l	ㄹ, ㄹㄹ	ㄹ				
r	ㄹ	ㄹ				
h	ㅎ	ㅎ				
ç	ㅎ	히				
x	ㅎ	흐				

\* [j], [w]의 ‘이’와 ‘오, 우’, 그리고 [ɲ]의 ‘니’는 모음과 결합할 때 외래어 표기법 제3장 표기 세칙에 따른다.

\*\* 독일어의 경우에는 ‘에’, 프랑스 어의 경우에는 ‘으’로 적는다.

## &lt;참고&gt; 틀리기 쉬운 외래어 표기

원어	맞는 표기	틀린 표기
accessory	액세서리	악세사리
ad lib	애드리브	애드립
barbecue	바비큐	바베큐
battery	배터리	빠떼리, 뺏데리, 밧데리
biscuit	비스킷	비스켓
blind	블라인드	브라인드
body	보디	바디
buffet(프)	뷔페	부페
business	비즈니스	비지니스
cake	케이크	케익, 케익
cardigan	카디건	가디건
catalog	카탈로그	카다로그, 가다록
centimeter	센티미터	센치미터
chocolate	초콜릿	초코렛, 초콜렛, 초컬릿, 초코렛
collection	컬렉션	콜렉션
color	컬러	칼라
cover	커버	카바
cunning	커닝	컨닝
contents	콘텐츠	컨텐츠
curtain	커튼	커텐
data	데이터	데이타
digital	디지털	디지탈, 디지틀
encore(프)	앙코르	앵콜
enquête(프)	앙케트	앙케이트
fighting	파이팅	화이팅
flash	플래시	후레시, 후레쉬
flute	플루트	플룻, 플룻
fresh	프레시	프레쉬, 후레쉬, 후레시
frypan	프라이팬	후라이판, 후라이팬
gas range	가스레인지	가스렌지
giant	자이언트	자이안트, 자이언트
Hollywood	할리우드	할리웃, 헐리우트, 헐리웃



juice	주스	쥬스
Las Vegas	라스베이거스	라스베가스
makeup	메이크업	메이컵
mania	마니아	매니아
massage	마사지	맞사지
motor	모터	모타
network	네트워크	네트웍, 네트웁
nonsense	난센스	넌센스
nylon	나일론	나이론
pamphlet	팸플릿	팜플렛
panda	판다	팬더
panel	패널	판넬
placard	플래카드	프레카드, 플랭카드
plaza	플라자	프라자
radar	레이더	레이다
royal	로열	로얄
sash	새시	샤시, 샷슈, 샷시
sausage	소시지	소세지
set	세트	셋, 셋트, 셀
shutter	셔터	샷다, 샷따, 샷타
sofa	소파	쇼파
soup	수프	스프, 슌
special	스페셜	스페샬
staff	스태프	스텝, 스태
sunglass	선글라스	썬그라스
supermarket	슈퍼마켓	수퍼마켓, 수퍼마케, 슈퍼마케
symbol	심벌	심볼
talent	탈런트	탈렌트
tape	테이프	테프, 테입, 테잎
total	토틸	토탈
workshop	워크숍	워크샵

## 5. 연습 문제

※ 다음에서 외래어 표기에 맞는 단어를 고르시오.

- [01] 카페/까페, 파리/빠리, 버스/빠스
- [02] 시스템/씨스템, 센터/쎄터, 취리히/쥘리히
- [03] 커피숍/커피쑈, 디스켓/디스켈, 코너킥/코너킵
- [04] 로봇/로보트, 카펫/카페트, 인터넷/인터네트
- [05] 테이프/테입/테옌, 케이크/케익/케익, 플루트/플룻/플룻
- [06] 매트리스/맷리스, 투르크메니스탄/투룩메니스탄
- [07] 넷/넛, 세트/셋/셀, 매트/멧
- [08] 블라디보스토크/블라디보스톡, 티베트/티벳, 아베크/아벡
- [09] 허브/헝, 개그/객
- [10] 파이팅/화이팅, 패밀리/훼미리, 프라이/후라이
- [11] 슈미트/시미트/쉬미트
- [12] 대시/대쉬, 플래시/플래쉬/후래쉬, 잉글리시/잉글리쉬, 리더십/리더쉽
- [13] 패션/패순, 쇼핑/샤핑, 셰익스피어/썩스피어
- [14] 브리지/브릿지, 스위치/스윗치, 스케치/스켓치, 케첩/켓첩/케잡
- [15] 플라자/프라자, 클리닉/크리닉, 클럽/크럽, 살롱/싸롱
- [16] 센터/센타/쎄타, 디지털/디지탈/디지틀, 터미널/터미날
- [17] 콘서트/컨서트, 콘택트/컨택트, 콘텐츠/컨텐츠/칸텐츠
- [18] 컨디션/콘디션, 에어컨/에어콘, 컨트롤/콘트롤
- [19] 톱/탑, 솥/샵, 보디/바디
- [20] 컬러/칼라, 커버/카바, 허니/하니
- [21] 보트/보우트, 코트/코우드, 보너스/보우너스, 옐로/옐로우
- [22] 타워/타우어, 파워/파우어, 아이젠하워/아이젠하우어
- [23] 오사카/오오사카/오오사까, 뉴욕/뉴우요오크
- [24] 알코올/알콜, 아밀라아제/아밀라제, 알마아타/알마타
- [25] 주니어/쥬니어, 레저/레저, 찬스/찬스, 벤처/벤처
- [26] 로그인/로긴, 아울렛/아울렛/아우틀렛, 메이크업/메이컵
- [27] 가고시마/녹아도
- [28]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
- [29] 항저우/항주
- [30] 공자/콩쯔, 맹자/멍쯔

## ♠ 정답 ♠

- [01] 카페, 파리, 버스
- [02] 시스템, 센터, 취리히
- [03] 커피숍, 디스켓, 코너킥
- [04] 로봇, 카펫, 인터넷
- [05] 테이프, 케이크, 플루트
- [06] 매트리스, 투르크메니스탄
- [07] 넷, 세트, 매트
- [08] 블라디보스토크, 티베트, 아베크
- [09] 허브, 개그
- [10] 파이팅, 패밀리, 프라이
- [11] 슈미트
- [12] 대시, 플래시, 잉글리시, 리더십
- [13] 패션, 쇼핑, 셰익스피어
- [14] 브리지, 스위치, 스케치, 케첩
- [15] 플라자, 클리닉, 클럽, 살롱
- [16] 센터, 디지털, 터미널
- [17] 콘서트, 콘택트, 콘텐츠
- [18] 컨디션, 에어컨, 컨트롤
- [19] 톱, 솥, 보디
- [20] 칼러, 커버, 허니
- [21] 보트, 코트, 보너스, 옐로
- [22] 타워, 파워, 아이젠하워
- [23] 오사카, 뉴욕
- [24] 알코올, 아밀라아제, 알마아타
- [25] 주니어, 레저, 찬스, 벤처
- [26] 로그인, 아웃렛, 메이크업
- [27] 가고시마
- [28] 이토 히로부미
- [29] 항저우
- [30] 공자, 맹자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정 희 원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진흥과장)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필요성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란 한글로 표기된 단어를 로마자로 적는 방법을 말한다.<sup>1)</sup> 그런데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보면 로마자 표기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 외국인이 부산국제영화제를 보러 한국에 왔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한다고 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다. 부산국제영화제 포스터에는 ‘PUSAN’으로 쓰여 있었는데 터미널 사이트에는 아무리 찾아도 ‘PUSAN’이라는 행선지가 없는 것이었다. 친구에게 물어 보니 ‘Busan’으로 가라고 한다. 예매한 표에는 ‘Busan’이라고 찍혀 있다.



1) 흔히 a, b, c, d, ……를 ‘영문자’라고 부르고 ‘영문 표기’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나 ‘로마자’로 하는 것이 옳다. a, b, c, d, ……는 영어의 표기 문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폴란드어, 체코어, 헝가리어, 루마니아어, 알바니아어, 터키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여러 언어가 a, b, c, d, ……와 같은 문자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a, b, c, d, ……라는 문자의 이름인 ‘로마자’로 쓴 것이다.

이 외국인은 부산에 가는 내내 자신이 정말 부산국제영화제를 볼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을 것이다. 부산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부산’과 ‘부산시’를 다른 곳이라고 오해하는 외국인도 있다.<sup>2)</sup> 이와 같은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어를 적는 통일된 로마자 표기법이 필요하다.

## 2.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제정 경위

현행 표기법 이전의 로마자 표기법은 1939년에 만들어진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을 기본으로 하였다.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은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기 위해 1939년에 미국인 매쿰과 라이샤워가 공동으로 만든 것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방식이다. 그런데 이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은 한국어의 발음을 영어 사용자의 귀에 들리는 대로 적은 표기법으로서 영어 사용자에게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한국인들이 따르기에는 매우 불편한 표기법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은 한국어의 음운 대립을 로마자에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어의 파열음은 ‘예사소리(평음)/거센소리(격음)/된소리(경음)’의 대립을 이루고 있다. 즉 한국어에서 ‘달/탈/딸’은 다른 단어인데, ‘ㄷ/ㅌ/ㄸ’이 구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마자 표기법은 이 세 가지 대립을 로마자 표기에도 반영했어야 했다. 그러나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르면 ‘다달’은 ‘tadal’로 표기하면서 ‘달’은 ‘tal’, ‘탈’은 ‘tal’로 표기해야 한다. 즉, ‘ㄷ’은 어두에서는 ‘t’로, 어중에서 유성음으로 소리 날 때는 ‘d’로 구분하면서 ‘ㄷ’과 ‘ㅌ’은 똑같은 ‘t’로 하되 ‘ㅌ’에 어긋점을 넣었을 뿐이었다. 이처럼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은 반드시 구별해야 할 ‘ㄷ’과 ‘ㅌ’의 구별은 확실히 하지 않으면서 구별할 필요가 없는 ‘다달’의 두 ‘ㄷ’(무성음과 유성음)에는 완전히 다른 기호를 부여하였다.

로마자 표기법은 1984년에 한차례 개정되었으나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을 근간으로 한 것이어서 비슷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1984년에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은 특히 다음 두 가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첫째는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특수 부호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반달표(˘: ö, ü)와 어긋점(: t', p', k', ch) 같은 특수 부호는 컴퓨터에서 입력하거나 검색하기가 불편하여 사람들이 사용을 꺼리게 되었다. 그렇다고 특수 부호를 생략하고 나면 우리말의 중요한 대립을 구분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로마자 표기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말에서 구분되지 않는 자음의 유무성을 구분하여 표기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키기가 어려

2) 이와 같은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로마자 표기를 2011년 2월 24일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서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도동’을 ‘Todong’으로 적도록 하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무성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므로 같은 ‘ㄷ’을 t와 d로 달리 적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다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하였는데 이것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다. 지금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자음을 국어의 언어 체계를 반영하여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로 구분하여 적으며, 표기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반달표나 어긋점과 같은 특수 부호를 쓰지 않는다.

### 3.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원칙

#### 3.1. 기본 원칙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소리와 원래의 형태가 다른 경우에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라’는 [신라]로 소리 나지 않고 [실라]로 소리가 난다. 그러므로 ‘Silla’로 적는다. ‘왕십리’ 역시 [왕심니]로 소리 나므로 발음대로 ‘Wangsimni’로 적어야 한다.

로마자 표기를 할 때 발음대로 적는 것은, 외국인이 가능하면 국어 발음과 가깝게 발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도로 표지판에 ‘왕십리’를 ‘Wangsipri’로 표기한다면, 외국인들은 이를 그대로 발음할 것이고, 그 발음은 우리가 알아듣기에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2. 기본 원칙 2: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

2000년 7월 개정되기 전 사용되던 ‘매큐라이샤워 표기법’에는 반달표(˘)와 어긋점(ˊ) 등의 특수 부호가 포함되어 있었다.

우선 반달표(˘)는 ‘ㄴ(δ)’와 ‘ㅡ(ü)’ 등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부호가 포함된 표기는 전산으로 처리하기가 불편하여 오히려 잘못된 표기를 양산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예를 들어 ‘영’은 매큐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르면 ‘yöng’으로 적어야 한다. 그런데 반달표를 입력하기 어려워 반달표를 입력하지 않고 ‘yong’으로 적기도 하였다. ‘yong’이란 표기는 ‘용’으로 읽혀 ‘영’과 ‘용’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을지로’도 마찬가지이다. 매큐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르면 ‘을왕’은 ‘Üljiro’로 적어야 하는데 반달점을 표기하지 않은 ‘Uljiro’로 쓰이게 되면서 ‘을지로’와 ‘울지로’의 구분

이 모호해졌다. 그래서 2000년 개정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매कु라이사워 표기법에서는 어갯점(·)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ㅍ’은 ‘p’으로, ‘ㅌ’은 ‘t’으로, ‘ㄱ’은 ‘k’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ㅂ, ㄷ, ㄱ’은 음절의 첫소리로 올 때는 ‘p, t, k’로 모음 사이에서는 ‘b, d, g’로 적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기 방식은 한 국민의 언어 의식과 잘 맞지 않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가구’라는 단어는 개정되기 전의 로마자 표기에 따르면 ‘kagu’로 써야 했다. 같은 자음인 ‘ㄱ’을 환경에 따라(무성음인지 유성음인지에 따라) ‘k’와 ‘g’로 구별해서 표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ㄱ’과 다른 음소인 ‘ㅋ’은 ‘k’에 어갯점(·)만 더하여 ‘k·’과 같이 표기하였다. 이에 표기법을 개정하면서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ㅍ, ㅌ, ㄱ’에 사용되던 어갯점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ㅍ, ㅌ, ㄱ’은 ‘p, t, k’로, ‘ㅂ, ㄷ, ㄱ’은 ‘b, d, g’로 표기한다.

그런데 위의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에서 ‘되도록’이라고 표현한 것은 붙임표(-)는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부호는 행정 구역 단위를 표시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그 외에는 이름의 표기, 기타 필요한 곳에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4. 표기 일람: 모음과 자음의 표기

### 4.1. 모음

국어 모음은 다음과 같이 로마자로 표기한다.

단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a	eo	o	u	eu	i	ae	e	oe	wi

이중모음	ㅑ	ㅓ	ㅕ	ㅗ	ㅛ	ㅜ	ㅟ	ㅛ	ㅜ	ㅟ	ㅛ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이중모음은 단모음 표기에 ‘y’나 ‘w’를 결합하여 만든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ㅛ’를 ‘weo’가 아닌 ‘wo’로 적는다는 것이다. 다른 표기와 충돌하지 않으므로 표기의 간결성을 위해 ‘wo’로 표기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돈의 단위인 ‘원’은 ‘weon’으로 적

지 않고 ‘won’으로 적는다.

로마자 표기법은 표준 발음법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ㄴ’은 [이]로 소리가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희망’의 표준 발음은 [히망]이지만, ‘himang’으로 적지 않고 ‘huimang’으로 적는다. 모음 ‘ㄴ’은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로 발음되는데, 그것을 모두 표기에 반영하면 오히려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ui’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1) ㄱ. 강원 Gangwon, 원주 Wonju, 춘권 chungwon

ㄴ. 의성 Uiseong, 신의주 Sinuiju, 구의 Guui, 동의보감 Donguibogam

## 4.2. 자음

국어 자음의 로마자 표기는 다음과 같다.

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ㅍ	ㅂ	ㅃ	ㅍ
	g, k	kk	k	d, t	tt	t	b, p	pp	p	p

파찰음	ㅈ	ㅉ	ㅊ
	j	jj	ch

마찰음	ㅅ	ㅆ	ㅎ
	s	ss	h

비음	ㄴ	ㅁ	ㅇ
	n	m	ng

유음	ㄹ
	r, l

‘ㄱ, ㄷ, ㅍ’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모음 앞’과 ‘자음 앞이나 어말’에 관한 규정이 ‘ㄱ, ㄷ, ㅍ’에만 있는 것은 우리말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우리말에서 음절의 끝소리가 될 수 있는 자음은 일곱 가지, 즉 ‘ㄱ, ㄴ, ㄷ, ㄹ, ㅁ, ㅂ, ㅇ’뿐이며, 이외의 다른 자음은 음절의 끝소리에서 위의 7자음 가운데 하나인 대표음으로 소리 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보복’은 ‘bobok’으로, ‘도덕’은 ‘dodeok’으로 적는다. 그리고 ‘부엌’의 어말 표기는 ‘ㄷ’이지만 발음이 [부억]이므로 ‘bueok’으로 적는다.

- (2) ㄱ. 보복 bobok, 도덕 dodeok  
 부엌 bueok, 동넉 dongnyeok  
 밖 bak  
 ㄴ. 밥 bap, 법 beop  
 앞 ap

‘납, 낫, 낫, 낫’은 모두 [납]으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이들을 로마자로 표기하면 ‘nat’이 된다. ‘벚꽃’은 [번꼇]으로 소리 나므로 ‘boejkkoch’이 아니라 ‘beotkkot’으로 적는다. ‘있다’도 표기대로 적으면 ‘issda’로 적겠지만, ‘있’이 [인]으로 소리 나므로 ‘itda’로 적는다.

- (3) ㄱ. 납 nat, 낫기 geotgi  
 ㄴ. 낫 nat, 못 mot, 송곳산 Songgotsan  
 ㄷ. 낫 nat, 벚꽃 beotkkot  
 ㄹ. 낫 nat, 좇다 jotda  
 ㅁ. 낫 nat, 있다 itda

유음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이 겹쳐서 소리 나는 경우, 즉 앞 음절의 끝소리와 뒤 음절의 첫소리가 모두 ‘ㄹ’이면 ‘ll’로 적는다. 따라서 ‘나라’는 ‘nara’로 적으나, ‘달라’는 ‘dalla’로 적는다. ‘달나라’는 [달라라]로 소리 나므로 ‘dallara’로 적는다.

- (4) ㄱ. 나라 nara  
 ㄴ. 달라 dalla  
 ㄷ. 달나라 dallara

## 5.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실제

### 5.1. 음운 변화

#### 5.1.1. 자음 동화

자음 두 개가 서로 연이어 발음될 때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한 음운이 또는

두 음운 모두가 바뀌는 현상을 ‘자음 동화’라고 한다. 자음 동화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우리말을 발음할 때 반드시 그리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화 현상이므로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이를 고려하여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우리말의 자음 동화는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ㄱ, ㄷ, ㅂ’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바뀐다.

국민[궁민]	gungmin/*gukmin
백마[뱅마]	Baengma/*Baekma
달는다[단는다]	danneunda/*datneunda
갑문[감문]	Gammun/*Gapmun

- ② ‘ㄹ’은 ‘ㄱ, ㅇ’ 뒤에서 ‘ㄴ’으로 바뀐다.

종로[종노]	Jongno/*Jongro
삼례[삼네]	Samnye/*Samrye

- ③ ‘ㄱ, ㅂ’ 뒤에 ‘ㄹ’이 오면 ‘ㄱ, ㅂ’은 ‘ㅇ, ㅁ’으로, ‘ㄹ’은 ‘ㄴ’으로 둘 다 바뀐다.

속리산[송니산]	Songnisan/*Sokrisan
곡릉[공능]	Gongneung/*Gokreung
왕십리[왕십니]	Wangsimni/*Wangsipri

- ④ ‘ㄴ’ 다음에 ‘ㄹ’이 오면 ‘ㄴ’이 ‘ㄹ’로 바뀔 수도 있고, ‘ㄹ’이 ‘ㄴ’으로 바뀔 수도 있다.<sup>3)</sup>

신라[실라]	Silla/*Sinra
대관령[대괵령]	Daegwallyeong/*Daegwanryeong
이원론[이원논]	iwonnon/*iwollon

3) 이원론, 임진란, 동원령, 생산량 등과 같이 한자어 뒤에 일음절의 한자어가 결합할 때 ‘ㄹ’이 ‘ㄴ’으로 소리가 바뀐다.

- ⑤ ‘ㄹ’ 다음에 ‘ㄴ’이 오면 ‘ㄴ’이 ‘ㄹ’로 바뀐다.

선릉[설릉]

Seolleung/\*Seonneung

별내[별래]

Byeollae/\*Byeolnae

### 5.1.2. 음의 첨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이때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 자음이 ‘ㄹ’이면 첨가된 ‘ㄴ’ 소리는 위의 자음동화 ④에 의하여 ‘ㄹ’로 발음된다. 이렇게 첨가되는 ‘ㄴ’이나 ‘ㄹ’ 음은 표기에 반영한다.

(5) ㄱ.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Hagyeoul, \*Hakyeoul

색연필[생년필]

saengnyeonpil/\*saegyeonpil, \*sackyeonpil

ㄴ. 알약[알략]

allyak/\*aryak, \*alyak

솔잎[솔립]

sollip/\*sorip, \*solip

### 5.1.3. 구개음화

‘ㄷ’이나 ‘ㅌ’은 뒤에 ‘ㅣ’ 모음이 오면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구개음 ‘ㅈ’이나 ‘ㅊ’으로 바뀐다. 이 구개음화 현상도 우리말의 표준 발음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6) ㄱ. 같이[가치]

gachi/\*gati

ㄴ. 해돋이[해도지]

haedoji/\*haedodi

### 5.1.4. 거센소리화(격음화)

‘ㄱ, ㄷ, ㅌ, ㅈ’가 ‘ㅎ’와 만나면 거센소리 ‘ㅋ, ㅌ, ㅍ, ㅊ’로 소리 나는데, 이 역시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 표기에 반영한다. 따라서 ‘좋다’는 ‘jota’로 표기한다. 다만 명사에서 ‘ㄱ, ㄷ, ㅌ’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묵호’는 ‘Muko’가 아닌 ‘Mukho’로 표기한다.

(7) ㄱ. 좋다	jota/*johda
ㄴ. 묵호	Mukho/*Muko
집현전	Jiphyeonjeon/*Jipyeonjeon

### 5.1.5. 된소리화(경음화)

예외적으로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가령, ‘애국가’는 [애국까]로 소리 나는데, ‘가’가 [까]로 소리 나는 것을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이러한 ‘된소리되기’는 불규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즉, ‘애국가’는 ‘Aegukkka’라고 적지 않고 ‘Aegukga’라고 적어야 한다.

(7) ㄱ. 울산	Ulsan/*Ulssan
ㄴ. 압구정	Apgujeong/*Apkkujeong

## 5.2. 붙임표

‘세운’을 로마자로 ‘Seun’으로 적으면 ‘세운’뿐만 아니라 ‘슨’으로 읽을 수도 있어 혼동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Se-un’처럼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붙임표(-)는 쓸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써야 한다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8) ㄱ. 세운	Seun/Se-un
ㄴ. 중앙	Jungang/Jung-ang

## 5.3. 소문자와 대문자

고유 명사는 첫 글자만을 대문자로 적는 것(부산 Busan)이 원칙이다. 고유 명사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쓰거나(BUSAN) 음절의 첫 글자를 모두 대문자로 쓰거나(BuSan) 혹은 모두 소문자로 쓰는 것(busan)은 잘못이다. 고유 명사 이외의 경우에는 소문자로 적는다.

(9) ㄱ. 부산	Busan/*BUSAN, *BuSan
ㄴ. 전주	Jeonju/*JEONJU, *JeonJu

## 5.4. 인명

인명을 쓸 때는 성과 이름의 순서로 쓰며, 성과 이름을 띄어 쓴다. 한국 사람은 일본, 중국과 더불어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나중에 쓴다는 것을 아는 외국인들이 많으므로 굳이 서양의 방식을 따라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쓸 필요가 없다. 또 ‘한글 맞춤법’에서는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로마자로 성명을 적을 때는 반드시 성과 이름을 띄어 써야 한다. 그리고 이름은 붙여 쓰는 것(나리 Nari)이 원칙이지만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나리 Na-ri)도 허용하고 있다.

- (10) ㄱ. 송나리                      Song Nari(Song Na-ri)/\*Nari Song, \*SongNari  
       ㄴ. 홍길동                      Hong Gildong(Hong Gil-dong)/\*Hong Gil Dong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사람의 이름을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복남’은 [한봉남]으로 소리 나지만 ‘Han Boknam’으로 적는다. 이름은 음절 각각을 따로 읽었을 때의 소리대로 적는다.

- (11) ㄱ. 한복남                      Han Boknam(Han Bok-nam)/\*Han Bongnam  
       ㄴ. 유빛나                      Yu Bitna(Yu Bit-na)/\*Yu Binna

인명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 사람들은 ‘성’의 표기를 혼란스러워한다. ‘이’에 해당하는 로마자 표기가 ‘i’인데도, 성씨 ‘이’를 ‘I’로 표기하지 않고 ‘Lee’로 표기하거나 ‘Yi’로 적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많은 책에서 ‘이순신’ 장군을 ‘Yi Sunsin’으로 쓰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 5.5. 행정 구역명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 구역 단위(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와 ‘가’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Chungcheongbuk-do’로 적는다. 이를 ‘Chungcheongbukdo’로 적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Chungcheong-bukdo’, ‘Chungcheongbuk Province’라고 표기하는 것도 잘못이다.



- (12) ㄱ.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Chungcheongbukdo  
       ㄴ. 의정부시 Uijeongbu-si/\*Uijeongbusi  
       ㄷ. 도봉구 Dobong-gu/\*Dobonggu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왕리’는 [인왕니]로 발음되지만 ‘Inwangni’ 혹은 ‘Inwang-ni’라고 적지 않고 ‘Inwang-ri’라고 표기한다.

- (13) ㄱ. 인왕리 Inwang-ri/\*Inwangni, \*Inwang-ni  
       ㄴ. 삼죽면 Samjuk-myeon/\*Samjukmyeon, \*Samjungmyeon

참고로 행정 구역 단위인 ‘도’와 섬을 의미하는 ‘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울릉도’의 ‘도’는 행정 구역 단위가 아닌 ‘섬’을 뜻하므로, ‘울릉도’를 표기할 때에는 붙임표를 쓰지 않아야 한다. 즉, ‘Ulleung-do’로 표기하지 않고 ‘Ulleungdo’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도’는 행정 구역 단위이므로 ‘Jeu-do’로 적는다.

- (14) ㄱ. 울릉도 Ulleungdo/\*Ulleung-do  
       ㄴ. 제주도 Jeju-do/\*Jejudo

그리고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청주시’는 ‘Cheongju-si’로 표기하지만 ‘Cheongju’라고 써도 된다. ‘함평군’은 ‘Hampyeong’으로, 순창읍 ‘Sunchang’으로 쓸 수 있다.

## 5.6.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자연 지물명인 ‘남산’, ‘금강’ 등을 ‘Mt. Nam’, ‘Geum River’로 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Namsan’, ‘Geumgang’이라고 쓰면 ‘산’과 ‘강’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Mt.’와 ‘River’ 등을 통해 의미를 밝혀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유 명사의 범위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표기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남산’은 ‘남’만이 고유 명사가 아니라, ‘남산’ 전체가 고유 명사이고, ‘금강’은 ‘금’만이 고유 명사가 아니라, ‘금강’ 전체가 고유 명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산’과 ‘금강’은 각각 ‘Namsan’, ‘Geumgang’으로 표기해야 하며, 붙임표를 넣어 ‘Nam-san’, ‘Geum-gang’으로 표기해서도 안 된다.

- (15) ㄱ. 남산 Namsan/\*Mt. Nam, \*Nam-san  
       ㄴ. 금강 Geumgang/\*Geum River, \*Geum-gang

이것은 문화재인 ‘경복궁, 안압지, 불국사, 독립문, 다보탑’ 등에도 적용된다. 이들은 ‘경복, 안압, 불국, 독립, 다보’만이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이름 전체가 고유 명사이므로, ‘Gyeongbokgung, Anapji, Bulguksa, Dongnimmun, Dabotap’으로 표기해야 하며, 붙임표를 넣어 ‘Gyeongbok-gung, Anap-ji, Bulguk-sa, Dongnim-mun, Dabo-tap’ 등으로 적는 것은 잘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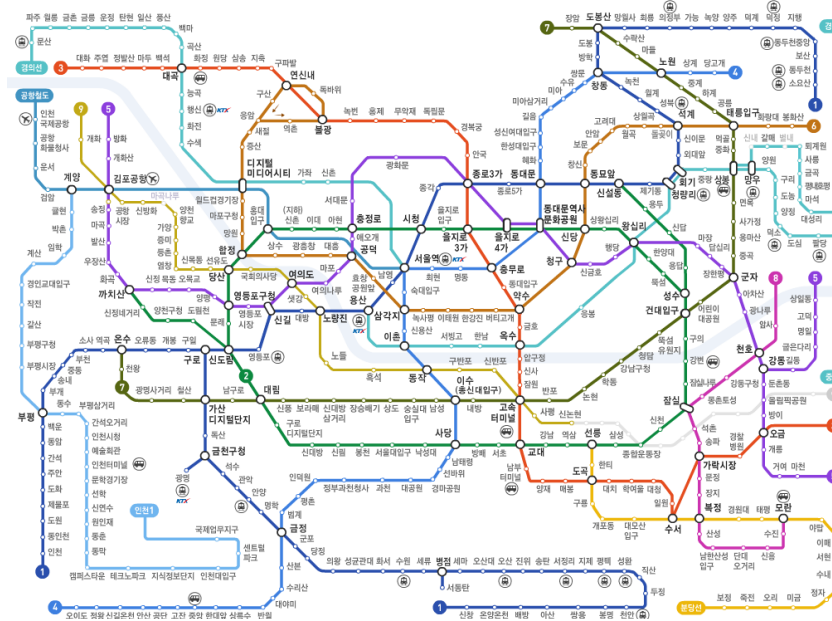
- (16) ㄱ. 경복궁 Gyeongbokgung/\*Gyeongbok-gung  
       ㄴ. 안압지 Anapji/\*Anap-ji  
       ㄷ. 불국사 Bulguksa/\*Bulguk-sa  
       ㄹ. 독립문 Dongnimmun/\*Dongnim-mun  
       ㅁ. 다보탑 Dabotap/\*Dabo-tap

### 5.7. 인명, 회사명, 단체명

현실적으로 여권에 올린 인명이나 세계적으로 이미 잘 알려진 회사명이나 단체명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회사명과 단체명은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에 맞춰 표기를 수정할 경우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진 ‘삼성, 현대’ 등의 기업은 회사명을 각각 ‘Samsung, Hyundai’로 표기한다. 이를 규정에 맞게 표기하면 ‘Samseong, Hyeondae’가 될 것이다. 하지만 회사 이름의 로마자 표기를 바꾸면 그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노력, 경제적 비용이 든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에서 그동안 써 온 로마자 표기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을 로마자로 표기한다면 당연히 ‘로마자 표기법’을 잘 익혀 올바른 표기로 써야 할 것이다.

## [연습 문제]

1. 다음은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다음 역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해 보세요.



- |           |         |          |
|-----------|---------|----------|
| 1) 의정부    | 2) 여의도  | 3) 백석    |
| 4) 독섬     | 5) 답십리  | 6) 신림    |
| 7) 학여울    | 8) 선릉   | 9) 태릉    |
| 10) 일원    | 11) 둔촌동 | 12) 목동   |
| 13) 종로 3가 | 14) 을지로 | 15) 몽촌토성 |
| 16) 광흥창   |         |          |

2. 다음은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로마자로 표기해 보세요.

- |         |         |         |
|---------|---------|---------|
| 1) 한글   | 2) 한복   | 3) 태권도  |
| 4) 아리랑  | 5) 제주도  | 6) 독도   |
| 7) 한라산  | 8) 속리산  | 9) 무량수전 |
| 10) 석굴암 | 11) 동대문 | 12) 광화문 |
| 13) 경복궁 | 14) 창덕궁 | 15) 불국사 |
| 16) 화엄사 | 17) 김치  | 18) 비빔밥 |
| 19) 불고기 | 20) 떡볶이 |         |

## [연습 문제 답]

1.

- |                          |                         |
|--------------------------|-------------------------|
| 1) 의정부 Uijeongbu         | 2) 여의도 Yeouido          |
| 3) 백석 Baekseok           | 4) 푼섬 Ttukseom          |
| 5) 답십리 Dapsimni          | 6) 신림 Sillim            |
| 7) 학여울 Hangnyeoul        | 8) 선릉 Seolleung         |
| 9) 태릉 Taereung           | 10) 일원 Irwon            |
| 11) 둔촌동 Dunchon-dong     | 12) 목동 Mok-dong         |
| 13) 종로 3가 Jongno 3-ga    | 14) 을지로 Euljiro         |
| 15) 몽촌토성 Mongchontoseong | 16) 광흥창 Gwangheungchan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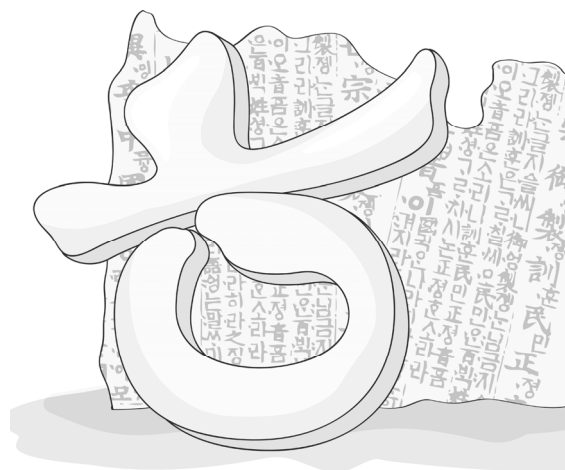
2.

- |                            |                       |
|----------------------------|-----------------------|
| 1) 한글 Hangeul              | 2) 한복 hanbok          |
| 3) 태권도 taegwondo/taekwondo | 4) 아리랑 arirang        |
| 5) 제주도 Jeju-do             | 6) 독도 Dokdo           |
| 7) 한라산 Hallasan            | 8) 속리산 Songnisan      |
| 9) 무량수전 Muryangsujeon      | 10) 석굴암 Seokguram     |
| 11) 동대문 Dongdaemun         | 12) 광화문 Gwanghwamun   |
| 13) 경복궁 Gyeongbokgung      | 14) 창덕궁 Changdeokgung |
| 15) 불국사 Bulguksa           | 16) 화엄사 Hwaeomsa      |
| 17) 김치 gimchi/kimchi       | 18) 비빔밥 bibimbap      |
| 19) 불고기 bulgogi            | 20) 떡볶이 tteokbokki    |

※ ‘태권도’와 ‘김치’는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taegwondo’와 ‘gimchi’로 적는 것이 맞으나, ‘taekwondo’, ‘kimchi’로 많이 쓰이므로 이를 인정한다.

# 대학 교양 국어 강좌와 어문 규정 교육

이 관 규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대학 교양 국어 강좌와 어문 규정 교육



< >

1. 가

2.

3. : (同) (異)

4.

5. :

- (靜) (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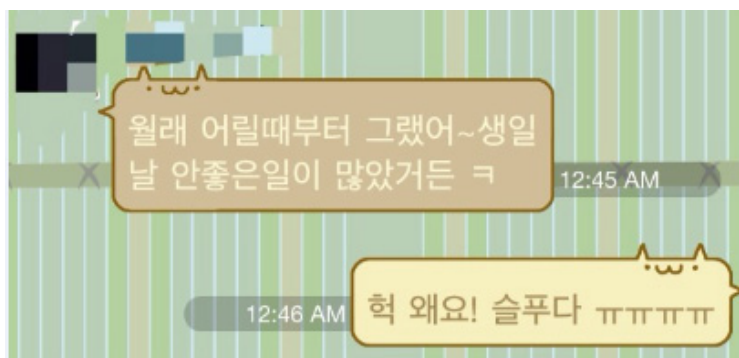
6. :

7. 가

## 1. 가

### 1.1.

‘ 가 가 . ’ ‘ ’ ‘ ’ ?  
 ) “ ”(??) ‘ (?!)  
 ‘ . (?!)



?

: ‘ !’

(1907)

(1984)

(1991)

(2004)

## 1.2. 제기

- ㉠ 대학 교양 국어 강좌의 현황은?  
 ㉡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어문 규정 정책의 특성은?  
 ㉢ 대학 교양 국어 강좌를 위한 어문 규정 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은?  
 ㉣ 대학 교양 강좌를 위한 내용 I: 어문 규정과 언어 예절의 관계는?  
 ㉤ 대학 교양 강좌를 위한 내용 II: 어문 규정 교육의 실체는?

## 2.

## 2.1.

- (2013:387 -388)
- : 55%
- 45%

〈표 2.1〉 교양필수 과목 중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영역별 비율

영역	대학 수(%)	과목 수(%)
쓰기	6(43%)	6(36%)
읽기, 말하기, 듣기	2(14%)	2(12%)
말하기, 듣기	2(7%)	2(8%)
읽기, 쓰기	2(14%)	2(12%)
읽기	1(7%)	1(6%)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29%)	5(29%)
합계	14	17

(2009:349):

국어과 영역		대학수	비율
전체 영역	영역 미분화(대학국어)	15	18.52
	독서와 작문 통합	8	9.88
	국어 각 영역의 개별 과목 설정	7	8.64
개별 영역	작문 단독 과목	23	28.40
	작문과 화법 중심	28	34.57
계		81	100.00

## 2.2.

1)



ㄱ	(2005)	3	1. : (1) (2) (3) 2. : / / / 3. /	10.6
ㄴ	(2009)	2. 표현의 기초	1. 한글 맞춤법 2. 문장 구성의 원리 3. 단락의 형식과 원리	11.6
ㄷ	(2009, 2011)		1. 2. 2.1. - / / 2.2. - . / . / / . / . / . / . / .	9.4
ㄹ	(2009)	2	1.4. 1) 2) (1) (2) (3) 가 가 - 가 (4) 1.5. 1.6.	7.3
ㅁ	(2011)	2 7.	- / / / / / / / / 가 < > 가 / / /	19.3
ㅂ	(2013)	2 6 .	1. / 2. : , / 3. 4. : 1. : 가 / / : / / / 2. : : 1 2 3	6.6

### 3. : (同) (異)

#### 3.1

- 『 』  
:
- 과정
    - 1871 가 ( )  
1876 1 (14 )  
가
    - 1872 『 』  
24  
1901 2 (26 )
    - 2 『 』  
1996 (<-1901 )  
- 1977 :  
.  
< : : der Heiliger Vater  
der heiliger Vater >  
- .  
. ‘ ( ) ‘ ( )  
. 600 .  
.  
(FAZ) 가 .  
, , , ,  
2006  
⇐ 2004 (RDR) ( + 37 )  
- 가 가 .  
· 16 가 (KMK)  
- (2013)



## ○ 한글 맞춤법

ㄷ, ㄹ, ㅁ, ㅂ, ㅅ, ㅇ ' 15 ㄱ, ㄴ, 17  
 ㄷ ' ㅅ ' 7 가  
 1933



( 1940 ' 1940 ' (1988 )  
 가

## ○ 표준어 규정

(1912) , “ . ”  
 (1933) “  
 1988 “  
 “  
 가  
 ( )  
 (\* )) 가 가 ( (\* ) , (\* )  
 가  
 ( ) , (\* )  
 .).

## ○ 외래어 표기법

가  
 1940 가  
 (1958)  
 (1986)  
 2000 7 7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 (1941), ‘ (1948)  
 ‘ (1959), ‘ (1984) ,  
 . ‘ ,  
 (2000) ,  
 가  
 .2)  
 - (2012) .

## 4.

### 4.1.

- [ : , , , ]  
 :  
 ) /  
 :  
 , .  
 .

###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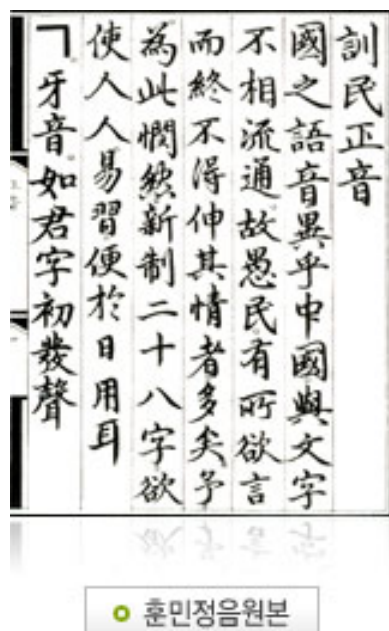
: ‘ 가 ? ’  
 가 ,

[가]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2) 가 . 1984  
 ‘ ( ) - (Mucune-Reischauer)  
 , 2000 ‘ , ( )  
 ) ( )  
 ,

가

:



● 훈민정음원본





꼬이다<sup>04</sup> [꼬이어[--어/--여](꼬여), 꼬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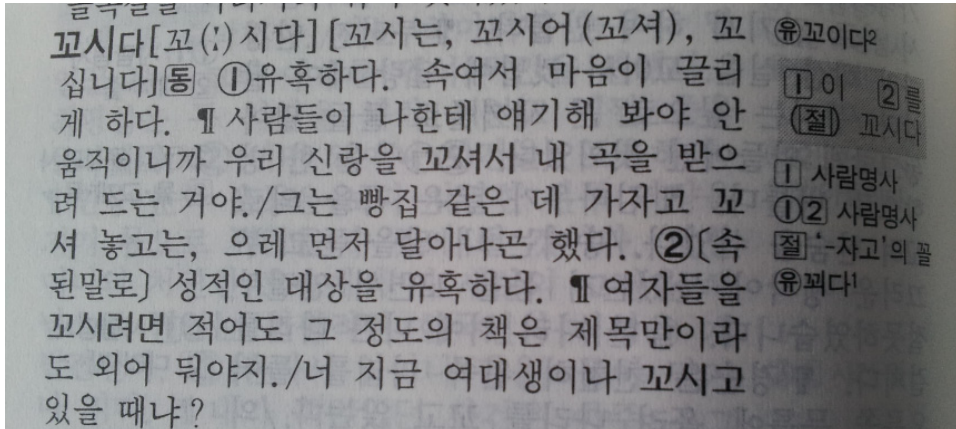
「동사」

【…을】

=피다<sup>0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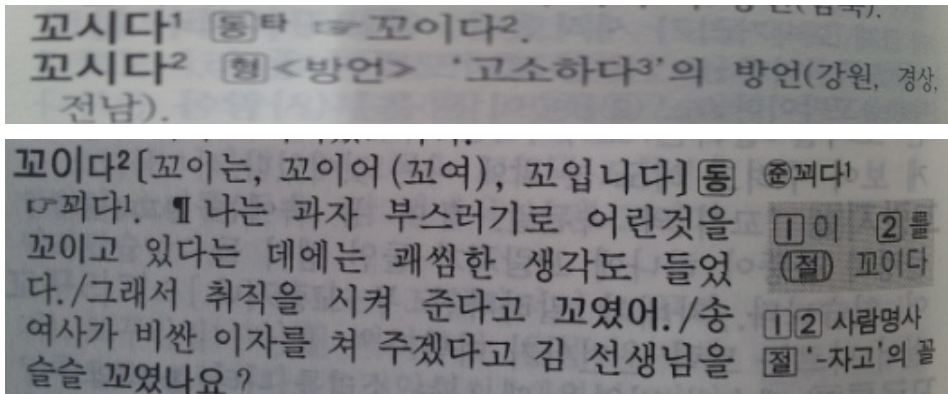
&lt;&lt;

&gt;&gt;(1998)



&lt;

&gt;&gt;(2009)



-2. ‘ ’ : - - ?

(1999)	‘ ’	가
	.	.《 , 》



(2009)	‘ (視覺障礙人)’	¶ . . ? 가
(1998)		¶ 가 .
(1991)	‘ .’	. .....
(1992) ( )	‘ 1, .’	. .....
(1992) ( )	《 》	. 가 (《 3》)

: ( , 가, ) /

<http://cafe.daum.net/yogicflyingmini0B0/RgMi/203?docid=1OtXV|RgMi|203|20120427154331&srchid=IMuKLrN500#Athumb.jpg.edit&srchid=IMuKLrN500>

## 5.

:

- (靜) (動)

### 5.1.

:

가?

가?

가?

### 5.2.

● 『표준 언어 예절』(2011) ⇐ 『표준 화법 해설』(1992)



『 (1992) 』  
 『 (2011) 』  
 . (20~50 ,  
 .)

『 (2009) ( : %) 』

	20	30 ~ 40	50		
	<b>95.7</b>	<b>78.0</b>	<b>65.3</b>	<b>62.1</b>	<b>92.6</b>
	4.3	18.7	28.8	32.0	6.6
	0	3.3	5.9	5.9	0.9

『 (2010) ( : %) 』

	<b>66.7</b>		62.2
	29.4		<b>32.7</b>
	3.7		5.0
( , , )	0.2	( , )	0.0

(2) 가 ‘ (??), ‘ (??)

[ 1-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2009) 『 ( ) 』 (2010) 가 . ( ) , , . ) , , .

(4) ‘          ; ‘          ’  
‘          , ‘          ’  
‘          , ‘          ’  
가  
. ‘          ’  
( ‘          ’ )

(5) ‘- -’ (‘ . (??)’ ‘ . (??))

‘ , ‘  
‘ ; ‘  
‘ - -’  
< (2010)> ,  
60%  
‘ - ’

『 』(2010) ( : %)

“ ”	“ ”
	4.7
	20.9
	16.4
	39.6
	18.4

“ ”	“ ”
	27.3
	35.8
	19.7
	10.6
	6.6

(6) , ‘ - ’

가 ‘ - ’

(7) ‘ + ’

가

가

(8) ‘ ’

가

가

가

## (9) (1992, 2011)

‘ / , . 가  
 . ,  
 가 ‘ / , / 가  
 . ,

## (10)

가  
 )  
 )  
 , ,

## (11)

	[ .] 가 ?	
	[ .] (罔極) ?	

- , 2011 ‘ ,  
 - (2011). 『 』.

## 6. :

## 6.1.

가 가?

가?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3)  
 ,

가 .  
 . 가 가 가  
 . 가  
 (가ㄱ)  
 (語根)  
 ‘ - ’  
 ‘ - , - ’  
 ‘ - , - ’  
 가 ( )  
 ‘ - , - ’

(가) ㄱ.

‘ , ’

•  
 •

< , 2002:87 >

3) 표준 발음법 제5항에서는 ‘ㄴ’ 발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본래 ‘ㄴ’은 [-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해야 하며,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ㅇ]로,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함도 허용하고 있다.

L. 2009

13

13. 국어 파생어를 이해하기 위한 교수·학습 활동의 개략적인 계획이다. 이에 대한 평가와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수·학습 과정 및 내용	예시 자료
---------------	-------

(가) 도입

○ ㉠ 파생어와 합성어의 정의 세척인	코웃음: 눈웃음
○ 접사의 종류 제책인: 접두사, 접미사	(생략)

(나) 전개

○ 접두 파생어	(생략)
○ 접미 파생어	(생략)
○ 특이한 파생어	
- ㉡ 파생어 구조가 특이한 경우	만이, 새롭다
- ㉢ 접두사가 이형태를 가지는 경우	되물다/뒤얹다, 현손/인손에
- ㉣ 합성어의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늦잠, 쇠고기, 작은이버지
⋮	⋮

(다) 정리

○ ㉤ 평가

※ 다음 중 파생어가 아닌 것은?

㉠ 늦잠 ㉡ 멍신 ㉢ 군소리 ㉣ 새롭다 ㉤ 깨틀이

- ① ㉠의 예는 모두 직접성분 분석의 결과가 파생어와 무관하므로 이 가운데 한 예를 '비웃음'으로 교체한다.  
 ② ㉡의 예는 어근과 접사가 통합한 일반적인 접미 파생어들이므로 이들을 ㉠의 예로 다룬다.  
 ③ ㉢의 예들은 한 접두사의 이형태로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를 '뒤물다/뒤얹다, 시뵈절다/식누랗다'로 교체한다.  
 ④ ㉣의 첫째 직접성분을 달리 파악한 사전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문제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도록 한다.  
 ⑤ ㉤의 문항은, 교수·학습 내용을 고려할 때 정답이 없을 수 있으므로 '㉠ 늦잠'을 분명한 단일어나 합성어의 예로 교체한다.

( ) ' - , - ' 『 (1999)

ㄱ. -01 「 」

「1」 (( )) ' , '

「2」 (( )) ' , '

ㄴ. -02 「 」

(( )) ' 가 , '

. ㄱ / / .

- (2011) .

## 6.2.

- - - 가





[가]

(1992. 12.)		×
(2011. 12.)		
(2012. 03.)		×
(1999 - )		?

[ 나 ]

《 》

‘이어진문장’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1건)

이어진문장(---文章)

「명사」 『언어』

둘 이상의 절(節)이 연결 어미에 의하여 결합된 문장. 종속절(從屬節)과 주절(主節)로 이루어지며, 대등하게 이어지는 것과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꽃이 피고 새가 운다.’, ‘여름이면 날이 덥다.’ 따위이다. ≡연합문·이은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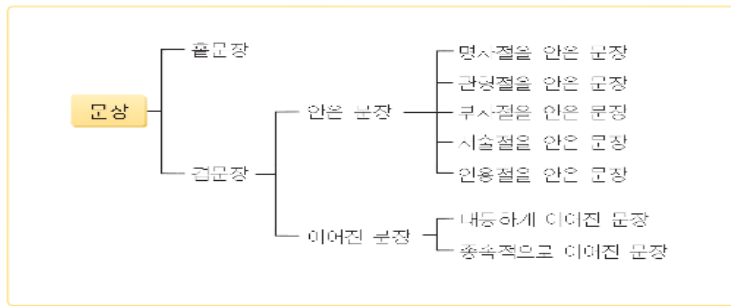
‘안은문장’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1건)

안은문장(---文章)

「명사」 『언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지며 성분 절을 가진 문장.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오래전에 증명되었다.’에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안긴문장이고, 전체의 문장은 안은문장이다. ≡가진월·내포문·안은월·유속문·포유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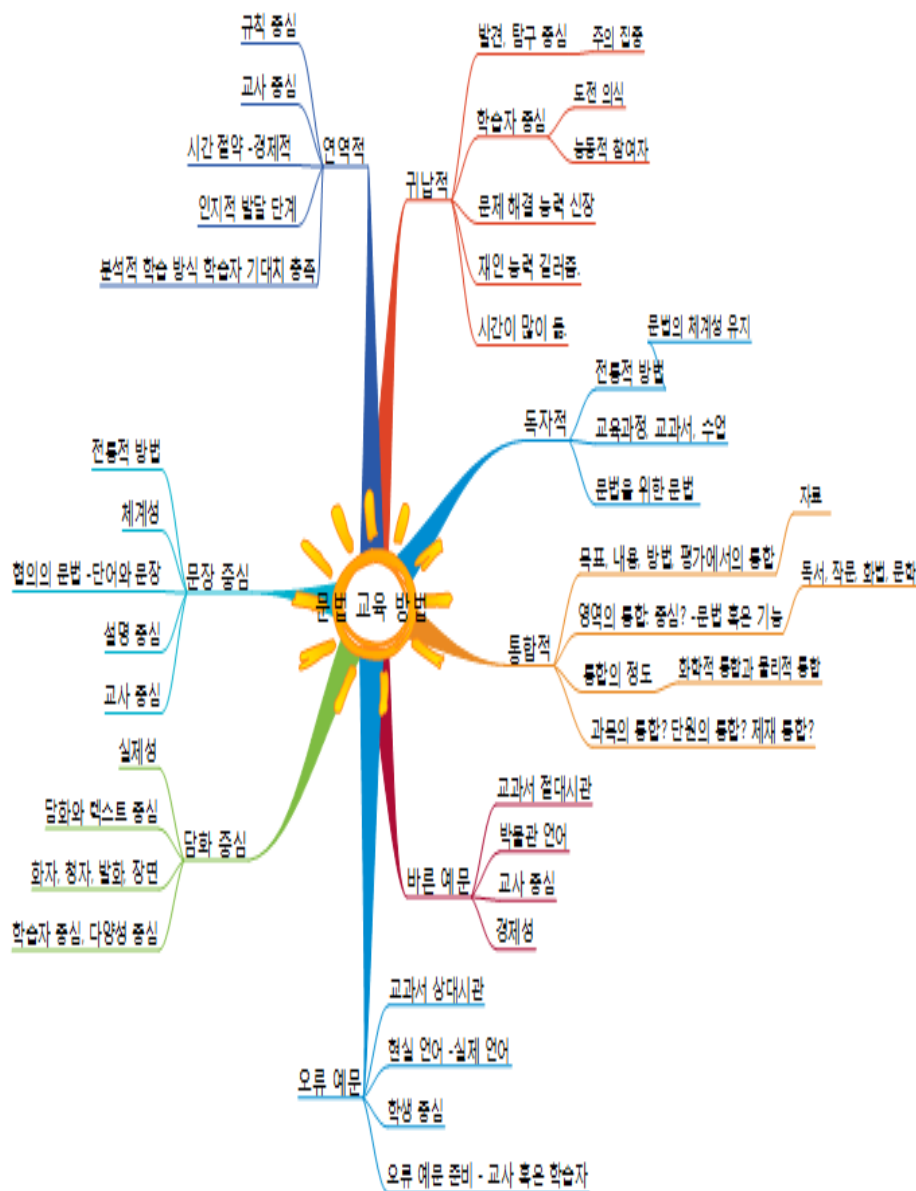
(2012:23)

지식 ▶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과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과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을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바깥이 잘 보이게 창문을 열어서.’와 같은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문장의 종류는 어미의 종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보게 되면 ‘-게’를 연결 어미로 보게 되고,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보게 되면 ‘-게’를 부사형 어미로 보게 된다.

(2012:93)

: (2008) 87가



## [가]

## • 형태에 관한 것

## 맞보기

## • 다음 밑줄 친 단어들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고쳐 보자.

- 우리는 조금씩 가까와지고 있다.
- 다리를 다쳐 거름을 걸을 수 없었다.
- 꼭꼭이한 묘목에서 싹이 돋았다.
- 카레에 넣으려면 살고기가 좋다.

체언과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결합, 복합어의 형성과 같은 형태론적 과정에도 한글 맞춤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체언과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합성어나 파생어와 같은 복합어의 경우, 어원이 분명한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러나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복합어는 소리대로 적는다. 복합어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은, 복합어의 어원을 글자에 반영하여 의미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어간의 끝 'ㅂ'이 'ㄱ'로 바뀔 경우 바뀐 대로 적어야 하므로, '가까와지고'는 '가까워지고'로 적는다.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므로, '거름'은 '결음'으로 적는다.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므로 '꼭꼭'은 '꼭꼭이'로 적는다.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어야 하므로, '살고기'는 '살코기'로 적는다.

## 적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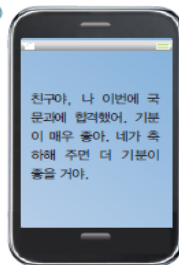
## • 다음 중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골라 보자.

- 그는 (괴로와 /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 아가야, 나옴나라 (달맞이 / 달마지) 가자.
- (칼달 / 칼날)이 무뎠져 고기가 잘 썰리지 않는다.
- 추석에는 (해왈 / 햅쌀)로 밥을 지어 차레를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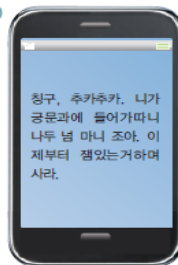
## [ ]

7 다음은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활동을 해 보자.

가



나



(1) (가)와 (나)의 표기상 특징을 말해 보자.

(2) (나)의 표기 방식이 쓰인 이유를 설명해 보자.

(3) (나)의 표기 방식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토론해 보자.

[ ]

- 5 다음은 국립 국어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이다. 이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질문** ‘깨끗이’가 맞나요, ‘깨끗히’가 맞나요?

**답변** ‘깨끗이’가 맞습니다. ‘-이’와 ‘-히’로 끝나는 부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로만 소리가 나면 ‘-이’로 적고 [히]로도 소리가 나면 ‘-히’로 적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발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법적인 기준에 의해 일차적인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이’로 적는 경우

- 접어 명사 뒤 **예** 간간이, 겹겹이, 나날이, 찜찜이
- 부사 뒤 **예** 더욱이, 오히려, 일찍이
- ‘ㄱ’ 받침 뒤 **예** 깊숙이, 고즈넉이, 끔찍이, 가뜩이, 밀찍이
- ‘ㅅ’ 받침 뒤 **예** 남짓이, 버젓이, 번듯이, 지긋이
- ‘ㅂ’ 불규칙 용언 뒤 **예** 가벼이, 괴로이, 쉬이, 외로이
- ‘-하다’가 붙지 않은 용언 어근 뒤 **예** 같이, 굳이, 많이, 실없이

② ‘-히’로 적는 경우

- ‘-하다’가 붙는 어근 뒤 **예** 급히, 속히, 엄격히, 꼼꼼히, 열심히

그러나 위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1 다음 대화에서 바른 표현을 골라 보자.

유정: 한글 맞춤법을 (만드시/만드시) 지켜야 할까?  
 승현: 우리가 국어 생활에서 한글 맞춤법을 잘 지키는지 (곰곰이/곰곰히) 생각해 보자.  
 유정: (솔직이/솔직히) 한글 맞춤법을 잘 지키지 않아도 말은 통하잖아.  
 승현: 글썄, 그럴까?

- 2 1의 대화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한글 맞춤법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해 보자.



(2012:60, 63)

## 가

## (1) 평가의 원리

- ㄱ. 타당도: 평가하려는 구체적인 목표나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ㄴ. 신뢰도: 평가 결과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ㄷ. 실용도: 평가의 계획·시행·채점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 (2) 지필 평가 문항의 종류

선다형, 연결형, 진위형, 완성형, 단답형 ; 서술형, 진술형

## (3) 구술 평가 문항의 종류

개인발표형, 짝대화형, 면접형, 상황형

## (4) &lt;개인발표형 구술 평가지&gt;

항목	기준	(나쁨 ◀) 평가 (▶ 좋음)	가중치	합계
유창성	표현이 유창하다	1 2 3 4 5	1	
정확성	피동 접미사를 설명한다	1 2 3 4 5	1	
	피동 보조 동사(-아지다)를 설명한다	1 2 3 4 5	1	
	목적어의 주어 이동을 설명한다	1 2 3 4 5	1	
	주어가 부사어로 변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1 2 3 4 5	1	
다양성	용례를 주어진 것보다 더 든다	1 2 3 4 5	1	
	문장을 다양하게 사용한다	1 2 3 4 5	1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한다	1 2 3 4 5	1	
태도	시간을 잘 지킨다	1 2 3 4 5	1	
	능동 및 피동 표현에 대해 가치 부여를 한다	1 2 3 4 5	1	
총점			10	

- (2008)

## 7. 가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한 예: 성(姓) 표기에서 두음 법칙의 예외 적용

## 대법원호적예규 제722호(2007. 7. 20. 결재)

##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일부개정예규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호적예규 제52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의 후단에 “다만,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는 등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하고, “(예) 성이 “李, 柳, 羅”...인 경우는 “이, 유, 나...”로 표기”를 삭제한다.

5. 나.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7. 8. 1.부터 시행한다.

:

[ ]朴 " 69% 6·25 ' ' “  
nigh\*\*\*\*|06.17 19:37|

가?

<http://zum.com/#!/news=009201306177413164&dir=top&t=0>

북침 (北侵)

활용 정보:

「명사」

남쪽에서 북쪽으로 침략함.

『한국 전쟁이 남한의 북침으로 시작됐다고 잘못 기술한 책도 있다.』

「참고 어휘」 남침01(南侵).

북침하다(北侵--)

「동사」

남쪽에서 북쪽으로 침략하다.

『북측은 6·25 전쟁 때 남측이 먼저 북침했다는 주장을 폈다.』

:

가

『

1, 2』

< >

(2011). 『  
『 ( , ) 』.  
(1980). 『 ( ) 』.  
(2001). 『  
(1999). 『  
(2008). “  
試論.” 『 21.  
(2008). 『  
(2011). “ ” 『 89.  
(2012). 『 ( 3 ) 』.  
(2008). 『  
『  
(2012). 『  
1, 2 』.  
(2013). 『 23-1.  
(2010). 『  
(2013). 『 54.  
(2009). 『 25.





**기획·편집** : 최태경(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장)  
김문오(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 학예연구관)

**차례**: 국어 어문 교육의 과제: 민현식(국립국어원장)  
한글 맞춤법의 이해와 실제: 정호성(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장)  
띄어쓰기의 이해와 실제: 유하라(국립국어원 전문위원)  
표준어 규정에 대한 이해: 김문오(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국어사전과 국어 정보 활용법: 이현주(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 로마자 표기법: 정희원(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진흥과장)  
대학 교양 국어 강좌와 어문 규정 교육: 이관규(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국립국어원 2014-03-05

## 대학 강사의 국어 능력 증진을 위한 국어문화학교 특별 과정 교재

---

2014년 2월 12일 인쇄

2014년 2월 14일 발행

발행인: 민 현 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3동 827)

<http://www.korean.go.kr>

전화: (02) 2669-9738

---